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6호 2007.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발해의 건국, 변천 그리고 유민

정병준 |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7

윤현철 |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41

김윤배 · 권용인 · 이소희 |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땃목담사를 통한 발해의 동해해상항로 연구 67

박홍갑 | 발해 유민 大氏의 한반도 정착 과정 109
- 영순현과 영순대씨를 중심으로 -

김동우 | 汕耘 張道斌의 『渤海太祖』 연구 141

이병진 | 渤海 建築遺蹟에 관한 南韓의 研究成果 173

논문

남의현 | 明 前期 奴兒干都司의 設置와 衰退 205

이재정 | 『華音啓蒙』을 통해 본 개항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 237

설립

정영진 | 발해의 建國年代와 建國地, 建國集團과 國號에 대하여 285

서평

김은국 | 『渤海國交通運輸史研究』(尹鉉哲 著, 2006, 北京: 華齡出版社) 31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동북아

동북아
NORTHEAST

특 집

발해의 건국, 변천 그리고 유민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정 병 준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고구려의 멸망을 전후하여 많은 고구려 사람이 唐으로 이주하였다. 거기에는 물론 자발적으로 귀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唐朝의 정책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의 운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당의 內地에 배치되어 일반민으로 編戶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이민족과 대치하는 변방에 배치되어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된 경우이다.

당의 변방에는 고구려인 이외에도 당조에 內附하거나 끌려간 많은 이민족들이 당조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종족별로 구성된 羈縻府州 또는 '城傍'으로 편제되어 자신들의 습속에 따라 생활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되었다. 이때의 성방은 기미부주와는 다른 일종의 쉰전문적인 이민족 군사집단을 말한다. 당대 성방 사람 대부분은 유목민들로 평상시에는 원래의 部落조직을 보존하면서 兵牧合一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당의 군대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변경군을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당이 대외원정에 나설 때 함께 종군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¹⁾

당의 변방에 배치되었던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는 성방에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예는 遼西의 營州에 거주하였던 고구려 유민 王思禮의 행적이다. 기록에 그는 ‘營州城傍高麗人’이라 적혀 있다.²⁾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성방 사람들은 ‘城傍高麗人’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당의 성방에 관한 專論을 발표한 중국의 李錦繡는 왕사례 이외에도, 安史의 亂 이후 山東지역을 지배하였던 李正己 일가 역시 영주의 ‘성방고려인’이었고, 그와 함께 영주에서 산둥으로 이동하였던 2만여 명의 병사 중에도 영주의 ‘성방고려인’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³⁾

필자는 이에 더해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도 영주의 성방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⁴⁾ 그러나 그때는 간략하게 이유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다. 만약 대조영이 영주의 성방이었다면, 그는 영주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일원으로서 군사활동에 종사하였던 것이 된다.

발해국을 세운 대조영의 出自와 건국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나와 있다.⁵⁾ 하지만 영주 시절의 대조영과 그 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의 영주로 이주한 대조영과 그 집단이 그곳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살았으며, 또 그것이 발해국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고구려 유민의 이주와 대조영

668년 9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많은 고구려인이 당으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舊唐書』 권5, 高宗本紀下, 總章 2년(669) 5월 조를 보면

高麗戶 28,200, 車 1,080乘, 소 3,300頭, 말 2,900필, 낙타 60두를 이주시켰다. 장차 內地로 옮기기 위해 萊州와 營州 2주로 보낸 후 江·淮 이남 및 山南·并·涼 以西 諸州의 空閑處에 나누어 安置하게 하였다(92쪽).

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양자강과 회수 이남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였던 반면 산남·병주·양주 이서의 공한 지역은 변경 내지 準변경지역에 속하였다. 그리고 ‘內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전형적 농경지대와 변경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말로 당의 영토라고도 할 수 있다.⁶⁾ 또 『資治通鑑』 권201, 총장 2년 4월 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高麗의 民이 離叛하는 경우가 많아, 勅을 내려 고려 호 38,200을 江·淮의 남쪽 및 山南·京西 諸州 空曠之地로 옮기게 하고, 貧弱한 자들은 남아 安東을 지키게 하였다(中華書局, 6359쪽).

여기서는 사민한 民戶의 숫자가 38,200으로 앞의 『구당서』보다 많았다고 하지만, 관련 연구자들은 거의 『구당서』의 28,200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

1) 李錦繡, 1998(원래는 『學人』 8, 1995), 「“城傍”與大唐帝國」, 『唐代制度史略論稿』,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56~257쪽, 280~281쪽(이하 出典은 처음에만 적겠다).

2) 『舊唐書』 권110, 王思禮傳, 中華書局, 3312쪽.

3) 李錦繡, 1998, 앞의 글, 290쪽.

4) 鄭炳俊, 2005a,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 『고구려연구』 19, 261쪽의 각주 39.

5)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연구』, 신서원, 22~34쪽 참조.

6) 기존의 연구자들은 『舊唐書』 권5의 해당 기사에 보이는 ‘內地’를 그대로 원용하여 고구려 유민들이 끌려간 곳이 ‘당 내지’였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숙, 2004,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3, 79쪽; 임상선, 2005, 「발해의 건국과 국호」, 윤재운 등,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16쪽 등. 그러나 일 반적 표현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자칫 당 강역 안에서의 내지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한편 『五代會要』 권30, 渤海條를 보면, “渤海靺鞨, 本高麗種,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散居中國”(上海古籍出版社, 473쪽)이라 하여, 고구려인이 끌려간 ‘內地’가 中國으로 적혀 있다.

다.⁷⁾ 이는 멸망 당시 고구려의 編戶 숫자였던 697,000의 약 1/24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당조가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킨 이유에 대해 ‘고구려 유민들이 당에 반기를 들어 이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⁸⁾

그후 당으로 遷徙된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高藏이 당으로부터 遼東州都督·朝鮮王에 임명될 때 함께 遼東으로 돌아왔다가, 고장의 모반 기도가 발각되면서 다시 중국 ‘내지’로 나누어 배치되었다. 즉 『자치통감』 권202, 高宗 儀鳳 2년(677) 2월 조에

工部尙書 高藏을 遼東州都督에 임명하고 朝鮮王에 봉해 요동으로 돌아가서 高麗 餘衆을 安輯하게 하고, 이전에 諸州에 배속되었던 고려인을 모두 고장과 함께 돌려보냈다. …… 고장이 요동에 이르러 謀叛을 꾀해 몰래 鞞靱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소환하여 耶州로 옮겨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은 河南·隴右의 諸州로 散徙시키고, 貧者는 安東城傍에 두었다(6383쪽).

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 기사에 보이는 ‘河南’⁹⁾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말하듯이 黃河 중하류 이남 지역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통과하는 황하 상류 지역의 남

7) 金文經, 1984, 「唐代之高句麗遺民徙民策」, 『唐代之社會와 宗教』, 송진대학교출판부, 19~20쪽; 耿鐵華, 박창배 역, 2004,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상, 고구려연구재단, 451쪽; 孫文範·孫玉良 主編, 2004, 『중국 역사연구 번역자료 2-고구려역사 지식-』, 고구려연구재단, 149쪽 등.

8) 日野開三郎, 1984a, 「高句麗國遺民反唐分子之處置」,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 三一書房, 58~59쪽; 金文經, 1984, 앞의 글, 「唐代之高句麗遺民徙民策」, 19~20쪽 등.

9) 『舊唐書』 권199 상, 高麗傳에도 『자치통감』 권202의 해당 기사와 거의 같은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에도 ‘河南’이라는 지역 명칭이 보인다. 즉 “儀鳳中,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鎮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鞞靱相通謀叛. 事覺, 召還, 配流耶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高藏以永淳初卒, ……”(5328쪽)이라고 하였다.

부, 즉 오르도스[河套] 위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전자가 타당하다면 이번에도 고구려 유민의 상당수는 전형적인 농경지역에 배치되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후자가 타당하다면, 이전과는 달리 고구려 유민 모두가 당의 변경지역에 배치되었던 것이 된다. 현재로서는 양자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河南·隴右의 諸州로 散徙시켰다”는 것으로 볼 때, 상당수의 고구려 유민이 당의 변경지역에 배치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들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고찰을 한 김현숙의 2001년 논문 등에 의하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구려인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중국사회로 흡수·동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한다. 즉 당대 묘지명과 사료를 보면, ①유민 1세대인 泉男生은 遼東郡平壤城人, 高慈는 朝鮮人, 泉獻誠은 其先高句麗國人, 泉男産은 遼東朝鮮人, 高足西는 遼東平壤人, 高玄은 遼東三韓人이라 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도 보장왕의 후손인 高震과 그의 넷째 딸, 그리고 高欽德의 묘지명에는 渤海人이라 적혀 있다. 또 사서에 기록된 高仙芝, 王毛仲, 王思禮, 李正己는 모두 高麗人이라 명기되어 있다. ②이에 비해 시간이 조금 지난 泉毖의 묘지명을 보면 京兆萬年人이라 하고, 高震은 중국인인 眞定侯氏와 결혼하고 딸도 중국인인 鄆陝에게 시집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또 高欽德의 묘지명에는 두 명의 부인 이름이 보이는데, 모두 중국인이다. 그러면서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은 급속도로 중국사회에 동화되었고 마침내 그들 자신의 선조가 고구려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¹⁰⁾

이러한 관점은 크게 보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인들을 모두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전형적인 농경지역에 배치되어 편호되었던 고구려 유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중국사회에 동화되었겠지만, 변경지역에 배치된 고구려 유민들은 일반 편호와 다른 방식으로 편제되어

10) 金賢淑, 2001, 「中國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23, 92~94쪽; 김현숙, 2004, 앞의 글, 76쪽, 88~90쪽 등.

오랫동안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뒤에 기술하듯이, 당조가 필요할 때 軍事에 동원하기 위해 특수한 군사조직으로 편제한 후 원래의 부락조직을 온존시켰기 때문이다.¹¹⁾ 바꾸어 말하면 당조는 고구려인의 야성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그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구려 유민으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 중 군인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군대 이외에는 달리 출세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²⁾ 이것은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당수가 처음부터 변방의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고구려 유민들 중 군인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유달리 많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특수한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요서지역의 영주로 이주하였다. 『구당서』 권199 하, 北狄列傳, 渤海靺鞨傳에

대조영은 본래 高麗別種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家屬을 거느리고 영주로 徙居하였다(5360쪽).

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서 家屬이란 宋基豪가 지적하였듯이 “혈연 가족뿐 아니라 그가 거느리던 무리 전체”를 의미한다¹³⁾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대조영 집단이 자발적으로 이주하였는지 또는 강제로 이주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이주당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조영 집단 역시 강제로 이주당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11) 李錦繡, 1998, 앞의 글, 256~257쪽.

12) 金賢淑, 2001, 앞의 글, 83~84쪽, 92쪽 등.

13)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대조영이 영주로 이주할 때에 家屬을 이끌고 갔다는 기록이 『舊唐書』에 보인다. 여기서 가족이라 한 것은 혈연 가족뿐 아니라 그가 거느리던 部衆 전체를 의미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의 지위가 首領 또는 酋長이었고, 발해를 건국할 때도 집단을 영도하였다. 속말말갈 주장인 突地稽가 8部, 勝兵 수천 명을 이끌고 수나라로 들어갔던 사실도 참고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李盡忠이나 孫萬榮처럼 營州城 부근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을 것이다”(26쪽).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대조영 집단이 영주에 정착하였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고구려 유민의 강제 이주에 대해 기술한 앞의 『구당서』 권5와 『자치통감』 권201의 기사에는 영주에 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송기호 등은 영주에 상당수의 고구려 유민이 거주하였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원래 이곳은 고구려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던 경우지¹⁵⁾였으므로,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남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¹⁶⁾ 이에 따르면, 대조영 등의 고구려인들이 영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당조의 정책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중국 각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우연적 결과인 셈이다. 하지만 뒤에 기술하듯이, 영주에 거주하였던 고구려인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고 또 그들이 당조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본다면, 대조영 일행을 비롯한 고구려인들의 영주 정착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조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¹⁷⁾

대조영이 과연 고구려인이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조영이 고구려계 변경인이었다고 보는 견해와 고구려인화한 말갈계 주민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고 해도 고구려가 순수 고구려인 또는 고구려 문화를 축으로 한 다민족 국가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대조영을 광의의 고구려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14) 宋基豪는 『渤海政治史研究』에서 “대조영 집단이 자발적으로 이주하였는지, 아니면 강제로 이주당하였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런데 영주에는 대조영 일행 외에도 다른 고구려인들이 있었다. 王思禮·李正己·高仙芝 등이 그러하며, 이밖에 高麗兵도 있었다. …… 따라서 대조영 일행도 강제로 이주당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나중에 대조영 집단이 요동으로 도망해 온 것도 강제적이었음을 암시한다”(26쪽)라고 말한다.

15) 본 절의 첫 부분에 인용하였던 『舊唐書』 권5, 高宗本紀下, 總章 2년 5월 조 참조.

16)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的 集團을 중심으로 -」,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97쪽; 宋基豪, 1995, 앞의 책, 26쪽; 임상선, 1999, 앞의 책, 47~48쪽.

17) 日野開三郎은 고구려 유민이 본국과 가까운 영주 등에 배치되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조가 그들을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보냈다고 한다(1984a, 앞의 글, 58~59쪽).

III. 영주의 고구려인 군사집단

당조는 이민족을 변방에 집단으로 배치하여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 '以夷制夷'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당대에는 특히 그 규모가 컸고, 또 이들이 대외 원정에 중군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당의 세계제국 건설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고구려 유민들도 당의 변방에 배치되어 군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 보인다. 즉 『구당서』 권104, 高仙芝傳은

고선지는 본래 高麗人이다. 父 舍雞는 처음에 河西軍에 복무하였고 시 간이 지나 四鎮十將·諸衛將軍이 되었다. …… 고선지는 젊어서 父를 따라 安西에 이르러 父의 功으로 游擊將軍이 되었다(3203쪽).

라고 밝히고 있다.¹⁸⁾ 고사계가 처음에 당의 서쪽 변경지대에 설치된 河西軍에 복무하다가 다시 그 서쪽의 安西軍으로 가서 軍將이 되었고, 아들 고선지도 함께 안서로 따라가 부친의 공적으로 軍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사계와 고선지는 이전에 하서지역으로 이주되었던 고구려인이거나 그 후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이 부친을 따라 함께 옮겨다니고 부자가 대를 이어 軍장이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들은 처음부터 세습적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唐六典』 권5, 尙書兵部, 兵部 郎中 조의 규정이다. 여기에는

秦·成·岷·渭·河·蘭 6州에 高麗兵과 羌兵이 있다. (原註) 모두 해 당 주의 上佐 1인이 전적으로 統押하며, 매년 두 번에 걸쳐 敎練하고

18) 『新唐書』 권135, 高仙芝傳, “高仙芝, 高麗人. 父舍雞, 初以將軍隸河西軍, 爲四鎮校將. 仙芝年二十餘, 從至安西, 以父功補游擊將軍. 數年, 父子並班”(中華書局, 4576쪽).

部伍를 다스리게 한다. 만약 警急한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 구원하게 한다. 諸州의 城傍子弟도 역시 정기적으로 敎習시키는데, 매년 가을에 本軍에 소집하여 봄에 돌려보낸다(中華書局, 157쪽).

라고 적혀 있다. 당의 서쪽 변경인 隴右 지역의 진주·성주·민주·위주·하주·난주 6주에 고구려인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해당 州 관리의 통제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다가 유사시에 군사에 동원되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때 子弟란 병사를 가리키며, 성방자제는 '성방' 병사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사 연구자들은 '성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성 부근' 정도로 이해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唐代 兵制史를 전공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성방'이 당 전기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兵種의 하나로서 주목되어 왔다.¹⁹⁾ 요컨대 성방이란 당조가 內附한 이민족들을 변방 軍鎮의 성 부근에 안치하여 원래의 部落조직을 온존시키며 필요할 때 군사로 동원하였던 일종의 兵牧合一의 兵種을 가리킨다.²⁰⁾ 李錦繡에 의하면, 앞의 『당육전』에 보이는 '고려병'도 '城傍兵'을 이르는 말이다.²¹⁾

19) ①日野開三郎은 성방은 당대에 발달하였던 官兵의 民兵인 團結兵과 거의 같은 병종이었는데, 단결병이 중앙의 명령에 따라 州 단위에서 편성·지휘하였던 민병으로서 國軍의 일부를 이루었던 데 반해 성방은 주의 자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편성·통합하였던 민병, 즉 지방민병으로서 단결병의 선구가 되었다고 보았다. ②方積六은 성방 관련 기사는 河北과 朔方 등 이민족이 혼재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이때 이민족이란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기록에 보이는 '安東城傍', '營州城傍', '范陽城傍'은 안동·영주·범양 부근의 북방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말하며, 시기적으로는 玄宗 天寶年間 이전까지만 보이고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방자제는 곧 蕃兵 무리였고, 그 명칭은 그들이 원래 안동성방 등에 거주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③張澤咸은 城傍兵은 대략 軍城鎮戍 부근에서 소집된 土兵이며, 諸州의 성방자제는 변방 주현들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설치되었던 성방병을 말한다고 하였다. ④李錦繡는 당에 內附한 蕃族을 軍鎮의 성 부근에 안치하여 세금을 가볍게 하고 部落조직을 보전시켜 필요할 때 군사로 동원하였던 兵牧合一의 병종이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성방은 騎射에 능하여 唐軍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였다고 밝혔다.

20) 鄭炳俊, 2005a, 앞의 글, 255~256쪽.

21) 李錦繡, 1998, 앞의 글, 256쪽. 한편 『唐六典』 권3, 戶部郎中 조에는 “經稅諸州·高麗·百濟應差征鎮者, 並令免課·役”(77쪽)이라는 기사도 보인다.

그렇다면 하서의 고선지 가족 역시 성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①하서와 농우 모두 비슷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변경지역이었고, ②두 지역 모두 고구려가 멸망한 무렵부터 吐蕃의 공격을 받았으며,²²⁾ ③하서에도 농우와 마찬가지로 성방이 있었고,²³⁾ ④蕃兵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우보다 하서가 더 높았으며,²⁴⁾ ⑤고선지와 王思禮 모두가 군장이었던 부친을 따라 이주하여 대를 이어 군인이 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고선지 가족 외에도 하서에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성방인이 더 있었을 수 있으며, 또한 고사계가 하서에서 安西로 갈 때 하서에 있던 고구려인 성방의 상당수가 함께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대 영주에는 ‘성방고려인’이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보인다. 바로 왕사례의 예가 그것이다. 즉 『舊唐書』 권110, 왕사례전을 보면

왕사례는 營州城傍高麗人이다. 父 虔威는 朔方軍將이 되어 翫戰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왕사례는 젊어서부터 戎旅를 익혔고 節度使 王忠嗣를 따라 河西로 가서 …… (中華書局, 3312쪽).

라고 하여, 왕사례의 부친인 왕건위가 삭방군의 군장이 되어 ‘군사훈련’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또 왕사례도 젊어서부터 군사를 익혀 군인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²⁵⁾ 여기서 왕사례가 ‘영주성방고려인’이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왕사례는 원래 영주성 주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營州都督府의 지휘를 받던 고구려인들로 구성된 군사적 집단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잠시 왕사례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부친 왕건위가 遼西의 영주에서 삭방군으로 옮겨가면서 영주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삭방군에서 부친의 뒤를 이어 군장이 되었다가 다시 河西軍과 隴右軍으로 차례로 옮겨가 토번과

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關西兵馬使·河源軍使가 되었다. 즉 왕사례는 당의 성방으로서 계속 당의 변경을 돌아다니며 다른 이민족 국가와의 전쟁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도 ‘영주성방’이 그와 함께 행동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주변 또는 휘하에 항상 이민족 병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던 중인 玄宗 天寶 14년(755) 11월에 范陽·平盧·河東節度使를 겸임한 安祿山이 당조에 반기를 들어 약 8년 동안 중국을 전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른바 ‘安史의 亂’(755~763)이 일어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 당의 유력한 장수의 일원이 되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史思明이 반란을 이어가던 肅宗 上元 원년(760) 5월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다.²⁶⁾

영주의 ‘성방고려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李正己이다. 그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80여 년이 지난 후인 안사의 난 초기에 영주의 平盧軍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즉 안사의 난이 일어난 직후 반란군 2대 본거지 중 하나였던 영주의 평로군이 안녹산을 이반하여 당조에 귀순할 때 이정기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얼마 후 그는 평로절도사 侯希逸와 함께 군사 2만여 명을 이끌고 산동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반란이 종결된 뒤인 代宗 永泰 원년(765) 5월에 후회일을 몰아내고 스스로 절도사에 올라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반독립적 藩鎮을 건설하였다.²⁷⁾

李錦繡는 이러한 이정기의 행적을 바탕으로 이정기와 그 주변의 많은 군인들 역시 영주의 ‘성방고려인’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이정기에 관한 자세한 고찰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기보다는 영주에 다수의 고구려인 군인들이 있었고, 그곳에 ‘성방고려인’이 있었던 점을 연결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하지만, 사실 이정기의 행적만 가지고서는 그와 주변의 군인들이 성방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22)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5~8쪽; _____,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88~94쪽 참조.

23) 李錦繡, 1998, 앞의 글, 267~268쪽.

24) 王永興, 2003, 『唐代前期軍事史略論稿』, 崑崙出版社, 108쪽, 163쪽 등.

25) 『新唐書』 권147, 王思禮傳, “王思禮, 高麗人, 入居營州. 父爲朔方軍將”(4749쪽).

26) 鄭炳俊, 2005a, 앞의 글, 282~284쪽.

27) 鄭炳俊, 2002a, 「安史의 亂과 李正己」, 『동국사학』 37; _____, 2002b,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 -代宗時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4 등.

이에 후희일이 영주에 있었던 시기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련 단서를 조금이라도 찾아보기로 하자. 후희일의 모친은 이정기의 고모였다.²⁸⁾ 현종 천보 말기에 그는 평로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안동도호부 관하 군진인 保定軍의 軍將이 되었다. 보정군이 위치한 곳은 안동도호부의 치소가 있던 遼西故城이었고, 保定軍使는 安東副都護가 겸임하고 있었다. 당시 안동도호부는 도호부의 실질적 책임자였으며, 보정군은 도호부의 주력군을 이루고 있었다.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킨 직후, 안동도호부·보정군사 마영찰이 안녹산을 이반하였다가 안녹산의 부하였던 呂知誨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러자 평로군의 劉客奴 등이 안동도호부의 군장인 王玄志 등과 함께 여지회를 죽이고 평로 변진을 들어 당조에 투항하였다. 이때 후희일도 왕현지와 함께 거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²⁹⁾

기록에는 이러한 후희일의 초기 행적과 이정기의 행적이 별도로 적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종사촌 관계였고 중요한 고비마다 합심하여 대응하였던 것으로 볼 때, 왕현지가 거사할 당시 이정기도 후희일과 함께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정기 역시 보정군의 군장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³⁰⁾

그리고 이정기도 안동도호부의 성방 또는 성방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동도호부에 '성방고려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高藏의 모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용하였던 『자치통감』 권202, 고종 의봉 2년(677) 2월 조에 “(고장을) 소환하여 邳州로 옮겨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은 河南·隴右의 諸州로 散徙시키고, 貧者는 安東城傍에 두었다”고 하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때의 “안동성방에 두었다”는 것은 곧 “안동성방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즉 677년 2월에 당조는 요동의 고구려 유민들을 다시 ‘내지’로 옮기면서 나머지 고구려 유민들을

성방이라는 군사집단으로 조직하여 안동도호부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³¹⁾

물론 이후 안동도호부는 여러 차례 치소를 옮겼다. 즉 ①高宗 上元 3년(676년) 2월 한반도의 평양에서 遼東郡故城으로, ②다음 해인 고종 의봉 2년(677)에 新城으로, ③武則天 聖曆 원년(698) 거란인 이진충의 반란으로 인해 안동도호부가 일시 폐지될 때 安東都督府로 바뀌었다가, ④무측천 長安 4년(704) 8월에서 中宗 神龍 원년(705) 4월 사이에 안동도호부가 幽州에 부활되면서 幽·營州都督 唐休璟이 안동도호를 겸하였고, ⑤현종 개원 2년(714) 平州로 옮겼으며, ⑥개원 7년(719) 윤7월 평로절도사가 설치되어 안동도호를 겸하면서 안동도호부도 영주로 옮겼다가, ⑦개원 11년(723) 3월 燕郡으로 옮겼고, ⑧천보 2년(743) 遼西故城으로 치소를 옮겼다.³²⁾ 그러나 이러한 치소의 잦은 이동과 그에 따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킬 당시 안동도호부 관하에 적어도 8,500명의 병사와 700필의 군마가 있었다.³³⁾

성방은 무측천 시기부터 조금씩 변방 정규군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가 中宗과 玄宗 시기에 이르러 그 숫자가 더욱 많아졌다.³⁴⁾ 하지만 현종 시기에도 성방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안사의 난 후에 출현하는 河北三鎮의 하나인 成德 변진의 창건자 李寶臣에 대해 『구당서』 권142, 이보신전은

范陽城旁³⁵⁾奚族이었다. …… 어려서부터 騎射에 능하여 절도사 안녹

28) 『資治通鑑』 권220, 乾元 원년 12월 조, 7064쪽.

29) 鄭炳俊, 2005b, 앞의 글, 「平盧節度使 侯希逸 — 安東都護府의 軍將에서 盧淄節度使로 —」, 『중국사연구』 39, 49~54쪽.

30) 鄭炳俊, 2005b, 앞의 글, 54쪽.

31)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해인 669년에 당조가 고구려인들을 대거 당으로 강제 이주 시켰던 상황을 기술한 『資治通鑑』 권201, 總章 2년 4월 조에 보이는 “고려 호 38,200을 江·淮의 남쪽 및 山南·京西 諸州 空曠之地로 옮기게 하고, 그 貧弱한 자들은 남안 安東을 지키게 하였다”(앞 절에 인용)의 “安東을 지키게 하였다”는 대목 역시 고구려 유민을 성방 또는 성방과 유사한 형태로 편제하여 안동도호부를 지키는 데 활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32) 日野開三郎, 1984b, 「唐の高句麗討滅と安東都護府」,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8, 31~35쪽 등.

33) 『通典』 권172, 州郡2, 中華書局, 4481~4482쪽; 『舊唐書』 권38, 地理志1, 1387쪽; 『資治通鑑』 권215, 天寶 원년 정월 조, 6849쪽.

34) 李錦繡, 1998, 앞의 글, 283쪽.

35) 이때 旁은 傍과 통한다. 기록에서는 偏과 側 등도 傍과 통하며, 軍側도 성방을 나타

산이 射生官에 임명하였다. 천보 중에 안녹산을 따라 입조하였는데, 현종이 射生子弟로 삼아 禁中을 출입하게 하였다(3865쪽).

라고 하여, 이보신이 '성방해족' 또는 그 출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자치통감』 권222, 肅宗 上元 2년(761) 3월 조의 『考異』에 인용되어 있는 『薊門紀亂』을 보면

(范陽을 지키던 史朝淸의 부하인) 高鞠仁의 병사들은 모두 城傍少年으로서 驍勇하고 勁捷하며 馳射하는 것이 마치 나는 것과 같았다(7110쪽).

라고 하여, 안사의 난 중에 史朝淸에게 저항하였던 고국인의 병사들이 城傍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영주의 안동도호부에도 '성방고려인'이 존재하고, 나아가 안동도호부의 군장인 이정기가 성방고려인이었을 가능성 역시 얼마든지 있다. 설령 안사의 난 이전에 안동도호부의 성방고려인이 거의 변방 정규군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성방고려인으로서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정기는 안동도호부의 성방고려인 또는 그 출신이었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정기 등이 대거 남하함에 따라 영주의 성방고려인 조직은 사실상 해체 내지는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산동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IV. 영주의 대조영 집단

이제 영주의 대조영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가 발해를 건국할 무렵에 수령 또는 추장으로 일컬어졌다는 점이다. 즉 崔致遠의 『孤雲集』 권1에 수록되어 있는 「謝不許北國居上表」를 보면

신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의 원류는 句麗가 망하기 전에는 본시 사마귀만한 部落이었습니다. 靺鞨의 족속이 번성해지면서 그중에 粟末小蕃이 있어 일찍이 구려를 좇아 內徙하더니, 그 首領 乞四羽 및 大祚榮 등이 武后 臨朝 때에 이르러 營州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여 荒丘를 점거한 후 振國이라 일컬었습니다(『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1, 민족문화추진회, 156쪽).³⁶⁾

라고 하여, 대조영이 영주 시절에 首領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 『三國遺事』 권1, 靺鞨渤海 조를 보면

『通典』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발해는 본래 粟末靺鞨로서 그 酋 柞榮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震旦이라 칭하였다. …… (『譯註三國遺事』 1, 이회문화사, 『影印原文』의 43쪽).

라고 하여, 나라를 세우기 전에 대조영이 속말말갈의 추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수령 또는 추장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집단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수령·추장은 이른바 '齊民支配'의 대상인 일반 편호들 중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조영은 영주에서 일반 편호가 아닌 특수한 집단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크다.³⁷⁾

이와 관련하여 당대의 영주에 대해 살펴보자. 영주는 都督府였지만, 관할

36) 『東文選』 제33권, 민족문화추진회, 446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37) 대조영이 집단성이 강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여러 학자가 지적해 온 바이다. 盧泰敦, 1981, 앞의 글, 99쪽; 임상선, 1999, 앞의 책, 51쪽 등.

縣은 1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현의 인구도 1,031호에 4,732인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 현종 천보연간에는 그 숫자가 997호에 3,789인으로 줄어들었다. 이 숫자는 영주도독부가 직접 관리하는 편호를 말하는 것으로, 영주에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였던 인구는 거의 이들 편호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영주도독부의 역할은 결코 1개 현을 관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영주는 당의 동북방면 이민족들을 제어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영내에는 당조에 투항하거나 강제로 이주된 契丹族·奚族·靺鞨族 등 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다.³⁸⁾ 즉 영주도독부는 1개 현의 편호 이외에도 영내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족들을 관할하였던 것이다.³⁹⁾ 이들 이민족의 대부분은 기미부주 또는 성방이라는 특수한 집단으로 편제되어 영주도독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이민족들은 평상시에는 자신들의 습속에 따라 생활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로 동원되었는데, 특히 성방의 활약이 컸다.

대조영이 건국 전에 거느리던 집단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집단인 기미부주 또는 성방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영주에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기미부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⁴⁰⁾ 따라서 만약 대조영이 특수한 집단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다면, 그것은 곧 성방 이외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주 성방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하는 기록도 보인다. 즉 陳子昂(661~702)의 「爲建安王與遼東書」는 696년에 일어난 영주 거란인 반란 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이진충은 이미 죽었다. 사람들이 그禍를 싫어하니 손만영은 바야흐로 주살될 것이다. 영주 土(土?)인과 城傍子弟들이 얼마 전 密款을 보내왔

38) 盧泰敦, 1981, 앞의 글, 96~97쪽; 楊曉燕, 2003, 「唐代平盧軍與環渤海地域」,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162~168쪽 등.

39) 李松濤는 이러한 이민족의 雜居로 인해 營州는 중원지구와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2003, 「論契丹李盡忠, 孫萬榮之亂」,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97쪽).

40) 盧泰敦은 영주의 대조영 집단이 기미부 형태로 편제되어 집단으로 예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盧泰敦, 1981, 앞의 글, 98~99쪽; _____, 1996, 「발해의 건국」,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23쪽 등.

는데, 오직 官軍을 기다릴 뿐이다(『陳伯玉文集』 권10, 書啓, 四部叢刊 正編 31, 法印文化社, 87쪽).⁴¹⁾

라고 적고 있다. 또 같은 시기에 작성된 진자양의 「爲建安王與安東諸軍書」를 보면

역적 이진충은 이미 죽었다고 한다. 영주가 기아에 시달려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諸蕃 首領과 百姓 등이 오직 관군을 기다릴 뿐이다(『陳伯玉文集』 권10, 書啓, 88쪽).⁴²⁾

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土人和 城傍子弟’와 ‘諸蕃 首領과 百姓’이 서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성방병의 우두머리가 首領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조영은 영주도독부의 관리를 받던 다수의 고구려인 성방 중 하나의 우두머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것이 타당하다면, 그가 영주로 이주하면서 거느리고 갔던 무리가 하나의 성방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入唐求法巡禮行記』 권2에는 圓仁이 산동의 赤山法華院에 머물면서 적은 기록 중 “(옛날에) 발해가 신라에 토벌되어 겨우 1,000명이 북쪽으로 도망쳐 갔다”⁴³⁾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송기호는 “대조영의 세력은 처음부터 컸던 것이 아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겨우 1,000명의 고구려 유민이 발해를 세웠다고 한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다.⁴⁴⁾ 이 圓仁의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만약 송기호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대조영이 거느렸던 성방의 규모를 짐작할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조영이 성방의 수령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또 언급하겠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대조영이 옛 고구려 장수였다고 하는 기록이다. 먼저 『삼국유사』 권1, 靺鞨渤海 조를 보면

41) 『全唐文新編』 권214, 陳子昂6, 吉林文史出版社, 2442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42) 『全唐文新編』 권214, 陳子昂6, 2442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43) 김문경 역주, 2001,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 4년(839) 8월 15일 조, 중심, 194~195쪽.

44) 宋基豪, 1995, 앞의 책, 76쪽.

『新羅古記』에 말하기를, 高麗 舊將인 祚榮의 姓은 大氏인데, 殘兵을 모아 太伯山 남쪽에서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譯註三國遺事』 1, 「影印原文」의 43쪽).

라고 하여, 대조영이 '고구려 舊將'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帝王韻紀』 卷下에도

前麗舊將 大祚榮이 太白山 남쪽 성에 의거하여 周 則天 원년 甲申에 開國하여 발해라 하였다(『帝王韻紀』, 도서출판 역락, 「원문」의 267쪽).

라고 하여, 고구려의 옛 장수[前麗舊將]라고 적혀 있다. 박시형 등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영이 이전에 고구려의 장수였다고 보고 있다.⁴⁵⁾ 만약 그렇다면 대조영은 고구려 장수였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의 이주정책에 따라 휘하 병사들과 함께 영주로 이주되어 그대로 성방에 편제되었을 수도 있다. 이는 나아가 당에 귀부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다른 고구려 병사의 상당수도 당의 변경에서 성방으로 편제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미주나 성방으로 편제된 이민족들이 평소 자신들의 습속에 따라 생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조영 집단과 다른 고구려인 성방들도 자신들의 습속에 따라 생활하면서 자체의 조직과 결속력뿐 아니라 원래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조영과 이정기 등은 영주성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명확한 기록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성방이 해체된 이후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점차 사라져 후대의 史家들조차 史書를 편찬하면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宋代의 司馬光만 해도 「자치통감」을 편찬하면서 성방의 고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城側'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⁶⁾

45) 박시형, 1989, 『발해사』, 이론과실천, 45쪽.

46) 李錦繡, 1998, 앞의 글, 264쪽 참조.

V. 영주 거란족의 반란과 대조영 집단의 동주

영주 거란족의 반란은 대조영이 동쪽으로 달아나 발해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대조영이 동주하였던 시점과 배경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란의 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696년 5월 영주 경내의 거란족 성방 수령이었던⁴⁷⁾ 松漠都督 李盡忠이 돌궐의 후원을 받으며 봉기하여 영주성을 함락하고 영주도독 趙文翹를 살해하였다.⁴⁸⁾ 그러자 무측천은 曹仁師와 李多祚 등 28將을 보내 이진충을 토벌하게 하고, 7월에는 武三思를 榆關道安撫大使에 임명하여 전열을 강화하였다.⁴⁹⁾

같은 달에 이진충은 스스로 無上可汗⁵⁰⁾이라 칭하며 손만영을 선봉으로 삼아 사방을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거란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으며, 불과 열흘 만에 군세가 수만으로 불어났다. 이어 손만영은 지금의 北京 일대인 幽州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檀州로 나아가 그곳을 포위하였지만, 淸邊道前軍 副總管 張九節에게 격퇴되었다.⁵¹⁾ 그러나 손만영은 8월에 10만의 군대를 칭하며 남하하여 平州에서 曹仁師·張玄遇·麻仁節 등 28장이 이끄는 당의 대군을 대파하고, 장현우와 마인절을 포로로 잡았다.⁵²⁾

이에 당황한 무측천은 9월에 죄수와 私家 노비 중에서 날래고 용감한 자를 주인에게 값을 주고 징발하여 거란군을 공격하도록 하고, 또 河北 북부지역의 州에 처음으로 武騎團兵⁵³⁾을 조직하여 거란군의 남하에 대비하게 하였

47) 『舊唐書』 권6, 則天皇后本紀, 萬歲通天 원년 5월 조, “營州城傍契丹首領松漠都督 李盡忠與其妻兄歸誠州刺史孫萬榮殺都督趙文翹, 舉兵反, 攻陷營州”(125쪽). 자세한 것은 李錦繡, 1998, 앞의 글, 257~258쪽 참조.

48) 盧泰敦은 이진충이 영주 외부에서 엄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1981, 앞의 글, 99쪽).

49)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5월과 7월 조, 6505~6506쪽.

50) 可汗이라는 호칭의 사용은 契丹 사상 초유의 일이다.

51)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5월과 7월 조, 6505~6506쪽.

52)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8월 조, 6506쪽.

53) 이는 府兵制가 거의 꺾어지지만 남아 제 기능을 못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兵種으

다. 아울러 武攸宜를 淸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거란군을 토벌하게 하였다.⁵⁴⁾

거란군은 같은 9월에 영주 관내에 설치된 奚族 기미주인 崇州를 공략한 다음 요동으로 나아가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동도호 裴玄珪⁵⁵⁾에게 격퇴되었다.⁵⁶⁾ 당시 안동도호부는 지금의 撫順인 新城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영주의 이민족 집단들이 크게 동요하자, 무척천은 돌궐·해·말갈족 등의 '城傍羈糜州'⁵⁷⁾들을 가까운 하북의 幽州와 하남의 靑州·淄州·徐州·宋州로 옮겼다.⁵⁸⁾

그러한 때에 돌궐의 默曷可汗이 당에 사신을 보내 왕실간의 통혼과 河西降胡의 송환을 조건으로 거란 공격을 제의하였고, 무척천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돌궐이 거란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진충과 손만영의 처자를 붙잡아갔다. 이 때문에 거란군의 사기가 급속하게 저하되었고, 10월에는 이진충이 사망하였다.⁵⁹⁾

그러나 같은 10월에 손만영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남하하여 하북의 冀州를 함락시키고 관리와 백성 수천 명을 도륙한 다음⁶⁰⁾ 瀛州, 相州, 滄州, 趙州, 貝州를 차례로 유린하였다.⁶¹⁾ 그 무렵 당군에 종군했던⁶²⁾ 張說은 당시

로 이른바 團結兵의 기원을 이루는 것이다. 日野開三郎, 1980, 「唐府兵制時代の團結兵について」,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第1卷, 三一書房, 206쪽, 246쪽 등 참조.

54)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9월 조, 6507쪽.

55) 李大龍, 2003, 『都護制度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69쪽 참조.

56)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9월 조, 6508쪽; 『舊唐書』 권59, 許欽寂傳, 2329쪽; 『新唐書』 권90, 許欽寂傳, 3772쪽. 胡三省은 『資治通鑑』의 해당 조에 주를 달아 당시 안동도호부는 平州에 있었을 것으로 적고 있다.

57) 羈糜府州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城傍이었던 것을 말한다.

58) 李錦繡, 1998, 앞의 글, 261~263쪽.

59)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9월과 10월 조, 6509~6510쪽.

60)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萬歲通天 원년 10월 조, 6510쪽; 『舊唐書』 권6, 則天后本紀, 萬歲通天 원년 10월 조, 126쪽.

61) 李在成, 2000, 「七世紀 契丹의 獨立抗爭과 그 歷史的 意義」, 『魏晉隋唐史學會 발표회 100회 기념 國際學術會議 發表要旨』, 58쪽; 李松濤, 2003, 「論契丹李盡忠, 孫萬榮之亂」, 101쪽.

62) 『資治通鑑』 권206, 則天后 神功 원년 3월 조, 6515쪽.

하북의 10분의 9가 거란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上奏하였다.⁶³⁾

이듬해인 697년 정월 거란군은 다시 요동으로 가서 고구려인 기미주인 遼東州를 공격하였지만, 요동주도독 高仇須에게 격퇴되었다.⁶⁴⁾ 당시 요동주는 신성의 남쪽인 지금의 遼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당 조정은 武攸宜의 지휘 아래 蕃漢의 정예부대 40만을 동원하여 하북과 요동 두 방면에서 거란군을 총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같은 해 2월에 薛訥로 하여금 5만의 군대와 식량을 가지고 산동에서 바다를 통해 요동으로 들어가게 하였다.⁶⁵⁾

그런데 같은 해 3월에 청변도총관 王孝傑이 17만 군대를 지휘하여 平州의 東硤谷에서 손만영과 싸웠는데, 당군이 대패하고 왕효걸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청변도대총관 무유익은 유주 부근의 魚陽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왕효걸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거란군은 승세를 타고 유주로 들어가 城邑들을 함락시키고 노략질을 하였다.⁶⁶⁾

무척천은 같은 해 5월 婁師德을 淸邊道副大總管, 백제 유민인 沙吒忠義⁶⁷⁾를 淸邊道前軍總管에 임명하여 20만⁶⁸⁾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을 공격하게 하고, 아울러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 京官들에게 말 한 필을 군대에 제공하면 5품관을 주겠다는 칙서를 내렸다.⁶⁹⁾ 비록 그것이 實職은 아니라고 해도 말 한 필에 5품관이라는 고위의 자리를 내려준다는 것은 당조가 거란군의 반란에 매우 다급해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거란군은 같은 5월에 또다시 요동을 공격하여 고구려 유민인 高文과 高慈 부자가 이끄는 군대와 磨米城에서 싸

63) 『全唐文新編』 권224, 張說4, 「論神兵軍大總管功狀」, 2537쪽.

64) 『陳伯玉文集』 권10, 「爲建安王與遼東書」, 87쪽; 宋基豪, 1995, 앞의 책, 48쪽 참조.

65) 『陳伯玉文集』 권10, 「爲建安王與遼東書」, 「爲建安王與安東諸軍書」, 87쪽과 88쪽; 宋基豪, 1995, 앞의 책, 48쪽 참조.

66)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神功 원년 3월 조, 6514~6515쪽. 한편 『舊唐書』 권6, 則天后本紀에는 왕효걸이 손만영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萬歲通天 2년 2월 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군대의 숫자도 18만으로 적혀 있다(126쪽).

67) 이도하, 1999,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264~265쪽 등 참조.

68) 『舊唐書』 권199 하, 契丹傳, 5351쪽에는 30만이라 적혀 있다.

69)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神功 원년 5월 조, 6517~6518쪽.

위 두 사람을 전사시켰으며,⁷⁰⁾ 6월에는 거란군의 장수 駱務整이 하북 남부로 내려와 趙州를 유린하였다.⁷¹⁾

그러나 같은 6월 돌궐이 다시 거란의 본거지를 공격하고 또 거란의 동맹군이던 奚族이 거란을 배반하고 후방을 위협하자, 거란군은 전의를 크게 상실하였다. 손만영도 대패한 후 동쪽으로 달아나다 결국 유주 동쪽에서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피살되기 직전에 손만영은 “지금 당으로 귀순하려 해도 죄가 이미 크고, 돌궐로 가도 역시 죽게 되고, 신라로 가도 역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한탄을 하였다고 한다.⁷²⁾ 거란 장수 李楷固와 낙무정은 손만영이 피살된 직후 당에 항복하였다.⁷³⁾

이렇게 거란군과 당군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대조영 집단⁷⁴⁾은 말갈족의 乞四比羽 집단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나 요동의 옛 고구려 땅에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 조정은 거란군을 진압한 후 대조영과 결사비우에 대한 회유의 손길을 뻗쳐 대조영의 아버지인 乞乞仲象을 震國公, 결사비우를 許國公에 봉하며⁷⁵⁾ 이들을 다시 당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⁷⁶⁾ 당대의 봉작제도에서 國公은 郡王에 이은 세 번째 등급이지만, 군왕과 똑같은 종1품으로⁷⁷⁾ 당시 당의 신하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爵位였다. 무척천이 이러한 높은 작위를 주었던 것은 대조영과 결사비우가 당시에 이미 요동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조영이 동주하였던 시점은 과연 언제였을까. 『구당서』 권199 하, 발해말갈전에 의하면,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킨 때로부터 그가 사망하기까지의 어느 시점이었다.

거란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니, 대조영은 말갈의 결사비우와 함께 각각 亡命들을 거느리고 東奔하여 험한 곳을 차지하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다. 이진충이 죽은 다음(盡忠既死) 측천후가 명을 내려 …… (5360쪽).

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조영의 동분 시점은 일단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킨 후 생존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다.⁷⁸⁾

송기호는 대조영이 동주하기 전에 이진충에 동조하였다가 이들이 궤멸될 무렵에 영주를 벗어났을 것이라 하면서⁷⁹⁾ 그 근거로서 ①『구당서』 발해말갈전에 대조영의 무리가 거란의 餘黨으로 적혀 있고⁸⁰⁾ ②앞 절에서 인용하였던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처음에 거란과 악을 행하다가 이어서 돌궐과 공모하였다”라고 했고,⁸¹⁾ ③『신당서』 발해전에서 무척천이 대조영에게 작호를 내리면서 “그 죄를 용서하였다”⁸²⁾고 한 것을 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조영이 동주한 시점은 거란군이 위기에 몰렸던 때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진충의 생존 시에 거란군이 위기에 몰린 것은 그가 죽기 직전인 696년 9월에 반란의 본거지가 돌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뿐이다. 따라서 대조영이 영주를 벗어난 시점은 이진충의 본거지가 돌궐의 공격을 받아 거란군이 위기에 처하게 된 696년 9월에서 이진충이 죽은 10월 사이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70) 『高慈 墓誌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11쪽과 516쪽;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81쪽.

71)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神功 원년 6월 조, 6520쪽.

72) 『資治通鑑』 권205, 則天后 神功 원년 6월 조, 6521쪽.

73) 『資治通鑑』 권206, 則天后 久視 원년 6월 조, 6547쪽. 한편 『新唐書』 권219, 契丹傳에는 손만영이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이 항복한 것으로 적혀 있다(6169쪽).

74) 『新唐書』 권219, 渤海傳에는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東走”(6179쪽), 또 『資治通鑑』 권210, 玄宗 開元 원년 2월 조에는 “祚榮與靺鞨乞四比羽聚衆東走”(6680쪽)라고만 적혀 있다.

75)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쪽.

76) 盧泰敦, 1996, 앞의 글, 24쪽. 한편 임상선은 “(당조가) 이들 집단을 자신의 지배하에 끌어넣고, 나아가 契丹軍의 토벌에 이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봉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였다(1999, 앞의 책, 53쪽).

77)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郎中 조, 37쪽.

78) 宋基豪, 1995, 앞의 책, 62쪽.

79) 宋基豪, 1995, 앞의 책, 62·64쪽.

80)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81) 『孤雲集』 권1, 「謝不許北國居上表」, 156쪽.

82)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쪽.

여기서 이진충과 손만영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자치통감』 권205, 측천후 만세통천 원년 5월 조를 보면

이진충은 손만영의 妹夫이며, 모두 營州城側에居하였다. 趙文胤은 성격이 완고하고 너그럽지 못하여 거란인이 굶주리는데도 이들을 구출하지 않고 酋長을 마치 奴僕과 같이 보았다. 이에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6505쪽).

라고 하여,⁸³⁾ 영주도독 조문화가 기아에 빠진 거란족을 구출하지 않고 또 추장이었던 이진충과 손만영을 노복처럼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물론 이것은 조문화의 개인적 성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이 변경의 이민족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면서도 동등한 臣民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탓으로 볼 수 있다.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킨 지 불과 열흘 만에 군세가 수만으로 불어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손만영은 만리장성을 넘어 남하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10만이라 칭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거란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란 초기에 奚族 등이 반란에 동참하였던 것도 확인된다. 따라서 거란족 이외에도 적지 않은 이민족 집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거란군에 동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조영도 이진충의 반란에 동조하였다가 거란군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영주를 벗어났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696년 9월에 돌궐의 공격으로 거란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당시 거란군이 결코 치명적이지거나 궤멸적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달인 10월에 손만영이 다시 전세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북지역을 휩쓸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대조영이 이진충에게 동조하였을 것이라는 근거로 송기호가 제시한 것 가운데 ①과 ③은 이진충에게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대조영이 이미 동주한 이상 당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

한 표현이다. ③의 경우에도 대조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어서 반드시 동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조영이 동주하여 짧은 기간에 요동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당시 그가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이것은 적어도 그가 반란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진충의 반란 중에 무측천이 영주의 이민족 집단들을 하북의 유주와 하남의 靑州·淄州·徐州·宋州로 옮겼던 사실이다. 거란족의 반란으로 영주의 이민족들이 동요하였던 것은 앞 절에서 인용한 陳子昂의 「爲建安王與遼東書」와 「爲建安王與安東諸軍書」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신당서』 권43 하, 지리지7 하, 靑州, 河北道の 突厥州 조를 보면

이진충이 영주를 함락하자, (영주도독부의) 順州를 幽州都督府에 예속시키고, 瑞州를 宋州 경내로 옮겼다가, 神龍 초에 북으로 옮겨 다시 유주도독부에 예속시켰다(1126쪽).

라고, 또 같은 책 권43하, 靑州, 河北道の 奚州·契丹州·靛鞞州 조를 보면

이진충이 영주를 함락하자, 玄州를 徐州·宋州 경내로 옮기고, 威州를 幽州 경내로 옮기고, 昌州·師州·帶州·鮮州·信州 5주를 靑州 경내로 옮기고, 崇州·慎州 2주를 淄州·靑州 경내로 옮기고, 夷賓州를 徐州 경내로 옮기고, 黎州를 宋州 경내로 옮겼다. 河南으로 옮긴 10주는 신룡 초에 북으로 옮겨, 2년에 모두 유주도독부에 예속시켰다(1128쪽).

라고 적혀 있다. 말하자면 이진충이 영주를 점령하자 무측천이 돌궐·해·거란·말갈족으로 구성된 順州·瑞州·玄州·威州·昌州·師州·帶州·鮮州·信州·崇州·慎州·夷賓州·黎州 13주를 유주와 하남의 청주·치주·서주·송주로 옮겼다가, 中宗 神龍(705~707) 초에 모두 유주로 옮겨 유주도

83) 『舊唐書』 권199 하, 契丹傳, “萬歲通天中, (孫)萬榮與其妹婿松漠都督李盡忠, 俱爲營州都督趙文胤所侵侮”(5350쪽).

독부에 예속시켰다는 것이다.⁸⁴⁾ 종래에는 이들 주는 모두 단순한 기미주였다고 보았지만,⁸⁵⁾ 지금은 기미주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성방기미주’였다고 이해하고 있다.⁸⁶⁾ 무척천이 영주의 성방기미주들을 당 내지로 옮긴 주된 이유는 그들이 동요한 나머지 반란에 합류하거나 당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⁸⁷⁾ 그리고 그 시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략 이진충의 본거지가 돌궐의 공격을 받았던 696년 9월 무렵으로 짐작된다.

영주의 기미주성방들에 ‘당 내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항방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던 이민족 집단들도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해당 명령으로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당조 체제 안에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당조와 결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조영도 이진충의 반란에 대한 가담 정도를 떠나,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조영은 단호하게 영주를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조영이 영주를 벗어난 시점은 돌궐이 거란의 본거지를 공격하였던 696년 9월께 무척천이 영주의 기미주성방들에 ‘당 내지로 이주하라’고 명한 직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영주의 이민족 집단 중에는 당조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 대조영과 함께 동주하였던 말갈족의 乞四比羽 집단도 그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조가 보낸 군대의 공격으로 걸사비우가 전사하게 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당의 추격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Ⅵ. 대조영의 발해 건국과 그 성격

당조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조영과 걸사비우는 그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건국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자 당은 거란 항장 이해고를 토벌군 장수로 삼아 공격해 왔다. 이에 걸사비우 집단이 먼저 이해고 군대를 맞아 싸웠으나 패배하여 걸사비우가 전사하였다. 이 무렵 걸걸증상은 이미 사망하고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⁸⁸⁾

대조영은 다시 동쪽으로 달아나 天門嶺을 넘었다. 이곳은 오늘날 북류 松花江의 지류인 輝發河와 渾河의 분수령인 吉林省의 哈達嶺으로 비정된다. 곧 이어 이해고가 천문령을 넘어 바짝 추격해 오자 대조영은 걸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규합하여 결전을 준비했다.⁸⁹⁾ 드디어 천문령 동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대조영이 이해고 군대를 대파하고, 이해고는 겨우 몸만 빠져 달아났다.⁹⁰⁾ 이로써 대조영은 건국 과정에서 마주친 최대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일대의 고구려계와 말갈계 사람들 모두를 통할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해고는 당조도 인정한 뛰어난 장수였다.⁹¹⁾ 그런 그가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것은 대조영의 군사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뜻한다. 당시 그는 날쌔고 용감하며 용병술에 뛰어났다고 한다.⁹²⁾ 60세에 가까운 나이⁹³⁾에도 불구하고 이

88)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쪽.

89) 당시 대조영이 규합하였던 무리들에 대해서는 임상선, 1999, 앞의 책, 57~58쪽 참조.

90)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쪽; 『五代會要』 권30, 渤海傳, 473쪽.

91) 『資治通鑑』 권206, 則天后 久視 원년 6월 조, “初, 契丹將李楷固, 善用繩索及騎射·舞, 每陷陳, 如鶴入鳥羣, 所向披靡. 黃龍之戰, 張玄遇·馬仁節皆爲所縶”(6547쪽); 박시형, 1989, 앞의 책, 48쪽 등 참조.

92)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祚榮驍勇善用兵”(5360쪽). 또 『資治通鑑』 권210, 玄宗 開元 원년 2월 조에는 “驍勇善戰”이라 적혀 있다.

93) 宋基豪, 1995, 앞의 책, 33쪽.

84) 馬馳, 1998, 「唐幽州境僑治靺鞨州與河朔藩鎮割據」, 『唐研究』 4, 200~204쪽; 鄭炳俊, 2005, 앞의 글, 259~260쪽.

85) 劉統, 1998, 『唐代靺鞨府州研究』, 西北大學出版社, 104~105쪽 등.

86) 李錦繡, 1998, 앞의 글, 259~263쪽, 271~272쪽.

87) 盧泰敦, 1981, 앞의 글, 99쪽.

리한 군사적 역량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주에서 성방의 우두머리로서 계속 군사활동에 종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해고가 물러간 후 거란과 해가 돌궐에 복속되었다. 그 결과 대조영을 추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대조영에 대한 당의 공격이 불가능해졌다. 대조영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挹婁의 옛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의 吉林省 敦化市 城山子山城으로 비정되는 東牟山에 축성하고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자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이 연이어 귀부해 왔다.⁹⁴⁾

697년에 대조영은 마침내 동모산에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워 震國王(또는 振國王)이라 칭하였다.⁹⁵⁾ 이때 대조영이 진국왕으로 칭한 것은 앞서 걸걸중상이 당으로부터 진국공에 봉해졌던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⁹⁶⁾ 즉 그가 처음에 독립국임을 천명하면서도 당조와의 관계를 의식하거나 당의 권위를 이용하기 위해 이전의 爵名을 그대로 국명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국왕 대조영은 새롭게 세력을 회복한 돌궐과 통교하여 당에 대항하였고, 신라와도 통교하여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으려 하였다.⁹⁷⁾

705년 정월에 새로 즉위한 당 中宗은 侍御史 張行岌을 진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⁹⁸⁾ 요서의 돌궐과 거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이 마침내 진국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 대조영도 이들을 당으로 보내 入侍하게 하였다. 중종이 대조영을 冊立하려 하였지만, 거란과 돌궐이 변경을 침구하였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⁹⁹⁾ 그리고 先天 2년(713) 2월에는 현종이 崔訢(또는 崔忻)¹⁰⁰⁾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左驍衛大將軍·渤海郡

王·忽汗州都督으로 책봉하여 정식으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다. 이후 진국은 발해로 불리게 되었다.¹⁰¹⁾ 다만 임상선의 최근 견해에 의하면, 발해와 말갈이라는 명칭은 중국 쪽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발해 스스로는 이후에도 진국과 고려 및 고려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한다.¹⁰²⁾

高王 대조영은 건국 이후 영역확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발해는 대조영 당시에 이미 “영주의 동쪽 2,000리에 있는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였고, 越憲靺鞨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기까지 사방이 2,000리나 되었고, 編戶는 10여 만, 勝兵은 수만 인”¹⁰³⁾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¹⁰⁴⁾

이러한 팽창 정책은 2대 武王 大武藝와 3대 文王 大欽茂에게도 계승되어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었다.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외람되이 列國을 주관하고 諸蕃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夫餘의 遺俗을 잇게 되었다”¹⁰⁵⁾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왕은 미복속 말갈부족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鐵利部, 拂涅部, 越憲部, 黑水部 등의 말갈부족들은 8세기 초반 당에 빈번하게 조공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이 보여왔고, 당과 발해 간의 전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부족에 대한 발해의 구체적인 공격을 전하는 기록은 없지만, 당에 대한 이들의 조공이 어느 시점에 단절된다. 즉 불열부와 월희부가 741년, 철리부가 740년을 경계로 당에 대한 조공을 단절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8세기 중반에 발해의 세력권으로 귀속되었음을 나타낸다.¹⁰⁶⁾ 이로써 문왕 초기인 8세기 중반에 이르러 발해의 영토는 송화강 하류까지 미치게 되어 건국 이래 추구해 오던 대외 팽창정책이 일단락되었으며, 발해 전성기의 강역권을 거의 형성하기에 이른다.

94)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쪽.

95)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79~6180쪽;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資治通鑑』 권210, 玄宗 開元 원년 2월 조, 6680쪽. 이때 『신당서』에는 국명이 震國, 『구당서』와 『자치통감』에는 振國이라 적혀 있다.

96) 宋基豪, 1995, 앞의 책, 69쪽.

97) 宋基豪, 1995, 앞의 책, 70쪽.

98)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80쪽; 『資治通鑑』 권210, 玄宗 開元 원년 2월 조, 6680쪽.

99)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100) 당시 사신의 이름이 崔訢이었는데 아니면 崔忻이었는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王仁富, 2005, 『旅順唐鴻臚井刻石回歸探討』, 哈爾濱出版社, 39~58쪽 참조.

101) 『資治通鑑』 권210, 玄宗 開元 원년 2월 조, 6680쪽; 『新唐書』 권199 하, 渤海傳, 6180쪽;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102) 임상선, 2005, 앞의 글, 26~27쪽.

103)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0쪽.

104) 『五代會要』 권30, 渤海傳에는 발해 건국 무렵에 대한 설명으로 “勝兵丁戶四十餘萬”(473쪽)이라고 적혀 있다.

105) 『續日本記』 권10, 聖武天皇 神龜 5년 정월 조, 吉川弘文館, 111쪽.

106) 宋基豪, 1995, 앞의 책, 111~112쪽.

발해가 이렇게 영역 팽창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바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대조영이 영주의 성방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대조영은 영주에서 성방으로 있으면서 매우 오랫동안 당으로부터 군사 기술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발해를 건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¹⁰⁷⁾ 건국 후 그가 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는 태생적으로 무력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 국가였다고 하겠다.

특히 무왕은 흑수말갈 문제로 당과 갈등을 빚게 되자 732년 9월에 장군 張文休를 보내 바다로 당의 본토인 산둥지역의 登州를 공격하여 刺史 偉俊을 죽이고¹⁰⁸⁾ 또 다음 해에는 군대를 이끌고 산해관 근처의 馬都山에 이르러 주변의 城邑들을 도륙하였다.¹⁰⁹⁾ 이렇게 당의 중심부를 직접 공격한 것은 고구려 때도 유례가 없던 일로 무왕의 공격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것 역시 대조영 가문이 영주 시절부터 쌓아온 무력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발해의 팽창·공격적 속성은 10대 宣王 大仁秀 시대에 다시 한번 발산되어 잠시 위축되었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다. 즉 발해의 혼란기에 통제를 벗어난 흑수말갈 등 북방 이민족을 토벌하여 건국 초반에 차지하였던 영역을 다시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해는 어쩌면 고구려보다도 넓은 사방 5,000여 리의 강역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누리면서 ‘海東盛國’¹¹⁰⁾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¹¹¹⁾

107) 대조영이 城傍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건국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108) 『資治通鑑』 권213, 玄宗 開元 20년 9월 조, 6799쪽; 『舊唐書』 권199 하, 渤海靺鞨傳, 5361쪽;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81쪽.

109) 『新唐書』 권136, 烏承玘傳, 4597쪽; 『資治通鑑』 권213, 玄宗 開元 21년 정월 조의 『考異』, 6800쪽. 무왕의 등주와 마도산 공격에 대해서는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90~197쪽 등 참조.

110) 『新唐書』 권219, 渤海傳, 6182쪽.

111) 宋基豪, 1995, 앞의 책, 147~153쪽 참조.

중국의 어떤 학자는 대조영 집단이 영주에서 보낸 30년 동안 漢族 선진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발해의 문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문화적인 면에서 발해국 건립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말한다.¹¹²⁾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오류이다. 대조영 집단은 영주에서 당의 중원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영주에서 배운 것은 군사기술이었을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원래의 습속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종족들을 상대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발해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다민족 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VII. 맺음말

대조영 집단은 영주에 거주하면서 원래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민족으로 구성된 半전문적인 군사집단을 의미하는 ‘성방’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조영이 영주 고구려인 성방의 한 우두머리였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대조영이 수령 또는 추장이라고 일컬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일반 편호가 아닌 특수한 집단을 거느린 것을 의미한다. 그 집단이란 기미부주 내지는 성방 이외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영주에는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기미부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이민족 성방 우두머리의 경우에도 수령이나 추장으로 불린 것이 확인된다.

다음은 대조영이 영주를 벗어나 당의 추격을 물리칠 때, 그는 60세에 가

112) 윤재운, 2005, 「중국의 발해문화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편,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257쪽, 264쪽 참조.

까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驍勇善用兵’ 또는 ‘驍勇善戰’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만약 그가 일반 편호의 생활을 하였다면, 과연 그러한 면모를 보일 수 있었을까. 대조영과 그의 집단이 일반민으로 편호되었다면, 조금씩 중국사회에 동화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조영 집단이 성방으로 편제되었던 것은 당조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성방의 대부분은 유목민이었는데, 당조는 그들의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 원래의 부락조직과 야성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대조영 등은 유목민이 아니었지만, 당조는 고구려인의 강력한 군사능력과 상무정신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당조는 그러한 고구려인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성방으로 편제하고 원래의 습속을 유지시켰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대조영 집단도 원래의 민족적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발해는 건국 이후 영역확장을 계속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겠지만, 대조영이 영주의 성방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발해는 태생적으로 팽창적인 무력국가의 속성을 가졌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속성은 2대 무왕 대무예와 3대 문왕 대흠무에게도 계승되어 발해는 요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으로 송화강 하류에까지 세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무왕 때에는 흑수말갈 문제로 당과 갈등이 생기자 732년에 장문휴를 보내 바다로 당의 본토인 산둥지역의 등주와 산해관 근처의 마도산을 공격하게 한 것은 발해의 공격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발해의 이러한 속성은 10대 선왕 대인수 시대에 다시 한번 발산되어 일시 위축되었던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 결과 발해는 사방 5,000여 리의 강역을 차지하여 전성기를 누리면서 ‘발해성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ABSTRACT]

Tae Jo-young(大祚榮)'s Group at the Ying-chou(營州) Period and Balhae(渤海) Nation's Character

Cheong, Byung-Jun

Before and After the decline of Koguryo, its many people were forced into the Tang's territories. Some became ordinary subjects under the rule of the Empire, other belonged the military soldiers in the areas of the frontiers.

Generally, Tang had put all the surrendered people into the frontier areas and so they became the Empire's soldiers. These people were called the *Cheng-bang*(城傍). And They were much different from *Chi-mi fu-chou*(靺鞨府州), another colonized control administration system. Above all, *Cheng-bang* was consisted on the basis of tribes. Also it could have been learned and provided regularly the military skills and techniques by the Empire. It had original identity, and so did Koguryo's *Cheng-bang*.

After Koguryo's fall, Tae Jo-young and his followers had been exiled to Yong-chou(營州) located in the northern-eastern district of Tang. And they were organized as a unity of *Cheng-bang*. After this move, they engaged in military activities. These special military experiences helped Tae Jo-young build a new dynasty as Balhae(渤海國). Also, the military skills and abilities had succeeded into his descendants. Therefore, Balhae could be

able to keep and sustain the peculiar military state. I think that Balhae's territorial expansion over their neighboring areas could be explained through these very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keywords

Tae Jo-young(大祚榮), Ying-chou(營州), Cheng-bang(城傍), Balhae(渤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윤 현 철 | 중국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부교수

I. 머리말

발해국은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98년에 건국되어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229년 동안 지금의 중국 동북지구(흑룡강성의 대부분, 길림성의 절대 부분, 요령성의 일부분)와 한반도 북부, 러시아 연해주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건국 당시의 국호는 ‘振國’ 혹은 ‘震國’이라 하였으며, 713년부터 국호를 ‘渤海’라고 하였다.

발해국은 건국자인 大祚榮으로부터 모두 15대 왕을 거치면서 전 지역에 5경·15부·62주를 설치하고 전성기에는 ‘海東盛國’으로 내외에 명성을 떨쳤으며 중세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치·군사·경제·문화의 개화기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발해국은 찬란한 문화를 과시하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사료를 후세에 남기지 못하여 시종 신비한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 중세 시기의 강대한 나라 발해국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뿐 아니라 한국·북한·러시아·일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또한 쟁점도 많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그중 발해국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동경용원부에 대한 지리적 위치, 상경에서 동경으로의 천도에 대한 고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필자는 동경용원부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로 추정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위의 두 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경용원부의 위치에 대하여

발해국은 200여 년을 존속하는 동안 도합 4차례 천도하였다. 제1차는 742년에 舊國에서 中京顯德府로, 제2차는 755년(756년설도 있음)에 중경현덕부에서 上京龍泉府로, 제3차는 785년에 상경용천부에서 東京龍原府로 옮겼고, 제4차는 794년에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다시 옮겼다.¹⁾

지금 학계에서는 발해국의 첫 번째 수도인 구국을 오늘날의 中國 吉林省 敦化市的 永勝遺跡²⁾과 城山子山城 부근으로, 두 번째 수도인 상경용천부는 지금의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으로, 중경현덕부는 吉林省 和龍市 西古城으로 상정하고 있어 그 지리적 위치가 비교적 뚜렷하나 동경용원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료의 제한과 발굴보고서의 미숙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용원부에 대하여 지금 학계에는 여러 설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귀납하면 대체로 ‘팔련성설’, ‘책성설’, ‘부거리설’, ‘성장습자산성설’, ‘중성설’, ‘부령설’, ‘경흥설(은덕)’ 등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팔련성설과 부거리설이 가장 유력하다.

동경용원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문헌 사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정원시(785~793년)에는 (상경을 떠나)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흠무가 죽은 후 시호를 사사로이 문왕이라고 하였다. 이들 핑림이 일찍 죽어 족제 원의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의심이 많아 국민들에게 살해당하였다. 핑림의 아들 화여를 추대하여 왕으로 하고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였으며 연호를 중흥으로 고쳤다.³⁾
- ② 예맥의 옛 땅을 동경으로 정하였는데, 용원부 또는 책성부라고도 하였다. 경, 염, 목, 하 4개주를 다스렸다.⁴⁾
- ③ 용원은 동남으로 바다에 면하였는데 일본도이다.⁵⁾
- ④ 발해국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39개 역이다.⁶⁾
- ⑤ 개주진국군절도는 본래 예맥의 땅인데 고구려는 경주라고 하였고, 발해는 동경용원부라고 하였으며, 궁전이 있었다. 경, 염, 목, 하 4주의 일을 도독하였다. 옛 현이 6개이다. 즉 용원·영안·오산·벽곡·웅산·백양인데, 모두 폐지되었다.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는 20리(78.54km)이다.⁷⁾
- ⑥ 개원현은 본래 책성의 땅이다. 고려(고구려) 시기에 용원현이라고 하였는데, 발해가 계승하였다가 요나라 초기에 폐지하였다.⁸⁾

위의 사료들로부터 유추해 보면 발해국의 동경용원부는 濊貊의 故地에 있었고, 고구려 시기에 이곳에 책성부를 세웠기 때문에 발해국 시기에도 柵城府라고 이름하였으며, 신라 泉井郡으로부터 책성까지의 거리는 39개 역(1170리=4594.90km)이고 상경의 동남쪽에 자리하며 貞元 시기의 발해국의 수도였고,

3) 『新唐書』, 渤海傳, “貞元時, 東南徙東京. 欽茂死, 私諡文王. 子宏臨早死, 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瑛爲王, 復還上京, 改年中興”.

4) 『新唐書』, 渤海傳,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5) 『新唐書』, 渤海傳,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6)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渤海國南海, 鴨綠, 扶餘, 柵城四府并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

7) 『遼史』 권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鎮國軍條, “開州, 鎮國軍, 節度. 本貊地, 高麗爲慶州, 渤海爲東京龍原府. 有宮殿. 都督慶·鹽·穆·賀四州事. 故縣六: 曰龍原·永安·烏山·壁谷·熊山·白楊, 皆廢. 壘石爲城, 周圍二十里”.

8) 『遼史』 권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鎮國軍條, “開遠縣, 本柵城地, 高麗爲龍原縣, 渤海因之, 遼初廢”.

1) 방학봉, 1992, 『발해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 최근 고고조사에 의하면 영승유적을 요·금 시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2007, 『고고』 1기).

동남쪽으로 바다와 가깝고 일본도에 위치하였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일본학자 마츠이[松井]는 이상의 기록을 근거로 동경용원부가 오늘날의 琿春 부근이라고 추정하였다.⁹⁾ 이후 도리아마[鳥山喜一]는 이 관점을 더욱 보완하여 동경용원부는 훈춘의 八連城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또한 중국 학자 金毓黻도 위 사료 중의 ‘濊貊故地’는 ‘沃沮故地’의 잘못된 기록이라고 지적하면서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를 훈춘의 八連城으로 보았다.¹¹⁾ 방학봉도 동경용원부를 팔련성으로 보고 있다.¹²⁾ 팔련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新唐書』 발해전, 賈耽의 『古今郡國志』 등 문헌 기재와 발해국 유적에 대한 조사·발굴을 결합하여 자기 주장의 주요 근거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李健才의 해석이 비교적 구체적이다.¹³⁾ 그 구체적인 근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위의 팔련성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학계에서 이미 여러 번 거론되어 오던 것들이지만 전면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훈춘 팔련성 부근에서는 발해국 시기의 큰 고분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팔련성설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만약 발해국의 수도였다면 그 부근에는 반드시 서고성의 용두산고분군(龍頭山古墓群), 敦化的 옥정산고분군(六頂山古墓群) 등과 같은 큰 고분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에서는 큰 고분군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발해국 고분군 가운데서 가장 크다. 이것은 부거리가 발해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유력한 근거이다.

둘째, 팔련성은 돌로 된 성이 아니라 흙성이며, 둘레의 길이도 20리가 아니라 약 2,800m에 불과한 작은 성으로, 성의 축조 자재와 크기에서 『遼史』 지

리지의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둘레는 20리이다”라는 기록에 부합되지 않는다.¹⁴⁾ 반면에 부거리에는 돌로 쌓은 평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도 존재하고 있다.

조선사회과학원 김종혁의 논문에 의하면 부거석성은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에 있다. 성은 이미 18세기 후반기에 기초가 드러나 있었으므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성벽은 돌로 쌓았는데, 남아 있는 성벽의 길이는 1,236m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너비는 4m이고 높이는 2m이다. 성문은 4곳에 있었다고 인정되는데, 현재 그 기초만이 남아 있어 알 수 없다. 성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맨 밑에 놓인 성돌 가운데 큰 것은 길이가 150cm, 너비가 60cm, 두께가 40cm이다. 성벽을 쌓은 정형을 보면 맨 밑에는 큰 돌을 놓고 그 위에는 좀 작은 돌을 2~3단 안으로 들어가게 놓은 다음 끈게 올려 쌓았다. 이와 같은 성 쌓기 방법은 고구려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성 안에는 성문을 연결하는 도로가 가로세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성 안에서는 여러 곳에서 집터 자리가 발견됐는데, 여기서는 두 고래 온돌시설들이 드러났다. 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국 시기의 기와 조각들이 많이 드러났다.¹⁵⁾

셋째, 팔련성은 바다에 면하지 않았기에 『新唐書』 渤海傳의 기록과 어긋난다.¹⁶⁾ 반면에 부거리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인접해 있어 위의 기록과 부합된다.

넷째, 역참노정의 계산에서 39개 역이 반드시 1,170리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팔련성의 외항 毛口威는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모구위를 통해 일본으로 갈 수 없다. 오늘의 함경북도 선봉군과 그 이북 연해는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고 바닷물이 얼지 않는 나진항과 그 이남지역에서만 겨울철에 배가 떠날 수 있다. 반면에 부거리의 외항 용제항은 부동항이다.

여섯째, 팔련성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新唐書』

9) 松井, 1913, 「발해국의 강역」, 『만주역사지리』 1,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0) 鳥山喜一, 1913, 「발해국의 강역」, 『만주역사지리』 1,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1) 金毓黻, 1981, 『東北通史』 상, 社會科學戰線雜誌社.

12) 방학봉, 1992, 앞의 책.

13) 李健才, 1985, 「琿春渤海古城考」, 『學習與探索』 6호.

14) 『遼史』 권38 地理2 東京道 開州 鎮國軍條, “壘石爲城 周圍二十里”.

15) 김종혁, 1997,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조사발굴된 발해의 유적과 유물」, 『발해사연구논문집』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6) 『新唐書』 권219 발해전,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渤海傳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국의 동경용원부는 책성부라고도 불렸으며 고구려의 옛 땅이었다고 한다.¹⁷⁾ 책성은 고구려 시기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98년에 “고구려의 왕이 동쪽의 책(성)을 순시하였다(王東巡柵)”라고 하였으며, 102년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책성을 안무하였다(遣使按撫柵城)”라고 하였고, 217년에는 “한나라의 평주 사람 하요가 1,000여 호를 이끌고 와 투항하였다. 왕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책성에 안치하였다(漢平州人夏瑤以百姓一千餘家來投, 王納之, 安置柵城)”¹⁸⁾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서 책성은 고구려의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팔련성이 책성의 옛 땅이라면 고구려 시기의 유물이 많이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팔련성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지성과 산성을 함께 쌓는 고구려 축성법의 특성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련성설은 한정된 문헌의 기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방면에서 동경용원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반면에 부거리설은 위의 조건들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 동경용원부의 지리위치에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팔련성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팔련성의 규모(둘레의 길이 2,894m)가 크고 성 안에서 큰 건축 터(궁전 터)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팔련성의 규모와 짜임새는 발해국 시기의 평지성 중에서 상경성에 버금가는 비교적 큰 성이다. 그 규모와 짜임새는 상경의 궁성과 서고성(2,700m)과도 비슷하여 가히 수도로서의 특성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부거리설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유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세전벌의 영성고성과 비교하여 볼 때 규모와 크기 면에서 팔련성을 동경용원부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인 듯하다. 영성고성의 둘레 길이는 팔련성과 비슷하며 안에는 큰 건축 터를 갖고 있다. 영성고성의 둘레 길이는 2,496m이며 불룩하게 올라온 덕땅이 여러 곳이고, 초석과 기와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사리함과 같은 유물들도 발견되었다

고 한다.¹⁹⁾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일제시기의 팔련성 발굴에서 궁전 터와 같은 건물유적 3곳을 발견하고 많은 기와, 유약 바른 녹색기와, 문자기와가 출토됐으며 출토유물이 상경과 흡사하다고 해서 동경용원부라고 확정짓는 것은 미흡한 점이 많다. 서둘러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사회과학원의 채태형은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소재지를 함경북도 청진시의 부거리로 보고 있다.²⁰⁾ 필자도 발해국의 동경용원부는 북한의 부거리 부근으로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부거리 부근의 봉수와 부거리에서 드러난 유적유물에 근거하고, 유관역참기사와 발해국 사신단의 일본 내왕기사를 통하여 함경북도 청진시의 부거리가 바로 발해국의 동경용원부라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

1. 봉수와 그 밖의 유적·유물을 통하여 본 東京龍原府의 위치

먼저 부거성을 중심으로 배치된 발해국 시기의 봉수망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부거리와 그 근처에서는 봉화대와 성곽, 그리고 고분군 등이 발견되었는데, 발해국 시기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의 발해국 시기 봉화대들은 부거성을 중심으로 신호체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봉화신호체계가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수도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즉 부거성을 중심으로 각 방향의 봉화망이 집결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이 수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경용원부로 비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거성에 집중되는 봉화대들은 동쪽과 서쪽, 서남쪽, 동북쪽 방향에서 신호를 받는 체계로 편성되어 있다. 동쪽의 연대봉 봉수는 바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그 다음 구간의 봉화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봉화대들은 부거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된 봉화대의

17) 『新唐書』 권219 발해전,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18)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46년, 50년 조; 같은 책 권10, 高句麗本紀4, 山上王21년 조.

19) 이정봉, 2000, 「용정영성고성-발해노주고」, 『발해문화연구』, 길림인민출판사.

20) 채태형, 1990, 「발해동경용원부-훈춘팔련성설 재검토」, 『역사과학』 3기.

봉화신호를 받게 되어 있다. 부거성에 직접 봉화신호를 보내는 봉화대들은 부거성에 앉아서 쉽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낮은 산들에 배치되어 있다. 부거성에서 서쪽으로 2.2km 떨어져 있는 바른골 봉화대는 운두봉 봉화대를 거쳐 무산의 팔을하 봉화대의 봉화신호를 부거성에 전달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부거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추골 봉화대는 그 북쪽에 포치된 등수무산 봉화대의 봉화신호를 받고, 그것을 다시 부거성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부거성의 서남쪽에 배치된 독동 봉수는 같은 방향의 강덕·경성군 관모리 보을하 봉화대의 봉화신호를 받아서 부거성에 다시 알리게 되어 있다. 서쪽 방향에서 부거성에 봉화신호를 전달하는 운두봉 봉화대는 바른골 봉화대보다 더 높은 곳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팔을하 봉화대는 그보다 더 높은 산 위에 배치되어 멀리 서쪽 방향의 적정을 부거성에 신호로 보냈다. 동북쪽 방향에 위치한 등수봉 봉화대는 같은 방향의 적정을 부거성에 봉화신호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부거성 주변의 봉화대는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은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에 위치하였다.

부거성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봉화대는 대체로 200~300m의 낮은 산 위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그러한 봉화신호는 부거성에서만 받을 수 있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앞이 막혀 신호를 받을 수 없다.

부거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봉화체계는 수도에만 있을 수 있는 봉화체계이다. 봉건시기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봉화신호체계가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국왕이 살고 있는 수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변방정보가 봉화체계에 의하여 집중된 부거성은 단순한 5경·15부의 하나가 아니라 한때 발해국의 수도였음이 분명하다.

부거성은 동경용원부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785~794년에는 한때 발해국의 수도로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봉화체계 하나만으로 부거성이 발해국의 수도로 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함경북도 청진시 부거리지역에서는 발해국 시기의 유적·유물들도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부거성은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에 있다. 성은 무너져 18세기 후반기에 이미 기초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못하여 성의 크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내성으로 인정되는 성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성들이 있다.

이밖에 부거석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3리 되는 산기슭에 부거고분군이 있다.²¹⁾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동해가 펼쳐지고 포구도 있다. 18세기의 실학자 홍양호의 『북새기략』에 실린 「북관고적기」에 “현 서쪽 산에 1만여 기의 옛 무덤이 있는데 모두 석곽”이라고 하였다.²²⁾ 일제시기에 대부분 파괴되고 현존하는 것은 500기에 달하며 이미 발굴한 무덤 수는 50여 기이다.

발굴보고에 의하면 부거리의 발해국 무덤은 돌칸흙무덤, 돌칸돌관무덤, 돌곽무덤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무덤은 거의 무덤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이다. 무덤안길은 중앙에 낸 것도 있고 한쪽에 치우친 것도 있으며 없는 것도 있다. 무덤들은 대체로 남향하고 안칸은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그 네 귀를 둥그스름하게 죽인 것도 있다. 이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들 가운데는 고구려 시기부터 발해국에 걸쳐 쓰인 단지들과 쇠못, 쇠거울 같은 것이 있다. 부거리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은 부거성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게 많았다. 이것은 이 고분군이 부거성에서 살던 발해국 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부거리 일대에는 발해국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산성유적이 있다. 이것도 성의 기초만이 남아 있다(지금 조사 중에 있다).²³⁾ 이것은 고구려의 평원성 주변에 산성이 있는 축성법에 부합되는 것이다. 부거성은 평지성이다. 부거 평지성은 고구려 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발해국 시기에도 계속 이용된 성이다. 그 근거는 첫째로 성 안에서 고구려 시기의 기와 등 유물들이 출토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성벽을 고구려 양식으로 쌓았다는 점이다. 셋째로 부거성 안에서 발해국 시기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고구려 시기의 성 축조법과 유물의 출토는 부거리가 고구려 시기의 책성이었다는 『신당서』의 기록

21) 홍양호, 『북새기략』, “富居廢縣 在富寧府東六十里 石城盡頽 只存基址 縣西山有古塚群 皆石槨 未知何時物也”.

22) 장상렬, 1992,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3) 김종현, 1997, 앞의 글.

과 부합되며, 또 팔련성과 비교하여 볼 때 동경용원부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더욱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부거 평지성의 지리적 위치는 문헌에서 제시한 동경용원부의 기록과 부합된다.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맥의 옛 땅을 동경으로 정하였는데, 용원부라 하고 혹은 책성부라고도 하였다. …… 용원은 동남으로 바다에 면하였는데 일본도이다.”²⁴⁾

이 기사에 의하면 동경용원부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면하여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기사의 용원부는 바다에 면한 넓은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정소재지인 동경용원부는 도시로서의 극히 제한된 특정한 지역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동경용원부를 합쳐 부를 때의 뜻은 수부인 동경이 관할하는 용원부가 아니라 동경, 즉 용원부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용원은 그 부 전체가 아니라 수부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2. 역참기사를 통하여 본 東京龍原府의 위치

『三國史記』 권37 地理志에 인용된 賈耽의 『古今郡國志』에서 “발해국의 압록, 남해, 부여, 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39개 역이다”²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라의 천정군은 정천군의 오기(誤記)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천정군이든 신라의 정천군이든 모두 지금의 함경남도 덕원 일대로 비정된다.

39역참의 시발지점은 동경용원부 위치 비정에서의 관건적 문제가 된다. 39개 역은 후기신라의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책성까지 계산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발해국과 신라의 전기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新唐書』 권219 발해전에서는 “남쪽은 신라에 미치고 니하로써 경계를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다.²⁶⁾ 그러나 니하를 어느 강으로 보는가 하는 데 따라 신라의 북쪽 경계선에 대한 이해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니하를 금야강(용흥강)으로 보는 사람들은 후기신라의 북쪽 경계를 덕원으로 보아왔으며 니하를 강원도 강릉시 연곡천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북쪽 경계를 히슬라(강릉) 지방으로 보아왔다.

니하를 금야강으로 보면 역참로의 계산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중세의 역참망 분포는 교통운수수단에서 큰 변화가 없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후세에 들어오면서 교통운수수단의 발달에 따라 역참망이 점차 조밀하여졌을 뿐이다. 사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발해국 시기의 이 지방 역참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의 이성(이원)곡구역과 수성역(청진시 송평구역) 구간의 역참망과 대체로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후반기에 완성된 『경국대전』 이전에 실린 덕원에서 훈춘 근처에 이르는 역참도는 아래와 같다.

철관-양기-화원-초원-봉대-평원-덕산-함원-신은-평포-오천-거산-시리-곡구-기원-마곡-임명-웅평-고참-명원-주춘-영강-오촌-수성-고풍산-영안-무안-연기-훈춘²⁷⁾

위의 역들 가운데서 화원역은 청산역과 통화역이 합쳐서 설치된 것이고, 함원·마곡·곡구·웅평·명원 등의 역은 조선 초기에 새로 설치된 것들이다. 이로 보아 조선 성립 직후에 철관으로부터 훈춘에 이르는 노정에 25개 안팎의 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 권12 3년 6월 계사 조의 함길도 관찰사의 보고에는 “시리에서 회수에 이르는 12개의 역으로 회수도를 설치한다”²⁸⁾라고 하였다. 1421년 당시

24) 『新唐書』 권219 발해전, “濊貊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25) 『三國史記』 권37 地理志에 인용된 가담의 『古今郡國志』, “渤海國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 至柵城府凡三十九驛”.

26) 『新唐書』 권219 발해전, “南比新羅以泥河爲界”.

27) 훈춘은 역참이 아니다.

28) 『세종실록』 권12 3년 6월 계사 조, “咸吉道都觀察使申商啓 高山驛丞所管 自高山

의 회수역은 위에서 든 29개 역 가운데서 수성역 다음 역이다. 시리역과 회수역 사이에 12개의 역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다. 웅평역은 1423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위에서 든 12개 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는 30리(117.81km)가 아니라 그의 2배 또는 3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역참유지라고 보는 24개돌유적 사이의 거리를 보아도 모두 30리가 아니다. 중국 敦化市 경내에 있는 江東 24개돌유적과 官地 24개돌유적 사이의 거리는 56리이다. 官地 24개돌유적과 海靑房 24개돌유적 사이의 거리는 20리이다. 海靑房 24개돌유적과 腰甸子 24개돌유적 사이의 거리는 54리이다. 오직 黑龍江 경내에 있는 慶豐 24개돌유적과 灣溝 24개돌유적 사이의 거리만 30리이다. 이 때문에 발해국 시기 역참 사이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30리로 잡을 수는 없다. 역참 사이의 거리는 경유路線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본다.

역참 사이의 거리를 꼭 30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송나라와 금나라의 역참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1144년에 연경(베이징)에 돌아갈 때의 노정을 기록한 洪皓의 『松漠紀聞』 권2의 기사에서도 그러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2권에서 금나라의 상경 서루(西樓)에서 회령두포(會寧頭鋪) 역참까지 30리, 거기에서 제2포까지 45리, 거기에서 아살포(阿薩鋪)까지 35리, 거기에서 내류하(來流河)까지 40리, 거기에서 보타패근포(報打孛董鋪)까지 40리, 거기에서 빈주(賓州)까지 70리, 거기에서 혼동강(混同江)을 건너 북이주(北易州)까지 70리, 거기에서 제주동포(濟州東鋪)까지 50리, 거기에서 제주(濟州)까지 20리라고 하였다.²⁹⁾ 또한 송나라의

至德山相去五百八十二里 施利驛丞所管 自新恩至懷綏相去六百五十里 兩丞所管 遙隔難以巡察 自高山至青山二十一驛爲高山道 自施利至懷綏十二驛爲懷綏道 自酒泉至居山二十一驛爲酒泉道 加置酒泉道驛丞 從之”.

29) 『松漠紀聞』卷2, “自(金朝)上京至燕二千七百五十里. 上京≤西樓也. 三十里至會寧頭鋪, 四十五里至第二鋪, 三十五里至阿薩鋪, 四十里至來流河, 四十里至報打孛董鋪, 七十里至賓州. 渡混同江七十里至北易州, 五十里至濟州東鋪, 二十里至濟州, 四十里至勝州鋪, 五十里至小寺鋪, 五十里至威州”.

관리 趙彥衛의 『禦寨行程』에서는 구호발(托撒) 근처에서 만칠리패근채(漫七離孛董寨)에 이르기까지 90리, 만칠리(漫七離)로부터 화리간채(和里間寨)에 이르기까지 100리라고 하였다.³⁰⁾ 사정은 청나라 때의 역참 간 거리를 놓고 보아도 비슷하다. 1685년(강희 24) 12월 28일, 호부에서 길림~흑룡강 사이의 25개 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어 黑龍江將軍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길림에서 흑룡강에 이르는 25개 역 사이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길림에서 금주아불라(金珠鄂佛羅站)까지 65리, 거기에서 범륙합변문(法特哈站)까지 75리, 거기에서 맹온하(盟溫站)까지 81리, 거기에서 손찰포소(孫查包站)까지 80리, 거기에서 석백사리촌(舍利站)까지 80리, 거기에서 백도늘촌(伯都訥站)까지 72리, 거기에서 무흥쇠소(茂興站)까지 65리, 거기에서 고로촌(古魯村)까지 73리, 거기에서 탑랍합지(塔爾哈站)까지 70리, 거기에서 다극다려아불라(多耐站)까지 70리, 거기에서 온탁혼지(溫托渾站)까지 70리, 거기에서 특목덕리촌(特穆德赫站)까지 70리, 거기에서 북극촌(布克村)까지 65리, 거기에서 탑합이촌(塔哈爾站)까지 50리, 거기에서 영변지(寧年站)까지 71리, 거기에서 남합강(拉哈河站)까지 73리, 거기에서 객목니객아불라(喀末尼喀站)까지 65리, 거기에서 이랍객지(伊拉哈站)까지 62리, 거기에서 묵이근촌(墨爾根)까지 63리, 거기에서 곽락이하(科洛爾站)까지 70리, 거기에서 객이타이제하(喀塔爾奚站)까지 76리, 거기에서 고목이신강(枯木站)까지 70리, 거기에서 액염릉고하(額爾爾站)까지 48리, 거기에서 흑룡강성(黑龍江城)까지 74리이다.³¹⁾

위에서 든 기사들에 근거하면 역참 사이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30리로 보고 위치 비정을 하면 큰 착오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난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역참 사이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30리로 간과하여 동경용원부의 위치를 혼춘 또는 중성 등지로 확정하였다.

30) 趙彥衛, 『禦寨行程』, “自托撒九十里至漫七離孛董寨, …… 自漫七離行六十里 ≤ 古烏舍寨, 寨枕混同江湄, …… 過江四十里宿和里間寨”.

31) 『盛京通志』卷17, 驛站; 『黑龍江述略』卷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개 역의 총 연장거리를 1,170리(39×30)로 잡고 동경용원부의 위치를 비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팔련성이 덕원에서 1,17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여도 그곳을 책성, 즉 동경용원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진다. 또한 발해국과 조선 초기의 역참망 배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면 덕원에서 훈춘까지 25개 역이 있었으므로 39개 역의 중점에 이르자면 거기서 다시 14개 역의 거리를 연장해야 한다. 그러면 덕원에서 시작되는 39개 역의 중점은 위도상으로 상경용천부와 거의 비슷한 지점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39개 역의 시점을 덕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후기신라의 북쪽 경계였던 다른 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라의 북쪽 경계는 덕원이었던 때도 있었으나 강릉이었던 때도 있었으므로 양양을 계선으로 39개 역의 노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아방강역고』 권2 발해고에서 “…… 생각하건대 이 니하는 우리나라 강릉 북쪽의 니천수”³²⁾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양양 이북지방은 아마도 무후 말년(8세기 초)에 발해 땅에 들어갔으며 현종 천보(742~755) 이후 철관(덕원지방에 있는 관-인용자) 이남 땅이 다시 신라의 소유로 되었다”³³⁾라고 하였다.

양양 이북 철관 이남지역이 발해국에 속한 것은 발해국의 고왕 통치 초기~문왕 통치 초기이다. 이처럼 발해국과 후기신라의 경계는 오늘의 덕원지방이었던 시기도 있었고 강릉지방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고금군국지』에 있는 역참기사는 전날의 후기신라 북쪽 경계와 훗날의 북쪽 경계를 혼동하여 기록한 것일 수 있다. 가탐의 이 기사 자체도 고구려의 천정군과 신라의 정천군을 혼동한 것을 보면 그러한 추론이 허망하다고 할 수 없다.

필자는 니하를 강원도 강릉시 연곡천으로 보며 초기의 신라 북쪽 경계를 하슬라(강릉)지방으로 본다. 조선 성립 직후에 철관 남쪽에는 강릉의 대창역까

지 18개의 역이 있었다.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동덕, 인구, 상운, 연곡, 강선, 원암, 청간, 죽포, 운근, 명파, 대강, 고잠, 양진, 조진, 등토, 거풍, 삭안, 철관

이 18개 역에다 철관 이북의 21개 역을 합치면 후기신라의 북쪽 경계에서 39개 만에 있는 바닷가의 역참인 회수역에 이르는데, 회수역이 바로 오늘의 부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실록』 26년 4월 신사 조에 남쪽 지방 쌀 2만 섬을 굴포(富居)와 사포(화대군)에 운반할 문제를 토의한 기사가 있고,³⁴⁾ 『세종실록』 지리지 함경도 경원도호부의 기사에 고려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 굴포에 조운한 기사가 있다.³⁵⁾

부거는 동해의 이름난 항구였다. 이로부터 『고금군국지』에서 전한 39개 역은 대창에서 회수(富居)까지의 역참노정에 대하여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_ 일본 내왕기사를 통하여 본 東京龍原府의 위치

부거는 겨울철에 얼지 않는 용제항을 끼고 있다. 이 때문에 부거는 동남쪽으로 바다에 면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계속 일본에 배를 띄워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발해국 시기 사신들이 일본을 향하여 떠난 날짜를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사들이 있다. 이 기사들에 의하면 발해국의 사신단이 탄 배는 계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중 일본을 향하여 떠났으므로 출항지는 반드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항행이 많았던 것과 관련하여 동경용

32) 丁若鏞, 『我邦疆域考』 권2 渤海考, “…… 按泥河者 我江陵之北 泥川水也”.

33) 정약용, 『아방강역고』 권2 발해고, “我邦之襄陽以北 盖自武后末年 入於渤海 至玄宗天寶以後 鐵關以南 復爲新羅所有”.

34) 『世宗實錄』 권104, 26년 4월 辛巳條, “…… 本道風水險惡船隻體小漕運南道之米二萬石於北道其勢甚難且漕卒口糧之費幾至漕轉之半深慮救荒之米殆盡依前啓本運慶 道之米於吉州之斜浦富居之屈浦分泊交割爲便予已具悉事意.”

35) 『世宗實錄』 地理志 咸鏡道 慶源都護府.

원부는 반드시 북한 동해 북부의 부동항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이 문제 해명에서 기초가 된다.

북한 동해에 면해 있는 동경용원부는 발해국과 일본 사이의 사신내왕의 관문으로서 발해국에 오는 일본사신들과 일본에 가는 발해사신들은 대부분 이곳을 경유하였다. 당시 일본에 가는 발해사신들이 이용하던 항구에 가까운 동경용원부는 상경용천부의 동남쪽 북한 동해에 면한 곳에 위치하였다. 사신들이 내왕한 일본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발해국과 일본사신들이 동경용원부의 항구를 주로 어떤 계절에 이용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북한 동해와 그 이북의 연해주 앞바다 항행은 근해의 결빙 여부와 해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계절적으로 큰 제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당시 발해국 사신들이 주로 이용한 계절을 따져보면 동경용원부의 위치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현재 발해 사람들이 직접 남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발해사신들이 언제 동경용원부를 출발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일본 측의 역사기록들에 발해사신들이 도착한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하여 발해국 선박의 출항계절을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발해국 사신단의 일본 도착 날짜를 계절별로 보면 봄 4차, 여름 3차, 가을 9차, 겨울 18차였다. 이것은 발해국 사신단이 대부분 겨울철에 일본 항구들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동해를 횡단하는 데 대략 반 개월 걸리는 것으로 보면 18차의 항행은 모두 겨울철에 진행된 것이 된다.

발해사신들은 778년 이후, 즉 후기부터는 대체로 겨울철에 많이 출항하였다. 당시 발해국 사람들이 겨울철에 많이 떠난 것은 계절풍의 이용과 관련된다. 기계배가 없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바람과 해류가 항해를 크게 좌우하였다. 북한 동해는 겨울철에는 비교적 차고 맑은 날씨를 동반하는 메마른 서북풍이 불어오며 여름철에는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바다가 조용하나 강한 서남풍과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바람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나 동북풍 또는 서북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발해국 사신단이 일본으로 갈 때 겨울철에 많이 떠난 것은 대륙에서 불어오는 서북풍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발해국 사신단이 겨울철에 일본에 많이 갔다는 것은 동경용원부의 외항이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었음을 의미한다. 일부 사람들은 발해국 사신단이 이용한 배들이 일본으로 갈 때 연해주의 포시에트항을 이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의 포시에트 앞바다는 10월부터 얼기 시작하여 12월이면 근해가 다 얼어붙어 배가 다닐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타타르해협을 북부를 제외한 전반적 수역에서 얼음은 4월 중순부터 녹기 시작하여 5~6월에 가서야 다 없어진다. 20세기 초엽에 포시에트만 지역에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체험담에서 “포시에트만의 동결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며 얼음의 두께는 약 5자(1.51m)에 달하여 (그 위로) 자동차와 마차의 빙상교통이 극히 안전하고 바다 항행 등은 생각할 수도 없다”³⁶⁾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의 체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의 기후는 현 시기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였다. 지구표면의 기후는 역사적으로 온난기와 한랭기로 엇바뀌며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600년부터 1000년, 즉 발해국이 존립한 기간의 기후는 온난기(溫暖期)에 해당한다.

당시의 기후는 800년을 주기로 온난하였는데 1900년대도 역시 온난기로서 발해국 존립 당시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북한 동해와 연해주 앞바다의 겨울철 기후는 발해국 존립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포시에트항은 겨울철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발해사신들의 출항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상경용천부의 동남쪽에 위치한 북한 동해의 항구들 가운데서 겨울철에 얼지 않는 항구는 두만강 이남에만 있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발해국에서 일본으로 출항하는 배는 반드시 두만강 이남지역의 부동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두만강 이남의 동해 북부 연해의 부동항은 나진·선봉지대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있으나 그 가운데서 용제항이 발해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구로 이용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동경용원부의 일본 출항 항구를 통해서도

36) 新妻利久, 1969, 『일본발해국사와 일본과의 국교사의 연구』(일본), 도쿄전기대학출판국.

동경용원부가 두만강 이남지역, 즉 부거 일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해국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함께 기상학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류와 계절풍을 잘 이용하여 안전하게 단시일에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의 서쪽 지역 항구들에 닿을 수 있었다.

부동항을 두만강 이남에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서 동기 항행이 불가능한 포시에트항을 출항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실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거가 일본에 가는 사신단이 내왕하는 항구를 끼고 있었다는 것은 상경용원부의 동남 바닷가에 면한 동경용원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해국 때 동경용원부의 위치는 오늘의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였다. 그러나 발해국 존립의 전 기간 부거에 동경용원부가 위치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필자의 미숙한 생각으로는 한때 함경북도 화대군 사포리 근처의 용원리에도 동경용원부가 위치하였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①용원이라는 지명이 부거리와 용원리 두 곳에 있고, ②용원이 속한 화대지방에 발해국 시기의 유적·유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③후세의 왕조에 이르기까지 부거와 사포는 동해에서 해상운수에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①의 문제부터 보겠다. 역사적으로 발해국 상경용원부의 동남쪽, 즉 동경용원부에 비정할 수 있는 지역의 바닷가에는 오늘의 부거리와 화대군 용원리밖에 없다. 사포 일대가 부거와 함께 한때 용원이라는 지명을 가진 것은 발해국의 동경용원부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②의 경우 용원리를 비롯한 화대 일대에서 발해국 시기의 유적·유물이 매우 많이 출토된 것은 이곳이 발해국에서 높은 급의 지방행정단위 소재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대 일대는 발해국의 영역 안에서 그 유적·유물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조선 초기에 경상도에서 함경도에 쌀을 수송하는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을 때 사포는 굴포(부거의 외항 용제)와 함께 그 수송 대상지로 등장하였다.³⁷⁾ 이것은 그 전날 발해국 때에 굴포와 사포(용원)가 해상운수에 널

리 이용된 일이 있는 항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심화시켜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는 일본으로 가는 항로의 주요 출발지가 포시에트만이 아니라 부거리 일대로 본다면 일본 역사서에 나오는 토호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토호포는 발해국 남해(한국 동해)의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였다. 『속일본기』 보구 8년(777) 정월 계유 조에 발해 사신 사도몽(史都蒙) 등이 쓰시마의 쓰쿠시[竹室]의 나무를 향하여 남해부의 토호포에서 출항하였다는 기사³⁸⁾가 실려 있다. 토호포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8장 8의 토라호(吐羅湖), 즉 톨호포(북청군 강상리)인데, 이 호수는 옛날에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큰 포구였다. 사도몽 사신단은 풍파로 조난당하여 187명의 승원 중 141명이 죽고 겨우 46명만 살아남았는데, 이것은 발해국~일본 항행사상 최대의 조난사고였다. 이에 따라 그후에는 발해국 사신단의 토호포 출항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토호포에서 출항하기 위하여 발해국 사신단은 우선 동경용원부를 경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경압록부의 신주와 풍주 등지를 경유하여야 하였다.

일부 논자들은 토호포를 경성군 독진이나 금야(영흥)만에 비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 독진을 토호포로 비정하면 토호포는 동경용원부의 외항인 용제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신당서』 발해전은 동경용원부를 수도 상경용원부의 동남방향에 있다고 하였으며 『속일본기』는 토호포를 남해부의 소속으로 기록하였다. 100리 될까말까 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거와 독진 가운데서 하나는 동남 방향의 용원부에 속하였고, 다른 하나는 남쪽 방향의 남해부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신당서』 발해전에 실린 동경용원부의 방향과 남경남해부의 방향기사에도 맞지 않는다.

37) 『世宗實錄』世宗二十六年 四月 辛巳條, “本道風水險惡船隻體小漕運南道之米二萬石於北道其勢甚難且漕卒口糧之費幾至漕轉之半深慮救荒之米殆盡依前啓本運慶道之米於吉州之斜浦富居之屈浦分泊交割爲便予已具悉事意.”

38) 『속일본기』 보구 8년(777) 정월 계유 조, “都蒙等發自弊邑南海吐號浦西指對馬島竹室之津.”

또한 토호포를 금야만에서 찾을 수도 없다. 발해국의 일본 출항지를 후기 신라에 바짝 접근한 금야지방에 비정할 수 없다. 토호포는 주로 국내의 연해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배들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이곳에서 출항하는 일본항행은 776년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동경용원부로의 천도에 대하여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에 의하면 발해국은 당나라 貞元 시기에(상경으로부터) 동남쪽의 동경으로 천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⁹⁾

그렇다면 대흙무는 무엇 때문에 수도를 상경에서 동경으로 옮긴 것일까?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때는 785년,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천도한 때는 794년이다.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왕조든 수도의 정립 문제는 아주 중대한 대사였다. 수도는 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의 중심지로서 통치와 왕권의 강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발해국은 동경에 수도를 정한 기간이 9년밖에 되지 않았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동경으로의 천도 원인에 대하여 지금 학계의 관점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첫째, 해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 바다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그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하여 발해는 동해바다에서 어업을 발전시키고 소금생산을 경영하였다. …… 발해는 소금생산을 경영하여 국용과 민용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업을 발전시켜 대외 무역도 발전시켰다. …… 동경용원부는 훈춘하 하류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모두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지리적 형세와 자연조건은 상경과 비슷하다. 그러나 동경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상경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동경에 천도하여 발해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둘째, 대외 왕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일본과의 왕래를 발전시키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농업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 (훈춘)은 도문강과 훈춘하(琿春河)를 끼고 있기에 수원이 깊고 수량이 많아 관계에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토질이 비옥하고 기후가 따뜻하여 농사가 잘되므로 양식산랑구(곡창-필자 주)로 이름났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흙무는 785년에 수도를 상경으로부터 동경용원부로 옮겼다.⁴⁰⁾

필자도 위의 관점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동감한다. 동경으로 천도한 주요 원인은 일본 왕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문왕 대흙무 통치시기는 발해국과 일본의 왕래가 가장 빈번했던 때였다. 일본 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문왕 인안 8년(727)에서부터 문왕 대흙무 말년까지 발해국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중 문왕 통치기간에 파견한 것이 11차례이다. 같은 시기 일본은 발해국에 사신을 9차례 파견하였는데, 문왕 통치시기에 파견된 것이 8차례이다. 당시 발해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발해국과 일본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동경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발해국은 수도를 동경으로 옮긴 후 일본과의 왕래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발해국의 제반 사회발전을 촉진하였다. 즉 동경으로의 천도는 일본과의 교류와 맞물려 발해국의 사회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경으로의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발해국이 사신을 파견한 정황을 고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렵 당에 대한 사신파견은 782년부터 791년 사이에 한 차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에서 발해국에 대한 사신파견도 공백이었다. 대흙무 통치 전기에 1~2년마다 적어도 1번씩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던 상황과 아주 대조적이다. 사신파견이 다시 기록에

39) 『新唐書』 권219 渤海傳, “貞元時, 東南徙東京”.

40) 방학봉, 1992, 앞의 책.

나타나는 것은 791년 정월과 8월의 大常靖과 大貞翰(대흠무의 아들)의 朝唐이다. 그후 다시 본 상태로 회복된다.⁴¹⁾ 일본과의 교류도 같은 상황이다. 발해국의 사신파견은 771년, 772년, 773년, 776년, 777년, 778년, 779년에는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기록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786년과 795(9년)년이다. 이 기간에 일본의 사신도 발해국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바로 이 기간에 발해국이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하였다. 무슨 사유였을까?

793년 3월에 이르러 대흠무가 사망하고 族弟 대원의가 즉위한다. 기록에 의하면 대흠무에게는 아들 다섯이 있었다. 맏아들은 부왕보다 먼저 죽었고,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둘째 아들(대정환)은 이른바 '宿衛'라는 명목하에 인질로 잡혀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가 있었으며, 그 외 세 아들은 모두 국내에 있었으나 그 누구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다. 대흠무 후에 왕위에 오른 족제 대원의는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國人에게 살해되고 대흠무의 손자인 대화여가 왕위에 오르게 되며, 794년에 다시 상경으로 천거하고 연호를 '中興'으로 改元한다. 대흠무 전의 왕위 계승을 보면 고왕 대흠무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무왕 대무예가 왕위를 계승하고, 대무예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문왕 대흠무가 왕위를 계승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발해국의 왕위 계승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는 봉건예의를 엄격히 실행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동경으로의 천도 전후에 발해국 왕실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주 심한 권력쟁탈전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또 대화여가 연호 '中興'으로 한 것은 지배층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쇠약해진 발해왕국을 다시 진흥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시 말하면 대흠무 말기에 그가 모종의 원인으로 국세를 돌볼 수 없는 틈을 타 정권을 장악한 자(대원의 일파)가 자기의 통치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동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나라와 일본의 거절을 받고 국교를 맺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사신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었다가 그후(793년)에 국인사건을 통하여 대흠무의 직계 자손인 대화여가 다시 발해국의 정권을 장악한 후 정통을 계승하여 진흥한다는 뜻에서 연호를 중흥으로 고치고, 상경으로 천도하고, 다시 당나라·일본과 정상적인 국교를 펼치지 않았는가 여겨진다. 혹시 이것이 동경으로 천도한 주요 원인이 아니었을까? 물론 위에서 서술한 필자의 추정은 사료의 제한으로 논증을 가할 수는 없다.

IV. 맺음말

위에서 발해국 동경용원부의 지리적 위치, 천도 원인에 대한 선인들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하였다. 논의된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해 동경용원부의 위치는 부거리 일대의 봉수와 부거 지방에서 드러난 유적·유물을 근거로, 유관역참 기사와 발해국 사신단의 일본 내왕 기사를 통하여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부거리가 바로 발해국의 동경용원부라고 본다.

천도를 전후한 시기의 사신파견기록과 왕위 계승 문제, 국인사건, '중흥' 연호 등을 통하여 동경용원부로의 천도는 일본과의 왕래에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발해국 통치집단 사이의 왕위를 둘러싼 권력다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본다.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학계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41) 『舊唐書』, 渤海靺鞨傳.

[ABSTRACT]

On the Two Issues of Donggyeong yongwonbu of Balhae

Yin, Xuanzhe

The kingdom of Balhae was founded in 698, fully three decades after the demise of Koguryo, and fell to the Khitans in 926. During the kingdom's existence for 229 years, 15 kings came and went and there are five 'gyong', twelve 'pu' and sixty-two 'ju' in the whole country. Balhae was known as the 'Prosperous State of East' (Haedongsungguk) at its peak prosperity and boasted of its splendid developments to the world, thereby opening the civilized period in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and cultural field. Unfortunately, Balhae left no historical materials for late ages and was covered with a layer of mysterious veil. The study of Donggyeong yongwonbu of Balhae was very lively, but the textual research about its location and moving the capital from Sanggyeong to Donggyeong was very ra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location of Donggyeong yongwonbu, the reasons for moving the capital to Donggyeong yongwonbu and Japanese Road of Balhae.

The brief discussion of this paper is as the follow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mains unearthed in the Bongsu and Bugeo of the Bugeoli area and the records of the related posts and Balhae envoys visiting Japan, this author holds that Bugeoli of Cheongjin city of North Hangyong Province is the location of

Donggyeong yongwonbu of Balhae. According to the envoy-sending records before and after moving the capital and the problems of the succeeding to the throne, 'Kuk-in Incident' and 'Chunghyong' reign title, moving the capital to Donggyeong yongwonbu was not only for the convenient of the communications, but also related to the succeeding to the throne among the Balhae ruling group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achievements and the historical remains distribution, Bugeoli is the location of Donggyeong yongwonbu.

It is definite that this paper has some problems and shortcomings. This author earnestly request to be criticized and given directions.

keywords

Balhae, Donggyeong yongwonbu, Moving capital, Japanese Road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뗏목탐사를 통한 발해의 동해해상항로 연구

김 윤 배 |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권 용 인 |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이 소 희 | 발해1300호 지원팀장

I. 머리말

1997년 12월 31일, 229년간(698~926) 만주·연해주 일대를 통치했던 발해건국 1300주년을 기념하고, 발해와 일본의 동해 해상항로를 복원하기 위하여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해상항로 학술뗏목 대탐사대'(이하 발해1300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돛을 올렸다. 발해1300호는 바람과 해류에 의지하여 겨울철 동해를 횡단하였다. 울릉도 주변해역을 거쳐 일본 오키(은기)제도의 (도고)섬 연안에 도착하였으며, 육지 접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악천후를 만나 탐사대원 4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발해1300호는 고대항로의 원초적 복원을 위하여 고대양식을 기초로 뗏목(발해1300호)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역사인식의 변방으로 푸대접 받아온 발해사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해양강국 발해의 해상활동을 구체적·실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발해역사의 실증적인 복원을 추구하고있다. 사고 후 러시아 극동대학교는 발해 고대 해상항로 복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탐사대장을 맡은

장철수 씨에게 명예 해양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내부에 발해1300호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의 항해의미를 알리고 있다.

이 논문은 ①발해 건국 1300주년을 기념하여 발해 해상항로를 실증적으로 복원한 발해1300호의 항해를 소개하고, ②탐사대원들이 기록한 항해일지와 무선통신 교신 기록, 그리고 발해1300호 항해기간 중의 표층해류와 바람자료를 바탕으로 발해1300호 항해 경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③발해인들의 동해 해상항로 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해석함으로써 발해1300호 항해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자료

이 연구에서는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발해1300호 항해일지에 기록된 위치정보와 바람 및 표층해류 관련 기록을 사용하였다. 발해1300호는 나침반과 목측에 의존하여 기상 및 해류 관련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GPS를 이용하여 뗏목의 위치정보를 기록하였다. 위치정보는 발해1300호와 교신한 아마추어 무선통신(HAM) 교신기록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량적인 바람자료를 위해서는 유럽중층기상예보센터(ECMWF; European Center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에 의해 계산된 1996~2001년 사이의 1일 간격 10m층 동해 광역 바람자료를 사용하였다. ECMWF 바람자료는 경도 0.5°(약 55.56km)와 위도 0.5° 간격의 자료로, 동해에서 ECMWF 바람자료는 선박에서 관측된 바람자료에 비해 바람응력이 15~25%만큼 일정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ECMWF 바람자료와 함께 발해1300호 항해기간인 1998

1) Dorman, C. E., R. C. Beardsley, R. Limeburner, S. M. Varlamov, M. Caruso,

년 1월에 울릉도 기상대에서 관측한 바람·기온 자료를 사용하였다.²⁾ 표층해류 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1994~2006년에 걸쳐 동해에 투하한 인공위성추적 표층추적부이(Argo drifter) 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Argo drifter는 수심 약 15m에 해류판을 부착하여 표층해류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면서 인공위성에 위치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표층해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간별 거리는 Google Earth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도구를 사용하였다(<http://earth.google.com>). 발해시대 항해시기의 양력변환을 위해서는 웹에서 제공하는 만세력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http://cgi.chol.com/~kohyc/calendar/index.cgi>). 항해 가시거리 계산에 필요한 일본 주요 산 정상부의 높이는 웹에서 제공하는 일본지리검색(<http://www.mapion.co.jp/>)과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³⁾를 참조하였다.

III. 발해1300호 항해목적 및 진행과정

1. 항해목적

발해1300호의 항해목적은 김윤배·이소희(2002)가 지적한 것처럼 발해역사를 실증적으로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발해1300호는 항해 초기 계획서에서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이하여 주변국가에 의해 아전인수 격으

and N.A. Dashko, 2005, "Summer atmospheric conditions over the Japan/East Sea," *Deep Sea Research II* (52), pp.1393~1420.

2) 기상청, 1998, 『기상월보』.

3) <http://www.gsi.go.jp/KOKUJYOHO/MOUNTAIN/mountain.html>.

로 해석되고 있는 발해 역사의 실증적 복원을 1차적 항해 동기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특히 학문연구에 있어 지나친 확대해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육상에서의 역사연구는 유적이거나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그 접근이 가능하지만 바다는 그 흔적을 찾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고고학적 유물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살펴 바다의 이동경로를 추측하는 현실에서 뗏목항해를 통해 바람과 해류에 원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발해의 일본 해상항로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⁴⁾ 발해1300호는 이를 위하여 ①발해시대 출항항구로 연구된 크라스키노의 입지조건, ②발해와 일본의 해상항로 및 주요 입출항지, ③고대선박의 구조와 생활상, ④발해선박의 겨울철 항해조건을 주요 연구과제로 초기 계획서에 담고 있다. 또한 항해일지에 따르면 발해1300호는 발해인들이 항해 경유지로서 울릉도·독도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항해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2. 준비과정

발해1300호가 발해 해상항로 복원이라는 계획을 잡은 것은 항해 8개월 전인 1997년 5월 무렵으로 장철수 탐사대장에 의해서였다. 항해 계획부터 항해 마지막까지 장철수 대장이 중심에 있었다. 장철수 대장(1960년생)은 대학에서 러시아어학을 전공하였으며, 1987년 처음으로 독도 관련 대학 동아리(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문제연구회)를 창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7월에 한국탐험협회가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행한 울릉도~독도 뗏목탐사에 참여하면서 뗏목탐사와 인연을 맺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21세기 바다연구소'를 창립하여 영토문제와 문화·역사의 토대로서 해양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해사법학 전공)에 진학하여 지식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남다른 이력과 발해건국 1300주년(1998)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합해져 발해1300호라는 역사

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원 구성은 초기에 한·러 공동팀을 구상하였지만 러시아 내부 사정으로 러시아 대원은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장철수 대장과 이덕영(선장) 이용호(촬영) 임현규(통신)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덕영 선장(1949년생)은 울릉도 출신으로 푸른독도가꾸기모임 대표로 일하고 우리 꽃 보전운동을 벌이는 등 농심마니로서 영토와 역사에 관한 남다른 활동을 보였다. 독도 나무심기의 산증인이기도 하였다. 이용호 대원(1963년생)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었다. 1996년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국제요트대회 사진촬영을 맡으며 이 대회 주최자 중 한 명이었던 장철수 대장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 아마추어 무선 통신국에서 활동했던 전남 구례 출신의 임현규 대원(1971년생)은 아프리카·중국·일본 등지를 여행 다녔던 탐험가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운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림 1〉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정박 중인 발해1300호(왼쪽 사진은 출항일인 1997년 12월 31일에 촬영)

뗏목 제작은 대원들에 의해 직접 진행되었다(그림 1). 뗏목에는 2개의 돛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돛에는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비천상과 치우천황을 그렸다. 한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표현한 것이다. 뗏목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15m 규모였다. 뗏목은 출항 2개월여 전인 11월 중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초스킨 44부두 조선소에서 제작되었다. 뗏목의 목재로는 구상나무, 삼나무, 대나무와 함께 잣나무가 주로 사용된다. 구상나무는 무게가 가볍고 부력이 뛰어나 제주의 전통 뗏목인 폐배를 만드는 데 활용되었으며, 삼나무는 독특한 냄새

4) 발해 해상항로 뗏목 대탐사대, 1998, 『발해1300호 항해일지』.

새로 바다해충을 방지하여 고대 목선에 많이 사용되었다. 가볍고 부력이 좋은 대나무는 2003년 동아시아중해 장보고호 학술 뗏목 탐험에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잣나무는 노아 방주의 목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발해1300호는 당초 잣나무를 목재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현지사정으로 러시아산 물푸레나무를 사용하였으며, 견고한 뗏목 제작으로 항해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견고한 뗏목 제작의 중요성은 지난 2005년 2월 동해탐험에 나선 '2005 발해호'의 시행착오 사례(항해과정에서 파도에 뗏목이 반파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에서 여실히 증명된 터였다.

발해1300호의 준비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초기 항해계획서에서 항해 예산은 4,150만 원(뗏목 제작 600만 원, HAM 및 GPS 500만 원 등) 규모로 최소한의 경비를 고려하였지만, 당시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1997년 12월 3일 정부와 IMF 간 양해각서 합의에 즈음하여 국내는 IMF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후원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변 지인들의 후원만으로는 크게 모자라서 장철수 대장은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던 집까지 정리하였다. 다행히 러시아 극동대학(숙소를 위해 학교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재정후원까지 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교민, 유학생, 현지 기업들의 도움으로 출항할 수 있었다.

발해1300호의 출항지는 블라디보스토크였다. 하지만 초기에 발해1300호는 발해의 일본 해상항로 출발지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크라스키노 출항을 계획하였다. 크라스키노는 발해의 일본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동경용원부(현재의 중국 훈춘시 삼가자향 팔련성촌) 소속의 염주가 위치한 곳이었다. 일본도의 출발점이었던 동경용원부에서 육로로 염주로 이동하여, 염주에서 배로 일본으로 향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⁵⁾ 염주 외에 남해부 토호포나, 염주의 항구가 겨울철에 얼어붙기 때문에 다른 항구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크라스키노는 발해의 일본도 출발지점으로 유력하게 지목된다. 하지만 크라스

5) 송기호, 1993, 『발해를 찾아서』, 숲, 155쪽; 방학봉, 2005,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345쪽.

키노는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국경까지 직선거리는 약 20km) 발해 1300호는 출항 후 북한 영해 침범 우려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차선책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좀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 발해의 영토였던 인구 65만여 명의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정책의 중심도시이자 해외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근세에는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 역사의 현장이다. 장철수 대장은 항해일지에서 발해1300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축제를 벌인 뒤 출항함으로써 해동성국으로 융성하였던 발해의 민족혼과 자부심을 러시아 주재 한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발해 1300호의 의지는 그들을 기억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한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해1300호가 항해를 준비하고 항해한 시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였다. 1997년 8월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이 있었으며, 10월에는 남북한 평양비행정보구역 항로개설 합의 등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경제는 큰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15대 대통령 선거(12월 13일)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요청에 의하여 정부와 IMF 간의 양해각서가 합의(12월 3일)되면서 국내경제는 IMF체제에 진입하였고, 국민은 대규모 실직사태를 감당해야 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국내의 사정 때문에 후원 마련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한편 발해1300호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날인 1998년 1월 23일은 IMF 국가경제위기 속에서 한·일 간의 어업체제였던 한일어업협정⁶⁾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통보한 날이었다.

6)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1965년 6월에 체결되었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배타적경제수역(BEZ) 도입 등 국제해양법 질서가 바뀌자 이에 따른 새로운 어업관계 설정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독도영유권 문제로 양국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1965년의 어업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3_ 사고처리 과정 및 이후 기념사업

1997년 12월 3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하여 1998년 1월 23일 사고 직전까지의 항해과정은 다음 절에서 해류 및 바람 분석과 함께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고처리 과정과 이후 기념사업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발해1300호는 1월 23일 오후 5시에 일본 오키제도의 도고섬 북서쪽 약 7.8km 해상에 표류하고 있었으며, 섬 주변의 암초와 초속 18m의 강풍을 동반한 4~5m의 높은 파도 때문에 오후 8시경 구조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구조요청을 받고 오후 9시 무렵 현장에 도착한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헬기는 기상악화와 야간이라 쉽게 뗏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조헬기는 1월 24일 0시 15분경 도고섬 서쪽 7km 해상에서 뒤늦게 뗏목을 발견했지만 야간과 악천후 속에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뗏목과 교신만 지속하였으며, 새벽 5시 50분경에는 교신마저 두절되었다. 이때 뗏목은 구조를 기다리며 닻을 내려 해상에 정박 중이었다. 새벽 6시경 구조헬기가 뗏목을 다시 발견했을 때는 대원 1명(이덕영 선장으로 고려됨)이 뗏목에 몸을 묶은 채 있었으며, 2명(임현규 대원, 이용호 대원)은 뗏목 근처 거친 파도에서 표류 중이었다. 헬기의 구조대가 표류 중인 이용호 대원을 먼저 구조하였지만 구조 직후 사망하였으며,⁷⁾ 임현규 대원과 뗏목에 몸을 묶었던 이덕영 대원은 거친 파도에 몸이 휩쓸려 구조에 실패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항해 기간 중 최악의 해상조건에서 닻을 내려 해상 정박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닻줄이 끊기면서 뗏목이 뒤집힌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 직후 발견된 뗏목은 전복된 상태였다(그림 2).

사고 직후인 1월 24일 오전 7시경 사고소식을 접한 발해1300호 지원팀, 한국탐험협회의 이경남·이현필 등 관계자들은 유족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사고과정을 조사하였다. 대책위원회가 귀국한 후인 1월 29일에 일본 해상보안청 및 지역 관공서 등의 협조



〈그림 2〉 일본 도고섬 연안에 좌초된 뗏목(1998년 1월 25일).



〈그림 3〉 장철수 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러시아 극동대학 관계자들(1998년 2월 24일).

하에 수색대원과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이덕영 선장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임현규 대원은 2월 2일, 장철수 대장은 2월 11일에 도고섬 해안가에서 시신의 일부 혹은 훼손된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덕영·이용호·임현규 대원의 장례식에 이어 뒤늦게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장철수 대장의 영결식은 2월 24일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열렸다. 특히 장철수 대장의 영결식장에는 러시아 극동대학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발해인들이 연해주에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을 왕래하였음을 증명해 해양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공로로 장철수 대장에게 명예 해양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그림 3). 한편 임현규 대원의 부모는 사고 직후 아들의 대학 졸업장(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을 대신 받아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다.

사고 이후부터 발해1300호의 뜻을 기리는 추모행사들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장철수 대장의 모교인 마산상고(현 용마고) 총동문회, 한국외국어대 독도문제연구회, 지인들로 구성된 철수생각, 임현규 대원의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매년 추모제가 진행되었으며, 추모 1주기인 1999년 1월에는 통영에서 발해1300호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최근에는 발해1300호 기념사업회가 설립되면서 매년 추모식과 기념행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http://www.balhae1300ho.org>). 또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장철수 대장의 유고집 「바다의 노래, 땅의 노래」와 발해1300호의 항해를 재구성한 「발해1300호 우리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가 발간되었다(2005년 5월). 2006년 10월에는 이덕영 대원이 몸담았던 농심파

7) 동아일보, 1998년 1월 26일자 23면; 월간 중앙 WIN, 1998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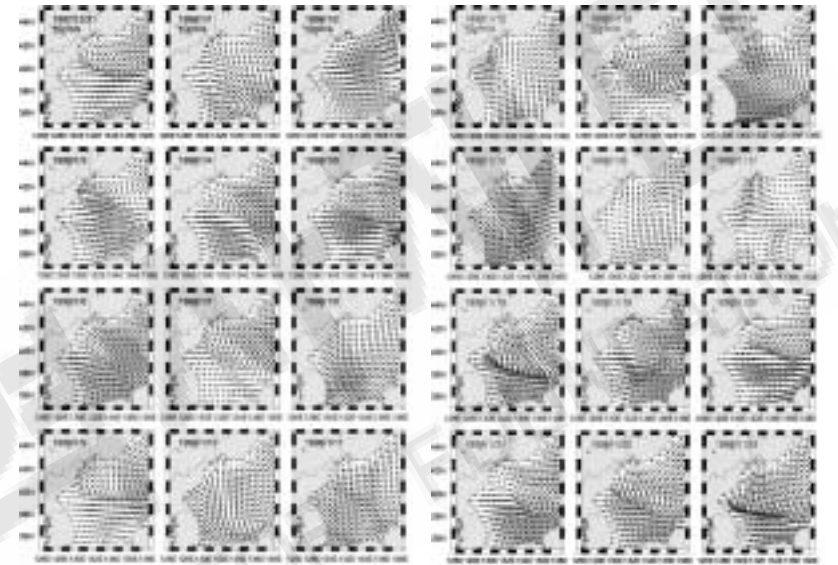
니(대표 박인식)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덕영 선장의 고향인 울릉도 석포에 이덕영 선장의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IV. 발해1300호 항해경로 분석

1. 해상풍 특성

기계적 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표류선박은 해수유동과 바람에 의해 이동한다. 최근 표류선박의 이동에 관한 현장실험 결과에 따르면, 선박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박의 표류속도는 풍속에 비하여 3~5%, 유속에 비하여 8.5~17.4%의 비율을 가지며, 표류방향은 풍향에 대해서는 $-90\sim 90^\circ$, 유향에 대해서는 $\pm 45^\circ$ 의 범위에서 선박은 편향한다.⁸⁾ 선박의 표류실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계적 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표류선박의 경우 바람과 해류⁹⁾ 등 외부 환경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해에서 일본으로의 항해가 북서풍이 강한 겨울철에 집중된 특징은 발해가 바람을 이용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¹⁰⁾ 발해 해상항로의 복원을 목표로 한 발해1300호 항해 연구는 겨울철 항해와 기계적 동력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통해서 발해시대 해상항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4〉는 발해1300호 항해기간 중 ECMWF 자료에서 나타나는 1일 간격의 바람의 공간적 분포를, 〈그림 5〉는 발해1300호 항해경로상의 주요지점



〈그림 4〉 발해1300호 항해기간 중 1일 간격의 바람의 공간적 분포

에서 1일 간격의 바람의 시간적 분포를, 〈그림 6〉은 울릉도에서 관측한 1일 간격의 바람 및 기온을 보여준다. 항해기간 중에는 대체적으로 북서풍이 불었지만, 동해 해상풍의 몇가지 특징들이 발해1300호 항해기간 중 나타났다. 동해 겨울철 바람의 특성은 약 39° 북쪽의 동해 북부해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응력¹¹⁾장 분포가 나타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외해에 중심을 둔(경도 134° , 북위 42°)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응력장'과 청진 외해에 중심을 둔(경도 130° , 북위 41°)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응력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동해북부 해역의 특징적인 바람장 분포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의 특이한 육지지형에 원인이 있다. 시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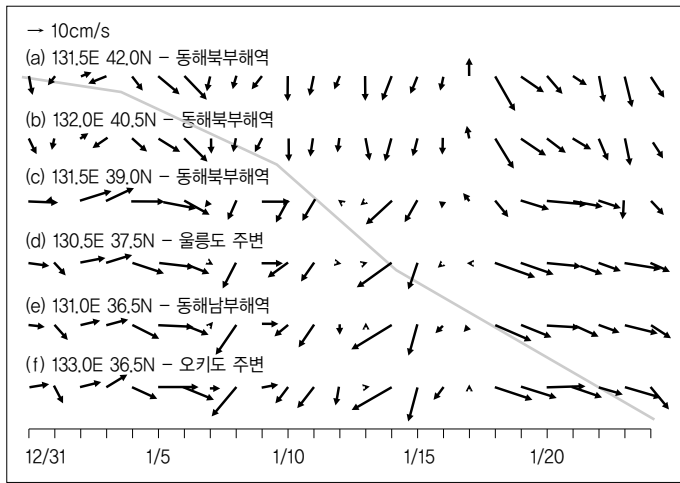
8) 이문진·강창구, 2001, 「소형 선박의 해상표류 특성」, 『선박해양기술』32, 69쪽.

9) 바람과 해류는 방향을 언급할 때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지만, 해류는 흘러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즉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지만, 북서류는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해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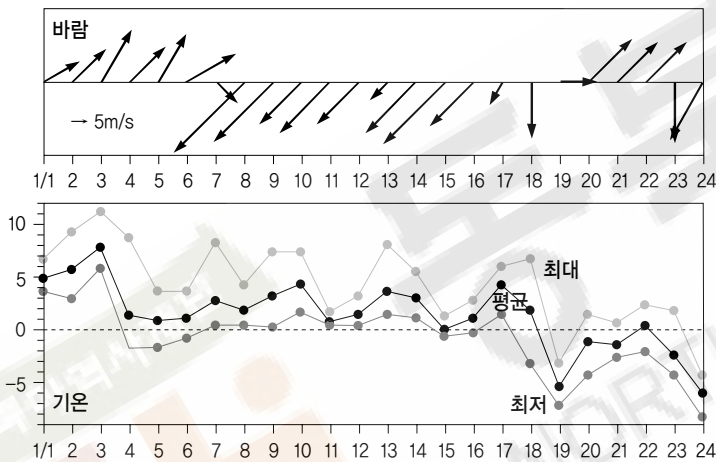
10) 윤명철, 2002,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31쪽.

11) 물체에 외력이 작용할 때 그 외력에 저항하여 물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물체 내에서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 하며, 단위는 단위면적당의 힘이다(N/m^2). 해류에 대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할 때는 풍속(%) 대신에 바람응력을 사용한다.

12) Yoon, J. H., K. Abe, T. Ogata, and Y. Wakamatsu, 2005, "The effects of wind-stress on the Japan/East Sea circulation," *Deep-Sea Research II*, p. 1828.



〈그림 5〉 발해1300호 주요 항로상에서 1일 간격의 바람 분포(ECMWF 제공) 실선은 발해1300호의 대략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6〉 울릉도에서 관측한 1일 간격 최대 바람과 기온

아에서 불어오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골짜기 형태의 육지지형을 만나면서 골짜기와 정상부의 풍속 차이가 발생하여 인근 해역에서 반시계방향 혹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장 특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장은 결과적으로 특정 방향으

로의 지속적인 해류보다는 회전하는 표층해류를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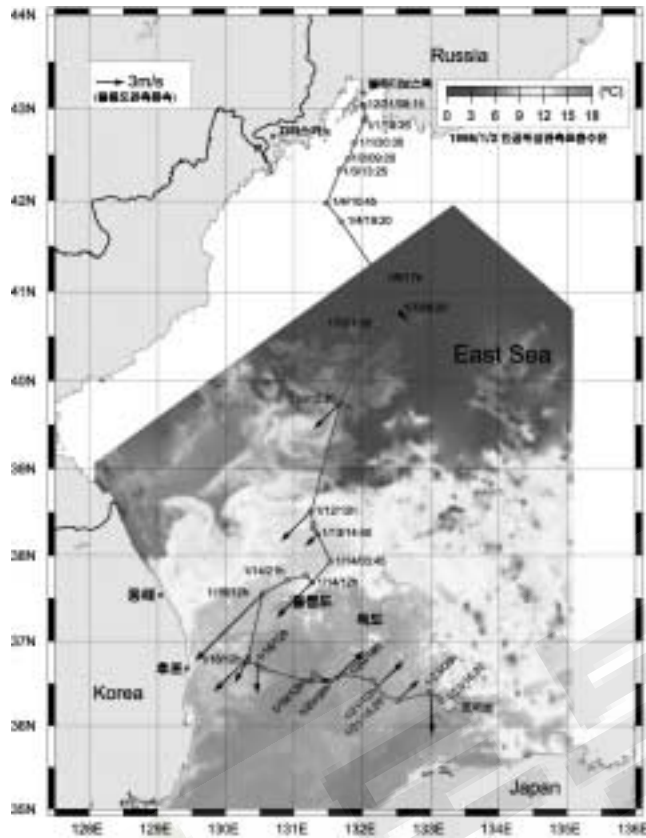
1998년 1월 1일의 청진 외해 바람장 구조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평균적으로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바람장 특성을 보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회전하는 바람장 특성과 육지지형 때문에 동해 전체의 바람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특징을 보인다.

〈그림 5〉에 따르면 항해 초기에는 비교적 약한 북풍이 불었으며, 1월 4일 무렵부터는 북서풍이 불었다. 울릉도 남쪽에 접어든 1월 14일 무렵에는 북동풍의 영향을 받았다. 발해1300호의 진로는 1월 18일에 남서쪽에서 갑작스럽게 동쪽(일본)으로 바뀌었다. 이때 바람 역시 북동풍에서 북서풍 혹은 서풍으로 바뀌어 진로변경에 바람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에서 기온은 발해1300호가 좌초된 1월 24일에 가장 낮았다.

2. 항로경로 분석

〈그림 7〉은 발해1300호의 항해도이다. 항해도는 발해1300호와 육상의 아마추어무선국(HAM) 간의 교신 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997년 12월 3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떠난 발해1300호는 1월 12일 낮 12시에 울릉도 북쪽 110.8km(59.9해리)에 위치하였으며, 울릉도 북쪽을 우회하여 남하한 발해1300호는 1월 17일 오전 11시에 후포 동쪽 75.7km(40.9해리)까지 육지에 접근하였다. 다음날 1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해양경찰청 경비정을 타고 온 지원팀으로부터 해상에서 지원품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1월 23일 오후 5시에 일본 오키제도의 도고섬 북서쪽 7.81km(4.3해리) 해상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당시 도고섬 인근에는 약 14%의 강한 바람이 불어 자체 접안이 곤란하였으며, 'MAY DAY'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8시 56분께 도고섬 북서쪽 약 2km 해상으로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거친 파도와 어둠 속에서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발해1300호는 1월 24일 오전에 일본 오키제도 도고섬 서북쪽 후쿠우라[福浦] 항 남쪽 해변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림 7〉 발해1300호 항해도. 울릉도에서 관측한 바람과 1998년 1월 2일에 인공위성이 관측한 해표면 수온 자료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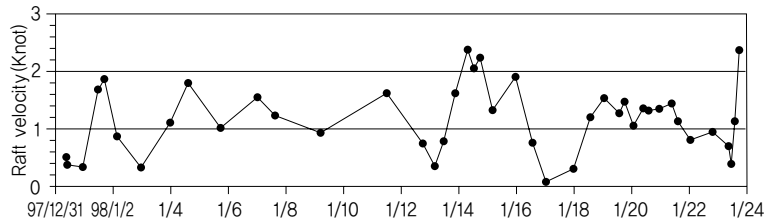
〈표 1〉 발해1300호 항해일지의 기상 및 해류 관련 주요 기록

일시	기상 및 해류관련 주요 기록
1.2 09:00	바람과 조류가 전혀 없다.
1.4 07:00	바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08:30	시베리아의 북풍은 계속 거세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해낼 것이다.
1.5	어제의 거센 바람은 배를 거의 혼수상태로 만들었다.
1.6 14:00	파도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다.
20:00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었다.
1.7 17:40	기다리던 북동풍이다. 약간 미약하지만.
1.9 04:30	계속 북동풍. 그러나 배는 순항한다.
1.11 02:00	북풍이 불고 파도가 높다.
11:00	오늘은 파도가 거칠었다.
1.13 09:00	배가 계속 북쪽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14:00	바람은 북서풍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
22:00	동쪽 해류가 강하다.
1.14 03:45	동쪽으로 많이 흘러갔다.
12:00	폭풍주의보. 3~4m. 파고가 상당하다. 북동풍이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1.17 08:30	해류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1.18 19:00	이상하게 바람은 분명 북서남동 방향인데 GPS는 동쪽으로 치달는다.
1.19 09:30	폭풍우가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계속 동쪽으로 밀린다.
18:00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우리의 바람과는 아랑곳없이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고 있다.
1.20 09:00	바다는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1.21 09:45	좌표는 점점 밀리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늘은 맑은데 바람과 파도는 왜 이러는가?
16:10	파도가 또다시 발광을 한다.
16:20	나침반이 동북쪽으로 돌기 시작했다. 해류 편승 조짐.
1.22 08:50	파도는 너울거리고 바람도 잔다.
18:00	파도와 바람이 치고 있다.
23:20	현재 나침반은 북서를 가리키고 있다. 이상하다.
1.23 11:05	북서풍이 미약해질 시기를 보고 있다.
16:00	바다가 거칠어진다. 배가 섬으로 밀려가고 있다.

〈표 1〉은 발해1300호 항해일지에 기록된 기상 및 해류 관련 기록이다. 항해일지는 사고 직후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해1300호는 나침반과 목측에 의존하여 기상 및 해류 관련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GPS를 이용하여 뗏목의 위치정보를 기록하였다. 위치정보는 수치로 기록이 가능하였지만 기상 및 해류정보는 관측 장비의 부재로 나침반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준비여건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향후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상층 수백m의 해류를 모니터링하는 ADC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표층수온 및 염분을 측정하는 수온염

분계 등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장착함으로써 발해시대의 항해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노력도 시도해 볼만하다.

1월 7일 오후 5시 40분의 기록에 보이는 “기다리던 북동풍이다”라는 글귀로 미루어 1월 7일 이전에는 발해1300호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북동풍 대신에 〈그림 5〉에서처럼 북서풍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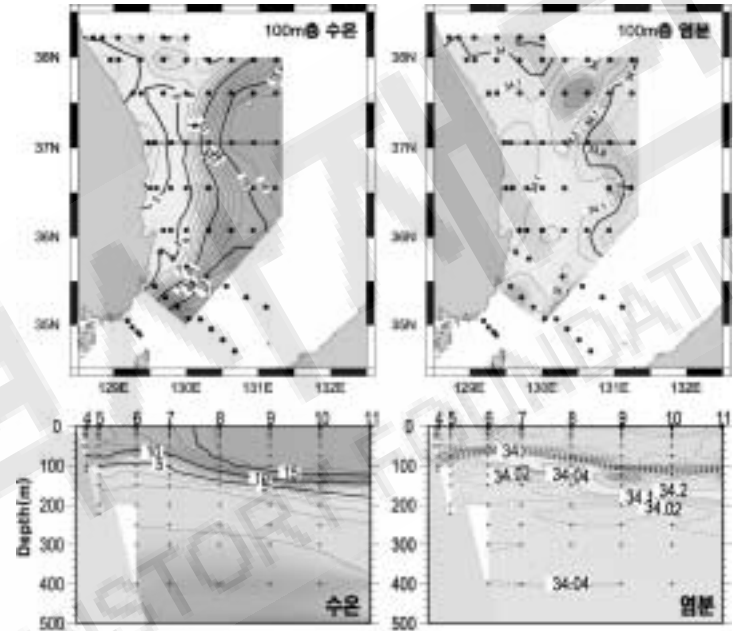


〈그림 8〉 GPS 기록을 통한 발해1300호의 항해속도(단위는 노트)

은 남풍이 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1300호는 실제 1월 4~7일 동안 1.1~1.8노트의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다(그림 8). 이후 발해1300호는 1월 18일에 북서풍을 만나기 전까지 주로 북동풍의 영향을 받아 울릉도 서쪽을 지나 후포 동쪽 40해리까지 접근하게 된다. 발해1300호는 이 기간 중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1월 14일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이 계획을 변경하였다. 발해1300호가 울릉도 북쪽 북위 38° 근처 해역을 향해 중이었던 1월 13일 항해일지에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기록이 보인다.

〈그림 9〉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격월 정선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1997년 12월의 100m층 수온·염분 수평분포와 북위 37°를 따르는 단면에서 수심 500m까지의 수온·염분 연직분포를 나타낸다. 동해 남부해역에서 100m층 수온 분포는 상층 해수유동을 이해하는 좋은 지표이다.¹³⁾ 〈그림 9〉의 1997년 12월 100m층 수온분포를 보면 동해 남부해역에서 강한 수온전선이 동경 130~131°에서 형성되고 있어, 대한해협을 통과한 수온 15°C 안팎의 난류가 한국연안을 벗어나 외해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온분포는 1998년 1월 2일 인공위성 관측 해표면 수온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7). 난류의 영향은 인공위성 관측 해표면 수온분포로부터 울릉도 북쪽 북위 38° 30′ 해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류의 영향으로

13) 한국해양연구소, 1987, 「한국 동해 남부해역에서의 해양순환의 역학적 과정에 대하여」, 한국해양연구소 연구보고서 BSPE 00083-147-1.



〈그림 9〉 동해 남부 해역의 10m층 수온과 염분의 수평 분포와 위도 37°를 따르는 단면에서 수온과 염분의 연직 분포.

발해1300호는 북위 38° 해역에서 1월 13~14일에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동쪽으로만 약 9해리¹⁴⁾(16.67km)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GPS 기록뿐만 아니라, 항해일지 기록에서도 뒷받침된다. 하지만 발해1300호는 〈그림 6〉에서처럼 1월 14일에 울릉도 관측 자료를 보면 최대 약 10%의 강한 북동풍을 만나면서(1월 15일에는 최대 14%의 북동풍이 불었다) 해류보다는 바람의 영향에 크게 의존하여 진로를 다시 남서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1월 14~16일에 걸쳐 울릉도에서는 폭풍 및 폭설의 영향으로 선박 1척이 파손되었

14) 해리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로 1해리는 1.852km이다. 1해리는 위도 1분의 거리와 같다. 배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노트(knot)인데, 1노트는 1시간에 1해리(위도 1분)를 가는 속력이다. 해리와 노트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바다에서는 흔히 해리 단위를 사용한다. 남북 방향의 위도 1분의 거리는 지구상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여도 일정하지만, 동서 방향의 경도 1분의 거리는 지구가 타원체이므로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으며 이재민 3명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발해1300호는 1월 17일 오전 11시에 후포 동쪽 75.7km(40.9해리)에 접근하기까지 북동향으로 흐르는 대마난류수의 영향보다는 비교적 강한 북동풍(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계속 남서쪽으로 항해하였다. 하지만 <그림 5>에서처럼 1월 16일 이후에 북동향의 바람은 약해지며, 1월 18일 이후부터는 북동풍 대신에 약 15%의 강한 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ECMWF 분석 자료). 이러한 바람의 영향은 발해1300호가 목적지 부산 대신에 일본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월 18일 오후 7시에 기록된 항해일지에는 “이상하게 바람은 분명 북서남동 방향인데 GPS는 동쪽으로 치닫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1월 18일 무렵부터 바람의 방향이 북동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고, 해류의 방향이 북동향으로 향하면서 바람과 해류의 영향이 서로 더해져 동쪽 방향으로 뗏목이 항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발해1300호가 북서풍의 영향과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 오키제도 근해에 다다른 1월 23일에 ECMWF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람은 약 14%로 비교적 강하게 불었다. 특히 <그림 6>의 울릉도 기온을 보면 발해1300호가 좌초되었던 1월 24일이 항해기간 중 가장 최저기온을 나타내, 발해1300호가 항해 말미에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발해1300호는 1월 19일 이후의 서풍과 동해 남부해역에 접어들면서 북동향하는 해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최종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일본 오키제도로 항해하게 되었으며, 일본 오키제도에 도착한 1월 23일 무렵의 강한 바람과 냉혹한 추위 때문에 구조과정에서 전원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 것이다.

GPS 기록으로 계산한 발해1300호의 항해거리의 약 1,129km이며, 항해속도는 $0.6 \pm 0.3\%$ (1.2 ± 0.6 노트)를 보였다. 이러한 항해속도는 울릉도 해역에서 ECMWF에 의해 계산된 평균 풍속(9.3%)의 약 6.5%에 해당하는 속도이다. 이러한 비율은 돛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의 선박에 대하여 이문진·강창구(2001)가 계산한 풍속에 대한 선박의 표류속도 3~5%에 비하여 큰 값이다. 풍속에 대한 오차와 발해1300호가 2개의 돛을 사용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V. 발해의 동해 해상항로 검토

1. 발해1300호, 왜 겨울철을 선택하였는가?

발해1300호가 오키제도 연안에 도착한 후 접안 혹은 구조과정에서 대원 전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서 발해1300호 항해를 ‘무모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거기에는 ‘굳이 추운 겨울을 택해 거친 동해바다를 건넌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문에 앞서 ‘왜 발해1300호는 굳이 추운 겨울철을 선택해 출발했는가?’라는 의문도 품어보아야 한다. 발해1300호 사고 후 발견된 항해사진 중에는 겨울철의 냉혹한 추위 속에서 뗏목 얼어붙은 뗏목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항해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며, 항해에 나선 대원들도 그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왜 그들은 추운 겨울 거친 동해바다를 건넌는가?’라는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발해1300호가 실증적으로 복원하려 했던 발해시대 당시의 항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발해시대 일본과의 교류일지로 최재석(1993), 윤명철(2002), 윤재운(200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정리하였다. 발해는 727년 2대 무왕 때 일본에 첫 사신을 파견한 이래 919년까지 공식 사절만 34차례 일본에 파견하였다. 물론 모두 동해를 건너서였다. 또 2·7·8차를 제외하고 10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사이에 일본에 도착하였다(그림10). 특히 19차(819) 항해부터는 겨울철인 12~2월 사이에 대부분 일본에 도착하였다. 발해인들이 겨울철에 동해를 건너 일본에 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에 일본에서 발해로 귀국하는 시기는 여름철에 집중되었으며, 가을·겨울철인 9~1월 사이에는 단 한차례도 없다.¹⁵⁾

이처럼 발해사신들은 일본으로 출발할 때는 주로 겨울철 항해를 선택하였으며, 다시 발해로 돌아올 때는 여름철 항해를 선택하였다. 계절별 항해분포

15) 윤명철, 2002,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32쪽.

〈표 2〉 발해시대 일본과의 교류일지

횟수	일본 도착/임경일 및 도착지역		출경 혹은 출국일 (음력) (필호는 양력)	비고
	음력	양력		
1	727. 9. 21 도착	727. 11. 12 출우국	728. 6. 5 (7. 20)	표작. 2대 무왕 9년 신라, 발해 남쪽 국경 공역(732) 신라, 발해 남쪽 국경 공역(732)
2	739. 7. 13 도착	739. 8. 25 출우국	740. 2. 2 (3. 8)	비1 칙 진복. 3대 무왕 즉위(737). 일본 교류요청으로 교류 재개 일본, 신라사신 방환(738, 742)
민간	746. 10.		?	철리인 참여
3	752. 9. 24 임경	752. 11. 8 좌도	753. 6. 8 (7. 16)	
4	758. 9. 18 임경	753. 10. 22 월전국	759. 2. 16 (3. 23)	일본, 발해에 사신 파견(758). 상경용친부 친도(755) 남해부 탄항관문축조(757)
5	759. 10. 18 도착	759. 11. 16 대마	760. 2. 20 (3. 15)	표작. 일본, 신라 침공계획 수립(759~764)
6	762. 10. 1 도착	762. 10. 26 월전국 가가군	763. 2. 20 (3. 13)	발해사신 문관파견 시작(이전은 무관). 일본, 신라사신 방환(760, 763)
7	771. 6. 27 도착	771. 8. 16 출우국 야대	772. 2. 29 (4. 10)	
8	773. 6. 12	773. 7. 10 능등국	773. 6.	國書 문제로 入京하지 못함
9	776. 12. 22 도착	777. 2. 8 월전국 가가군	777. 5. 13 (6. 26)	표작. 토호포출발
10	778. 9. 21 도착	778. 10. 30 월전국 관정군	779. 2. 2 (2. 26)	國書 문제와 筑紫道로 오지 않았다 하여 임경 포함
11	779. 9. 14 도착	779. 10. 31 출우국	779. 12. 22 (2. 5)	표작. 동경용친부 친도(785)
12	786. 9. 18 도착	786. 10. 18 출우국	787. 2. 19 (3. 17)	표작. 동경용친부 친도(785)
13	795. 11. 3 도착	795. 12. 22 출우지리파촌	796. 5. 17 (6. 30)	일본, 발해사신의 임국연차 감소 결정(792) 표작. 상경용친부 친도(794)
14	798. 12. 27 도착	799. 2. 10 은기국 지부군	799. 4. 15 (5. 28)	일본, 평안경 친도(794). 4대 폐양(793), 5대 성왕(794), 6대 강왕(794) 즉위 발해양주 파견
15	809. 10. 도착	-	810. 4. 8 (5. 18)	신라, 능등국 가가군에 발해객원 설치(804). 7대 정왕 즉위(809)
16	810. 9. 29	810. 11. 3	811. 4. 27 (5. 26)	

(계속)

횟수	일본 도착/임경일 및 도착지역		출경 혹은 출국일 (음력) (필호는 양력)	비고
	음력	양력		
17	814. 9. 30 도착	814. 11. 19 출운국	815. 5. 18 (7. 2)	8대 회왕 즉위(812)
18	817(?)	-	?	9대 간왕 즉위(817)
19	819. 11. 20	819. 12. 4	820. 1. 21 (2. 12)	10대 신왕 즉위(818)
20	821. 11. 13	821. 12. 15	822. 1. 21 (2. 20)	
21	823. 11. 22	823. 12. 31 가가국	824. 6.	
22	825. 12. 3 도착	826. 1. 18 은기국	826. 5. 15 (6. 27)	
23	827. 12. 도착	-	828.	일본, 발해사신 제한조치 요청(827). 청해진 설치(828)
24	841. 12. 22 도착	842. 2. 9 장문국	842. 4. 12 (5. 29)	11대 대이진 즉위(831). 장보고 암살(841). 일본, 신라사신 방환(842)
25	848. 12. 30 도착	849. 1. 31 능등국	849. 5. 12 (6. 10)	
26	859. 1. 22	859. 3. 4 능등국	859. 7. 6 (8. 11)	12대 대간왕 즉위(858)
27	861. 1. 20	861. 3. 9 은기국	861. 5.	
28	871. 12. 11 도착	872. 1. 28 가가국	872. 5. 25 (7. 8)	13대 대현석 즉위(871)
29	876. 12. 도착		877. 6. 15 (8. 1)	
30	882. 11. 27 도착	883. 1. 13 가가국	883. 5. 12 (6. 24)	
31	892. 1. 8 도착	892. 2. 13 출운국	892. 8	
32	894. 12. 도착		895. 5. 16 (6. 16)	14대 대위해 즉위(894)
33	908. 1. 8 도착	908. 2. 17 백기국	908. 8.	15대 대인신 즉위(907)
34	919. 11. 18 도착	919. 12. 17 약협	920. 5. 18 (6. 12)	
35	929. 12. 24 도착	930. 1. 31 단후국	930. 8.	東丹國史

차이의 이유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발해인들이 바람을 활용했다는 기록이다. 842년 발해 대사인 하복연(賀福延)편에 발해 중대성(中臺省)이 보낸 첩문(牒文)에는 ‘바람을 점치고 때를 기다려 출항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¹⁶⁾ 발해인들의 항해에 바람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발해1300호가 10월에 출항할 예정¹⁷⁾이었다가 12월에 출항한 이유, 그리고 추운 겨울철 거친 동해바다를 건넌 이유는 바로 발해시대의 해상항로를 역사적 사실에 맞게끔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2. 발해시대 주요 출항항구로서 크라스키노 검토

발해1300호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돛을 올렸지만,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발해의 일본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용원부 소속의 염주가 위치한 크라스키노를 고려하였다. 크라스키노 외에도 원산이 위치한 금야만에 서부터 러시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까지 동해안에 인접한 항구를 출발항구로 폭넓게 검토하였다.¹⁸⁾ 사실 크라스키노가 주요 출항항구로 지목되기는 하였으나, 「속일본기」에 9차 항해의 출발지가 토호포로 기록되어 있듯이 출항항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경 토호포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함흥설, 북청설, 경성설이 있다.¹⁹⁾ 그런데 크라스키노를 출항항구로서 검토할 때 제기된 문제점이 크라스키노가 위치한 포시에트만이 겨울철에 바닷물이 얼어 배가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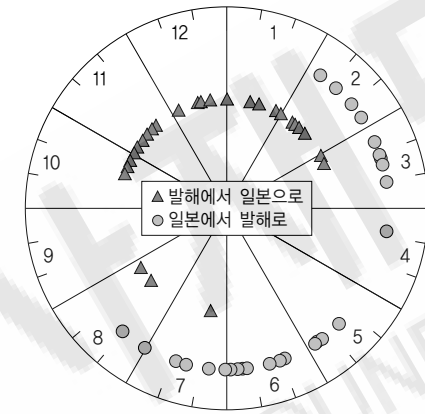
〈그림 11〉은 미국 국립빙하센터(National Ice Center)에서 제공하는 2001

16) 윤명철, 2002, 위의 책,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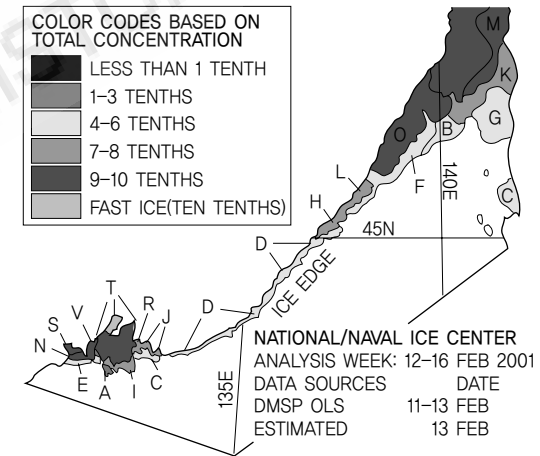
17) 처음의 출항예정일은 1997년 10월이었다. 항해에 대한 국내의 후원이 거의 없어 항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출항연기의 주된 이유였으며, 러시아 극동대학교의 후원과 장철수 대장이 집을 정리해 돈을 마련한 덕에 어렵게 발해1300호를 띄울 수 있었다.

18)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59쪽.

19) 윤명철, 2002, 앞의 책, 2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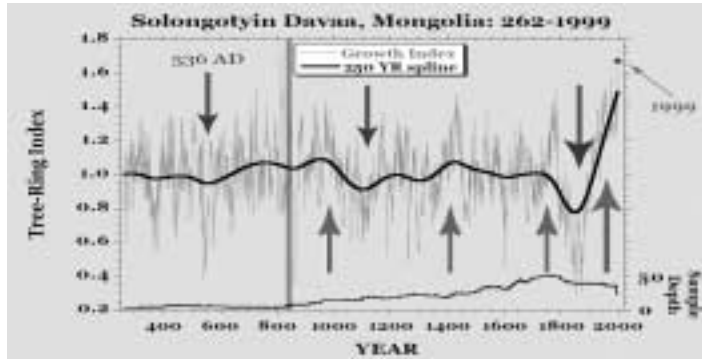
〈그림 10〉 발해사신들의 월별 항해분포(양력 기준)
(계절풍을 고려하기 위하여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1〉 2001년 2월 13일 러시아 연안 얼음 두께 분포
(색깔의 단위는 10cm이다. S, N, E 지역이 포시에트만으로 0.9~1m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다.)

년 2월 13일의 러시아 연안 얼음두께 분포이다. 2000년 12월~2001년 2월은 지난 1977년 이래 가장 추웠던 겨울로,²⁰⁾ 자료에 따르면 크라스키노가 위

20) Kim, K. R, G. Kim, K. Kim, V. Lobanov, V. Ponomarev, and A. Salyuk,



〈그림 12〉 몽골지방의 나무 나이테 기록에 의해 계산된 262~1999년의 대기온도 변화
(자료 : Lamont-Doherty 지구 관측소, Tree-Ring Lab)

치한 포시에트 만은 0.9~1.0m의 두께로 만 전체가 얼어 있었다. 포시에트만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의 타타르 해협과 함께 겨울철에 결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발해 당시의 기상조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는 몽골지방의 나무 나이테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한 262~1999년의 몽골지방 기온 변화이다. 최근 들어 고기후 및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나무 나이테 연간 성장률이 활용되고 있다. 나이테는 따뜻한 시기에는 그 폭이 넓으며 추운 시기에는 그 폭이 줄어든다. 몽고지방 나무 나이테 기록에 따르면, 발해시대에는 860년을 전후로 매우 추운 시기가 이어지는 등 현재보다 기온이 낮다. 즉 포시에트만의 겨울철 결빙은 현재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자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보다 더 추웠음이 분명한 발해 당시의 기온을 고려할 때 포시에트만은 12~2월 결빙으로 인해 출항항구로서 적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포시에트만에 위치한 크라스키노는 12~2월을 제외한 다른 달의 출항항구나 혹은 입항항구로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으로 떠나는 발해인들의 19차(819) 항해부터는 12~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착항구가 대부분 월전 남쪽 지방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출발 주요 항구가 크라스키노가 아닌 두만강 이남부터 신라 접경 지역 사이의 남경 남해부의 여러 항구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즉 발해와 일본의 겨울철 교역은 동경용원부를 출발하여 육로로 남경 남해부의 토호포 등 항구로 이동한 뒤에 동해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13차 항해까지 도착 혹은 표착 지역이 대부분 쓰가루 해협 바로 남쪽인 출우 지역이며, 도착 혹은 입경일이 7~11월임을 고려할 때 동경용원부에서 직선거리로 약 39km 떨어져 거리상으로도 비교적 가까운 포시에트만의 크라스키노가 출항항구로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크라스키노는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된 귀국항해의 주요 입항지로서도 검토될 만하다.

3. 발해시대 주요 항로경로 검토

사료에 따르면 동해를 통한 발해의 일본 교역항로는 축자선(筑紫線), 북선(北線), 남해부선(南海府線) 등 3개 항로로 검토된다. 하지만 윤명철(2002, 2003)은 이러한 구별은 역사적 사실(史實)에 근거한 기술이므로 당시 항해의 실상과 그로 인한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해북부 횡단항로, 동해북부 사단항로, 동해 종단항로, 연해주 항로 등 구체적 항해경로를 토대로 발해의 일본 교역항로를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착지 혹은 출발지를 근거로 나눈 이전의 분류와 윤명철(2002, 2003)의 분류를 함께 검토하여 동해북부 표류항로, 동해북부 횡단항로, 울릉도~오기항로 등 3가지 항로로 살펴해보았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 발해의 원양항해 능력, 겨울철 출항항구로서의 적절성, 계절풍과 해류 등 자연과학적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류이다.

1) 동해북부 표류항로 : 출우국 및 좌도섬 도착

발해사신의 13차 항해까지는 북위 40°에 위치한 출우국 도착이 7회로 절반 이

2002, "A sudden bottom-water formation during the severe winter 2000~2001: The case of the East/Japan Sea,"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9:8), 1234, 10.1029/2001GL014498, 75-4p.

〈표 3〉 발해시대 주요 항로와 항구 간 거리

항로명	주요도착지	항해경로 및 거리(km)	특징
(동해북부 표류항로)	(출우국) (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스키노 ~ 출우국 추전(848) • 청진 ~ 출우국 추전(894) • 북청 ~ 출우국 추전(989) 	표류 비정기 항로
동해북부 횡단항로	농등 월전/가가 약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스키노 ~ 월전군 가가군(838) • 북청 ~ 월전군 가가군(810) 	정기 항로(?) 원양항해
발해연안 ~ 울릉도 ~ 은기 ~ 월전 항로	농등 월전/가가 약협 단마 백기 은기 출운 (장문) (대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청 ~ 원산외해(87) ~ 울릉도(386) ~ 독도(482) ~ 오키제도(640) ~ 월전(990) • 청진 ~ 원산외해(297) ~ 울릉도(596) ~ 독도(692) ~ 오키제도(860) ~ 월전(1200) 	정기 항로 대부분 근해항해, 일부 원양항해

()는 표류에 의한 항로 혹은 도착항으로 검토되는 지역

〈표 4〉 출우국 도착 분포

횟수	일본 도착/입경일 및 도착지역			비고
	음력	양력	장소	
1	727. 9. 21 도착	727. 11. 12	출우국	표착
2	739. 7. 13 도착	739. 8. 25	출우국	배 1척 전복
민간	746. 10.		출우국	
7	771. 6. 27 도착	771. 8. 16	출우국 야대	
11	779. 9. 14 도착	779. 10. 31	출우국	
12	786. 9. 18 도착	786. 10. 18	출우국	표착
13	795. 11. 3 도착	795. 12. 22	출우지리파촌	표착

상을 차지하지만, 출우국에 도착한 7회 중 4회(1·2·12·13차)가 표착에 의한 도착이다(표 4). 또한 출우국에 도착한 7회 중 12월에 도착한 1회(13차)를 제외하고, 7~11월에 도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2월에 도착한 13차 항해는 표착에 의한 계획되지 않는 도착이었다. 819년에 신라배에 승선한 당나라 상인들 또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향했지만 출우국에 표착한 사례가 있었다.²¹⁾ 표착에 의하지 않고 출우국에 도착한 사

21)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38쪽.

례는 3회(746년 민간무역, 7·11차)로 보여지며, 각각 8·8·10월 등 여름·가을철에 도착하였다.

출우국 추전에서 당시 일본의 수도가 있었던 평성경²²⁾까지는 약 676km로 육로로만 약 40일이 소요된다.²³⁾ 일본은 외국사신들의 공식 입국통로인 축전(筑前)에 위치한 대재부(大宰府; 현재의 후쿠오카)를 통한 교류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발해사신이 11차 항해 때 출우국을 통해 입국하자 국서(國書) 문제와 함께 축자도(筑紫道)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입경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²⁴⁾ 발해사신의 출우국을 통한 입국은 2대 문왕 및 3대 문왕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발해는 공식적인 무역교류와 함께 일본의 신라 침공계획에 따른 일본과 정치·군사적인 교류 등 공식적인 교류를 위해 일본의 수도인 평성경을 통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입국 후 입경까지의 소요시간, 일본의 권고사항, 입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우국보다는 수도 평성경에 근접한 월전군²⁵⁾ 등이 더 선호되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럼에도 발해사신들은 왜 출우국을 통해 입국하였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윤명철(2003)은 청진·나진 등 두만강 하구유역과 북쪽의 포시에트만 사이의 여러 항구에서 출발하여 출우국에 도착하는 항로를 ‘동해북부 횡단항로’라고 언급하며, 이 항로는 바람을 사선(斜線)으로 받고 동으로 횡단하여 출우지역에 도착하는 항로로 검토하였다. 출우국을 통한 입국일이 대부분 여름과 가을철인 7~11월임을 고려할 때 포시에트만의 크라스키노가 출항항구로서 검토될 수 있지만, 발해사신이 목적지로서 출우국을 계획하고서 원양항해를 했는가, 혹은 정기항로로서 동해를 사선으로 횡단하는 출우국 도착항해를 했는가는 비판적 해석이 요구된다.

출우국 입국이 대다수를 이뤘던 13차까지의 항해기간 중 수도 평성경까지

22) 일본은 710년에 평성경(平城京, 현재의 나라)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다시 794년에는 평안경(平安京, 현재의 교토)으로 천도하였다.

23) 샘玉幸多, 1995, 『일본사 연표·지도』, 吉川弘文館, 10쪽.

24)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쪽.

25) 월전군에서 평성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10km이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지역인 월전을 통한 입국이 4차례였음이 눈길을 끈다(표 2). 월전을 통한 입국은 표착으로 월전에 도착한 9차를 제외하고 출우국 도착 일과 유사한 10~11월이었다. 크라스키노에서 월전과 출우국까지의 항해거리를 비교하면, 크라스키노에서 출우국 추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48km이며, 월전국 가가군²⁶⁾까지의 직선거리는 838km로 월전국까지의 거리가 오히려 짧다. 이러한 거리적 개념보다는 월전국이 지리적으로 출우국보다 평성경과 가까웠다는 점과 출우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출우국에 표착한 1차 발해인들은 발해대사 고인의(高仁義)를 포함하여 16명이 살해당하였다. 특히 출우국 추전책(秋田柵)의 경우 733년에, 야대(野代)의 경우 850년 무렵에 일본의 국가경영권 안으로 편입되는²⁷⁾ 당시의 정치 상황은 출우국 입국항로가 계획된 항로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출우국을 도착지역으로 고려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동해에서 표류하였을 때 가장 도착하기 쉬운 지역 중 하나가 쓰가루 해협 바로 남쪽인 출우지역이라는 동해 해류의 특징적 조건이다. 동해와 인접 해양의 해수 교환은 수심 약 150m 이하의 얇은 4개의 해협(대한해협, 쓰가루해협, 소야해협, 타타르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해수 가운데 약 70%가 쓰가루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특징적 표층순환체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13). 이러한 표층순환 때문에 동해 한가운데서 표류하였을 경우 쓰가루 해협을 향해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순환에 의해 쓰가루해협 주변 지역인 출우국에 표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해 한가운데서 표류시킨 인공위성추적 표류부이(Argo drifter)에 의해서도 잘 나타난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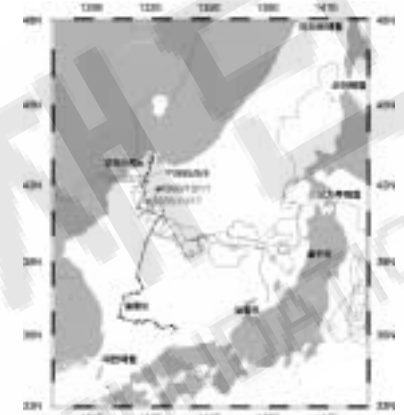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여러 조건과 함께 원양항해의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출우국 및 주변의 좌도(佐渡)를 통한 입국은 정식항로 혹은 목적지로서 검토하기보다는 표류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도착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26) 가가군은 823년에 가가국으로 승격되었다. 능등국 가가군 발해객원은 804년에 설치되었다.

27) 삼유(幸多), 1995, 『일본사 연표·지도』, 吉川弘文館, 11쪽. 출우국은 712년에 군에서 국으로 승격되었다.



〈그림 13〉 표층해류도
(Lee and Niiler, 2005)



〈그림 14〉 인공위성 추적부이의 궤적
원은 투하된 위치를, 점선은 발해1300호 경로를 나타낸다. 이는 동해 북부 표류항로를 잘 보여준다.

2) 동해북부 횡단항로(원양항해) : 능등, 월전, 약협 등 도착

이전의 연구에서 ‘동해북부 횡단항로’로 명명되어 온²⁸⁾ 이 항로는 원산 이북인 남해부에서 두만강 하구를 지나 북쪽의 포시에트만 사이의 여러 항구에서 출발하여 일본 중부 연안의 능등(能登, 노토), 월전, 약협(若狹) 등에 도착하는 항로로 지속적인 원양항해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일본 입국항구에서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월전국과 능등국에 발해객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지역을 목적지로 보고 항해한 것이 분명할 듯싶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원양항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해인들이 이 항로를 선호했겠느냐는 비판적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발해 선박에는 천체의 움직임으로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측정하는 천문생(天文生)이라는 항법사가 타고 있어²⁹⁾ 원양항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원양항해를 선호했는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8세

28) 윤명철, 2002,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55쪽.

29) 윤명철, 2002, 앞의 책, 244쪽.

기의 지리 인식 및 표류에 대한 위협성을 고려할 때 안전항해를 위해 원양항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서 검토될 발해 동해안~울릉도~오키제도~월전 항로는 동해북부 횡단항로와는 다르게 항해기간의 대부분을 근해항해가 가능한 항로이기 때문에, 발해인들이 원양항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동해북부 횡단항로보다 더 선호했을 여지가 있다. 발해의 항해술 혹은 원양항해 능력에 대한 검토는 '원양항해 능력이 있어 원양항해를 했다'로 귀결짓기보다는 원양항해를 선호했는가 혹은 발해의 항해술이 원양에서 역풍이 불더라도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10>에서처럼 일본으로(발해로) 항할 때는 대부분 겨울철(여름철)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발해인들이 바람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때로는 항해기간 중 바람의 방향이 평소와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평균적인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는 기간에 항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해1300호 항해 때처럼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

한편 발해인들이 동해북부 횡단항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신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³⁰⁾ 발해와 신라의 동해안 국경은 720년대에는 영흥만 근처로 탄항관문이 설치되었던 정천군(현재의 원산)으로 보고 있으며, 880년대에는 북진(현재의 삼척)³¹⁾으로 좀더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732년에 당과 발해의 전쟁과정에서 신라가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여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도 있었지만 발해 3대 문왕(737년 즉위) 전기에 발해와 신라 사이의 교통로 개설과 757년 신라의 탄항관문 축조를 계기로 발해와 신라의 교섭은 활발히 전개되었다.³²⁾ 발해사신이 6차부터(762) 무관이 아닌 문관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동해안에서 신라와의 국경분쟁이 완화된 이유로 보는 견해도 있다.³³⁾ 신라와의 동해안 국경이 원산만에서 남

쪽인 삼척³⁴⁾ 부근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 신라와의 긴장관계에 따른 항해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 항해는 신라와의 긴장관계로 원양항해를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여러 상황의 변화로 항해의 위험성이 적은 근해항해를 선호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5차 항해(759)의 도착지역이 비록 표류에 의한 도착이지만 대마도 지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 남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계방향의 난수성 소용돌이 등 동해 표층해류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동해 횡단항해보다는 울릉도~오키해역을 항해하는 근해항해 과정에 대마도로 표착하였다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

3) 울릉도~오키항로(연근해 항해+원양항해): 오키, 출운, 백기, 단마, 단후, 약협, 가가, 월전, 노토 등 일본 중서부 연안 도착

표류에 의해 입국한 출우국을 포함하여 발해에서 일본으로의 항해가 대부분이 항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는 근해항로 가능 범위도이다. 윤명철(2002)은 동해안 및 일본연안 근처의 주요 산 높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해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항해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계산하였다.³⁵⁾

$$K(\text{해리})=2.078(\sqrt{H}+\sqrt{h}).$$

여기에서 H는 목표물의 최고 높이(m)로서, 해안가 주변의 산 정상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h는 관측자의 눈높이(m)로 여기서는 5m를 고려하였다. 이 공식에 의하면 관측자의 눈높이가 5m인 경우에 망망대해에서는 4.65해리(약 8.61km)까지만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안가 근처에 높은 산이 위치하면 훨씬 멀리에서도 육지를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릉도 성인봉의 정상부는

30)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62쪽.

31) 이동휘, 2003, 「경계로 보는 신라와 발해의 관계」, 역사와 경계 47집, 57쪽.

32)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연구』, 경인문화사, 1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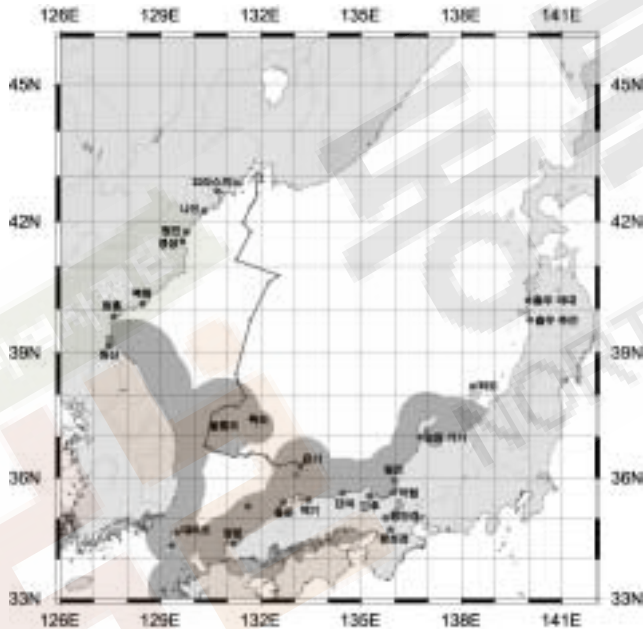
33) 이동휘, 2003, 앞의 논문, 63쪽.

34) 삼척과 울릉도는 거의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다. 삼척항의 위도는 북위 약 37° 30'이며, 울릉도 성인봉의 위도는 북위 약 37° 29' 50"이다.

35) 윤명철, 2002, 앞의 책, 242쪽.

984m이므로 날씨가 화창할 때면 69.8해리(129.27km) 밖에서도 보인다.

〈그림 15〉에 따르면 크라스키노 등 두만강 이북 혹은 청진·북청·원산 등 남경 남해부의 여러 항구를 출발하여 연안을 따라 연근해 항해를 한 후에 북위 38° 근처에서 울릉도를 향하여 원양 혹은 근해항해를 한 후에 독도 인근 해역(독도 서도 정상부는 169m)에 이르기까지 날씨가 맑은 날이면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고 항해할 수 있다. 이후 일본 연안의 오키섬(정상부는 577m)에 이르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약 13해리(약 24km)의 항해구간을 제외하고는 육지를 바라보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항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키섬 근해부터 출운, 백기, 약협, 가가, 월전, 노토 등지까지의 항해는 연중 북상하는 해류인 대마난류를 타고 항해할 수 있는 해역으로, 연근해 항해가 가능한 해역이다. 즉 이 항로는 중간에 육지나 물표(物標) 없이 원양을 항해해야 하는 원양항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날씨가 화창하다면 대부분 육지를 바라보며 항해할 수 있는



〈그림 15〉 근해항로 가능 범위도
발해1300호 항해경로와 함께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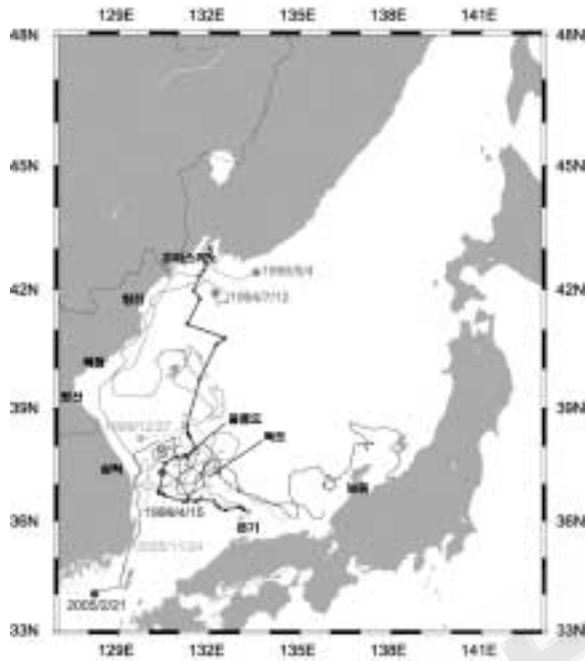
연근해 항해가 가능한 항로이다. 이 항로의 항해거리는 북청에서 월전까지 약 990km로, 같은 구간을 직선으로 가는 원양항로(810km)와 비교하여 약 180km 차이가 난다. 그 차이는 작은 편이다(표 3). 북청에서 월전 남쪽의 출운, 백기, 단마, 단후 등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울릉도, 독도 해역을 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발해인이 상대적으로 원양항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므로 이 항로를 선호했으리라는 점 외에 발해객원이 오키~월전 사이에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³⁶⁾ 또한 10세기 무렵에 오키~출운 혹은 인번(因幡)~단후~월전~가가~능등~월중~월후·좌도 등 일본 서쪽 연안에 위치한 지역 간의 연근해 해로가 존재하였다.³⁷⁾ 이러한 연근해 해로의 존재는 연근해 해로가 활발히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바람과 함께 이 항로에 영향을 주었을 표층해류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3〉에 따르면 연해주 및 발해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리만난류와 북한난류는 봄부터 가을까지 강해진다. 북위 37~38°에 해당하는 동해안 연안에서는, 봄~가을철에 비교적 강해지는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남하하는 북한난류와 만나면서, 동한난류가 외해로 사행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난류의 흐름이 강해질 때는 동한난류는 좀더 남쪽에서 외해로 사행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울릉도 주변에서는 울릉도 혹은 울릉도 남쪽에 중심을 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발달한다. 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의 오른쪽 외곽을 따라 울릉도~독도 간 해역에서는 남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존재한다. 오키제도 근처에서는 주로 일본본토와 대마도 사이를 통과하여 동해로 유입한 후 일본연안을 따라 출운국 북쪽의 쓰가루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대마난류의 주축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층해류의 유속은 동한난류의 주축과 대마난류의 주축에서는 최대 100~150cm/s(1.9~2.9노트) 정도이지만, 동해 북부해역과 주축에서 벗

36) 윤재운, 2006, 앞의 책, 209쪽. 능등국에 설치된 이래 서쪽 방향인 월전국, 가가국, 출운국, 장문국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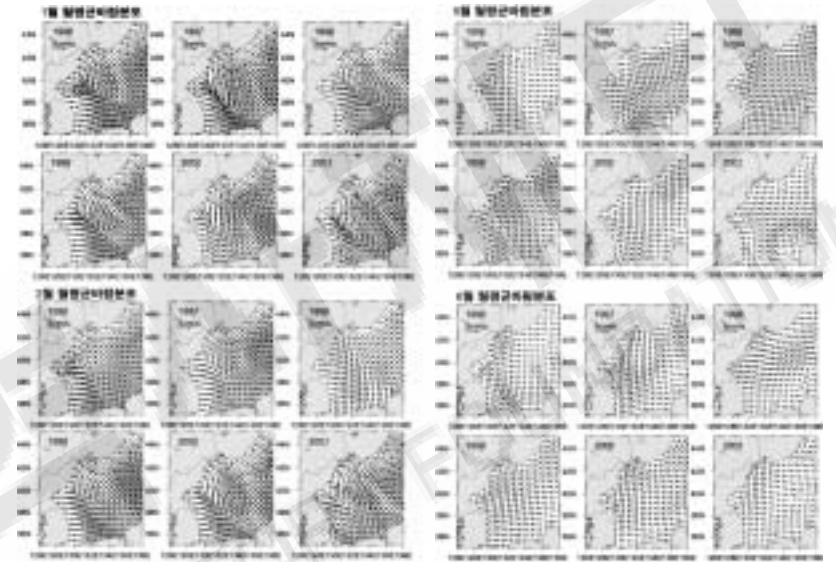
37) 샘玉幸多, 1995, 『일본사 연표·지도』, 吉川弘文館, 12쪽.



〈그림 16〉 인공위성 추적부이의 궤적(원은 투하된 위치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발해1300호 궤적을 표시하였다.)

어난 지역에서는 최대 약 50cm/s (1.0노트)로 훨씬 적다. 동해의 표층해류 순환체계는 발해인들이 발해연안을 따라 남하한 후 울릉도 독도해역을 지나 오키 근처에 도착한 후 일본연안을 따라 월전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순조로운 해류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림 16〉에 나타난 인공위성 추적부이의 궤적은 이러한 울릉도 주변의 해류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귀국항로로서 이 항로는 입국항로에 비해 순조롭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인이 귀국할 때 출경(出京)과 출국은 2월에서 8월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을부터 겨울철인 9~1월까지의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발해인들이 주로 귀국하였던 봄·여름철은 일본연안을 따라 북동향하는 대마난류가 비교적 강하게 흐르는 기간이며,³⁸⁾ 연해주와 북한연안을 따라



〈그림 16〉 1996~2001년의 월별 평균 바람분포

남쪽으로 흐르는 리만한류와 북한한류도 강해지는 기간이다. 또한 독도 동쪽 외해에서는 북동쪽으로 흐르는 대마난류에서 분기된 대마난류 2분지(Offshore Branch)가 존재한다. 울릉도 북쪽 북위 약 39°을 따라서는 동한난류가 연안으로부터 떨어져 사행하면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귀국시기의 북동향 해류체계는 발해로 향하기 위해 북서쪽으로 항해해야 하는 발해인들에게 일본으로 항해하는 기간에 비해 덜 순조로운 환경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귀국하는 시기가 남동풍이 비교적 우세한 기간이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바람은 귀국항해에 순조로운 기간이랄 수 있다(그림 16).

발해인들이 바람과 해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문진·강창구(2001)는 구명정부터 G/T 80톤급까지 다양한 선박의 표류해상실험을 통해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선박 표류속도는 풍속의 3~5%, 유속의 8.5~17.4%라 하였다. 각각의 최대값

38) 대한해협을 통한 해수수송량의 변동은 봄철부터 시작해 가을철까지 강해지며, 8월

과 10월에 연중 2차례 최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연변화와 계절주기 내의 짧은 주기에서도 변동성이 크다.

〈표 5〉 바람과 해류에 따른 선박의 표류속도 계산

풍속 및 유속		표류 유속		영향계수
		(m/s)	(노트)	
바람	5m/s	0.25	0.49	5%
	10m/s	0.50	0.97	5%
해류	0.5m/s	0.09	0.17	17.4%
	1.0m/s	0.17	0.34	17.4%

5%와 17.4%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표 5〉와 같다. 귀국 항해에 평균바람을 5m/s, 표층해류를 0.5m/s로 고려한다면 바람은 해류에 비해 3배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박실험은 돛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실험이므로 바람의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발해로 귀국하는 시기에 해류의 방향이 북서쪽으로 흐르지 않았더라도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혹은 역풍을 불더라도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항해능력이 있었다면 해류의 영향을 극복하였을 것이다.

바람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은 원양항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바람을 거스르는 항해는 항해술과 조선술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을 뚫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정되지 않은 돛과 용골이 필요하다.³⁹⁾ 요트항해처럼 부풀려진 돛을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직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맞바람에 대응해야 한다. 배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용골도 바람에 의한 추진력과 함께 맞바람에 대응하며 항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용골은 한편으로는 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홀수선)를 증가시켜 배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해안선이 비교적 복잡하고 동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했던 황해를 오고갔으며, 또한 항해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을 항해하는(완도와 중국 영파 해안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670km이다) 신라선박에 비하여, 해안선이 비교적 단순하고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야 하는 발해인들의 배는 평저선(平底船)보다는 홀수가 깊은 첨저선(尖底船)에 가까웠을 것이다.⁴⁰⁾ 발해시대에 공식교류로만 34

차례에 걸쳐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는 사실은 발해의 항해술과 조선술이 그만큼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I. 맺음말

발해1300호의 항해목적은 발해해상항로 복원과 발해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울릉도와 독도를 항해의 중간기착지로 활용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바람과 해류에 의존해 동해를 건넌으며, 대부분 겨울철인 12~2월에 일본으로 건넌 발해인들의 항해를 재현하기 위해 발해1300호는 겨울철 항해를 선택하였다. 발해1300호는 발해의 1차 항해를 비롯하여 적어도 6차례의 항해에서 발해인들이 일본 서해안에 표착하였던 것처럼 일본 연안에 표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한 오키제도는 발해인들의 14·22·27차 도착지였다.

비록 남북관계 때문에 북한 근해항해는 불가능하였지만, 발해1300호 항해는 초기엔 동해북부 횡단항로를, 후기에는 울릉도~오키 항로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발해 동해 해상항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①정기항로는 아니었지만 표류에 의하여 출우국에 도착한 동해북부 표류 항로, ②신라와의 긴장관계에 있었던 초기 항해 및 귀국항로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는 동해북부 횡단항로, ③발해~일본 간 대부분의 항로로서 고려될 수 있는 발해연안~울릉도~오키~월전 항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항해 대부분의 구간을 근해항해로 항해할 수 있는 발해연안~울릉도~오키~월전 항로는 발해인들이 가장 선호한 항로로 여겨진다. 발해1300호의 평균 항해속도 0.6m/s를 고려하면 동해북부 횡단항로를 통해서(크라스크노~월전~가가 838km) 16일, 발해연안~울릉도~오키~월전 항로(청진~월전 990km)를

39) James Trefil, 이한위 옮김, 2001, 『해변의 과학자들』, 지호, 254쪽.

40) 윤명철, 2002, 앞의 책, 252쪽.

통해서는 약 19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발해인들이 뗏목의 형태가 아닌 20명 혹은 100여 명이 승선할 수 있는 대형 목선을 이용하였다는 점⁴¹⁾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5>를 통하여 근해항해 가능성, 즉 발해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발해인들의 출발지 중 하나였던 남해부 토호포에서 일본의 주요 도착지 오키, 출운, 백기, 단마 등을 연결하면 울릉도·독도 해역을 지나감을 알 수 있다. 향후 발해1300호 항해 경로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연안을 포함하는 발해 해상항로 복원이 필요하며 해양기상 관측 장비를 장착하여 좀더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전의 연구에서 발해의 주요한 항구로 검토되어 온 크라스키노는 발해 시대의 기상조건과 크라스키노항이 위치한 포시에트만이 겨울철이면 얼음이 어는 항구임을 고려할 때 주로 12~2월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하반기 항해에서는 항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0~11월에 일본으로의 출발이 대부분이었던 초기 항해와 주로 봄·여름철에 귀국하였던 귀국항해의 도착지로서는 가능할 것이다.

발해1300호는 항해일지와 대원들의 이력에서 여러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온누리 우리꽃 우리문화로 가득한 땅의 노래, 해양을 통한 진취적 기상이 퍼지는 바다의 노래, 분단의 아픔을 마감하는 통일의 노래, 동북아시아 평화시대를 염원하는 평화의 노래가 발해1300호가 남기고자 했던 또 하나의 메시지였다.

발해는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에서 만주·연해주로 역사인식을 넓혔다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기 여러 차례의 선박 전복과 표류, 그리고 사신까지 희생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식적으로만 34차례에 걸쳐 동해를 건너 발해인들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은 발해 역사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해동성국 발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1998년 국가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발해1300호는 거친 동해바다를 건너는 탐험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였

다. 안타깝게도 오키섬에 표착하면서 구조과정에서 대원 전원이 사망하였지만, 발해1300호 덕에 한국사로서의 발해를 재인식하고, 민족의 고대사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고, 발해 해상교통로 연구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진보는 발해1300호가 남긴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기념사업 과정에서, 그리고 발해1300호가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附記：감사의 글

먼저 발해 해상항로 학술 대탐사를 위하여 발해1300호에 승선하셨던 탐사대원들의 명복을 빌며 장철수, 이덕영, 이용호, 임현규 대원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해1300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과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해군, 지원품을 전달하고 지원팀이 탐사대를 만날 수 있도록 약친 후에도 불구하고 경비정을 지원해 주신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탐사단의 사고 이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외교교통상부 영사과와 일본 고베 영사관, 수색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일본 해상보안청, 도고섬 고카무라 촌 주민 및 지역관광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사고수습을 위하여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에 여러 가지 편의와 재정지원을 해주신 제일본대한민국민단 오키섬 지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해1300호가 출항하기까지 재정적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러시아 극동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해1300호 지원팀으로 함께 고생한 한국해양대학교 아마추어 무선국 이재희 국장과 발해1300호 대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선으로 위안과 격려를 주셨던 아시아나항공 무선국 이동규님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무선(HAM)동호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사업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독도수호대, 천리안 독도사랑동호회, 철수생각, 마산상고(현 용마고) 총동문회, 울릉도 물레방아의 조원구 사장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연해주소식 발행인을 역임한 김광섭 사장님, 농심마니(대표 박인식), 한국외국어대 독도문제연구회,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단체, 탐사대원들의 위패를 모셨던 부산 통도사 부산포교원, 현재 발해1300호 대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지리산 삼성궁(공주 한폴선사), 그리고 기념사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윤명철·박창희·송기숙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논문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해의 해상항로에 대한 유익한 토론을 해준 서울대학교의 박종진 박사,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임세한 소령,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류역학연구실(지도교수 장경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은 '발해 해상항로 학술뗏목 대탐사대'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정지원과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한 독도 울릉도 간 유속장 변동성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1) 윤명철, 2002, 앞의 책, 249쪽.

〈참고 문헌〉

- 기상청, 1998, 『기상월보』.
- 김윤배 · 이소희, 2002, 『발해1300호 소개 및 발해 1300호 항해의 해양학적 연구』, 해양문화재단 3회 해양수산공모전 논문집, 해양문화재단.
- 동아일보, 1998년 1월 26일자.
- 발해 해상항로 뗏목 대탐사대, 1998, 『발해 1300호 항해일지』.
- 방학봉, 2005, 『발해경제 및 주요 교통로 연구』, 신성출판사.
- 송기호, 1993, 『발해를 찾아서, 만주 연해주 답사기』, 솔.
- 월간 중앙 WIN, 1998, 1998년 3월호.
- 윤명철, 2002,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 이동휘, 2003, 『경계로 보는 신라와 발해의 관계』, 역사와 경계 47집, 49~72p.
- 이문진 · 강창구, 2001, 『소형선박의 해상표류 특성』, 선박해양기술(32), 63~69p.
- 최재석, 1993, 『통일신라, 발해와 일본의 관계』, 일지사.
- 한국해양연구소, 1987, 『한국 동해 남부해역에서의 해양순환의 역학적 과정에 대하여』, 한국해양연구소 연구보고서 BSPE 00083-147-1.
- James Trefil, 이한위 옮김, 2001, 『해변의 과학자들』, 지호.
- Dorman, C. E., R. C. Beardsley, R. Limeburner, S. M. Varlamov, M. Caruso, and N. A. Dashko, 2005, “Summer atmospheric conditions over the Japan/East Sea,” *Deep-Sea Research II*, 52, pp1393~1420.
- Kim, K. R, G. Kim, K. Kim, V. Lobanov, V. Ponomarev, and A. Salyuk, 2002, “A sudden bottom-water formation during the severe winter 2000-2001: The case of the East/Japan Sea,”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9:8), 1234, 10.1029/2001GL014498, 75-1~75-4p.
- Lee, D. -K. and P. P. Niiler, 2005, “The energetic surface circulation patterns of the Japan/East Sea,” *Deep-Sea Research II*, 52, 1547~1563p.
- Yoon, J. H., K. Abe, T. Ogata, and Y. Wakamatsu, 2005, “The effects of wind-stress on the Japan/East Sea circulation,” *Deep-Sea Research II*, 52, pp1827~1844.
- 샘玉幸多, 1995, 『일본사 연표 · 지도』, 吉川弘文館.

[ABSTRACT]

A study on the ship route of the Balhae Kingdom across the East Sea from a reproduction of the trip using a man-powered raft “Balhae 1300”

Kim, Yun-Bae/Kwon, Yong-In/Lee, So-Hui

The group of explorers who went on an investigation trip aboard a man-powered raft “Balhae 1300” to observe the ship route between Balhae (A.D. 698 - 926) and Japan left the port of Vladivostok, Russia on December 31, 1997. A raft which depends on wind and surface current arrived at the coast of the Oki Island, Japan on January 23, 1998 by the way of the nearshore of the Ulleungdo. However, the all crew members died in the rescuing process near the seashore because of high waves off the coast of the Oki Island. They reenacted a ship route utilized in mainly winter season during the period of the ancient Korean kingdom of Balhae. We proposed three possible ship routes between Balhae and Japan based on the sea surface current and wind data, a political situation of the ancient Japan, and the horizontal distance can be identified by an unaided eye; ① the northern ship route is south-eastward across the center of the East Sea, after reaching somewhere in the northern part of Japan, then connected to a destination, ② the southern ship route directly heads south crossing the East Sea by the way of an ocean navigation, ③ the coastal ship route follows along the

coast of Balhae and reaches Japan via the Ulleungdo and Dokdo.

keywords

Balhae, Ship route, East Sea, Balhae1300h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 유민 大氏의 한반도 정착 과정

- 영순현과 영순태씨를 중심으로 -

박 홍 갑 |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I. 머리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이래 200년 이상을 통치한 대씨 일족들은 그 멸망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내투하였다. 발해 왕자 대광현은 물론이고, 『고려사』에 산견되는 대씨 인물들도 대개 그 후예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해 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고려시기 인물들 중 일부는 사서나 족보 등에서 대씨와 태씨로 혼용되고 있었지만, 조선조 이후 어느 시기부터 별개의 성씨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¹⁾ 하지만 이들 모두 발해계 대씨에서 출발했다는 데는 이견이

1) 대조영의 후예로 추정되는 오늘날의 인구는 8,000명 정도이다(남한). 1985년도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태씨 본관지를 영순·남원·협계·합천·상주·영천·밀양·통천·기타·미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증보문헌비고』에는 23본관지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영순태씨 902가구 3,638인, 남원태씨 371가구 1,511인, 협계태씨 258가구 1,124인, 합천태씨 68가구 286인, 상주태씨 54가구 212인, 영천태씨 21가구 90인, 밀양태씨 4가구 29인, 통천태씨 1가구 4인, 기타 115가구 486인, 미상 1가구 26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씨는 본관이 밀양과 대산(김해) 뿐이며, 그 숫자 또한 모두 500인에 지나지 않는다. 일설에는 발해가 망하자 연림왕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 고려에 유입된 대씨들에 관한 문제는 1960년대 후반 이종명의 연구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는데, 주된 관심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이었다.²⁾ 그중에서 특히 北村秀人의 연구는 대씨들이 향·소·부곡민으로 살아가는 열악한 처지였기에 고려가 민족적 동질감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대우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권력투쟁에 휩싸인 우봉대씨들이 숙청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애초의 차별대우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이후 우봉대씨는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중앙의 권력투쟁과 무관한 채 살았던 상주 영순현 태씨들은 본관을 영순으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발해 유민 대씨들이 고려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특히 양인 신분을 유지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성관 획득이 필수였다. 고려 초의 성관제도 운영은 곧 주민통제책 일환이었기 때문이다.³⁾ 이때 양전과 호구를

의 아들 大鐸이 고려에 망명한 후 밀양에 도착하여 밀양대씨의 연원을 이룬 것으로 전한다. 대씨는 영조 때 李宜顯이 편찬했던 『陶谷叢說』의 298개 성씨 중에도 보이지 않다가 1930년도 국세조사에 비로소 나타난 성씨이기도 하다.

2) 이종명, 1968, 「고려에 내투한 발해인고」, 『백산학보』 4; 北村秀人, 1985, 「高麗時代の渤海系民大氏について」,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論文集』 3(歴史篇), 平凡社; 김창겸, 1987, 「후삼국 통일기 태조 왕건의 溟西豪族과 渤海遺民에 대한 정책연구」, 『성대사림』 4, 성대사학회; 이효형, 2000, 「고려시대 渤海遺民 後裔의 사회적 지위 - 大氏系 인물을 중심으로 -」, 『백산학보』 55; 이효형, 2002, 「『고려사』 소재 발해관계 기사의 검토」, 『지역과 역사』 11, 부정역사연구소; 이효형, 2004, 「발해 유민사 연구 - 고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김은국, 2004, 「중국의 발해멸망과 유민연구 동향」, 『중국의 발해사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이외에도 중국 학자들은 주로 발해 유민 귀속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여 왔다. 그들의 연구 방향은 고려와의 관련성보다는 부흥국에 대한 관심, 遼·金 지배하에 있던 발해유민의 활동 등에 대한 것이었다(孫進己, 孫秀仁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유민 절대 다수가 요와 금 경내에 남아 생활하였으나, 외부로 도망친 발해인 중에는 고려에 귀화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孫秀仁·干志耿, 1982, 「論渤海族의形成與歸向」, 『學習與探索』 1982-4; 김정재·유재신 편, 1988, 「발해족의 형성과 귀향에 대하여」, 『발해국사(1)』, 정음사).

3) 허홍식, 1981, 「고려시대의 본과 거주지」, 『고려 사회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김수태, 1981, 「고려 본관제의 성립」,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_____, 1999, 「고려 초

파악하는 籍의 작성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지배체제 편제하에 놓게 되는데, 이를 편제하는 틀이 바로 置邑이었다. 본관이 딛고 일어난 읍격에 따라 주민 신분과 사회경제적 위상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관인이나 상인 등 국가에서 허락한 특정 신분을 제외하고는 본관으로 설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런 본관제의 지배 방식이 12세기부터 변질되었는데, 거주지와 본관지의 분리가 심화되면서 그 기능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후로는 상대적으로 문벌을 밝히는 기능과 함께 부계 친족 관념을 확인하는 기능만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⁴⁾ 즉 후삼국 말기부터 본관은 국가에서 민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성과 연칭하여 사용되던 개념은 고려 중기 문벌사회가 성립한 이후 나타났다.

본고는 이상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에 유입된 발해계 대씨들의 활동 상황과 이들이 고려식 姓貫체제에 어떻게 편입되어 끊임없는 消長을 거듭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우리 성씨 추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태씨 본관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영순·우봉·임도(통천) 등 3곳이다. 그런데 우봉과 임도는 亡姓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시절에 이미 본관지에 정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상도 영순현을 본관으로 한 영순대씨 성립 과정과 시대적 변천 과정에서 그들의 위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오늘날에 와서 큰 족세를 이룬 협계대씨를 비롯한 다른 본관지 추적도 아울러 하고자 한다.

기 본관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8, 한국중세사연구회; 채웅석, 1986, 「고려 전기 사회구조와 본관제」,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강은경, 2006, 「고려시대 本貫에서의 定住와 他郷으로의 이동」, 『사학연구』 81, 한국사학회.

4)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 本貫制 시행과 지방지배질서」, 서울대출판부.

II. 발해 유민 大氏 인물 분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는 박·석·김과 사로국의 촌장이었던 이·배·설·정·손·최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성은 신라 건국시기부터 붙여진 것이 아니고 7세기 이후 소급 사용했던 것으로 보는 게 현재 학계의 시각이다. 우리 성씨는 신라 말부터 고려 전기에 이르는 동안 일반화되어 갔는데, 박·석·김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의 대성을 모방한 성씨였다.⁵⁾ 즉 이두식 고유명만 사용하다가 한자식 성과 이름이 애용되는 호칭문화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발해 역시 698년 대조영이 건국한 이래 왕실을 유지하였으니 대씨의 漢姓화 역시 비슷한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는 발해 유민들에 대한 기사가 여기저기 보인다. 그 인물들 중에는 고유명을 쓴 경우도 있고, 이·박 등 기존 신라 성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해 왕실과 연관되는 대씨 인물들이 꽤 많이 보인다. 발해가 멸망하자 934년(태조 17) 7월에 세자 대광현이 수만을 이끌고 고려로 왔고,⁶⁾ 그 이전인 925년(태조 8)과 928년(태조 11)에도 각각 大和均·大儒範 등의 내투가 있었다.⁷⁾ 이후 발해 유민의 내투는 10여 명에서 수만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 4시기에 걸쳐 집중되었다.⁸⁾ 그런데 이들 발해 왕실 유민들을 고려 백성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광현에게는 왕씨 사성과 함께 宗籍에 얹어 우대하였고,⁹⁾ 그 밖의 인물에 대해서도 관직과 토지를 차등 있게 주

5) 이수진, 1977, 「후삼국시대 지배세력의 성관 분석」, 『대구사학』 10, 대구사학회 ; 이종서, 1997, 「나말여초 성씨 사용의 확대와 그 배경」, 『한국사론』 37, 서울대국사학과.

6) 『고려사』 권2 세가 2, 태조 17년(934) 7월 조.

7) 『고려사』 권1 세가 1, 태조 8년(925) 9월 조 ; 『고려사』 권1 세가 1, 태조 11년(928) 7월 조.

8) 北村秀人, 1985, 앞의 논문.

9) 왕씨로 사성되었으나 이후 왕족에 준하는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되기도 한다(北村秀人, 1985, 앞의 논문). 그러나 고려의 입장에서는 신라 왕족과 발해 왕족의 대우를 동일하게 해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라는 삼국통일 과정

였다. 이미 한자식 姓을 가진 자에게 사성되었다 할지라도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다른 사례에 비춰 본다면,¹⁰⁾ 대광현 후에 역시 대씨 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광현과 그 무리를 개경 인근인 白州에 정착시켰다 했으나,¹¹⁾ 그곳을 본관으로 한 후손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¹²⁾

고려에 정착한 발해계 대씨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 『고려사』에서 추출한 인물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1〉 『고려사』에 나타난 발해계 대씨 인물의 활동 내용

	전 거	기사 내용	번호
세가	신종 4년 7월	공부시랑 大守正을 금나라에 사신으로 보냄	1
	고종 15년 1월	大集成을 서북면병마사로 삼음	2
	고종 18년 10월	몽고와의 전쟁에서 대집성이 크게 활약	3
	고종 19년 5월	몽고 침입으로 대집성 등이 천도를 주장	4
	고종 23년 5월	守司空 대집성 추	5
	고종 40년 8월	교위 大金就가 몽고군을 크게 격퇴	6
	고종 46년 12월	별장 대금취가 몽고군을 크게 격퇴	7
	원종 9년 2월	大氏부인(주영희의 처)과 두 딸의 간통사건	8
	충렬왕 3년 7월	內豎 大守莊의 활동	9
	충렬왕 4년 7월	大貞(평민)이 왕경 근처에서의 활동	10
열전	권91, 宗室 元宗	大守莊의 활동	11
	권94, 楊規	대장군 大懷德의 對 거란전 전사	12
	권94, 徐熙	중랑장 大道秀의 對 거란전 활약	13
	권94, 智蔡文	장군 대도수의 對 거란전 활약	14
	권100, 慶大升	舍史同正 大公器의 활동	15
	권103, 金希碑	대집성의 활동	16
	권103, 金慶孫	반역사건으로 繼母 大氏(대집성 女)를 최항이 학살	17
	권123, 李英柱	金州 평민 大文의 일족 100여 명을 이영주가 억압하여 노비로 만들려고 함	18
	권129, 崔忠獻	대집성의 활동	19
	권129, 崔忠獻 附怡	대집성 활동 및 女 大氏가 최이 후실로 들어감	20
	권129, 崔忠獻 附沆	대집성의 女 大氏(최항 繼母)에 대한 최항의 처우	21
	지 권57, 地理志 尙州牧	林下村人 大氏가 공을 세워 永順縣으로 승격	22

에서 필수적으로 포섭해야 하는 영토와 인민을 갖고 있었고, 발해는 부수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 즉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헌도가 상이하였기에 대우 또한 그에 상

위 표에서 보이는 22개 기사를 크게 분류하면, ①관직을 가진 자의 활동, ②부녀자의 활동, ③평민 이하 신분을 가진 자들의 활동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중에서 ①의 성격을 가진 자료는 大道秀(정5~정4품), 大懷德(중3품), 大公器(吏屬), 大守正(정4품), 大集成(정6품~2품 이상), 大金就(정9품~정7품), 大守莊(환관)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 대도수는 거란과의 전쟁 당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조선 중종 때 太斗南이 쓴 「舊譜序」에도 언급되어 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대도수를 대광현의 아들로 연결하였고, 태씨족보 또한 이를 답습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중 대집성과 대금취를 제외하고는 보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갈래의 대씨들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보첩류가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이기에 고려 시대 인물에 대한 계보 추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결론도 된다.

②의 성격을 가진 자료는 추밀원부사 주영뢰의 처 대씨에 관한 것, 최항의 계모가 대집성의 딸이었다는 사실 등 주로 고관 부녀자들이었다. 주영뢰는 최항에게 숙청당할 때까지는 최고 실력자였다. 그리고 대집성의 딸은 최이의 후실로 들어갔으니, 최충현의 며느리였던 셈이다. 대집성은 최충현에 의해 발탁된 인물로 몽고 침입 시 큰 공을 세웠는데, 우봉최씨 일파와 인척관계로 연결되었던 점에서 당시 최씨정권과 크게 밀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금취가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울 때도 牛峯別抄 30여 인을 거느렸다는 기록을 보면, 대집성뿐만 아니라 대금취도 우봉최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

음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10)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워 왕씨로 사성된 왕유는 원래 춘천박씨였고, 현종 때 공신이던 왕가도는 원래 청주이씨였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춘천과 청주 조에 보면, 춘천박씨와 청주이씨는 토성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왕씨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고유 성씨를 갖고 있던 자는 사성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씨를 그대로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11) 『고려사』 권2 세가 2, 태조 17년(934) 7월 조.

12) 조선 초기 성씨 관련 자료로는 고을별 성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세종실록지리지』가 대표적이다. 대광현이 정착했던 白州가 후에 白川郡으로 바뀌게 되는데, 『세종실록지리지』 白川郡 성씨 조에서는 그 후손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들 후예가 우봉태씨였을 가능성이 큰데,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다.

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최대의 문벌을 자랑하는 우봉최씨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발해 왕실 후에 대씨들이 고려 귀족사회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리하여 22번 자료에서 보듯, 상주 외곽촌이었던 임하가 영순현으로 승격된 것은 발해 왕족 유민 후예들의 공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영순태씨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③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은 10번과 18번 자료이다.¹³⁾ 우선 10번 자료는 대정이 왕경(개경) 성 밖으로 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온 기사인데,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평민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18번 자료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충렬왕 이후 상황이니 1280년대 전후쯤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금주에 대씨 일족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都官佐郎 이순신이 권력자 이영주의 뜻에 맞추어 이들을 노비로 만들려고 하자, 大文이란 자가 王府斷事官 趙仁規에게 고소하여 이영주를 파직케 하고 모면했다는 것이다. 1278년(충렬왕 4)에 조인규가 印候와 함께 경상도 流民을 찾아내 호적에 올렸던 사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¹⁴⁾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위의 자료만으로는 발해 왕족 유민들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알기가 어렵다. 다만 고급 관인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그려 볼 수는 있다. 아울러 발해 유민 자료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한들을 제외하고는 거란과 몽고 침입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1010년(현종 1) 거란은 康兆의 목종 시해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고려를 침입한 이래 3차례(1015년과 1018년 등) 국경을 넘었다. 대희덕·대도수 같은 인물은 이때에 활약한 장수들이었는데, 고려 초기 국경지역에 배치된 발해 유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011년(현종 2)에 거란은 고려에 정착했던 발해 유민들을 대거 포로

13) 본 학술지 게재 심사 과정에서 大貞과 大文이 대씨 성을 가진 평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름이었던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존하는 자료만으로는 그 인물의 실체를 밝히기가 불가능하지만, 고려 후기의 인물이기에 일단 대씨 성을 가진 평민이란 전제하에 본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14) 『고려사』 권28 세가 28, 충렬왕 4년(1278) 10월 계속 조.

로 잡아가 寧州와 歸州에 편호시킨 적이 있었다.¹⁵⁾ 이때 포로가 된 발해 유민 대부분은 국경지역 인접한 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태조 이래 발해 유민들을 군사상 주요 거점이나 변경에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적을 1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완충 역할의 임무를 지운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거란이 발해 유민을 대거 포로로 잡아간 것은 발해에 대한 감정과 영토에 대한 선점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집성, 대금취, 대수장 등은 몽고 침입 시 활약하였던 인물이다. 따라서 발해 왕실 유민들은 대개 군공으로 입신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고려 귀족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려 시절 다양한 삶을 살았던 대씨들이 확인되었지만,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왕실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주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조선 중기 권문해가 편찬한 『大東韻府群玉』에서 영순태씨에 대해 “고려 때 영순 부곡 촌민에 태씨 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적을 잡은 공이 있어 부곡에서 현으로 승격되었고, 드디어 (태씨는) 토성이 되었다. 전해오기를 그 선조는 발해 국왕의 성씨였고 고종 때 태집성이 대장군이 되었는데, 태씨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듯이,¹⁶⁾ 영순태씨 선조가 발해 왕실 성씨였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16세기 후반 영순태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대동운부군옥』은 당시 성씨 관련 자료로는 매우 신빙성 있는 사료로 인정받는¹⁷⁾ 동시에 편찬자 자신이 영순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예천 출신이다. 특히 영순태씨가 배출한 조선조 명현 태두남과 그 후손들이 예천에 이주하여 살았고, 서로 인척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신빙성은 더해진다. 다만 여기에서 대씨가 아닌 태씨로 소개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발해 유민인 대씨가 언제 태씨로 변했는지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보첩류에서는 『동사통감』이란 책을 인용하여 태씨로 바꾼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서명부터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고려사』에서 大集成과 太集成을 혼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1005년 송나라에서 간행한 『冊府元龜』에서도 발해 유민에 대한 기록에 太와 大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다만 『세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대씨가 태씨로 정리된 것이 조선 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삼가 『毛晃韻』을 상고하여 보니, ‘太’자의 주에 이르기를, ‘크다, 지나치다, 심하다의 『泰』자로 통용한다’라고 하였고, 顏師古는 이르기를, ‘太上이란 尊上の 위에 거한다’는 것이니, ‘大’자 주에 이르기를, 『漢書』에 大子·大師·大傅·大中大夫·大守를 모두 음은 ‘泰’라고 하고, 옛날 글자에는 점이 없었는데, 뒷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구별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본조 묘호의 태조 시호나 왕태후 및 중국에 내왕하는 문서에 태자 등 ‘태(大)’자에 모두 점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점을 찍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⁹⁾

한편 앞에서 살펴본 『대동운부군옥』(1589) 자료에서 영순을 부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 이전에 편찬된 관찬지리지, 예컨대 『고려사』, 『세종실록』,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는 부곡이 아닌 林下村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보문헌비고』(권52) 성씨 조에서는 부곡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대동운부군옥』 자료를 편집했기 때문이다. 『증보문헌비고』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발해 유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주장하

15) 『遼史』 권38, 地理2, 東京道.

16) 『大東韻府群玉』 권14, 去聲 ‘泰’ 조항, “高麗時 永順部曲村民 有姓太者 捕賊有功 陞部曲爲縣 遂爲土姓 世傳 其先本渤海國王之姓 高宗時 太集成爲大將軍 太之源 疑出於此”.

17) 일반적으로 족보 편찬 초창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이전 보첩들은 믿을 만한 데 비해 18세기 이후 편찬된 족보들은 지나치게 세계를 소급하는 등 왜곡이 심하였다. 『大東韻府群玉』에 나타난 성씨별 자료들은 여러 가문들의 보첩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고의로 왜곡하지는 않았던 시기이다.

18) 『冊府元龜』 권996, 外臣部 41, 納質, “(唐)代宗 大曆9年(774) 2月 辛卯 渤海質子大英俊還蕃 引辭于延英殿”, “(唐)德宗 貞元7年(791) 8月 渤海王遣其子太貞幹(一作真幹)來朝 請備宿衛”.

19)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8월 을축 조.

고 있기도 하다.²⁰⁾ 그러나 입하촌으로 표기한 자료들이 시기가 앞선다는 점에서 부족이었을 확률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III. 발해 유민 大氏의 지역별 정착과 본관

우리 姓氏는 부계 혈통을 밝혀주는 姓과 그 성이 딛고 일어난 지역을 나타내는 본관인 氏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혈연과 지연을 분리해서는 존재가치가 없다.²¹⁾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태씨에 대해 상주 영순현 續姓, 황해도 우봉현 亡姓, 강원도 통천군 속현 臨道의 亡入姓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임도태씨 아래에는 귀화성이란 주가 달렸다. 입성이란 토성이 존재하지 않은 원산만에서 대동강 이북지역을 대상으로 개척한 땅에 새로 이주해 온 성씨인데, 망입성이란 그 이주 성씨였던 입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고려시기 태씨들은 우봉·영순·통천(임도) 등 3곳을 본관지로 하여 살았음이 분명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영순태씨만 본관지를 지키고 있었다. 『대동운부군옥』에서 영순태씨만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영순태씨와 협계태씨가 각각 대금취와 대집성을 중시조로 하는 태씨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남원태씨가 있지만, 조선조 단종 때 함경도 길주로 유배된 太孟禮(협계군 집성의 9세손)를 시조로 한다. 따라서 남원태씨는 현행 족보상 협계태씨에서 분적한 계파이다. 실향민들 중에서 태씨 성을 가진 이는 대개 태맹례 후손들이다. 이렇듯 근세 이전 관

20) 北村秀人, 1985, 앞의 논문; 박옥걸, 1988, 「고려시대의 渤海人과 그 후예」, 『溪村 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이흥두, 1999, 「고려 부족의 군현 승격과 천인의 신분상승」, 『실학사상연구』 10·11.

21) 이수건, 1984,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_____,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_____,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출판부.

련 기록에 보이지 않던 협계태씨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증보문헌비고』나 조선총독부 「국세조사」(1930년)에서 총 23개의 태씨 본관을 소개하고 있지만,²²⁾ 여기에서조차 협계태씨는 보이지 않는다. 협계태씨가 임란 전부터 전라도 남원·옥구·임실 등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나, 본관지인 협계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태씨족보에 의하면, 협계를 충청도 옥천의 옛 이름이라 표기하고 있다.²³⁾ 태집성이 몽고군을 격퇴한 공으로 협계군으로 봉해졌다고 하고, 그 묘소가 옥천에 있기 때문에 얼핏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 학계에서도 보첩류에 나타난 옥천을 본관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封君했다면 관례상 현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옥천 인근에 협계란 지명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협계를 찾기 위해 우선 대씨들이 살았던 지역을 찾아보면, 황해도 우봉현이 매우 유력하게 떠오른다. 우봉에 살았던 대씨들이 조선 초기에 이미 亡姓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는 우봉대씨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다. 현종 초에 거란이 침입하여 포로로 잡아간 발해 유민들을 寧州와 歸州에 나누어 편호시켰다고 하였는데,²⁵⁾ 아마 대광현이 처음 정착했던 白州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발해 유민들이 이때 크게 붕괴되었

22) 영순, 파평, 용인, 양천, 나주, 남원, 진산(전북), 경주, 상주, 대산(김해), 밀양, 순흥(전남), 합천, 영천, 우이(예천), 의성, 현풍, 평산, 백천, 우봉, 성천(평남), 임도(통천), 순천 등 23곳이다. 태씨 본관지의 도별 분포를 보면 경북 7, 전남 4, 경남 3, 경기 3, 황해 3, 전북 1, 평남 1, 강원 1이다. 1930년 국세조사에 따른 태씨 가구수는 함북 478, 전북 122, 경북 118, 함남 90, 경기 86, 경남 46, 강원 31, 충북 31, 전남 18, 충남 15, 경북 4, 황해 3으로 나타나며, 1개 면 단위로 100가구 이상 구성된 동족집단으로는 함북 명천군 阿間面의 남원태씨가 있다.

23)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는 1997년에 간행한 『협계태씨족보』 丁丑譜이다. 여기에는 영조 조에 필사본으로 존재한 舊譜와 그 이후 몇 차례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서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정족보에 수록된 초창기 족보 서문들이 『영순태씨 족보』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된다.

24) 채태형, 1992, 「협계태씨족보에 실린 발해사 관계 자료에 대하여」, 『발해사연구논문집(1)』,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25) 『遼史』 권38, 지리2 東京道.

을 것이다. 그 결과 白州에서 생활 근거지를 잃은 대씨들이 이웃 고을인 우봉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 아닌가 한다. 白州에는 더 이상 대씨가 살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우봉지역이 대씨의 활동무대였기 때문이다.²⁶⁾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집성이란 인물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우봉은 고려 후기 최대 문벌로 부상했던 최충헌 가문이 족세를 누리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대집성은 우봉최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이다. 대집성 딸이 최충헌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집성은 우봉 출신일 확률이 높다. 우봉현 출신 대집성이 몽고 침입 때 공을 세웠지만, 우봉군으로 봉군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봉최씨의 막강한 세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봉현에 이웃한 여러 고을 중에는 협계라는 곳이 있다. 이리하여 대집성은 협계군으로 봉군되었고, 우봉에서 살던 대씨들은 협계로 이주하였을 것이다. 봉군 당시 협계지역의 막대한 토지도 함께 하사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집성 가문은 그가 죽은 지 16년 만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의 권력은 최충헌 대부터 시작되어 최우 대에 정상에 올랐으며, 그가 죽은(1236) 후에도 대씨 족당은 최우정권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최우가 죽고 서자였던 최항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암투가 있었는데, 대씨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몰락해 버렸다. 최우 부인이던 대씨 부인이 최항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때 살육되고 유배되었던 대씨 일족은 70여 명이었으며, 남쪽으로 編配되었던 일족도 반 이상이 최항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²⁷⁾ 그렇다면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그 당당하던 우봉최씨 가문이 사라졌듯이, 우봉 대씨 역시 그보다 일찍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우봉에서 협계로 이주하였지만, 10여 년 만에 일족이 죽음을 당하거나 흩어져 버려 정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결과 우봉대씨가 조선

26) 대광현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 白州이기에 패서지역을 본관으로 한 태씨가 생겨났으며, 『증보문헌비고』에 보이는 황해도 평산·백천·우봉태씨들이 바로 그들과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종명, 1968, 앞의 논문; 김창겸, 1987, 앞의 논문).

27) 『고려사』 권103 열전 16, 金慶孫傳; 『고려사』 권129 열전 42, 반역 3 崔忠獻 附 怡·沆·竝傳

초기에는 亡姓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협계의 행정구역이다. 조선 조 1396년(태조 5) 俠溪와 新恩 두 고을을 합쳐 新恩縣으로 개칭했고, 1445년(세종 27)에 두 고을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는 관례에 따라 新溪郡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고려시대에 존재하던 협계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²⁸⁾ 협계가 신계군으로 변경되었다면 조선 전기 성씨 관련 자료에는 신계태씨 혹은 협계태씨로 나타나야 하나, 이는 씨족들이 그 지역 재지세력으로 활동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협계에 정착했던 대집성 후손들은 이미 남쪽으로 편배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렇듯 협계태씨 본관지 파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는 거주지 이동과 폐현, 그리고 대표세력이던 대집성과 그 후예들의 몰락 등 몇 가지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北村秀人 역시 옥천이 아닌 황해도 협계가 본관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가 있다. 즉 최항 집권 과정에서 패하여 살아남은 대씨들이 남쪽으로 편배된 후 우봉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협계를 본관지로 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⁹⁾ 그러나 대집성이 협계군으로 봉군되면서 그 일족이 협계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연고가 있던 협계를 본관지로 선택했다고 추론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쪽으로 편배된 대씨들은 그후 어느 시기에 '俠溪'를 陝溪(현재 사용하는 본관)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어느 시기란 조선 후기일 확률이 높다. 일족을 모으고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주로 호남지역에 정착한 태씨들이 협계를 본관지로 하고, 대집성을 중시조로 연결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³⁰⁾

또한 최항에 의해 남쪽으로 편배되었다는 대씨들은 전라도만이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도 분산 이주시켰을 것인바, 이때 대상 지역이 향·소·부곡이었을

28)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협계현은 원래 고구려 大谷郡으로 신라 경덕왕 때부터 檀溪縣이 되었다가 고려 초에 俠溪縣으로 되었으며, 고려 현종이 谷州(곡산군 곡산면) 屬縣으로 삼았고, 뒤에 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조가 두 현을 합친 후 俠溪廢縣은 新溪縣 남쪽 30리에 있다고 했으니, 『大東輿地圖』를 참고하면 현재 新溪郡 多栗面 三美里 일대로 추정된다.

29) 北村秀人, 1985, 앞의 논문.

30) 발해 왕실과 계보를 연결짓는 영순태씨와 협계태씨는 보첩상 대금취와 대집성을

것이다. 앞의 18번 자료에서 본 경상도 금주의 대씨 탄압사건은 이와 관련성이 높다. 대집성 후예가 중앙무대에서 숙청된 지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금주는 원래 신라 良州 金海小京이었다가 고려 태조가 金海府로 개편한 이래 현과 도호부 등으로 몇 차례 승강이 있었고, 충렬왕도 縣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하였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김해로 불렸는데, 『세종실록지리지』 김해도호부 성씨 조에는 대씨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후세의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해 대산에 태씨가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초기까지 김해 임내로 大山部曲이 존재했지만,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그곳 부곡성으로 田氏만 표기하고 있다.³¹⁾ 아무튼 김해에 집단 거주하던 대씨 후예가 나중에 대산대씨로 이어졌을 것이란 추론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동운부군옥』에서는 고려 말 공민왕 대에 효자로 정려되었던 太成吉을 鐵原人이라 소개하고 있어³²⁾ 그곳에도 태씨가 정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 정착지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후기 성씨 관련 자료에서 보이는 23개 태씨 본관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세대를 이은 정착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예천군 성씨 조에는 于尔谷에 태씨가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 예천군 조에는 우이곡은 물론이고, 태씨에 관한 기사도 전혀 없다. 다만 『경상도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상주 임내에 銀尺所와 함께 于尔谷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함창현 조에서 越境處를 설명하면서 상주 임내 銀尺所

가 현 西村으로 넘어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은척소가 상주 임내로 존재했지만, 동 지리지 상주목 조에는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이곡소 역시 상주 임내 형태로 존재했으나 생략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후대 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예천 우이곡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소가 폐지된 어느 시기에 상주에서 예천으로 이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선 건국 후 향·소·부곡을 지속적으로 폐지하였던 시대적 상황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예천 우이곡에도 태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순태씨와 계보를 달리하는 종족으로 추정된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영순과 함께 예천지방의 于爾[尔]과 상주를 본관으로 하는 태씨가 따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발해 멸망 후 대씨들이 고려에 여러 갈래가 유입되었고, 그들은 우봉·협계·영순·철원·대산(김해)·임도(통천)·우이(예천·상주) 등에 정착해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발해 왕족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³³⁾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각각 중시조로 하고 있다. 태두남(1486~1536)의 「太氏舊譜序」에 의하면, 호남에 있던 자는 협계, 영남에 있던 자는 영순을 본관으로 하였다고 한다. 「太氏舊譜序」는 정식 족보의 서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와서 각각(영순, 협계)의 족보를 편찬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서문들이 양쪽 족보에 같이 게재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많다.

31)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김해도호부 성씨 조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김해도호부 성씨 조.

32) 『大東韻府群玉』 권14, 去聲 ‘泰-永順太氏 조항’.

33) 발해 유민들 중 거란과 여진 계통 인물도 대씨 성을 사용했다고 한다(한규철, 1984, 「고려 내투·내왕 거란인-발해 유민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47; _____, 1994, 「고려 내투·내왕 여진인-발해 유민과 관련하여」, 『부산사학』 25·26; _____, 1997, 「발해 유민의 高麗投化」, 『부산사학』 33).

IV. 상주 영순현과 영순태씨의 성립

고려 때 다양하게 유입된 발해 유민 대씨들이 각기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을 테지만, 조선 초 전국적인 성씨 조사에서 보듯, 본관지에 뿌리 내리며 정착하였던 것은 영순태씨가 유일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영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永順縣은 세속에 전하기를, ‘본디 本州의 北面 林下村인데, 고려 때에 마을 사람인 太氏 성을 가진 사람이 적을 무찌른 공을 세운 까닭으로, 그 마을을 永順縣으로 삼았다. …… 永順의 續姓은 하나이니, 太(今爲 鄉吏: 지금 향리가 되었다)이다.’³⁴⁾

위의 내용은 『고려사』 지리지에도 소개된 것인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태씨가 바로 영순태씨이며, 영순현과 동시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군현 단위별로 수 개의 성씨들이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순현을 기반으로 한 성씨는 태씨 하나만 기록되어 있으니, 영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또한 하나뿐이다. 그만큼 작은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상주에 예속된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태씨가 村姓에서 縣姓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 영순태씨 姓種을 속성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성씨 기록은 關과 古籍에 따랐는데, 속성이란 고적에는 없어 관에 의거하여 추가로 기록한 성씨였다.³⁵⁾ 관이란 지방관서에서 중앙으로 보고할 때 올리는 문서이며,³⁶⁾ 고적은 일종의 성씨 대장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34)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조.

35)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양근군 성씨 조에서, “속성은 하나인데, 咸이다”라고 하면서, “右咸氏 古籍所無 今據本道關 續錄 後凡言續姓者 倣此”라고 부기하였다. 위의 古籍이 고려 초기부터 기능했는지, 아니면 13세기 이후부터 기능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

36) 『경국대전』 예전, 用文字式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공문서는 동등 이하에게는 關을 사용하고, 동등 이상에게는 牒모을 사용하고, 7품 이하에게는 帖을 사용한다”라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 편찬을 위해 각 지방관이 관과 고적을 참고하여 맡은 지역 성씨를 보고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고적에 기록되지 않았던 성씨가 바로 續姓이었다. 즉 예부터 내려오던 고적에 기록이 없으니, 각 지방에서 중앙에 보고한 문서였던 관에서 찾아내 추가로 기록한 것이 바로 續姓이었다. 이에 비해 토성은 고적과 관에 모두 기록된 성씨인데, 군현별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토성들이 전국에 걸쳐 산재했다.

고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성과 본관을 分定하여 지방통치 차원에서 관리하는 동안³⁷⁾ 인구증가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新生村도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 때 주읍보다 늦게 형성된 곳에는 주읍 토성이 이주하여 읍사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토성 없이 속성만 두는 곳도 있었다. 영순현도 원래는 상주 북면 임하촌이었는데, 태씨 성을 가진 사람이 공을 세워 속현으로 승격된 곳이다. 승격 당시 주읍 토성의 이주가 없었기 때문에 기왕에 정착해 있던 태씨를 續姓으로 편제한 것이다. 당시 상주의 고을 구성을 보면, 읍치(내)와 직촌이 있고, 이보다 떨어진 외곽촌과 임내(관내)로 형성되었는데, 임하촌은 상주의 외곽촌이었으며, 이곳에 촌성인 태씨가 있었다. 촌성 태씨는 읍치의 人吏姓, 직촌의 百姓姓 보다는 격이 떨어지지만,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됨으로써 그 邑司를 장악한 향리가 되어 속성으로 표기된 것이다. 이는 임하촌 村姓이었던 태씨 족세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 때문이라 여겨진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근거하여 보면, 영순현처럼 현 이상의 행정단위 구역 가운데 토성 없이 속성만 존재하는 곳도 있는데,³⁸⁾ 이들 역시 상주 임하촌이

고 규정하고 있다.

37) 성과 본관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성과 본관의 결합을 전제로 하느냐, 분리하여 보는가가 관건인데, 이수건·채웅석 등은 전자이고, 김수태는 후자의 입장이다. 이수건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토성을 分定하면서 성관체제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채웅석은 그보다 늦은 성종 14년(995) 즈음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김수태는 토성분정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과 본관이 연결하여 호칭된 것은 고려 중기 이후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체제가 국가적 통치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38)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조에 의하면, 안동대도호부 속현이던 柵城縣은 본디 退部曲인데 충혜왕 때 이 고을 사람이었던 환관 姜金剛이 원나라 조정

영순현으로 승격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성이 있는 主邑에 비해 본관이 갖추어진 성씨 형성이 늦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고려의 지방행정 체계를 보면 지방 수령관이 파견된 주읍 아래 속현과 향·소·부곡 등이 임내를 형성하여 예속되어 있었다. 대체로 고대 성읍국가 이래의 國·城·村들이 합쳐져 독립된 단위의 행정구역이 되었는데, 주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촌과 속현 및 향·소·부곡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임하촌과 같은 고려시대 村은 향·소·부곡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촌은 독립된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읍에는 邑司, 향·소·부곡에는 鄉·所·部曲司 등 독립된 행정 체계를 갖고 있었기에, 이를 구성하는 姓團을 가질 수 있었다. 읍사를 구성하는 향리 성단이 바로 토성이었던 것이다.³⁹⁾

이에 반해 촌 거주민은 군현 구획 시 주읍의 토성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외촌성으로 남기도 했다. 이때에는 거의 1촌 1성단으로 참가하게 되는데,⁴⁰⁾ 상주 북면의 임하촌 역시 1성단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태씨였고,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하면서 읍치의 읍사를 구성한 성단도 태씨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으로 승격되면 자연히 읍사를 구성하는 향리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발해의 유민으로 임하촌에 정착했던 태씨는 영순현 읍사를 장악한 향리가 되어 續姓으로 편제된 것이다. 다른 고을의 수많은 續姓 또한 列邑 간의 향리 조정책으로 편제된 성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순태씨 역시 영순현의 읍사를 장악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이리하여 ‘今爲鄉吏’라는 주기가 추가된 것이었다. 따라서 발해에서 이주해 온 무리가 상주 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임하촌에 정착하면서 村姓으로 되었다가, 현으로 승격되면서 縣姓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에 들어가서 시위한 공로로 승격되었고, 春陽縣은 본디 加也鄉인데 충렬왕 때 고을 출신 김인월의 공으로 현에 승격되었으며, 才山縣은 본디 德山部曲인데 충선왕 때 경화옹주 고향인 까닭에 현으로 승격하였던 곳이다. 속성만 존재하는 곳으로 長連縣이나 歙谷縣처럼 主縣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토성분정 이후 고을이 설치되었거나 아니면 향·소·부곡·촌에서 현으로 승격된 곳이란 특징을 지닌다.

39) 이수진, 1984, 앞의 책; _____, 1989, 앞의 책.

40) 예컨대 영덕현에는 尹·趙·鄭·朱의 4개 村姓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金津村(尹) 古等村(趙) 八角村(鄭) 上樹介村(朱) 등 4개의 촌이 영덕에 합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영덕 촌성으로 편제되었다.

읍사를 장악한 속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두남이 쓴 「태씨구보서」 말미에 “선대에 고을 아전이 되었다고 하나 고려 말기 풍속이 퇴폐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자원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이들 두고 한 말이다. 대개 가문의 선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향리 후손들이다. 조선시기에 들어와 지속적인 향리 억압책으로 그 지위가 열락해지자, 족보를 편찬할 때에는 不服臣이었기에 향리로 전락하였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영순태씨 족보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종실록지리지』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상주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언제 승격되었으며, 그 공을 세운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고려사』에서도 『세종실록지리지』와 동일한 내용, 즉 태씨성을 가진 자가 공을 세워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만을 소개한 채 단지 “捕賊有功”을 “捕賊立功”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정도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영순태씨를 속성으로 분류하였으니, 영순현으로 승격된 시기는 고려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속성은 열읍 간의 향리 조정책으로 나타난 姓種으로 대개 고려 후기에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사』 세가 고종 40년(1253) 기사에 “校尉 大金就가 牛峯別抄 30여인을 거느리고 金郊·興安 사이에서 몽고병과 싸워 머리 數級을 베고 말·활·전구 등의 물품을 노획하였다”라는⁴¹⁾ 기록이 있다. 이와 더불어 원종 즉위년(1259) 기사에는 “몽고병이 송도에 들어와 康安殿의 守者를 驅掠하거늘 別將 大金就가 擊走시키고 포로를 빼앗아 돌아왔다”라는⁴²⁾ 기록도 보인다.

위의 두 기사에 나타난 인물 대금취가 바로 족보에서 말하는 영순태씨 중시조이다. 따라서 임하촌에서 영순현으로 승격하는 데 공을 세웠던 인물은 바로 대금취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순현 승격과 관련된 인물을 직접 거론한 사서는 없다. 편찬 연대가 가장 앞선 『고려사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

41) 『고려사』 권24 세가 24, 고종 40년(1253) 8월 계축 조.

42) 『고려사』 권25 세가 25, 원종 즉위년(1259) 12월 경술 조.

지』에는 “諺傳(세상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이란 표현으로 임하촌에 살던 태씨가 적을 잡아 공을 세웠다는 기록만 신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임하촌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 과연 태금취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되었던 태금취의 두 기사는 교위·별장이라는 구체적 관직과 함께 개경과 금교에서 공을 세운 세세한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고려사』의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 역시 태금취와 관련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수준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상기한다면, 임하촌에서 공을 세운 태씨의 인물은 태금취가 아닐 확률도 높다. 특히 『고려사』나 『세종실록』보다 후대에 발간된 자료에는 영순태씨 시조로 태집성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대동운부군옥』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태집성이 대장군이 되었는데, 태씨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라는⁴³⁾ 표현으로 의문을 열어두긴 했다. 이 책은 권문해가 1589년에 20책으로 편찬을 완료하였으나 임란으로 그후에 간행하였는데, 발문은 김응조(1587~1667)가 찬했다. 김응조는 ‘태두남묘갈명’을 쓴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태두남(1486~1536)의 묘갈명에서도 태집성을 영순태씨 시조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그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1908), 『전고대방』(1924), 『조선명신록』(1925), 『조선씨족통보』(1924)에서는 의문을 생략한 채 태집성을 영순태씨 시조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김육불이 편찬한 『발해국지장편』(1935)에서는 “(태)금취는 고려 고종 때 대장이 되어 몽고와 싸운 공으로 영순군에 봉해져 영순태씨 일가의 시조가 되었고, 그 후예들이 영순태씨로 고쳐 불렀다”라고 하여, 영순태씨 보첩류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영순태씨 시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첩류 기록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 태두남이 남겼다고 알려진 「태씨구

43) 『大東韻府群玉』 권14, 去聲 ‘泰-永順太氏 조항’, “太集成爲大將軍 太之源 疑出於此”.

보서』이다. 여기에서는 태금취가 영순군에 봉해졌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하는 데 공을 세운 이가 바로 태금취라는 내용이다. 태두남은 종종 태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남겼다는 「태씨구보서」는 후대에서 볼 수 있는 족보가 아니라 파계도·세계도·가첩·草譜와 같은 종류이거나, 아니면 후대에 소급 追記된 서문이었을 것이다. 영순태씨 족보에 근거한 관련 내용(자료 ①·②·④)과 태두남 묘갈명(자료 ③)을 토대로 논의를 좀더 진행해 보기로 하자.

- ① 高宗朝太金就太集成爲大將 而金就伐蒙古有功 以功封爲永順君 (所居林下村 陸爲永順縣) (『舊譜序』, 西庵太斗南撰)⁴⁴⁾
- ② 而至高宗大王之世 有金就集成 而能討伐蒙古 斯樹不世之功 以功陸所居林下村爲永順縣 永順太氏之籍 自此始矣 (『甲子譜』(1624, 인조 2), 「序」, 松巖太厚先撰)⁴⁵⁾
- ③ 太之氏於永順 以高麗後軍將軍諱集成(金就-보첩류) 討賊有功封焉 其先古渤海國王太祚榮之後 (『太斗南墓碣銘』 金應祖撰)⁴⁶⁾
- ④ 高麗時 有後軍將軍 一缺- 伐蒙古有功 封永順君 自後太氏 一缺- 方者 皆本永順 …… 高宗朝太金就 伐蒙古有功 後裔之在湖南者 或籍陝溪 卽沃川地 (『執義西庵公墓誌』(1640, 인조 18))⁴⁷⁾

태두남이 지었다는 구보서문(자료 ①)은 태금취가 공을 세워 임하촌이 현으로 승격되었고, 동시에 그가 영순군에 봉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 세기가 더 흐른 1624년(인조 2)에 편찬된 갑자보 서문(자료 ②)에서는 영순현 승격과 동시에 영순태씨가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도 그 시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하거나 좀더 늦은 시기에 김응조(1587~1667)가 찬한 태두남 묘갈명(자료 ③)에서는

44) 『永順太氏族譜-己巳譜』(순조 9년, 1809), 所在「舊譜序」(西庵太斗南撰).

45) 『永順太氏族譜-己巳譜』(순조 9년, 1809), 所在「甲子譜序」(1624, 인조 2; 松巖太厚先撰).

46) 『國朝人物考』 권26, 名流「太斗南墓碣銘」(金應祖撰).

47) 『永順太氏族譜-己巳譜』(순조 9년, 1809), 所在「執義西庵公墓誌」(1640, 인조 18).

태집성을 시조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정조 때 편찬한 『국조인물고』에 게재된 내용이다. 그리고 족보에 실린 태두남 墓誌(자료 ④)에는 인명(태집성 혹은 태금취)이 들어가야 할 부분을 缺로 처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묘갈명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墓誌 원본에도 태집성으로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다. 즉 족보 편찬 과정에서 태집성 부분을 고의로 缺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아울러 보첩류에서 소개하고 있는 태두남 묘갈명(자료 ③)에서는 태집성 대신 태금취로 수정하여 신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족보편찬 이전에는 영순태씨와 태금취가 직접 연결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개 가첩이나 세계도 수준의 전래된 기록을 토대로 족보 편찬을 하게 된다. 그마저 없는 경우는 『고려사』를 비롯한 그 이전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영순태씨 역시 족보 편찬 초창기에는 태금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시조까지 그 연원을 소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고려사』에 근거하여 태금취를 중시조로 연결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인조 대 이전에 발간된 족보는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지나치게 세계를 소급하거나 顯祖와 名祖를 찾는 분위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유명 인물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태두남의 「태씨구보서」에서 소개한 “태금취가 몽고와의 전쟁에서 공이 있어 영순군으로 봉해졌다(거주하던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되었다)”라는 내용 역시 후대에 와서 소급 追記되었을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영순태씨 시조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한 셈이 되고 말았다. 北村秀人 역시 태금취가 영순태씨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집성과 태금취 모두 대광현과 직결되는 1차 유민으로서 우봉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였다.⁴⁹⁾ 그러나 태금취가 우봉별초를 거느렸다 해서 우봉 출신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태금취가 처음 공을 세운 시

48) 이수진, 1992, 「조선전기 姓貫체계와 족보의 편찬체제」, 『한국사학논총 - 박영석화갑기념논총』 상.

49) 北村秀人, 1985, 앞의 논문.

기가 1253년인데, 이는 최우의 처 대씨 부인이 최항에게 피살되고 우봉대씨 일족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한 2년 후였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태금취가 우봉에 거주했던 자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봉대씨들이 숙청당하여 남쪽으로 편배되었다가 나중에 협계로 본관을 개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아무튼 발해 유민으로 추정되는 대씨들이 우봉과 영순에 따로 정착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후대 족보편찬 과정에서 영남지역에 적을 둔 자는 영순, 호남에 적을 둔 자는 협계라고 분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 영순태씨 시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⁵⁰⁾ 그렇지만 발해 유민으로 유입되었던 태씨 일족이 상주 임하촌에 자리 잡아 살던 중 누군가가 공을 세워 영순현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촌성에서 縣姓으로 되었으며, 동시에 영순현 읍사를 구성하는 향리 姓團으로 지정되어 續姓으로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V. 영순현 및 영순태씨 변화 추이와 위상

우리 성씨의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 성씨가 딛고 선 행정구역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영순태씨의 시대적 추이와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영순현 연혁과 전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상주목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추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근거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⁵¹⁾

50) 한국 씨족제에 있어서의 시조는 “후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推尋한 끝에 도달한 마지막 인물” “본관지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많은 씨족원 중에서 행운을 누린 사람” 이라고 표현한 송준호 교수의 글(1986, 「한국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문제」, 『역사학보』 109)이 크게 참고가 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 족보 제작 과정에서 시조를 추심하였을 것인바, 때에 따라서는 오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상주목 조.

〈표 2〉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상주목과 관할 임내(속현, 부곡) 현황표

구분	호수	인구	성씨	연혁	비고	
본邑	1,845	3,132	土姓 4 : 金, 朴, 周, 黃 來姓 4 : 高, 李, 荊, 羅 賜姓 1 : 李 外村姓 1 : 尹 續姓 1 : 林 (開寧來, 今爲 鄉吏)	新羅沾解王 取沙伐國爲州		
속현	청리	54	307	姓 3 : 張, 朴, 黃 次姓 1 : 沈 來姓 2 : 黃, 朴	본 신라 音里火縣,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화령	129	557	姓 6 : 任, 高, 方, 張, 全, 申	본 신라 答達七郡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중모	109	150	姓 5 : 金, 全, 姜, 朴, 方 來姓 1 : 沈	본 신라 刀良縣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단밀	140	700	人吏姓 1 : 羅 村落姓 1 : 孫	본 신라 武冬彌知縣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산양	112	667	姓 4 : 芳, 庾, 申, 蔡	본 신라 近品縣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공성	110	630	姓 4 : 成, 孫, 張, 金	본 신라 大井部曲 현종 9년 상주 임내 이속	
	영순	22	132	續姓 1 : 太 (今爲鄉吏)	本州 北面 林下村에서 태씨 인물 공적으로 승격	
부곡	장천	?	?	姓 2 : 尹, 朴		
	연산	?	?	姓 1 : 尹		
	무림	?	?	姓 1 : 金	續姓 2 : 金, 沈 본주 北面 茂興村	
	평안	?	?	姓 2 : 芳, 沈	*속현 공성현 소속 부곡	

상주의 속현이었던 영순현은 22호 132구에⁵²⁾ 지나지 않는 작은 고을이다. 다른 속현들의 20%에도 못 미치는 인구를 가진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으로서의 위세를 굳혔다는 것에 의심이 갈 정도다. 임하촌에서 영순현으로 승격되어 상주 속현으로 자리 잡았다면, 영순현에 거주한 태씨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속현이란 외관이 파견되지 않고 主邑에 종속되어 있는 현인데, 흔히 '任

內'라 표현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縣司, 향리와 관노비, 邑吏田과 公須位田, 公館 등을 보유했으며, 큰 규모의 속현은 향교까지 보유한 곳도 있다. 또한 조세와 공물(특산물) 수납이나 환곡과 진제를 위해 각종 창고 시설까지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다.⁵³⁾ 태씨가 영순현 향리를 맡았으니, 현으로 승격되면서 읍사를 장악한 후 長吏를 세습적으로 이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상주목사의 감독하에 현지의 조세 수납, 수령의 政令 전달 등 태씨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적으로 고을을 운영해 갔을 것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속현은 지속적인 개편 대상이었다. 속현의 주현화 내지는 작은 단위 고을에 屬屬·移屬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때 속현들은 주읍의 직촌으로 편제된 곳이 많았다. 『경상도지리지』에서는 속현에 대해 주읍과 동일한 편찬 항목에 넣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고을 연혁은 물론이고, 향·소·부곡·역, 사방경계, 호구, 성씨, 貢賦, 土産 등의 세항목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영순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속현을 소속 주읍에 포함시켜 연혁, 호구, 성씨만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에서도 당시 국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이렇듯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의 영순현은 속현이었으나, 그후 어느 시기에 상주의 직촌으로 된 듯하다.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 조에 의하면 폐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⁵⁴⁾ 성씨 조에서 영순태씨를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 다른 고을로 편입된 것은 아닌 듯하나, 실제로는 상주보다 함창이나 다른 이웃 고을이 더 가까웠다.⁵⁵⁾ 『세종실록지리지』 함창현 越境處 설명 가운데 “상주 임내 銀尺所가 현 西村으로 넘어 들어왔고, 상주 임내 영순현이 현 東村으로 넘어 들어왔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⁵⁶⁾ 상주 임내의 영순현이 월경처이기에 함창현 동촌 깊숙하게 넘어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다. 越境地(處)란 글자 그대로 남의 땅에 독단적으로 넘어왔다는 뜻이

53) 이수건, 1984, 앞의 책; _____, 1989, 앞의 책; _____, 2003, 앞의 책.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경상도 상주목 고적 조.

55) 오늘날에는 문경군 영순면으로 되어 있다.

56)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함창현 조.

52) 『경상도지리지』에서는 22호, 남 132구, 여 141구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다. 상주의 속현이면 당연히 상주 쪽 구역에 있어야 하나, 상주 소속의 영순현은 함창현의 동촌까지 넘어 들어온 지역에 존재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영순현은 월경지가 아니라 犬牙相入地였다. 완전히 넘어와 독립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개의 이빨이 서로 어긋나듯이, 본읍에서 길게 연결된 채로 깊숙이 남의 땅에 침범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인구가 희박하여 촌락이 연결되지 않은 탓에 군현 경계선이 확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영순현을 월경지로 표현한 것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이다.

월경지는 가까운 관부를 제쳐두고 멀리 있는 주읍에 속해 있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월경지와 견야상입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속현을 직촌화하고, 面里制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맞물려 갔다. 이리하여 영순현은 조선 중종 이전에 상주 직촌으로 되었다가 그후 다시 상주 관내의 면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다.

한편 앞의 <표 2>에서 속현 조 성씨를 표현할 때 '姓'이라고 한 것은 토성을 의미하고, 부곡에서 '姓'이라 한 것은 부곡성을 나타낸다. 이들이 각기 행정구역 단위별 읍사를 장악한 향리집단이였다. 상주 본읍에 외촌성이 하나[윤] 있듯이, 영순태씨 역시 고려 시기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되지 않았다면 상주 외촌성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현으로 승격되어 縣姓이 되었고, 동시에 영순 읍사를 장악한 향리 姓團이 된 것이다. 아울러 상주 관내 성씨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주읍 토성들이 점차 속현이나 부곡과 같은 외곽지역으로 이동해 갔던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다. 분파되어 간 주읍 성씨들이 외곽지역 읍사까지 장악한 것이다.

성씨 관련 자료에서 배열순서로 볼 때 촌성은 읍치성과 임내성 중간에 나온다. 고려 후기 이래 향·소·부곡이 혁파되면서 임내성이 주읍 성씨에 흡수되어 갔듯이, 촌성도 점차 독자성이 상실되면서 주읍 명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많아졌다.⁵⁷⁾ 상주지역 임내성과 촌성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였던 상주 외촌성 윤씨가 파평으로, 화령신씨와 산양신씨는 평산, 산

57) 충주지씨, 충주어씨, 연안차씨, 황주변씨, 여양진씨, 아산장씨, 영덕정씨, 영덕윤씨 등과 같이 원래 본관이었던 촌명을 버리고 소속 주읍명을 새로운 본관으로 개변하

양채씨는 인천, 공성성씨는 창녕, 중모강씨는 진주, 청리황씨는 장수황씨로 각각 본관지를 개변하였다.

그런 것에 비해 영순태씨는 상주 북면 임하촌의 촌성이었으나, 그들의 공으로 임하촌이 영순현으로 승격되어 縣姓으로 성장하였기에, 영순현이 폐음된 후에도 주읍인 상주를 본관으로 개변하지는 않았다. 아무튼 15세기 말부터 종래의 세분되었던 본관이 主邑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였는데, 그럼에도 임내성에서 출발한 가문들이 기존 본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⁵⁸⁾ 이는 이미 명문으로 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매우 작은 규모였던 영순현의 태씨 역시 폐현되고 난 후까지 본관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발해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이미 사족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는 자긍심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고려시대 발해 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태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개 태씨로 기록되어 있다. 대와 태는 통용되는 한자이기도 한데, 조선 세종조를 전후하여 태씨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서 대(태)씨들의 집단 거주지로 파악된 지역은 황해도 우봉, 경상도 영순(상주)과 대산(김해)이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각 군현 성씨 조에서 확인된 것은 영순·우봉·임도(통천) 등 3곳인데, 영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지를 떠나 亡姓으로 변한 성씨였다. 즉 우

었던 것이 단적이 예이다.

58) 전라도 장수현 續姓이었던 장수황씨(황희 가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기 해평군의 속현이었던 덕수현은 혁파되었지만 덕수이씨는 본관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반남은 남원에 통합되었지만 반남박씨 역시 본관을 그대로 썼다. 이런 사례는 기계유씨, 해평윤씨, 풍산유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명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본관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봉대씨는 우봉최씨(최충헌)와의 혼인을 통한 대집성의 활약으로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그의 딸 대씨 부인(최이의 후처)이 최항의 집권과정에서 피살되고, 그 일족이 남부지역에 編配됨으로써 멸문의 화를 입었다. 그리하여 호남지역에 편배되었던 자들이 협계로 본관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도태씨는 亡入姓과 投化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발해가 망한 후 고려에 來投하여 신개척지인 통천에 정착했다가 조선 초기 이전에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보다 50년 정도 늦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산(김해), 우이(예천)에 각각 태씨가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해의 대산지역은 『고려사』에서 이미 집단 거주지로 확인된 바가 있고, 우이태씨 역시 영순과는 계보를 달리하면서 상주·예천 일대에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두 지역이 部曲과 所라는 이유로 발해계 왕족인 대씨들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봉대씨들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면서 남부에 편배된 이주지들과의 관련성을 간과한 것에서 내린 결론이라 생각된다.

이에 비해 영순태씨는 유일하게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본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발해계 후손이다. 우리의 성관 추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세종실록지리지』인 셈인데, 경상도 상주 외곽촌이던 林下村 거주자 태씨가 공을 세워 영순현으로 승격되면서 태씨는 그 고을 읍사를 장악하게 되었다. 고려 이래 지방 행정 단위인 군현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3대 요소는 행정구역·주민·향리였다. 향리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영순현 태씨들이 長吏를 세습하면서 읍사를 장악하여 고을의 살림을 꾸려갔던 것이다.

이렇듯 발해계의 영순태씨들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상주 영순현 토성으로 성장하여, 조선 건국 후에도 본관지를 중심으로 그 종족을 이어갔다. 특히 영순현이 폐현이 되고 나서도 영순태씨는 본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개 폐현된 경우 주현의 명칭으로 본관지를 개변했던 사례가 많았지만, 영순태씨는 그 본관을 그대로 지켜갔다. 총 22호에 지나지 않은 상주 속현 영순을 그대로 본관지로 한 것은 발해 왕족이라는 자부심과 이미 사족으로 성장했던 사회적 지위 등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봉태씨(협계태씨)와는 달리 급변하

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한발 비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顯祖를 모시지 못한 성씨들이 유명 성씨의 본관지로 개변하였던 시대적 추세와도 매우 대비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 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대씨들이 고려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려식 성관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성관제도를 통해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혈연적 기반과 지연적 기반을 동시에 충족하는 성과 본관지 획득이 당시 백성에게는 필수 요건이었고, 발해 왕실 유민들 역시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 지금까지 맥을 이어 오고 있는데, 영순태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조선 조 이후 한때 쇠락의 길을 걸기도 했지만, 중종조에 태두남이 청요직으로 진출함으로써 가문을 새로이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것에 비해 우봉태씨들은 고려 최충헌 집권 시기에 중앙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 발돋움하였으나,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우리나라 성씨들의 끊임없는 성장과 소멸 과정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Process of the Settlement of the Dae's, Displaced
people of Balhae, in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Youngsoonhyun and the Youngsoon Tae's -

Park, Hong-Gap

There seem to be some of the Dae's who is alleged to be the descendants of Balhae's royal family in Koryo. In 『The History of Koryo』, The Dae's seems to have settled in Ubong(Hwanghae province) and Youngsoon(Sangju, Kyoungsang province). In addition, three regions, Youngsoon, Ubong, Imdo(Tongcheon, Kangwon province), were confirmed in 『SejongSilokJiriji』, but every residents except those who resided in Youngsoon have left their places of origin.

The Ubong Daes in Koryo could raise themselves to be the noble family by marrying the daughter of Daejipseong to the Ubong Choi(Choi Chung-heon). However, Mrs. Dae who were the second wife of Choi Yi were murdered in the reign of Choi Hang, and their family was exterminated because of the remaining familys dispel to the southern part. Furthermore, the Imdo Tae's have surrendered to Koryo after the perish of Balhae, and settled in Tongcheon, Kangwon province, but left their settlement before the founding of Joseon Dynasty.

In 『Sinjeung DongkukYeojiSeungram』, it is confirmed that the Dae's had resided in both Daesan(Kimhae) and U-yi(Yecheon).

Daesan in Kimhae was found out to be the settlement in 『The History of Koryo』, and the U-yi Tae's seems to have resided in or around Sangju and Yecheon. It is said that the Dae's of Balhae's royal family who had lived in these two areas were discriminated, because those areas were Bukok(部曲) and So(所). However, they were discriminated because the Ubong Dae's were withdrawn from politics, and they were not discriminated from the beginning.

In the meantime, the Youngsoon Dae's are the only descendents of Balhae whose place of origin can be found. The Youngsoon Daes of Balhae grew to be the native surname at a relatively late time, and kept up their tribes round their place of origin. Especially, after Youngsoonhyun had been annihilated, the Youngsoon Taes continued to use their place of origin. The fact, that Youngsoon which is nothing but a small town was maintained to be their place of origin, seems to be based on the pride that they are Balhaes royal family and their social position that they became Sajok(classical scholars).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y kept their distance from the central political arena differently from the Ubong Dae's.

Thus, the Dae's who are alleged to be the descendants of Balhae's royal family had to be absorbed in the Koryo's system of surname and birthplace of family's founder. At that time, that system of surname and birthplace of family's founder was a way for the country to rule their people.

keywords

Balhae, Balhae's royal family, Dae's, Ubong Dae's, Youngsoon Dae's

汕耘 張道斌의 『渤海太祖』 연구

김 동 우 |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산은 장도빈(1888~1963)은 민족주의 사학자이자¹⁾ 언론인·교육자였으며, 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계몽운동에 힘쓴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국사에 대한 62종의 저술과 4종의 유고를 남겼는데, 통사·사상사·문화사·독립운동사·위인전·한국문화고적지지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중 통사에는 1916년에 지은 『國史』(1946년 재간)를 비롯해 『朝鮮歷史要領』(1923), 『朝鮮歷史大全』(1928), 『朝鮮史』(1932), 『國史要領』(1950), 『國史講

1) 장도빈의 史學과 발해사 인식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千寬宇, 1981, 「通史解題」, 『汕耘張道斌全集』 I; 金昌洙, 1985, 「汕耘 張道斌의 民族主意史學 (I)」, 『汕耘史學』 창간호; 金重熙, 1985, 「汕耘張道斌」, 汕耘學術文化財團; 申澁植, 1988a, 「汕耘 張道斌의 歷史認識 - 古代史觀을 中心으로 -」, 『汕耘史學』 2; 金昌洙, 1988a, 「汕耘 張道斌의 史學과 民族意識 - 그의 論說에 나타난 歷史像 -」, 『汕耘史學』 2; 申澁植, 1989, 「汕耘 張道斌의 新羅史觀」, 『汕耘史學』 3; 趙炳魯, 1989, 「汕耘 張道斌의 近世史認識」, 『汕耘史學』 3; 趙彙珍, 1992, 「汕耘 張道斌의 渤海史 認識」,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義』(1952), 『中學國史』(1952), 『國史概要』(1952), 『國史概論』(1954), 『大韓歷史』(1959) 등이 있다.²⁾

장도빈이 저술한 위와 같은 통사들은 한결같이 발해사를 적극적으로 한국사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발해사를 신라사와 대등한 입장으로 인식하는 남북국시대론을 서술하였다. 1926년에 출간된 『渤海太祖』는 이러한 통사류와는 달리 위인전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발해사 인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독립을 위한 계몽운동의 일면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渤海太祖』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알아본 다음 『渤海太祖』 내용을 현재의 연구 성과나 그의 다른 발해사 저술들과 비교·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도빈의 발해 인식과 『渤海太祖』를 저술한 목적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장도빈의 사학사적인 평가와 『渤海太祖』에 보이는 그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고 『渤海太祖』가 연구사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II. 汕耘 張道斌의 生涯³⁾

188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장도빈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漢學을 배우며 자랐다. 그가 성장한 때는 1876년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조선이 물밑듯이 들어온 외세에 대한 자주권을 지키면서 근대화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아울러 신학문이 들어와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체제가 여러모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장도빈은 12세 때(1900) 한국 최초의 근대적 官立 교원 양성학교 인근 漢城師範學校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고,⁴⁾ 1906년 졸

2) 千寬宇, 1981, 위의 논문, 12~13쪽.

3) 장도빈의 생애에 대해서는 金重熙, 1985, 앞의 책과 曹佐鎬, 1988, 『汕耘 張道斌의 生涯』, 『汕耘 張道斌의 生涯와 思想』, 汕耘學術文化財團을 참조하였다.

4) 漢城師範學校에서 가르친 학과목은 修身·教育·國文·漢文·歷史(韓國 및 萬

업하였다. 이후 향리로 돌아가 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08년 봄에 서울로 올라와 정치가가 되어 국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普成專門學校 法科(당시는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이와 함께 皇城新聞 主筆 박은식의 소개로 大韓每日新報에 들어가서 당시 臥病 중이던 신채호를 대신하여 신문의 논설을 쓰고, 1909년에는 신채호와 1주일씩 교대로 논설을 썼다.

이때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장도빈은 신문 기사와 논설을 통해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국민의 독립심을 고취하는 데 힘쓰는 한편 新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1909년 장도빈은 일제에 의해 法部가 없어진 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국사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게 된다.⁵⁾

물론 장도빈은 이전에도 국사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漢城師範學校 입학시험 과목에 國文과 漢文의 讀書와 作文·本國地理·本國歷史가 있었는데,⁶⁾ 12세의 나이로 입학 시험에 합격한 것⁷⁾을 보면 장도빈의 실력이

國)·地理(韓國과 萬國의 政治 地理 및 地文의 初步)·數學·物理·化學·博物·習字·體操 등이었다(『官報』 1895년 7월 24일자와 學部令 第1號 漢城師範學校規則).

5) 張道斌, 1954, 「나의 普專時節」, 『高大新聞』 45, 6월 21일자. “우리 法部가 없어진 것을 목격한 나는 亡國의 悲痛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에 나라가 이미 亡하게 되었으니 法學의 연구보다 國史를 研究하여 우리 民族의 祖國情神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法科를 졸업하였으나 國史를 연구하기로 專力하게 되었다”; 張道斌, 1962, 『暗雲 鴛鴦 舊韓末』, 『思想界』 4월호; 1981, 『大韓偉人傳』 中, 亞細亞文化社, 407쪽. “내가 그 시대에 普成專門學校(高麗大學)의 法科를 졸업하였으나 世事가 急變하여 亡國에 처하므로 우리는 學問研究의 柁를 돌려 國史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곧 우리나라가 亡한 후에 독립을 회복하려면 우리 國史를 잘 연구·선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나는 國史研究의 一端을 가끔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때 신채호씨는 유명한 國史學者로 훌륭한 연구와 著述이 있었지만 우리의 國史研究는 신씨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하루는 昭格洞旅館에서 밥을 먹고 일찍이 신문사(그때 大韓每日新報社는 太平路 左側에 있었다)로 오는 길에 六曹 앞에 와서 法部의 門牌가 떨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나라가 날마다 亡해 가는 판에 어제는 軍部가 없어지고 오늘은 法部마저 없어지니 나라가 아주 없어질 날도 머지않은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었다. 나는 國史 研究에 전력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五十餘年을 계속한 나의 國史研究의 初步이었다”

6) 魯仁華, 1985, 「大韓帝國 時期의 漢城師範學校에 관한 研究」, 『梨花史學研究』 16, 15쪽.

대단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성사범학교에서 국사를 공부하였다.

또한 박은식의 소개로 대한매일신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장도빈의 국사에 대한 소양이 남달랐음을 간접증명한다. 여기에 당시 저명한 사학자였던 신채호의 영향으로 독립을 위한 국사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을 것이다.

1910년 日帝에 의해 나라가 병합되자 五星學校의 學監으로 취임하여 인재 교육에 힘을 썼는데, 2년 후 오성학교가 총독부에 의해 폐교된 뒤에는 五山學校로 잠시 옮기었다. 이 무렵 일제는 安岳사건과 총독암살 미수사건을 날조하여 애국계몽운동계의 新民會를 탄압하여 약 600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105인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장도빈은 만주의 延吉縣 局子街로 가서 망명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로 건너가 그 북쪽에 있는 新韓村으로 갔다. 여기서 그는 勸業新聞에 기고하는 한편 국사 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신채호와 함께 생활하면서 沿海州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여 국사 연구의 자료로 삼았으며, 많은 독립지사들과 교류하였다. 이후 1913년 겨울에 미국에 있는 안창호가 그를 초청하며 여비까지 보내오자 장도빈은 미국으로 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때 그는 위독할 정도로 신경쇠약을 앓았고, 결국 미국행을 단념하고 귀국하였다.

귀국한 그는 그때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여 1916년 처음으로 통사인 『國史』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교육과 언론활동, 국사 저술 등을 통해 민족 자강을 이룩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발행에 일조하였고, 漢城圖書株式會社를 설립하여 국사를 위주로 많은 저서를 출판하는 한편 잡지 『서울』, 『學生界』, 『朝鮮之光』 등을 발행하는 등 민족 및 청소년에 대한 계몽사업을 시작하였다. 1930년 이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

7) 당시 한성사범학교의 입학 자격은 漢學에 대한 소양과 전통적인 유교적 지식 습득 여부가 중요하였다고 한다(魯仁華, 1985, 위의 논문, 15쪽). 따라서 5세 때 漢詩를 지어 神童이라 불리었다고 하는 장도빈은 漢學 실력만으로도 한성사범학교에 충분히 합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장도빈은 유학의 '經史一體'라는 전통에 따라 經과 史를 같이 배웠을 것이다.

키고, 이어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는 전쟁 협력을 강요한 암흑기가 시작되자 그는 일제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산간벽지로 몸을 피했다고 한다.

1945년 광복이 된 후 장도빈은 民衆日報를 창간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한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광복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계몽을 위한 언론 활동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가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사 강의와 저술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을 위한 이러한 활동과 건국 공로로 그는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1963년 별세하였다.

〈표 1〉 汕耘 張道斌 略歷 및 주요 著述⁸⁾

年度	略歷 및 著述
1888년	10월 22일 평남 중화군에서 출생
1906년	漢城師範學校 졸업
1908~10년	善成專門學校 法科 졸업, 大韓每日申報 主筆, 新民會 가입, 국사 연구 시작
1910~12년	五星學校 學監
1912~1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독립운동 및 고구려 발해 유적 답사
1916년	『國史』 저술
1917년	『偉人 元曉』(新文館)
1919~26년	漢城圖書株式會社를 설립해 잡지 『서울』, 『學生界』, 『朝鮮之光』 등을 발행. 『朝鮮歷史要領』(1923, 高麗館), 『朝鮮十大偉人傳』(1923, 東洋書院), 『朝鮮英雄傳』(1925, 高麗館), 『朝鮮偉人傳』(1925, 高麗館), 『朝鮮名婦傳』(1925, 高麗館), 『乙支文德傳』(1925, 高麗館), 『東明王』(1925, 高麗館), 『南怡將軍實記』(1926, 德興書林), 『渤海太祖』(1926, 高麗館), 『甲午東學亂과 全瑸準』(1926, 德興書林)
1927~45년	고적답사와 역사연구 및 역사서적 간행, 2차대전 시에는 심산에 은둔. 『大院君과 明成皇后』(1927), 『壬午軍亂과 甲申政變』(1927, 德興書林), 『朝鮮歷史大全』(1928, 博文書館), 『文武大王傳』(1928, 博文書館), 『서산대사와 사명당』(1928, 德興書林), 『朝鮮史』를 동아일보에 연재(1932, 총67회), 『朝鮮歷史談』(1932), 『平壤誌』(1936, 平壤商工社)
1945~46년	民衆日報 사장, 朝鮮新聞主幹會 대표, 『韓國末年史』(1945, 德興書林), 『國史』(1946, 德興書林)
1947년	韓國大學 설립

(계속)

8) 『汕耘 張道斌의 生涯와 思想』, 曹佐鎬, (1988)에 나오는 약력과 저서 목록을 참조하였다.

年度	略歴 및 著述
1948년	檀國大學 설립, 초대 학장
1949년	육군사관학교 국사학 교수
1950년	『國史要領』(國史院)
1952년	『國史講義』(國史院) 『中學國史』 『國史概要』(國史院)
1954년	『國史概論』(國史院)
1957년	『韓國의 魂』(國史院)
1959년	高等考試委員, 『大韓歷史』(國史院)
1960년	『大韓文化古蹟圖』(國史院)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문화훈장 받음
1963년	9월 12일 75세로 별세

Ⅲ. 『渤海太祖』의 내용 검토

1926년 12월 15일 高麗館에서 발행된 총 36쪽에 달하는 『渤海太祖』의 목차와 대강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渤海太祖』의 목차와 내용

구분	쪽수	내용
표지		張道斌著 渤海太祖 京城 高麗館 發行
目次		
一. 南北初葉의 天下形勢	1	新羅의 三國統一과 唐軍 축출
二. 渤海太祖의 出世	7	渤海太祖의 출신과 발해 건국 전까지의 활동
三. 太祖의 建設	14	渤海 건국과 영토확장, 초기의 외교활동
四. 太祖의 政治	21	渤海의 정치제도 소개
五. 太祖의 遺業	29	太祖 死後 武王·文王·宣王의 지적과 발해의 멸망
書誌		책의 서지 사항 기술

그런데 장도빈은 개국한 왕의 일반적인 廟號인 太祖로 책을 題名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발해를 건국한 大祚榮의 시호는 高王이다.⁹⁾ 이렇게 책이름을

9) 『新唐書』 219, 列傳 144, 北狄 渤海, “玄宗開元七年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

『渤海太祖』라 한 사례는 박은식이 1911년에 편찬한 『渤海太祖建國誌』에 보인다.¹⁰⁾ 그리고 황의돈의 『新編朝鮮歷史』(1923)에서도 ‘太祖 高王’이라 하였다. 장도빈도 『渤海太祖』를 쓰기 이전부터 高王을 태조라 하였다. 『國史』(1916),¹¹⁾ 『朝鮮歷史要領』(1923),¹²⁾ 『朝鮮十大偉人傳』(1923),¹³⁾ 『朝鮮英雄傳』(1925),¹⁴⁾ 『朝鮮偉人傳』(1925)¹⁵⁾에서 장도빈은 모두 고왕을 ‘발해 태조’라 하였다.

발해사가 자국사로 본격적으로 서술된 조선 후기 때 이종휘, 유득공, 한치윤, 홍석주, 정약용, 김정호 등에 의해 발해의 한국사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⁶⁾ 그러나 이들에 의해 저술된 『東史』, 『修山集』(이상 이종휘), 『渤海考』(유득공), 『海東釋史』(한치윤), 『東史』(홍석주), 『我邦疆域考』(정약용), 『大東地志』(김정호) 등에서는 발해 고왕이 태조로 서술되지 않았다. 이는 한말에 편찬된 국사교과서¹⁷⁾의 발해 관련 내용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1902년과 1905년 김택영이 저술한 『東史輯略』과 『歷史輯略』에 ‘발해태조’가

10) 박은식의 『渤海太祖建國誌』는 『東方學志』 114집(2001)에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글로서 金度亨, 2001, 「1910년대 朴殷植의 사상 변화와 歷史認識 -새로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1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임상선, 2004, 「朴殷植의 『渤海太祖建國誌』의 검토」, 『韓國史學史學報』 10, 韓國史學會가 있다.

11) 조동걸은 “『汕耘張道斌全集』 I에 전하는 『國史』는 8·15 광복까지 서술하고 있어서 1916년의 원본일 수 없기 때문에 당초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조동걸, 1994, 「항일운동기의 역사인식」,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68쪽). 필자는 1916년의 『國史』에 마지막 장인 「世界大戰과 我國復興」을 보충하여 1946년에 재간된 『國史』(國史院)를 『汕耘張道斌全集』 I에 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12) 『汕耘張道斌全集』 I(1981), 66·168쪽

13) 張道斌, 1923, 『朝鮮十大偉人傳』, 漢城圖書株式會社, 58쪽.

14) 張道斌, 1925a, 『朝鮮英雄傳』, 高麗館, 24·66·91쪽.

15) 張道斌, 1925b, 『渤海太祖』, 『朝鮮偉人傳』, 高麗館.

16) 한규철, 1992, 「고려에서 독립운동기까지의 발해사 인식」, 『역사비평』 18, 348~349쪽.

17) 한말에 편찬된 교과서는 朴杰淳, 1998, 『韓國近代史學史研究』, 國學資料院, 47쪽의 <표1> 한말의 국사교과서 일람을 참조하였다. 이들 교과서에 보이는 발해인식에 대해선 金瑛河, 1993, 「韓末·日帝時期的 新羅·渤海認識」, 『泰東古典研究』 10; 金瑛河, 2007, 『新羅中代社會研究』, 일지사; 최혜주, 2004, 「한말의 고구려·발해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참조된다.

보인다.¹⁸⁾ 그리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역사 상에 발해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한 신채호의 『讀史新論』에서도 고왕을 ‘태조’라 하지 않았다.

박은식은 『渤海太祖建國誌』를 지은 목적을 『渤海太祖建國誌』가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보조자료이며,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 일으킬 방도를 알도록 하는 것¹⁹⁾이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또한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멸망한 국민을 다시 살게 한 자들이 東明聖王과 渤海太祖이며, 이들이 命世偉人이라고 하여²⁰⁾ 발해 태조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를 말하였다. 따라서 박은식이 발해 태조라 한 것이 처음은 아닐지라도 나라를 건국한 위인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태조란 묘호를 제목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장도빈도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많은 위인전을 남겼다. 그리고 나라를 건국한 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의 史家들이 사용해 왔던 고왕 또는 대조영이라는 사서에 나오는 표현을 답습하지 않고 渤海太祖라 한 듯하다.²¹⁾ 『國史』에서 장도빈이 신라와 백제의 건국자인 박혁거세와 온조왕을太祖라 한 것도 건국자에 대한 그의 특징적인 평가라 할 것이다. 그는 이후에 저술한 『朝鮮歷史大全』(1928), 『國史要領』(1950),

『國史講義』(1952), 『中學國史』(1952), 『國史概要』(1952), 『大韓歷史』(1959) 등의 통사에서도 줄곧 발해 태조라 하였다.

그러면 각 장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장 南北初葉의 天下形勢는

三國時代가 約七百年間의 榮華를 빚내다가 百濟는 義慈王君臣의 荒淫으로 高句麗는 泉男建兄弟의 분쟁으로 그 國勢 危殆에 瀕하자 新羅의 雄圖와 巧智는 唐人의 凶鋒을 呑하야 드디어 朝鮮民族의 衰運을 招致하였다.(『渤海太祖』, 1쪽. 이하 원문 인용 시는 쪽수만 적음)

라 시작되고 있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당에 의해 멸망된 후 다시 신라가 당을 축출한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즉 장도빈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조선민족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신채호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과 합세하여 당의 침략 의도를 깨뜨려 당군을 몰아내고, 백제의 故地와 고구려 고지 중 평양 이남까지 취한 과정을 671년 8월 당병 4만을 대방지역에서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676년 기벌포에서 당의 해군을 물리치기까지 서술하였다. 장도빈은 신라의 대당전쟁을 비교적 자세히 다룸으로써 외세를 물리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듯하다.²²⁾ 그리하여

當初에 唐이 우리 三國에 垂涎하야 朝鮮人의 基礎를 破滅코저 하야 그 凶計로 먼저 新羅와 結하여 百濟, 高句麗를 滅하고 이어 新羅까지 擊取하랴 하얏더니 마침내 新羅의 英雄 金春秋, 金庾信, 文武王이 出하야 도리혀 唐을 이용하여 百濟, 高句麗를 滅한 後에는 니어 高句麗人과 呑하야 唐을 擊出하고 百濟故地 및 高句麗故地의 南部를 取하얏나니 이

18) 『東史輯略』 5, 羅孝昭, “己亥(孝昭王)七年 唐武后篡位十五年 渤海太祖大祚榮立爲震國王”; 『歷史輯略』 5, 羅孝昭, “己亥(孝昭王)七年 渤海太祖元年 唐武后篡位十五年 渤海太祖大祚榮立爲震國王”. 『東史輯略』과 『歷史輯略』에서 발해를 신라사의 편년체계 내에 종속시켜 병렬적으로 서술한 방법은 거의 같았다. 다만 『歷史輯略』에서는 효소왕 7년(698)을 발해 태조 원년으로 정하였다(金瑛河, 1993, 앞의 논문). 따라서 김택영이 태조라 한 것은 발해 건국 기년을 효소왕 7년으로 서술하면서 건국자로서의 일반적인 의미로 묘호를 덧붙인 듯하다.

19) 임상선, 2004, 앞의 논문, 75쪽.

20) 『渤海太祖建國誌』, 386쪽. 쪽수는 『東方學志』114집(2001)의 것이다.

21) 이는 박은식의 영향이라고 추측된다. 임상선은 발해 태조를 중심으로 발해 역사를 개론적으로 다룬 『渤海太祖建國誌』가 이후 張道斌의 『渤海太祖』와 金庠基의 『渤海太祖高王』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임상선, 2004, 앞의 논문, 89쪽). 여기서 장도빈의 『渤海太祖』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渤海太祖』가 아니고 『朝鮮十大偉人傳』(1923, 東洋書院)의 글이지만, 서술 체제는 둘 다 비슷하다.

22) 신라의 당 축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장도빈의 『國史』와 『朝鮮歷史要領』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삼국통일 자체를 비판하면서, 이를 부정하였던 신채호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崔圭成, 1992, 『民族主義史學者들의 統一新羅와 渤海에 대한 歷史認識』, 『汕耘史學』 6, 61~62쪽).

를 成功한 文武王은 實로 新羅의 國勢와 文明을 大擴張하였다. 그러나 異族의 唐을 引하여 同族인 百濟, 高句麗를 滅함으로 唐의 兇鋒이 高句麗, 百濟를 慘酷히 破壞하여 朝鮮人の 勢力과 文明은 이때에 大打撃을 當하였나니 이는 實로 朝鮮人 衰弱의 大原因된 事實이라 이 事實은 朝鮮人の 莫大한 不幸이었다.(5~6쪽)

라 하였다. 즉 장도빈은 異族인 당을 축출함으로써 조선인의 파멸을 막고 신라가 國勢와 文明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하면서 이를 성공시킨 김춘추·김유신·문무왕을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의 침략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파괴당하고 조선인의 세력과 문명은 크게 타격을 받아 조선인이 쇠약하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인에게 매우 커다란 불행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한 원인은 고구려의 남부를 신라가 영유하였으나 이는 고구려 고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고, 遼東城以西의 땅은 결국 당이 점거하였으며, 백두산 이북의 대륙은 말갈인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도빈은 고구려의 문물은 모두 파괴되고, 고구려 백성들도 모두 흩어져 의지할 곳도 없었다고 하면서 고구려 멸망 후 발해가 건국되기까지의 시기를 暗黒時代로 단정하였다.

이렇듯 장도빈은 신라가 당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하고 그 영역과 문명을 확장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조선 전체로 볼 때 신라가 외세인 당의 힘을 끌어들이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한 것에 대해선 신채호나 박은식 등과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처럼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장도빈은 그 원인을 백두산 이북의 대륙과 요동 지역을 잃으면서 조선인들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던 것만을 지적하지 않고, 고구려 문물이 당에 의해 파괴되어 결국 조선인의 문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이전에 장도빈이 저술한 『國史』와 『朝鮮歷史要領』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문화가 민족의 왕성이나 쇠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장도빈의 문화사관이 『渤海太祖』를 저술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장 渤海太祖의 出世에서는 渤海太祖를 고구려 武門 집안 출신의 고구려인이라 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아버지 大仲象과 함께 營州로 간 발해

태조가 거란 수령 이진충과 擧事를 도모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말갈인의 대표인 乞四比羽와 연합하여 동쪽으로 가서 태백산 북쪽의 奧婁河에 성벽을 쌓고 웅거하자 당은 대증상에게 震國公을, 걸사비우에게 許國公의 작위를 내려 회유했으며, 이들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당은 무력으로 이들을 토벌하여 중상이 病死하고, 걸사비우도 전사하여 발해 태조가 압박받는 시점까지 저술하였다.

이상 2장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장도빈의 견해 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발해 태조의 출신이다.

太祖는 高句麗人으로 그 집안은 高句麗 北部인 粟末靺鞨의 附近 地方에 在스 듯하니 …… 大祚榮이 高句麗人임은 確實하나 그 生地는 未詳하니 그는 아마 高句麗의 北部地方 松花江 附近일 것이다. …… 요컨대 大祚榮의 집안은 오래 高句麗 北部 地方에 在서 그 附近의 粟末靺鞨部落을 管理하던 武門이었다.(7쪽)

장도빈은 고왕의 집안을 고구려 북부지방에서 속말말갈 부락을 관리하던 무인 가문이라 하면서 고왕을 고구려인이라 확정하고 있다. 장도빈은 그 근거로 『舊唐書』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다”라는 기사²³⁾와 『三國遺事』에서 고구려의 옛 장수라 한 것,²⁴⁾ 그리고 최치원이 고구려 유민들이 태백산 아래 모여 발해가 되었다고 한 사실²⁵⁾을 들고 있다.

장도빈은 『國史』와 『朝鮮歷史要領』에서는 고왕을 ‘고구려의 옛 장수’라 하였고, 『朝鮮十大偉人傳』에서는 ‘고구려의 將校’라 했지만, 위와 같은 문헌 자료를 근거로 고왕을 고구려인이라 주장하면서 송화강 부근에서 속말말갈을 관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23) 『舊唐書』 199 下, 列傳 149 下, 北狄 渤海靺鞨,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既滅 祚榮率家屬 徙居營州”.

24) 『三國遺事』 1, 紀異 2, 靺鞨渤海, “新羅古記云 高麗舊將祚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白山南 國號渤海”.

25) 『孤雲集』 1, 上太師侍中狀,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

26) 현재 학계에서는 고왕을 고구려인, 말갈계 고구려인, 속말말갈계로서 송화강 출신의 고구려 유민 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대개 종족적 출신은 말갈로 보지만 고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멸망 후에 고왕이 아버지 대중상과 영주로 간 사실을 설명한 부분이다.

祚榮이 이에 父親과 함께 營州로 往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契丹이 營州 附近에 있었나니 當初에 契丹이 오래 高句麗에 附屬하였다가 高句麗末世에 契丹이 叛하여 唐에 降하였다. 그러나 契丹은 항상 唐과 暗鬪하는 中이었다. 이때 祚榮과 仲象이 思하되 高句麗國內는 너무 混沌하니 契丹에 往하여 機會를 俟하자 하였다. 이에 仲象의 父子 家屬과 部下兵士를 거나리고 西으로 營州에 往하여 契丹을 依하니 契丹人이 喜하여 仲象으로 舍利(舍利는 契丹語의 將軍)를 삼았다.(9쪽)

대개는 고왕 부자가 영주로 간 것을 당에 의해서 강제로 옮겨졌다고 보고 있는 데²⁷⁾ 반하여 장도빈은 이들이 스스로 영주로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⁸⁾ 당시 영주에서는 거란·해·실위·말갈·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에 의해서 강제로 본거지에서 옮겨졌거나, 고구려 멸망 등 큰 정세의 변동과 주변 세력 변화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영주로 옮겨갔거나 하였다.

고왕 부자가 영주에서 家屬과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이진충의 난을 틈타 동주했다고 한 것을 보아 영주에 머물 때 이미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당에 의해서 강제로 옮겨왔다고 한다면 가속과 자신의 세력을 이같이 유지하였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관련 사료에서도 고왕 부자가 영주로 옮겨 산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주23 참조), 그 옮겨진 원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도빈의 위와 같은 설명도 한 편으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진충이 난을 일으킨 것을 기회로 삼아 걸사

비우의 무리와 연합하여 동쪽으로 가서 遼水를 건너 태백산의 북쪽에 이르러 산을 의지하고 奧婁阿(河의 오기인 듯)를 의지하여 웅거하였다고 한 것이다.

仲象의 父子는 高句麗兵士를 거나리고 乞四比羽는 靺鞨人을 거나리고 東으로 來하여 遼水를 건너 今의 長春, 吉林을 지나 太白山(白頭山)의 北에 至하여 山을 依하고 奧婁阿(곳 松花江인 듯)를 依하여 城壁을 세우고 大準備를 經營하니 무론 乞四比羽의 助力도 不少하였다.(11쪽)

원래 자신들의 본거지로서 여러 가지 利點이 있으며, 당과 신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고왕이 터를 잡았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인정되는 설명이다. 그리고 唐이 중상과 걸사비우를 震國公과 許國公에 제수한 것이나 당군과 격돌하여 걸사비우가 전사한 사실이 요동 지역에서 일어난 듯이 서술된 것은 『舊唐書』와 『新唐書』에 기록된 기사들을 서술된 순서대로만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왕 부자와 걸사비우 무리가 단번에 백두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발해의 건국 과정에 대한 세밀한 연구 성과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왕이 영주에서 동으로 가서 곧바로 태백산 북쪽에 웅거한 것이 아니라 遼東 지방의 瀋陽이나 太子河 유역, 또는 遼東 북부 지역에서 일시 정착한 다음 대략 북류 松花江의 지류인 揮發河와 渾河의 분수령인 哈達嶺으로 비정되는 天門嶺 전투에서 승리한 후 東牟山 지역에 정착하였다는 것이다.²⁹⁾ 또 이진충의 반란 후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각각 동주하여 高麗故地인 요동의 천문령 서쪽에 1차로 정착하였다가, 걸걸중상 死後에 고왕이 무리를 이끌고 천문령 동쪽으로 이동한 후 천문령 전투 승리 이후에 오루하 지역에 정착하였다는 주장도 있다.³⁰⁾

3장 太祖의 建設에서는 발해 태조가 걸사비우 무리를 병합하고 천문령으

구려와의 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임상선, 1999, 『발해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63~72쪽 참조).

27) 한규철, 2007, 「대조영의 귀향과 발해 건국」,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7~39쪽.

28) 박은식도 『渤海太祖建國誌』에서 고왕 부자가 자발적으로 영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임상선, 2004, 앞의 논문, 78쪽).

29) 노태돈, 1996, 「발해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25~27쪽.

30) 임상선, 1999, 앞의 책, 45쪽.

로 압박해 왔던 당군을 크게 물리친 후 699년 발해를 건국하여 고구려 고지를 회복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장도빈은 천문령을 태백산의 동북부에 있는 고개로서 吉林에서 寧古塔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다고 비정하였다. 이러한 잘못은 2장에서 고왕이 곧장 동쪽으로 달아나 오루하 지역에 웅거하였다고 여긴 데 따라 연쇄적으로 범하게 된 오류일 것이다.

3장에서는 발해 태조가 발해를 건국하고 발해의 수도를 忽汗河(목단강) 부근의 忽汗城(寧古塔)에 정하였으며(中京城), 국호를 振 또는 震旦이라 했다가 마침내 渤海라 한 부분이 주목된다.

太祖가 이에 忽汗河上에 忽汗城(寧古塔)을 築하여 國都를 定하고 國을 建하여 처음에 國號를 振 또는 震旦이라 하였다가 마침내 渤海라 하고 政府와 地方郡縣과 百般制度를 張設하고 大位에 登하니 이곳 渤海太祖이다. 때는 西紀六百九十九年이오 高句麗 亡한 후 三十一年 만 이더라.(16~17쪽)

주지하다시피 고왕이 발해를 건국한 해는 698년이다. 이것은 『類聚國史』 193, 殊俗部, 渤海上, 延曆 15年 4月 戊子條³¹⁾의 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舊唐書』에는 “성력 연간에 스스로 서서 진국(발해)왕이 되었다”³²⁾라고 했는데, 성력 연간은 698~700년이다.

장도빈은 아마도 『舊唐書』의 기사를 근거로 699년을 발해가 건국된 해로 비정한 듯하다. 이후에 나온 『朝鮮歷史大全』에도 발해가 699년에 건국되었다고 하였으나, 『國史講義』에서는 단기 3017년(684)이라 하였고, 그가 쓴 마지막 통사인 『大韓歷史』에서도 발해가 건국한 해를 684년으로 하였다. 이는 『帝王韻紀』에 있는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 주나라 측천 갑신에 건국하여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라는 기사³³⁾를 근거로 한 듯 하다. 주나라 측천무후의 갑신년이

31) “渤海國者 高麗之故地也 天命開別天皇七年(668) 高麗王高氏爲唐所滅也 後以天之眞宗豐祖父天皇二年(698) 大祚榮始建渤海國 和銅六年(713) 受唐册立”

32) 『舊唐書』 199下, 列傳 149下, 北狄 渤海靺鞨, “…… 聖曆中(698~700) 自立爲振國王”.

684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國號는 전하는 사료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舊唐書』와 『冊府元龜』, 최치원의 글에서는 振國이라 하였고, 『三國遺事』에 인용된 『通典』에는 震旦, 『新唐書』에는 震國으로 되어 있다.³⁴⁾ 따라서 장도빈은 『舊唐書』와 『三國遺事』의 기사를 인용하여 국호를 설명한 셈이다.

다음으로 장도빈은 3장에서 고왕이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는데 동은 흑룡강 하구의 大海까지요, 남은 泥河(德源郡)에서 대동강까지 이르고, 서는 遼水까지였으며, 북은 흑룡강에 極하여서 남북 6,000리, 동서 6,000리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역사상 최대 강역을 다스렸던 발해의 영역은 고구려보다 1.5배, 남쪽에 있었던 신라보다 3~4배나 되었다.³⁵⁾ 그런데 이 영역은 발해의 전성기인 宣王代에 ‘사방 5,000리’의 최대 판도를 이룬다. 이때 남쪽으로는 대동강 원산만을 잇는 선으로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동쪽으로는 동해까지 이르러 연해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 북쪽으로는 흑룡강과 松花江이 만나는 지점까지 미쳐 흑수말갈과 대립하였고, 서쪽 嫩江과 松花江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遼河로 이어지는 선으로 契丹·당과 접경을 이루었다.³⁶⁾

그리고 위의 글을 보면 장도빈은 高王代에 정부와 지방군현과 모든 제도를 설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4장 太祖의 政治에서 “太祖가 政治制度를 完美하게 建하였다”(22쪽)라고 한 후 발해의 중앙 및 지방제도를 서술하고 있다. 즉 장도빈은 선왕 대에 확장된 영역까지도 高王代에 이루어진 듯 서술하고, 宣王代 이후에 완비되었다고 여겨지는 지방제도인 5경·15부·62주도 태조 창건을 설명하면서 들고 있다. 이는 다른 통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이같은 견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해 태조를 중심으로 발해 역사

33) 『帝王韻紀』 下, 渤海紀,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 於周則天元甲申開國 乃以渤海名”

34)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69쪽; 장국중, 2001, 『발해국과 말갈족』, 도서출판중심, 26~27쪽.

35) 宋基豪, 1996a, 「渤海的 盛衰와 疆域」, 『白山學報』 47, 271~279쪽.

36) 金東宇, 2006, 「渤海的 地方統治體制 운영과 그 변화」, 『韓國史學報』 24, 高麗史學會, 329~337쪽.

를 개괄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그의 서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4장 太祖의 政治에서는 돌궐이나 당과 외교를 벌인 것은 언급한 후 『新唐書』 발해전에 소개된 발해의 중앙정치기구와 5경·15부·62주, 발해의 특산물 등을 얘기하였는데, 모두 발해 태조 대에 정비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선 위에 언급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것은 『新唐書』 발해전의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 하면서 그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지금의 견해와 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³⁸⁾ 지방정치제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발해 5경·15부·62주의 위치를 비

〈표 3〉 발해 5경·15부·62주와 장도빈의 위치 비정

5경	15부	62주	위치 비정	현재의 견해 ³⁹⁾
中京	顯德府	盧·顯·鐵·湯·榮·興 6주	寧古塔	吉林省 和龍
上京	龍泉府	龍·湖·渤 3주	寧古塔 북, 牧丹江 하류	黑龍江省 寧安
東京	龍原府	慶·鹽·穆·賀 4주	러시아 沿海州	吉林省 琿春
南京	南海府	沃·晴·椒 3주	北間島와 咸鏡道	咸鏡南道 北青
西京	鴨渌府	神·桓·豐·正 4주	西間島와 平安道	吉林省 臨江
	長嶺府	瑕·河 2주	吉林	吉林省 海龍
	扶餘府	扶·仙 2주	長春	吉林省 農安
	鄭嶺府	鄭·高 2주	滿洲 黑龍江省	黑龍江省 阿城
	定理府	定·藩 2주	奉天	러시아 沿海州
	安邊府	安·瓊 2주	旅順	러시아 沿海州
	率賓府	華·益·建 3주	러시아 沿海州	러시아 沿海州
	東平府	伊·蒙·沱·黑·比 5주	러시아 黑龍州	黑龍江省 興凱湖
	鐵利部	廣·汾·蒲·海·義·歸 6주	러시아 黑龍州	黑龍江省 依蘭
	懷遠府	達·越·懷·紀·富·美·福·耶·芝 9주	滿洲 黑龍江省	黑龍江省 同江
	安遠府	寧·郿·慕·常 4주	滿洲 黑龍江省	黑龍江省 興凱湖
		獨奏州 郢·銅·涑 3주	哈爾濱 부근	上京 부근

37) 『朝鮮十大偉人傳』의 「渤海太祖」, 59쪽에 “太祖 後에 武王, 文王 등의 英主가 出世 하여 太祖의 業을 더욱 擴張하여 政治와 文物이 大備하고 五京十五府六十二州를 完成한지라 그 五京 位置와 文物制度는 左와 같호다”라 하였다.

38) 발해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선 김동우, 2007, 「발해의 중앙제도」, 『발해의 역사와

정한 것이 주목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도빈의 발해 지리 비정은 오류가 많다. 중경을 영고탑으로, 상경을 三姓 부근으로, 동경을 러시아 연해주에 니코리스크로, 남경은 두만강 북안의 중성군으로, 정리부와 안변부를 봉천과 여순으로, 독주주를 하얼빈 부근으로 정한 것이 잘못된 예들이다.

그러나 장도빈의 발해 지리 비정은 조선 후기의 성과들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新唐書』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서 안정복의 『東史綱目』에서 『遼史』지리지 등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遼史』의 기록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의 부락을 요동으로 옮기면서 그 州縣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발해의 중심지를 요동 지역으로 비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후 정약용과 한진서 등이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쳐놓아 고증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으나, 지역적으로 중국 영토 안에 머물러 있고 연해주 지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⁴⁰⁾ 그렇지만 장도빈은 1910년대 초반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구려와 발해 지역을 답사한 것을⁴¹⁾ 바탕으로 발해 지리 비정의 범위를 연해주까지 넓혔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도빈은 문화서관에 입각하여 國立大學인 靑子監을 설치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고구려의 문명을 계승·발전시켰다고 했다. 또한 殖産興業에도 노력하여 발해 산업이 興盛하고 繁昌하였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발해의 특산물을 소개하였다. 이에 장도빈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74~179쪽의 글이 참조된다.

39) 王承禮, 1984, 『渤海簡史』, 黑龍江省人民出版社; 宋基豪譯, 1987, 『渤海的 역사』,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16~122쪽, 〈표3〉; 韓圭哲, 1994, 『渤海的 對外關係史』, 신서원, 302~303쪽 〈해동성국 발해강역도〉.

40) 宋基豪, 1991,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 『韓國史研究』 72, 韓國史研究會, 70~72쪽.

41) 張道斌, 1962, 앞의 논문, 410쪽, “내가 그곳서 國史研究의 자료를 약간 조사하여 露嶺 沿海州에 송왕령은 海蔘威의 西北 約二百五十里에 있는 都市로서 高句麗의 柵城遺址 또는 渤海的 東京 遺址인 것을 확인하였다”.

太祖는 實로 世界의 大偉人이니 敗亡의 餘에 匹馬로 起하여 唐의 巨寇를 掃除하고 大國을 恢復하여 다시 朝鮮人의 金湯을 完全히 하고 朝鮮人의 生命을 安全發達하였나니 朝鮮人의 生命, 榮光, 勢力이 다 太祖의 雙手로 恢復, 保護, 發展된지라 太祖는 實로 廣開土大王과 並稱할 朝鮮의 二大 帝王이니 그 萬里의 版圖를 開拓한 功과 그 天下民衆을 保全發展한 德과 그 四方의 異族을 掃除한 威武와 그 政治와 教化를 盛備한 智慧와 그 勇敢善戰한 雄材와 그 大國의 基礎를 完成한 度略이 幾어 相似하다. 그러나 廣開土大王은 오직 傳來의 邦業을 擴張하였으나 太祖는 既亡한 舊緒를 再興하여 垂死의 民衆을 살렸나니 此點으로는 太祖가 오히려 廣開土大王의 以上이로다. (29쪽)

라 하고서 고왕의 업적을 극찬하는 것으로 4장을 끝맺었다. 광개토대왕과 고왕은 넓은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들의 산업을 육성하고, 이족들을 복속시키고,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킨 이른바 문무를 겸하여 그 이룩한 공이 크다는 것에 대해 장도빈은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는 박은식 『渤海太祖建國誌』에서 광개토대왕과 발해 태조를 평가한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장도빈은 독립된 나라를 전해 받아 발전시킨 광개토대왕보다 망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켰던 점에서 고왕이 광개토대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등 박은식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해 태조를 평가하였다. 이는 그가 영웅과 위인을 들어 소개하는 목적을 짐작케 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즉 1920년대 국권을 잃은 암울한 시대에 광개토대왕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고왕과 같은 영웅의 기개를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한 셈이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그의 사학 연구가 무엇을 지향했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고 하겠다.

5장 太祖의 遺業에서는 太祖 死後 武王, 文王, 宣王의 치적과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한 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무왕의 치적으로 든 것은 흑룡강 북까지의 영토확장, 일본과 외교를 벌여 무역의 이익을 확장시킨 사실, 흑수말갈을 정벌하여 大破시킨 것, 大文藝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당·신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무왕이 안으로는 遑遑한 文治를 갖추고, 밖으로 赫赫한 武功을 세워 국가를 융성·번창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무왕을 이은 문왕은 內治에 힘써 발해 문명을 더욱 확장시켰다고 하였다. 특히 宣王은 태조 이후의 第一英雄이라고 하면서 신라 변경 경략과 흑룡강 북 1,000여 리를 소유하여 우리 역사상 최대 판도를 완성하였으며, 발해의 대문명을 크게 이룩하여 동아시아에 제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선왕이 죽은 후 왕위가 大彝震과 大度晃으로 이어지고, 大玄錫이 등극한 후 국세가 더욱 확장되고 문명이 크게 발달되어 중국인들도 이때를 ‘海東盛國’이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⁴²⁾

그러나 장도빈은 이때에 발해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시 渤海 大國은 滿盛의 運에 達하였다. 마치 大한 花가 아조 滿開한 것과 같았다. 그 景王⁴³⁾時代 三十二年間은 實로 渤海의 極樂時代이었다. …… 이런 때에 二百年來 養成한 文化를 가지고 萬餘里 大國의 實力을 가진 渤海人이 그 奢華優遊에 陷하기 易한지라. 아모리 武強한 風을 가졌던 社會라도 너무 太平安樂하매 政府는 고만 恬憺에 傾하고 人民은 고만 歡樂에 入하였나니 점점 藝術의 生活이 弓弔生活을 代하고 文化的 遊戲가 射獵遊戲를 代한지라 …… 이렇게 점점 上下老少가 歡樂을 貪하고 危難을 忘하니 國防은 解弛에 入하고 政治는 頹廢에 向하였다. 이 文弱은 渤海 滅亡의 原因이 되었다.

장도빈은 발해 멸망의 원인을 정부와 백성들이 사치와 환락에 빠져 국방이 解弛해지고 文弱하게 된 때문이라 하였다. 결국 발해는 대인선이 등극한 후

42) ‘海東盛國’의 시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大玄錫代로 여기는 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劉曉東, 1987, 『海東盛國始稱年代考辨』, 『北方文物』, 1987-3; 劉曉東, 1995, 『高句麗渤海研究集成』, 4, 哈爾濱出版社, 266~267쪽).

43) 13代 大玄錫을 말한다. 원래 『신당서』에는 대현석의 시호가 전해지지 않는다. 金毓黻은 일본 외무성이 편찬한 『外交史稿』에서 대현석을 景王이라 하고, 대인선을 哀王이라 하였는데, 이는 『東國史略』(권근, 1403)이 “경애왕 때에 거란이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한 것에서 경애왕이란 말 앞에 신라라는 두 글자가 없으므로 편찬자들이 자세히 고증하지 않고 경애 두 글자를 시호로 여기고 현석과 인선의 두 왕에 분속시켰기 때문이라 하였다(金毓黻, 1971, 『東北通史』, 臺北 洪氏出版社, 397~398쪽; 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 下, 577~578쪽).

발해 서쪽에서 세력을 키운 거란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발해가 멸망된 뒤에 고려는 겨우 압록강 이남과 두만강 이남까지 진출하고 대륙의 판도를 회복치 못하여 한반도의 소약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IV. 『渤海太祖』의 연구사적 의의

〈표 1〉을 통해 장도빈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20세 전후부터 국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목적은 국사를 통한 국민 계몽과 國家 自強에 있었다. 그가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던 시절 法部가 일제에 의해 폐지된 것을 계기로 국사 연구를 시작했다고 회고한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가 애국계몽운동과 실력양성론 등 국가 자강 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단체인 신민회 회원이었고, 신민회의 기관지가 되었던 대한매일신보 주필로서 활약했던 사실은 장도빈이 국사 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장도빈은 강렬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평가되는⁴⁴⁾ 신채호나 박은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의 국사 연구는 민족주의 경향이 짙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천관우가 “先生の 古代史 체계는 일반적으로 丹齋의 學說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리어 그 비판 위에 獨自的인 上古史像을 세우고 있다고 함이 옳겠다. 또 거의 동시대인인 海圓 黃義敦의 學說에는 선생과 見解를 같이 하는 부분이 더러 發見되지만, 海圓과도 다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점이 當代의 民族主義 史學者들에 대한 史學史의 比較研究가 요청되는 所以이기도 하다”⁴⁵⁾라고 지적하였듯이 장도빈의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 내에

44) 李萬烈, 2000, 「한국사 연구」, 『한국사』 45(신문화운동 1), 국사편찬위원회, 277쪽.

45) 千寬宇, 1981, 앞의 논문, 15쪽.

서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장도빈 자신도 신채호의 연구에 異見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신형식의 연구에 의하면 장도빈은 문헌고증에 입각한 역사 연구를 통해 애국정신과 자아의식 부각을 꾀했으며, 국가 흥망성쇠가 곧 상무적인 애국심의 존부에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무적인 애국정신과 자주독립사상을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민족통일에서 찾았다. 이와 함께 『三國史記』의 문헌적 가치 인정, 낙랑군의 중심지로 평양의 확인, 문헌에 의한 한국사 영역의 객관적 획정 등 신채호와는 다른 실증적 역사 정립에 노력하였다.⁴⁶⁾

그리고 『讀史新論』, 『朝鮮上古史』, 『朝鮮上古文化史』, 『朝鮮史研究抄』 등 신채호의 저술을 보면 신채호의 연구는 거의 고대사 분야에 치우쳐 있는 반면 장도빈은 통사를 저술한 것이 많으며 『大院君과 明成皇后』, 『壬午軍亂과 甲申政變』, 『甲午東學亂과 全琫準』, 『韓國末年史』를 저술하는 등 근대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근대사 저술을 통해 자주적 근대정신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고 있다.⁴⁷⁾

박은식은 1915년 간행된 『韓國痛史』에서 國教·國學·국어·국문·국사 등의 國魂이 살아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하였다.⁴⁸⁾ 박은식은 1910년 만주로 망명한 이후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상실된 국권을 되찾으려고 우리 역사의 영웅을 소재로 한 『東明聖王實記』, 『明臨答夫傳』, 『渤海太祖建國誌』, 『夢拜金太祖』, 『泉蓋蘇文傳』, 『大東古代史論』등을 저술하였다.⁴⁹⁾ 그리고 1914년 상해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현대사를 연구하여 『韓國痛史』와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 등을 남겼다.

이렇게 영웅사관에서 國魂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사학에 변화를 주었던⁵⁰⁾ 박

46) 신형식, 1988a, 앞의 논문, 27~28쪽.

47) 金昌洙, 1988b, 「汕耘 張道斌의 民族主義史學(I) - 『韓國末年史』의 近代史像을 中心으로 -」, 『汕耘 張道斌의 生涯와 思想』, 汕耘學術文化財團, 70쪽.

48) 朴殷植, 1975, 『朴殷植全書』 上, 단국대동양학연구소, 376쪽.

49) 金度享, 2001, 앞의 논문, 261~263쪽.

50) 한영우, 2002, 「1910년대 박은식의 역사서술」,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48~249쪽.

은식의 사관은 일정하게 장도빈에게 영향을 끼쳤다. 장도빈은 1923년에 『朝鮮十大偉人傳』을 저술하였는데 단군·동명왕·온조왕·혁거세·광개토왕·대조영 등의 군주와 을지문덕·연개소문·강감찬·이순신 등 외적을 물리친 영웅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장도빈은 여러 위인의 전기를 남겼을 뿐 아니라 1957년에 간행된 『韓國의 魂』에서 32인의 위인들을 다루었다. 이렇게 장도빈은 국민들의 自強心을 일으키기 위하여 영웅을 소개하는 전기를 많이 남겼다.⁵¹⁾

또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국혼’, ‘얼(정인보)’, ‘조선심(문일평)’ 등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 같이 장도빈도 국사를 통해 민족의 ‘朝鮮精神’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도빈은 “朝鮮末에 와서는 政治가 極히 腐敗하여 貴族과 官吏가 平民을 甚히 壓迫奪取하여 民衆이 살 수 없이 되매 民衆은 愛國心이 癱痺되어 國家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政府가 속히 亡하기를 바랐으니 舊韓國의 亡한 가장 큰 原因은 이것이었다. 以上같이 우리 民族의 愛國心이 旺盛한 시대는 나라가 旺盛하고 愛國心이 癱痺된 시대는 나라가 亡하였다”⁵²⁾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고유의 애국심을 昂揚할 방법으로 “國史를 통하여 偉人烈士의 愛國事蹟을 宣傳하여 國民의 愛國心을 奮發시킬 것”⁵³⁾을 든 것으로 보아 장도빈에게 ‘朝鮮精神’은 곧 애국심을 뜻하고 있는 듯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주체의식이 강조되었는데, 장도빈도 이에 동참하여 문화사 개척에도 힘썼다. 장도빈은 1920년 잡지 『서울』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文化主義란 인류생활의 대세력을 文化 方面에 치중함이다. 정신 물질의 발달연구를 군사상보다 평화, 교통, 산업, 발명, 역사의식 고취 등에 노력하며 압제보다 民衆의 史學 정신과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있다”⁵⁴⁾라고 하였다.

이른바 문화사관으로 불리는 192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사조는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통해서 역사 발전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안확을 비롯해서 황의돈, 장도빈, 권덕규, 이능화 등이 이런 계열에 속하였다.⁵⁵⁾ 이들에 의해 1920년에 출간된 안확의 『朝鮮文明史』(1923), 황의돈의 『新編朝鮮歷史』(1923), 권덕규의 『朝鮮留記』(1924) 등의 통사류는 문화사관의 사조와 맥을 같이한 것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장도빈은 문화도 민족의 왕성이나 쇠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민족은 고유의 美風은 退步시키고 시대의 進歩에 落伍하였도다”라고 하면서 “朝鮮의 古文化를 연구하여 우리 민족의 由來, 性質, 天才를 알아 우리의 自覺과 情神과 信念을 作함이 우리 生存, 繁榮할 道の 하나라”라고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⁵⁶⁾

이렇듯 장도빈은 우리 근대 사학에 있어서도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 국민을 계몽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민족 자강을 이루기 위해 국사 연구를 시작한 장도빈은 신채호의 애국주의 사상과 박은식의 國魂이 결합된 민족주의 사학을 형성하고⁵⁷⁾ 뒤이어 문화사관의 방법론까지 도입하여 민족주의 사학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와 함께 문헌 고증과 유물·유적의 답사⁵⁸⁾를 통해 역사적으로 실증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그의 史論은 크게 힘을 받았다.

발해사에 대한 인식만큼 시대별로 변화되었던 것도 드물다. 발해사 인식 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사 일부로 발해사를 인정하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⁵⁹⁾ 본격적으로 발해사를 한국사에

55) 한영우, 2002, 앞의 논문, 260쪽.

56) 張道斌, 1922, 「朝鮮民族의 未來를 論함」, 『朝鮮之光』(1988, 『張道斌의 生涯와 思想』, 115~117쪽).

57) 申澁植, 1988b, 「汕耘 張道斌의 民族主義 史學」, 『張道斌의 生涯와 思想』, 114쪽.

58) 장도빈이 블라디보스토크 망명 시절에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신채호와 함께 답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장도빈은 1932년 「南遊片信」(『동아일보』 1932년 9월 14일, 9월 23일, 10월 2일자)에 수원~공주~전주~광주~진주~마산~김해~범어사 답사 기사를 비롯하여 1933년 5월 3일부터 『동아일보』에 「古都事蹟踏查記」 부여편 16회와 7월 6일부터 경주편 17회를 연재하였다. 특히 1935년에는 평양 대성산에서 고구려 고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11일자).

51) 李萬烈, 1988, 「韓國近代 民族主義史學의 性格」, 『第1回 韓國民族運動과 民族主義史學學術 심포지움』(1989, 『汕耘史學』 3(부록), 240쪽).

52) 張道斌, 「우리 民族의 愛國心(中)」, 『朝鮮日報』 1957년 9월 7일자.

53) 張道斌, 「우리 民族의 愛國心(下)」, 『朝鮮日報』 1957년 9월 8일자.

54) 李炫熙, 1988, 「韓國近代 民族主義史學의 性格」, 『第1回 韓國民族運動과 民族主義史學學術 심포지움』(1989, 『汕耘史學』 3(부록), 255~256쪽).

편입시킨 때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였으며,⁶⁰⁾ 유득공과 김정호와 같은 이들은 각각 『渤海考』 서문과 『大東地志』에서 발해와 신라가 남북으로 양립하던 시기를 남북국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¹⁾

발해사를 신라사와 병렬적인 시각에서 평가한 남북국사는 이후 신채호의 『讀史新論』(1908)에 보이는 발해·신라 양국시대론으로 이어졌다.⁶²⁾ 특히 1920년대에 출간된 통사류인 황의돈의 『新編朝鮮歷史』(1923), 안확의 『朝鮮文明史』(1923), 권덕규의 『朝鮮留記』(1924) 등은 발해와 신라가 병립한 시대를 모두 남북국시대로 서술하고 있어 이것이 통설로 정착해 있음을 엿보게 한다.⁶³⁾

산은 장도빈도 1916년과 1923년에 저술한 『國史』와 『朝鮮歷史要領』에서 남북국시대라 하였으며, 『渤海太祖』에서도 남북국시대라는 인식하에 1장을 ‘南北初葉의 天下形勢’라고 설정하였다. 이후 장도빈은 자신이 저술한 『朝鮮歷史大全』(1928) 中古편에 2장 ‘三國의 後期’와 3장 ‘南北國’을 서술하였고, 1932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朝鮮史』 1회에는 삼국시대 이후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⁶⁴⁾ 『國史要領』(1950)에는 中古시대에 ‘삼국(三國)시대와 남북국(南北國)시대’라는 목차를 설정하였고, 그 목차 아래 ‘남북국(南北國)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해의 역사를 소개하였다.⁶⁵⁾ 『國史講義』(1952)에는 제27장 ‘渤海의 建國과 渤海太祖의 偉業’이란 목차를 설정하고 “이에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가 병립하여 남북국시대가 되었다”⁶⁶⁾라 하였다. 『國史概論』(1954)의 ‘渤海史研究의 大要’(목차에는 ‘渤海史研究’라 했음)에서는 ‘南北國時代와 渤海疆土’라는 제목 아래 남북국의 명칭과 관련,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보낸 기록에 발해를 北國이라 한 것은 신라인이 발해를 同一民族, 同一國土로서 王朝만 分立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⁷⁾ 또 『大韓歷史』(1959)⁶⁸⁾의 ‘第5卷 渤海史(中古史4)’에 발해를 신라와 병립한 남북국시대로 소개하고 있다. 즉 그가 지은 모든 통사는 ‘남북국시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발해사 부분이 서술되었다.⁶⁹⁾

1920년대 장도빈을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발해와 신라가 병립한 시대를 모두 남북국시대로 서술한 것은 같은 시기에 일제 식민학자들이 제기하였던 ‘滿鮮史學’과 대립을 이루는 것이다. 러일전쟁(1904~1905) 직후부터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滿鮮史’는 겉으로는 만주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가 만주사에 종속된 역사로 보았고, 그 결과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의 역사는 한반도 지역에 국한시키고, 발해사를 만주의 역사로 보아 한국사에서 배제하였다.⁷⁰⁾ 결국 일

59) 시대별 발해사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李龍範, 1964, 「渤海史研究의 回顧와 國史」, 『韓國思想』 7; 石井正敏, 1978, 「朝鮮にをける渤海觀の變遷 - 新羅 ~ 李朝」,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한규철, 1992, 앞의 논문; 金瑛河, 1993, 앞의 논문; 송기호, 1996b, 「발해사 인식의 변천」, 『한국사』 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60) 李萬烈, 1981, 「朝鮮後期の 渤海史認識」, 『韓治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宋基豪, 1991, 앞의 논문.

61) 『渤海考』自序, “及扶餘氏亡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曰渤海 是謂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大東地志』 31, 方輿總志 2, 渤海國, “及麗濟滅後五十年 渤海又聚句麗舊疆 與新羅爲南北國二百餘年”.

62) 朴贊勝, 1994, 「신채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87쪽.

63) 趙東杰, 1994, 앞의 논문, 70쪽.

64) 『東亞日報』, 1932년 4월 15일자 5면.

65) 張道斌, 1950, 『國史要領』, 國史院, 8·33쪽.

66) 張道斌, 1952, 『國史講義』, 國史院(1981, 『汕耘張道斌全集』 I, 487쪽).

67) 張道斌, 1954, 『國史概論』, 國史院, 107쪽.

68) 張道斌, 1959, 『大韓歷史』, 國史院.

69) 趙東杰은 장도빈이 광복 이후에 저술한 저서에서 목차에서는 남북조시대란 용어를 없앴기 때문에 그의 남북국시대 인식은 퇴조하였다고 하였다(趙東杰, 1998, 『現代韓國史學史』, 나남출판, 370쪽). 일부 장도빈의 저서에서 ‘남북국(조)시대’라는 목차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차에 ‘남북국(조)시대’가 없는 것은 그 서술형식이 우리 역사를 시대순으로 하면서 각각의 역사 사실을 목차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국’이라는 인식을 저술하였다.

70) 이른바 ‘滿鮮史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만주로 진출하려 했던 일제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리결정론에 의한 반도적 타율성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서술하려 했던 식민사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에 국한하였으며, 당연히 발해사를 한국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고구려사까지 확장시켰다(金瑛河, 1993, 앞의 논문, 70~76쪽; 趙東杰, 1998, 위의 책, 312~317쪽;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 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동북아역사재단, 181~195쪽; 김종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 - 南北國時代論을 중심으로 -』, 『史林』 26, 24~31쪽).

본 사학자로 구성된 朝鮮史學會가 펴낸 『朝鮮史講座』(1924), 『朝鮮史大系』(1927)나 朝鮮史編修會의 『朝鮮史』(1932) 등은 ‘통일신라기’라고 하면서 남북국시대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渤海太祖』의 서술 형식상 가장 큰 특징은 위인전이라는 점이다. 장도빈은 발해 태조가 광개토태왕보다 위대하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그의 영웅심을 발흥토록 계몽하여 일제로부터 민족 독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사 연구를 통해 국민 계몽과 국가 자강을 이루고자 한 것을 『渤海太祖』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해사를 한국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폐해를 극복하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만주지역에 세워진 나라로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형성하였다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려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위인전들처럼 위인이 살았던 시기만 서술하지 않고 발해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발해사 전반을 다룬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 형식은 박은식의 『渤海太祖建國誌』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건국 이후 9세기 전반 선왕 때까지 발해 역사가 서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渤海太祖建國誌』보다는 서술 분량이 적지만 장도빈의 『渤海太祖』는 발해 전 시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⁷¹⁾

그리고 『國史』, 『朝鮮歷史要領』, 『朝鮮歷史大全』에서는 고왕을 ‘고구려의 옛 장수’라 하였고, 『朝鮮十大偉人傳』에서 ‘고구려의 將校’라고 하였다. 황의돈은 ‘句麗의 遺將 大祚榮’,⁷²⁾ 안확은 ‘高句麗의 舊將’,⁷³⁾ 권덕규는 ‘句麗에 仕하여 將軍이 되었던 大祚榮’⁷⁴⁾이라 하였다. 따라서 고왕의 族的 계통을 분명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渤海太祖』에서는 발해 태조를 중심으로 다른 위인전답게 발해 태조의 집안이 송화강 부근에서 속말말갈을 관리한 고구려

武人家門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발해 태조가 고구려 출신임을 확실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릇 高句麗 亡한 後에 그 故地의 대부분은 다 高句麗 遺民中의 豪傑이 蜂起하여 서로 割據하고 오래 統一치 못하였다가 이때 渤海 太祖에게 統一되야 渤海大國을 建設하였나니 무릇 渤海의 建設은 高句麗의 復興이요 高句麗人의 再造이다. 高句麗 亡한 以來 그 오래 苦痛과 殘滅에 울던 遺民은 이제야 再生의 봄을 맛났다.(17쪽)

라 하였으니, 장도빈은 발해가 고구려가 계승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장도빈은 역사의 실증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渤海太祖』를 저술하였다. 고왕의 출신을 밝히는 데 있어서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新唐書』와 최치원의 글 등 여러 사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발해의 5경·15부·62주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서도 비록 오류가 있긴 하였지만, 실제 연해주 지역을 답사하여 종전까지 중국에 한정하여 생각하던 발해의 영역을 연해주 지역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渤海太祖』 여러 곳에서는 장도빈의 문화사관적 시각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당에 의한 고구려 문명의 쇠퇴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발해 태조·무왕·문왕·선왕의 공적으로 발해 강역이 확장되고 당이나 거란 등의 외세를 물리친 것을 얘기하면서, 발해 문명의 확장이란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장도빈은 1923년에 저술한 『朝鮮十大偉人傳』에서 단군·동명왕·온조왕·신라태조·광개토태왕·발해태조 등의 군주 이외에 을지문덕·연개소문·강감찬·이순신 등 외적을 물리친 영웅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하면서, 「발해태조」 부분에서 발해의 문물 제도와 풍습까지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渤海太祖』와 같은 해에 나온 『朝鮮英雄傳』에서는 朝鮮十二政治家, 朝鮮十大革命家, 朝鮮十大拓殖家와 더불어 朝鮮十大思想家를 서술하여 우리 문화를 국민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였다. 자신의 문화사관을 논설 형태가 아닌 역사를 서술하는 데 본격적으로 투영시킨 것이다.

71) 1923년에 나온 『朝鮮十大偉人傳』의 「渤海太祖」는 발해 태조에 대해 서술한 후 발해의 문물제도와 풍습 등만 간략하게 설명하였을 뿐이고, 『渤海太祖』에서와 같이 멸망까지의 사실이 서술되지 않았다.

72) 黃義敦, 1923, 『新編朝鮮歷史』, 京城以文堂, 39쪽.

73) 安廓 著·李泰鎮 校, 1983, 『朝鮮文明史』, 中央日報社, 104쪽.

74) 權惠奎, 1924, 『朝鮮留記』, 京城尙文館, 49쪽.

결국 장도빈은 신채호·박은식과 더불어 민족주의 사학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며, 『渤海太祖』도 여러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설되어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형성한 나라라는 장도빈의 발해 인식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된 점, 문화사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 방법론으로 실증주의가 강조된 점, 더불어 그의 계몽적 영웅사관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장도빈이 『渤海太祖』를 저술한 시대적 배경으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요한 식민사관 중 하나였던 ‘滿鮮史觀’에 입각한 발해사의 한국사 배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을 막고자 한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는 일찍이 “한말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인들이 明治維新 이후에 ‘한국은 옛적부터 일본의 속국’이라 하면서 역사에 없는 허황한 말을 꾸며낸 것을 그대로 편집하여 어린이들을 흥미하게 하고 나라 정신을 해롭게 한다”고 일본인들의 한국사 왜곡을 날카롭게 비판한 적이 있다.⁷⁵⁾ 이렇듯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해석하여 국민 정신을 해롭게 하는 식민사학의 폐단을 널리 알리고자 장도빈은 위인전 형식의 『渤海太祖』를 출간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이래 신채호와 박은식, 1920년대 장도빈과 더불어 발해를 남북국시대라 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노력은 이후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 희석되어 ‘남북국시대’라는 역사 인식이 본격적으로 계승되지 못한 듯하다. 이 때문에 발해를 배제하고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남북한 모두 1960년대 이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이 갖는 민족사적 의의가 강조되어 발해사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 박시형이 발표한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⁷⁶⁾를 기점으로, 남한은 이우성이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남북국시대론에 주목한 이후부터⁷⁷⁾ ‘남북국시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⁷⁸⁾ 이렇듯 저평가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도빈의 발

해사 인식을 고려해 볼 때 『渤海太祖』가 갖는 사학사적 의의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V. 맺음말

민족주의 사학자요 계몽사가였던 장도빈은 국사 연구를 통해 국권 회복과 민족 자강을 이루려고 하였다. 이에 그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남북국시대라는 한국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발해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광개토태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인정한 발해 태조의 위인전인 『渤海太祖』를 저술하였다.

一. 南北初葉의 天下形勢, 二. 渤海太祖의 出世, 三. 太祖의 建設, 四. 太祖의 政治, 五. 太祖의 遺業 등 총 5장으로 구성된 『渤海太祖』는 박은식의 『渤海太祖建國誌』의 영향을 받아 발해 태조라는 묘호를 사용하고, 위인전으로서 발해사 전체를 개괄하는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渤海太祖』를 통해 장도빈은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사의 위대한 위인으로서 발해 태조의 영웅적 활약과 그 공적을 소개하였다. 장도빈은 이를 통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편 『渤海太祖』에는 장도빈이 가졌던 문화사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역사 연구에 대한 그의 실증주의적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또 당시 시대적으로 ‘만선사학’에 의한 대중의 그릇된 역사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함도 『渤海太祖』의

75)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7일자 논설, 「교과서의 망발홀 구절」.

76) 박시형, 1962,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역사과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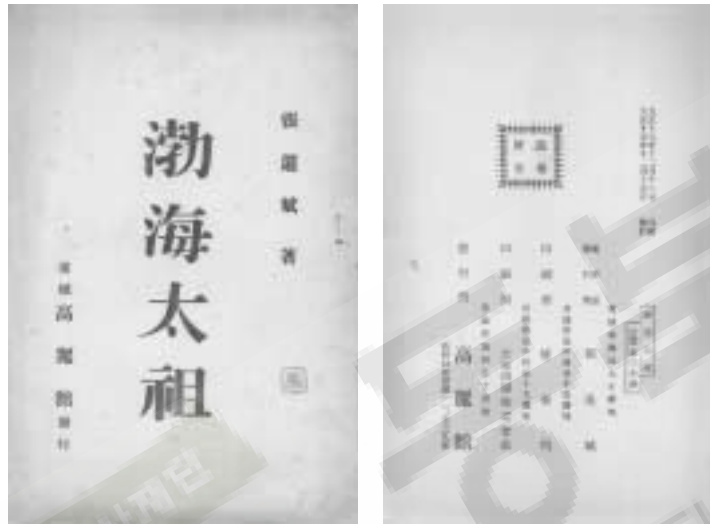
77) 李佑成, 1974, 「〈三國史記〉의 構成과 高麗王朝의 正統意識」, 『震檀學報』 38; 李佑成, 1975,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 35.

78) 김종복, 2006, 앞의 논문, 31~37쪽. 김종복은 광복 이후 남북한 역사학이 만선사학이 갖고 있는 근대적 역사방법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실증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한 학계에서는 사료가 부족하고 종족 계통에 혼란이 있는 발해를 한국사로 인식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하였다.

저술 배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에 제기되었던 발해사를 한국사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신채호·박은식·장도빈으로 이어졌으며, 장도빈은 같은 시대의 황의돈·권덕규 등과 발해 인식에 대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渤海太祖』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를 쓰는 데 기본 자료인 『渤海太祖』 귀중본을 제공해 주신 박민일(전 강원대 교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渤海太祖』의 표지와 서지

[ABSTRACT]

A Study on Balhaetaejo(渤海太祖) of Jang Do-bin(張道斌)

Kim, Dong-Woo

Balhaetaejo(渤海太祖) was written by Jang Dobin(張道斌 1888~1963) in 1926. Jang Dobin was a national historian and illuminator. He made the country independent and made efforts to be rich and powerful. This book was the biography about the founder(太祖) of Balhae dynasty and described the whole Balhae history. His description method was affected of Balhaetaejo-geongukji(渤海太祖建國誌) written by Bak Eunsik(朴殷植 1859~ 1925) in 1911. At any rate the main content of this book implies that Balhae succeeded Koguryo. After all Jang Dobin stressed the fact that Balhae founder Dae Joyeong was of Koguryo ethnicity and Balhae is regarded as a Korean state and is positioned in the “North South States Period(南北國時代)” (with Silla) During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Japanese Imperialistic scholars separated Balhae history from Korean history for the purpose to justify the annexation of Korea. So the recognizing North South States Period opposed the Japanese Imperialistic Study on the history of Manchuria and Joseon. In addition, Jang Dobin introduced the activity and achievement of Balhae founder Dae Joyeong as first Emperor to make independent movement inspire.

Finally understanding Balhae history of Jang Dobin succeeded

to Josun's Practice Science in the 18th century and affected the study about Balhae history of contemporary and after nationalist historians greatly. But after liberating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his recognition on Balhae history -North South States Period(南北國時代)- could not be succeeded to these historians. From 1060s' Balhae is regarded as a Korean state and is positioned in the "North South States Period(南北國時代)"

keywords

Balhaetaejo(渤海太祖), Jang Dobin(張道斌), North South States Period(南北國時代), the history of Manchuria and Jose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渤海 建築遺蹟에 關한 南韓의 研究成果

이 병 건 | 동원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I. 머리말

건축을 포함한 발해문화 연구는 대부분 일본·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적조사를 통해 발해국 자체의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각 나라들은 自國 문화와의 일방적인 비교만을 통해 그 상관을 밝힐 뿐, 발해국 자체의 문화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 나라 가운데 중국은 극히 일부분의 말갈계 출토 유물을 근거로 발해 문화를 ‘속말말갈이 주체가 되어 중원문화를 모방한 일개 지방정권의 문화’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북한도 발해문화를 고구려 것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 계승 관계 설정에만 너무 몰입해 있는 듯하다. 국내 건축역사학계 역시 한반도 이외에 중국 동북지역도 한국건축사 연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의不在, 답사의 어려움, 전공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중국·러시아와의 학술 교류를 시작으로 고고학적 연구결과가 알려지고 있으며, 답사와 발굴(연해주 지역)도 가능해져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발한 지원 사업으로 연구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한 東北地方史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기 위해 '東北工程'을 진행한 바 있다. 고구려와 달리 발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지금의 中國 내에서 성립되었고, 패망했으므로 당연히 중국 역사'라는 주장이다. 고구려 유적에 이어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 上京城을 비롯한 발해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중국은 유적 발굴과 정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적에 대한 발굴과 정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 학자에 의해 수행된 上京城 復原案은 그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는 배제한 채 唐과 淸 나라의 중원지역 건축만을 모델로 하고 있어, 그곳을 찾는 방문자에게 발해건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신중치 못한 복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연구성과의 부재로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해 건축유적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발해건축에 관한 우리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연구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건축 전공자가 주로 접하게 되는 한국건축사 개론서가 지금까지 어떠한 시대구분을 해 왔으며, 발해건축에 대한 서술을 어디까지 다루었는지 그 추이를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발해 건축유적을 대상으로 연구된 學位論文, 學術論文, 單行本 및 發掘調查報告書의 연구성과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근거로 마지막 장에서는 발표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며,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비판해 봄으로써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앞으로 있을 발해유적 복원사업에 올바른 기초적 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韓國建築史 時代區分 및 渤海建築 敘述 推移

한국사 범주에서 발해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 실학자 柳得恭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와 광복기를 거치면서 申采浩, 權憲奎, 張道斌 등에 의해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발해에 대한 서술은 실증적 연구라기보다 문헌에 입각한 것으로, 발해사가 한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史學史的 位置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었다.¹⁾

이렇듯 발해에 대한 미약한 관심 탓인지 당시 건축학계에서도 발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건축사에 관해 최초로 글을 쓴 高裕燮은 한국건축을 중국건축의 모방이라는 당시 일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²⁾ 시대구분 또한 상고시대·삼국시대·신라통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대한시대 건축으로 발해시대를 배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한국건축사 연구가 대부분 식민지배사관적 입장에 서 있었던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자들은 독자적 연구성과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된 후 현대적 의미의 발해사 연구로 획을 이루게 된 것은 1962년 북한의 박시형 글³⁾이 나오면서부터였다. 그의 글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는 발해사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거의 망라하여 그후 북한에서 발해사 연구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건축사』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高裕燮의 한국건축에 대한 建築史觀이 일정 부분 계승되었으며, 여기에 주체적 입장의 서술이 점차 첨가되

1) 韓圭哲, 2006, 「발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白山學報』 76, 白山學會, 4쪽.

2) 高裕燮은 그의 遺稿에서 조선건축은 중국양식의 一退化에 지나지 않는 중국건축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 북부에 漢四郡이 있는 전후에 중국계 건축 양식이 현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하였다. 高裕燮 遺著, 1999,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대원사, 11~13쪽.

3) 박시형, 1962-1,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4)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를 맞게 되었다.

한국건축에 대한 시대구분 방법은 크게 ①우리나라 역대 왕조를 기준으로 한 구분 방법과 ②고대·중세·근대로 나누는 三分法적 구분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두 방법은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⁵⁾ 그러나 어떠한 시대구분 방법을 채용했든 발해건축에 대한 부분은 1996년 이전에는 韓國 建築史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 발해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축역사 관련 전문서적들도 1995년 이전의 시대구분에서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건축 순으로 서술해 왔다. 그러나 일반 역사학계에서 '南北國論'이 대두되고, 초·중등학교에서도 '남북국시대'로 발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1996년 이후에 이르러 건축역사 관련 서적에도 시대구분에서 발해를 포함시키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건축역사 관련 글에서 발해건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경우도 있었지만⁶⁾ 실질적으로 발해건축에 관한 글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6년 이후라 할 수 있다.

한국건축사의 대표적 연구자인 尹張燮은 1972년 初版, 1981년 重版을 거치면서 1996년까지는 자신의 저서 『韓國建築史』⁷⁾에서 中古代建築 분야로 통일신라건축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출판된 『韓國의 建築』에서는 중세 부분에 통일신라건축과 함께 발해건축에 대해서도 서술하기 시작하였다.⁸⁾ 또한 金東旭은 『한국건축의 역사』에서 「고대건축의 새로운 전개」라는 부분에 '발해왕국의 건축'이라 하여 발해건축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였고,⁹⁾ 建築史의 시대별 전문가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해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온 『한국건축사』에는 발해시대 건축 부분을 金慶彪가 단독 집필하였다.¹⁰⁾ 당시까지

나온 발해건축 관련 글 가운데 자세하고 심도 있는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7월에 나온 朱南哲의 『한국건축사』에는 우리나라 건축사 관련 서적 가운데 처음으로 시대구분 자체를 '남북국시대'로 설정하여 발해건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¹¹⁾ 건축역사 학계에서도 이러한 시대구분이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된 양으로 볼 때 발해건축에 할당된 부분은 북한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한국건축사 서적인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서는 통일신라 對 발해건축의 서술 양이 2:1 정도인 반면 남한 윤장섭의 『韓國의 建築』에서는 3: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주남철·김동욱의 저서에서도 이러한 양적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서술 내용 또한 대부분이 중국·북한·러시아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소개하는 정도로, 발해건축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III. 研究成果 考察

1_ 學位論文

지금까지 남한에서 발표된 발해사 관련 學位論文은 박사논문이 14편이고, 석사논문이 20편에 이른다.¹²⁾ 이 가운데 발해건축에 관한 학위논문은 1991년 「발해시대 사찰건축연구」¹³⁾와 2001년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¹⁴⁾ 2

5) 김동욱, 1997,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1~15쪽.

6) 소개된 글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金正基의 「韓國建築史概說」을 꼽을 수 있다. 金正基, 1984~1989, 「韓國建築史概說」第35回, 『건축문화』, 건축문화사.

7) 尹張燮, 1995, 『韓國建築史』, 東明社.

8) 尹張燮, 1996,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9) 김동욱, 1997, 앞의 책.

10) 대한건축학회 편, 1996, 『한국건축사』, 技文堂.

11)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주남철, 2006, 개정판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2) 학위논문 목록은 다음의 두 글에 소개되어 있다. 韓圭哲, 2006, 앞의 논문, 6쪽; 金鎭光, 2006,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 논문, 3쪽.

13) 이병건, 1991, 「발해시대 사찰건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석사논문을 정리하여 다음 책에 재발표함. 이병건, 2006a,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高句

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최근 들어 많은 자료 축적과 함께 유적 접근이 전보다는 쉬워졌지만, 아직까지 다른 시기에 비해 발해 건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한계와 함께 발해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건축사 분야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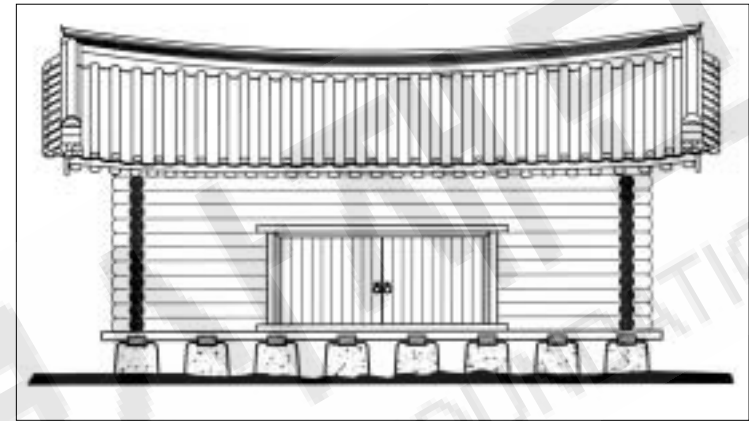
1991년에 작성된 이병건의 석사학위 논문은 남한 건축역사학계에서 최초로 작성된 발해건축 관련 학위논문이라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발해 사찰유적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 숫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건축형식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배치·평면·기단·주춧돌·기둥·지붕 정도를 고찰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당시로서는 어떠한 유적도 實見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그는 또한 발해 유적 가운데 용도와 구조가 규명되지 않았던 매우 특이한 발해건축의 한 유형인 24개돌유적에 관해 건축적 접근을 통해 유적의 용도와 構造를 추정하고자 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당시까지 제기된 24개돌유적 용도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①渤海王族 屍身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였다. ②신앙과 관련된 祭禮를 지내는 데 쓴 발해시기 건축물이었다. ③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던 종교적인 대상물이었다. ④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驛站이었다. ⑤渤海王室의 記念性 建築物이었다. ⑥곡식창고였다”라는 정도이다. 주장 가운데 나름대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황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¹⁴⁾ 이 가운데 그는 발해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건축물이 바닥에 붙어 있는 接地式 건물이 아니라 地面에서 80cm 정도 떨어져 있는 高床式 건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24개돌유적은 한반도, 중국 중원, 일본 지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발해건축의 한 유형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麗研究』22輯, 高句麗研究會.

14) 이병건, 2001,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15) 이병건, 2001, 위의 논문, 61쪽.



〈그림〉江東 24개돌유적 추정 입면도(이병건, 2001, 앞의 논문, 243쪽)

2. 學術論文

2007년 5월 말 기준 발해건축과 관련지을 수 있는 학술논문은 33편에 이르고 있다.¹⁶⁾ 이 가운데 建築史 전공자가 쓴 논문은 14편에 불과하다. 북한과 비교

16) 宋基豪, 1989,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 『韓國史論』 19, 국사편찬위원회; 文明大, 1993, 「코르사코프카 절터 발굴을 통해 본 발해문화의 특징」, 『전망』, 대륙연구소; 金承均, 1993, 「실측과정을 통해 본 코르사코프카 절터의 성격」, 『전망』, 대륙연구소; 申榮勳, 1993-6, 「渤海國의 塔塔-특히 靈光塔-」, 『建築歷史研究』, 韓國建築歷史學會; 송기호, 1994, 「최북단의 성터: 연해주의 渤海 유적」, 『古美術』, 한국고미술협회; 송기호, 1995.5.24, 「해외 발해 유적의 조사 현황과 방향」, 『해외 소재 우리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 해외문화유적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문화재관리국, 173~172쪽; 이남석, 1995.5.24, 「沿海州 크라스키노 발해유적」, 『해외소재 우리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 해외문화유적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문화재관리국, 173~190쪽; 金慶彪, 1996, 「渤海史 論爭의 建築史的 解析」, 『忠北大建設技術論文集』 15-2; 송기호, 1996, 「연해주의 발해유적 연구 동향」, 『아시아문화』 12,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張馭寰 著, 韓東洙 譯, 1996-12, 「長白山 靈光塔의 特徵과 年代鑑定에 關하여」, 『建築歷史研究』, 韓國建築歷史學會; 文明大, 1997, 「발해(渤海)의 불교건축과 기와(瓦當)」, 『한국불교미술사』, 한연; 韓圭哲, 1997, 「中國의 渤海 遺蹟」, 『白山學報』 48, 白山學會; 韓圭哲, 1998, 「中國 黑龍江省의 渤海 遺蹟」, 『汕耘史學』 8, 高麗學術財團; 徐廷昊, 1999, 「渤海時代 建築의 復元 可能性에 對한 小考」, 『高句麗研究』 7, 高句麗研究會; 李

해 볼 때 논문 수나 연구자 수도 매우 부족한 편이며, 시기적으로도 1990년대가 돼서야 글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발해건축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이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자들에 의해 써지고 있어 남한과 비슷한 실정이다.

2000년대를 맞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진행이 계기가 되어 창단된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으로 발해사 연구는 최근까지 짧은 시일 내에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해건축 관련 논문은 북한·중국·러시아·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기본으로 발해건축을 소개하고, 이를 한반도 지역과의 비교·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발표된 학술논문 가운데 나름대로 결과분석에 귀결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에서 발해 건축유적에 대한 연구는 건축 전공자가 아닌 일반 역사학자

康根, 1999, 「渤海 上京龍泉府의 寺院建築」, 『渤海美術의 國際性과 韓國의 特徵』, 韓國美術史研究所·韓國佛教美術史學會; 이병진, 2002a,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발해건축 연구동향」, 『白山學報』 第62號; 이병진, 2002b, 「발해 강동24개돌유적의 추정 복원안 연구」, 『白山學報』 第65號; 송기호, 2003a, 「발해 문화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史研究』 122, 한국사연구회; 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송기호, 2003b, 「발해유적의 조사와 연구 현황」, 『해동성국 발해』, 통천문화사; 이병진, 2003a,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6호; 이병진, 2003b, 「한반도지역 고상식 건축과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0호; 이병진, 2003c, 「유적을 통해서 본 발해건축의 독자성 연구」, 『白山學報』 第67號; 윤재운, 2004, 「중국의 발해 유적·유물 연구동향」,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임상선, 2005, 「중국의 발해 도성 연구와 복원」,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윤재운, 2005, 「중국의 발해문화 인식」,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이병진, 2005,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의 발해건축 연구현황 및 문제점 연구」, 『北方史論叢』 8호, 고구려연구재단; 韓圭哲, 2006, 「발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白山學報』 76, 白山學會; 이병진, 2006a, 앞의 논문; 이병진, 2006b, 「考古學을 통해서 본 中國의 渤海文化 연구」, 『高句麗研究』 24輯, 고구려연구회; 임상선, 2006, 「발해의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 제24호, 고려사학회; 정석배, 2006, 「한·러 공동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고고학: 시간과 공간의 흔적』, 학연문화사; 이병진, 2007, 「渤海建築에 關한 北韓의 研究成果」, 『高句麗研究』 26輯, 고구려연구회.

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우선 宋基豪는 그의 논문에서 발해 城址를 都城과 地方都市城으로 분류하여 중국의 吉林省과 黑龍江省지역, 북한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있는 90개 정도에 이르는 성터에 대해서 당시까지의 조사현황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¹⁷⁾ 이는 발해의 도성유적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를 기초로 한 남한의 초기 유적조사로서, 직접 국내에서 발해 성터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한계는 있지만, 발해 성터의 평면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에 시금석 역할을 하였다.

1997년과 1998년 韓圭哲은 吉林省과 黑龍江省의 발해유적을 대상으로 유적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가 다룬 자료는 당시 중국 각 市와 縣에서 출판된 文物志를 기초로 하였는데 吉林省의 36개와 黑龍江省의 11개 市·縣이다. 이중 吉林省에는 渤海遺址 110곳, 古墳群 및 古墓葬 55곳, 城址 191곳, 建築址 등이 62곳이며, 黑龍江省에는 渤海遺址 64곳, 古墓葬 40곳, 城址 68곳, 建築址 등이 10곳으로 두 省을 합쳐 600곳의 발해 유적이 중국에서 당시까지 조사·발굴되었다고 하였다.¹⁸⁾ 이는 발해유적 분포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발해유적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초로 건축 전공자인 李康根은 상경 용천부에서 발굴된 5개의 사찰터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발굴 상태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제1사찰터와 제9사찰터를 중심으로 금당 형식이 걸간과 속간을 土壁으로 나누는 방식, 즉 ‘內外陣二重形式’임을 밝히고, 이러한 형식은 발해의 특수한 건축양식이 아니라 같은 시기 남쪽 신라에서도 널리 활용되었으며, 나아가 고려 초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던 보편적 형식임을 밝히고 있다.¹⁹⁾

金慶彪는 발해사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발해사의 논쟁을 정치·사회적 논쟁과 문화사적 논쟁으로 구분하여 중국·러시아·일본·남북

17) 宋基豪, 1989, 위의 논문, 409~460쪽. 또한 송기호는 1992년부터 이루어졌던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유적 지표조사 결과를 답사기 형식으로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송기호, 1993, 『발해를 찾아서』, 솔.

18) 韓圭哲, 1997, 앞의 논문, 197~258쪽; 韓圭哲, 1998, 앞의 논문, 81~119쪽.

19) 李康根, 1999, 앞의 논문, 133~148쪽.

한의 주장과 시각차를 소개하며 본인의 평가를 내렸다.²⁰⁾ 아울러 建築史的 解析에서는 발해건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고구려 요소, 당 요소, 말갈 요소 등으로 대별하여 논쟁의 초가 되는 중국과 북한 입장을 주로 정리하였다. 이를 시대 별²¹⁾ · 유형별²²⁾ · 건축문화요인별로 나누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발해건축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발해의 지역적 · 사회적 환경에 맞는 渤海建築史의 독자성에 대한 연구관점이 부족하였으며, 지나치게 부차적인 외래 영향요소 측면에서만 해석되어 발해건축 본질에 근접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해건축에 영향을 미친 제반 요인들에 대한 총괄적이며 복합적인 해석을 국가별로 의도된 관점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³⁾

한편 2004년에 출판된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은²⁴⁾ 발해사에 관한 중국인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 가운데 임상선은 「중국의 시기별 발해사 연구 동향」을 통해 중국학자들의 발해문화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는 문화대혁명시기, 1980년대, 1990년대, 동북공정상 시기로 나누어 문화 및 유물 · 유적 연구 부분을 통해 발해문화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인식을 소개하였다. 그는 “발해문화는 당대문화와 일치하며, 발해의 고고발굴 결과도 말갈요소가 주를 이룬다”²⁵⁾라고 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며

20) 김경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발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에서 이루어진 발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자국 입장에서만 의도된 관점으로 발해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여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발해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150쪽.

21) 발해사의 시대구분은 역사학적 측면에서는 前期와 後期로 구분하며,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前期와 中 · 後期로 나누고 있다. 김경표는 위의 두 가지 경우를 혼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153쪽.

22) 유형은 권위건축과 서민건축으로 大別하였다. 권위건축은 도성 · 궁궐 · 불사 · 양반주거와 왕실귀족 무덤 등으로, 서민건축은 서민주거와 서민무덤으로 나누었다.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155쪽.

23)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159~160쪽.

24)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25) 임상선, 2004, 「중국의 시기별 발해사 연구 동향」,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

이를 반박하였다.

윤재운은 「중국의 발해 유적 · 유물 연구 동향」을 통해 발해건축에 관한 중국의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그는 글에서 발해 城이 黑龍江省에 42개, 吉林省에 178개, 沿海州에 29개, 北韓에 28개 정도가 된다는 것과 평지성과 산성 조합에 관한 것을 소개해 주었다.²⁶⁾ 또한 건축 분야에서 중국학자들의 연구성과(궁전, 사찰, 살림집, 24개돌, 탑터)를 소개하였다.²⁷⁾ 그는 결론부에서 발해문화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편협된 평가는 정치적인 요인과 인용 자료의 편협 및 결핍 등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05년에 출판된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에서 임상선은 발해 都城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그는 중국이 “발해 건국 전후의 발해문화는 말갈족의 것이고, 그 이후는 전적으로 당나라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발해의 무덤이나 토기의 일부 말갈적 요소를 가지고 발해 문화 전체로 확대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무덤뿐 아니라 도성이나 산성에서도 이러한 말갈족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므로 그 문화도 국가적 차이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적 차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발해문화가 바로 당문화라고 하는 논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⁸⁾ 이어 그는 중국학자들의 시기별 발해도성 연구를 1980년대 이전, 1980~1990년대, 금세기로 나누어 연구사를 정리하고, 발해도성의 분류와 상경성을 비롯한 각 도성의 구조 및 축조시기를 논하였다. 발해도성의 영향요소를 唐적 요소, 高句麗적 요소, 渤海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여 최근 상경성의 복원문제에 대해 현상과 문제점, 앞으로의 예측을 전망하였다.

그는 결론부에서 상경성 복원에 있어 張鐵寧의 復原案을²⁹⁾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張鐵寧이 상경성 복원안에 적용한 모듈은 唐宋시

석』, 고구려연구재단, 73쪽.

26) 윤재운, 2004, 앞의 논문, 207쪽.

27) 윤재운, 2004, 앞의 논문, 212~219쪽.

28) 임상선, 2005, 앞의 논문, 191~192쪽.

29) 張鐵寧, 1994-6, 「渤海上京龍泉府宮殿建築復原」, 『文物』.

기 營造法式에 근거한 것인데, 북한의 장상렬이 지금의 興隆寺(상경성 제2절터) 석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의하면,³⁰⁾ 渤海尺은 35cm 정도였음에도 단순히 29.5cm를 적용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복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³¹⁾

또한 그는 2005년에 고구려연구재단이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발굴한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내 건축터를 발굴한 결과를 토대로 연해주 지역의 성곽건축에 대한 글을 조사보고서에 발표하였다. 그는 성벽 축조방법은 성벽이 먼저 축조되고 뒤이어 옹성·치 등이 축조되었는데, 이는 처음 성을 축조할 당시에는 성벽만으로 충분하였지만 그후 외부환경 변화가 생겨 성벽과 성문에 추가적인 방어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크라스키노성에서 발굴된 최초의 완전한 온돌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지는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축조 시기는 대략 발해 후기로 판정하였다.³²⁾ 또한 발해 도성에는 옹성·치·각루 따위 시설이 없지만, 크라스키노성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치가 동문 남쪽 한 곳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사용된 돌의 재질은 본체 성벽과 마찬가지로 모두 적색의 규소질 사암이라고 하였다. 크라스키노성에서 치가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남문 동쪽과 서문 남쪽에도 성문을 보호하는 치가 있었을 것이고, 남벽과 서벽이 만나는 남서벽과 동남벽 모서리에는 일종의 각루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³³⁾

이 외에 吉林省 長白縣에 있는 靈光塔에 대한 소개의 글 2편이 있다.³⁴⁾ 申榮勳은 영광탑을 답사하고 난 후, 당시까지의 탑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건축적 특징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다. 이 탑은 上京城 북쪽 外城 밖 三靈屯에 있

는 발해왕족 무덤의 墓上建築에 대한 형상을 추정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며, 고구려시대의 미진한 부분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였다.³⁵⁾ 또한 韓東洙는 당시 中國科學院 自然科學史研究所 院士로 재직 중이던 張馭寰의 글을 번역하고 글 말미에 영광탑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영광탑에 대한 남북한의 관심을 소개하였다. 글의 필자인 張馭寰은 영광탑의 시대감정을 통해 발해의 탑이라고 확증해 준 학자이다. 또한 그의 글은 영광탑에 대한 건축적 특징을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單行本 및 發掘調査報告書

1) 單行本

남한에는 2007년 현재 발해건축에 관한 단독 저서가 하나도 없다. 단지 저자의 글 일부와 중국학자에 의해 연구된 발해건축 관련 논문을 모아 번역한 역서가 1권 있을 뿐이다.³⁶⁾ 그러나 발해사를 다룬 저서에 발해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는 책들은 최근 들어 몇 권이 출판되었다. 출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1980년대 말 남한에서 발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즈음 임상선은 발해에 관한 일본 학자들의 논문 18편을 모아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제1부는 발해사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고, 제2부는 발해의 통치와 왕권, 제3부는 발해의 대외관계, 제4부는 일본과의 교류 부분이다.³⁸⁾ 이 가운데 西川 雄의 「渤海考古學의 成果와 民族問題」³⁹⁾에는 건축을 포함한 발해 고고학에 대한 중국

30) 장상렬, 1971, 「발해건축의 역사적 위치」, 『고고민속론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31) 임상선, 2005, 앞의 논문, 232쪽.

32)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 고고 민속학 연구소, 2006,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 보고서』, 50쪽.

33)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 고고 민속학 연구소, 2006, 위의 책, 53쪽.

34) 申榮勳, 1993-6, 앞의 논문; 張馭寰 著, 韓東洙 譯, 1996-12, 앞의 논문.

35) 申榮勳, 1993-6, 앞의 논문, 161~162쪽.

36) 이병건, 2003d, 『발해건축의 이해』, 백산자료원.

37) 지금까지 남한에서 출판된 발해건축 관련 단행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병건, 2003d, 위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앞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8) 임상선 편역, 1990,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39) 西川 雄, 1986, 「渤海考古學의 成果와 民族問題」, 『山陰考古學의 諸問題』, 山本清先

과 북한의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국가별 인식 차이를 소개함으로써 일본 측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다음으로 이병건은 2003년 발해건축과 관련된 역사를 출판하였다.⁴⁰⁾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발해 건축유적 현황 및 연구 동향을 다루었고, 제2장은 魏存成의 「渤海的建築」을 번역한 글이다. 제3장은 발해의 궁전유적에 관한 부분, 제4장은 사찰유적, 제5장은 살림집유적, 제6장은 24개돌유적, 제7장은 성곽유적, 제8장은 발해의 탑과 석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당시까지의 발해건축 관련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비중이 적었던 발해 부분을 건축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새롭게 본 발해사』라는 단행본을 출판하게 된다. 이 책은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해의 건축문화는 제4부 발해의 문화에 수록되어 있다. 발해의 도성유적, 궁전유적, 공공건물유적, 정원유적, 사찰유적, 살림집유적, 24개돌유적 등으로 나누어 발해건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특히 마지막 결론부에 기둥밑치레(柱圍)와 멈추개돌, 그리고 24개돌유적을 예로 들며 발해건축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⁴¹⁾

송기호는 지금까지의 자료와 발굴 부족으로 연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던 살림집에 관해 구들을 주제로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발해 살림집이 37개 유적에서 185기가 조사되었고,⁴²⁾ 발해 쪽구들은 고구려로부터 전파된 것이고, 고구려계 유민 중에서는 중앙귀족들이 그 사용을 주도하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발해 유적에서는 쪽구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고구려유적과는 대비된다”라고 하였다.⁴³⁾ 쪽구들 기원에 관해서는 “극동지역에서는 단결-크로노프카 문화에서 쪽구들이 창시되었고, 그것이 고구려 외곽지대를 거쳐 중심부로 유입되었을 것이며, 다시 발해 건국과 함께

그 중심지에서 유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해 멸망 뒤에는 여진족이 그 전통을 이어 더욱 발달된 쪽구들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았다.⁴⁴⁾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룬 단행본을 출판하였다.⁴⁵⁾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발해의 건국에 관한 것이고, 제2장은 발해의 변천과 융성, 제3장은 발해의 멸망과 부흥운동, 제4장은 발해의 대외관계와 제도, 제5장은 발해의 사회·경제, 제6장은 발해의 문화로 발해 건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제7장은 국가별 발해사 관련 자료와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가운데 1. 발해의 성곽, 6. 발해의 의식주, 7. 발해의 건축문화가 건축 관련 부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발해를 전공하는 국내외 전문 학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저서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출판된 최초의 발해 관련 개론서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發掘調查報告書

중국은 발해유적에 대한 접근조차 막고 있어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한·러 공동으로 발해유적을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발해 건축유적 발굴조사를 수행한 국내기관은 고려학술재단, 대륙연구소, 고구려연구회,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있다.⁴⁶⁾ 기관별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또한 국내에서는 몇 차례의 발해유물과 유적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발간된 유물전에 따른 도록집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⁴⁷⁾

44) 송기호, 2006, 앞의 책, 50쪽.

45)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46) 연해주에서의 한·러 공동 발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성과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정석배, 2006, 앞의 논문.

47) 지금까지 남한에서 출판된 발해 건축유적 관련 發掘調查報告書 및 圖錄輯은 다음과 같다.

대륙연구소, 1994,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대륙연구소 출판부; 崔夢龍·鄭永

生喜壽紀念論文刊行會, 575~597쪽.

40) 이병건, 2003d, 앞의 책.

41)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앞의 책, 208~221쪽.

42) 송기호, 2006, 『한국 고대의 온돌 복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6쪽.

43) 송기호, 2006, 위의 책, 44쪽.

(1) 高麗學術財團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은⁴⁸⁾ 1992년부터 1997년까지 高麗學術文化財團의 지원으로 7차례에 걸쳐 연해주에 있는 발해유적을 공동 조사하였다. 조사는 유적에 대한 당시까지의 現狀과 分布狀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한·러 공동 유적조사로서 국내뿐 아니라 러시아 학계에도 발해사 역사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에 대한 저서가 출판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⁴⁹⁾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당시까지 파악된 발해유적은 28개의 성터와 22개의 취락지, 5개의 절터이다. 유적은 발해시기에만 쓰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발해 건국 이전인 옥저문화, 말갈문화, 그리고 발해 멸망 이후인 12~13세기 遼·金代의 문화유적들이 역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해와 고구려의 연계성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⁵⁰⁾ 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발굴보다는 러시아에서 이룩해 놓은 발굴 성과를 지표조사하는 것에 더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¹⁾

(2) 大陸研究所

1993년 한국의 대륙연구소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속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른 발굴결과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당시의 공동발굴은 코르사코프카 사찰터와 크라스키노 발해고분이다. 이 가운데 코르사코프카 사찰터 발굴조사는 1993년 5월 15일부터 1개월간 실시되었다. 발굴대장은 문명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굴단원은 김은국 이외에 6명이 참여하였다. 코르사코프카 사찰터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에서 32km 서북쪽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사방 6m의 정방형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굴되었다. 기단부는 동서남북이 모두 6m 정도로, 唐尺으로 환산하면 20척(尺) 정도로, 대개 초석 간 중심거리는 1.5m로 추정하였다. 평면복원도에 따르면 정면 4칸과 측면 4칸의 정방형 건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규모가 매우 작고 주춧돌 간 거리도 1.5m로 좁은 평면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금당 아니면 목탑터로 보고 있다.⁵²⁾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목탑터로 추정된다. 이는 건물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초석 간 중심거리가 1.5m 정도 내외이면 실내공간을 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탑 사방을 불상으로 안치한 四方佛 형태의 목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조사결과에서 아쉬운 점은 唐尺을 기준으로 초석 간 거리를 추정하였는데, 고구려는 1척을 35cm 내외로 했다는 것이 북한 측 견해이다. 이러한 기준척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터 발굴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남한의 첫 해외 발굴이자 첫 해외 사찰터 발굴이라는 점, ②비록 단독 건물이지만 건물지를 완전 발굴하였으며, 풍부하고 의미 깊은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발해 불교미술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③출토된 기와를 통해 발해가 고구려 후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④이러한 각 국가간의 연관관계뿐 아니라 발해미술은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⁵³⁾ 등

52) 문명대, 2004, 「코르사코프카 불교사원지 발굴」,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대륙연구소 출판부, 55~106쪽.

鎬·宣逸, 1998, 『서울大博物館所藏 渤海遺物』, 서울大學校博物館; 메드베제프 뱌.예. 저, 강인욱 역, 1998, 『러시아 연해주 발해 절터』, 高句麗研究會·러시아科學院 시베리아分所 考古民族學研究所, 학연문화사;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 1999, 『연해주에 남아 있는 발해』, 高麗學術文化財團;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해동성국 발해』, 통천문화사; 문명대·이남석·V.I.Boldin 외, 200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원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V.I.볼딘·E.I.젤만, 200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 고고 민속학 연구소, 2006,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2007,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48) 團長은 정영호가 맡았으며, 노래돈·이강승·송기호·나선화·강현숙·정석배 이외에 많은 발해 전공 학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49) 당시 러시아와의 학술교류로 국내에서 출판된 책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샤프꾸노프 저, 송기호·정석배 역, 1996,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브로잔스키 저, 송기호·정석배 역, 1996, 『연해주의 고고학』, 학연문화사; 송기호, 1993, 앞의 책; 송기호, 1995.5.24, 앞의 논문. 이상은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 1999, 앞의 책, 292쪽.

50)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 1999, 앞의 책, 289~291쪽.

51) 정석배, 2006, 앞의 논문, 556쪽.

이다. 또한 남 우수리스크 사찰터의 지표조사를 통해 柱座가 새겨진 주춧돌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찰터는 초석간 거리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단위 건물터임이 밝혀졌다는 의미가 있다.⁵⁴⁾

1994년 7~8월에도 발해의 鹽州城으로 알려진 현 크라스키노 城內 발해 사찰터를 1차로 발굴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러 사정으로 10년이 지난 후 고구려연구재단이 사업을 계승하여 2004년에야 출판되었다.⁵⁵⁾ 금당지는 이미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터라 당시에는 중문지, 서건물지, 서회랑지, 대석축, 제2건물지, 고구려계 배수유구, 우물, 기와요지, 석등지 등이 발굴되었다. 1983년에 발굴된 금당지는 정면 5칸과 측면 4칸이며 정면 길이는 8m 20cm, 측면 길이는 7m 40cm라는 것이 밝혀졌다. 크라스키노 사찰터는 현재까지 발해시기로 추정되었지만 初創은 고구려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고구려계 유구가 발견되어 늦어도 8세기 중엽계 사찰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⁶⁾

또한 정면 1칸과 측면 1칸의 건물지 1동이 발굴되었는데, 이 건물터는 크라스키노 성터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규모 있는 건물터에 부속된 형태로 추정하였다. 조사된 건물터는 건평 18.5m²로 단칸의 방형 건물이다. 이 건물은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고, 기둥 사이에 너비 80~90cm 반담 형태 벽체를 구성하였다는 것, 그리고 사찰터 방향인 북쪽으로 출입문이 시설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생활가옥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시설로 판단된다고 하였다.⁵⁷⁾

(3) 高句麗研究財團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 사찰터 발굴 보고서를 출간한 데 이어 고구려 연구재단에서는 2004년부터 러시아측 학자와 함께 크라스키노 성터를 공동

조사했다. 발굴조사는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고고민속학 연구소에서 2004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고구려연구재단 발해실 연구원 3명이 참여한 공동발굴로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역사 고고민속학 연구소 중세연구실장 V.I.볼딘 박사를 발굴 책임자로 하여 부책임자 A.L.이블리에프 박사를 비롯하여 15명이 참여하는 등 총 인원은 19명이었다. 당시 발굴은 10세기계 성터의 사찰터로서, 발굴에서는 2개 층의 건축물 기단들이 드러났다. 3개의 대용량 항아리들과 온돌이 갖추어진 주거지 외에도 절터 생활공간들이 함께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발굴된 건물터는 극동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벽이 기와로 구축된 반지하형 건물이었다. 벽체 자체가 기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⁵⁸⁾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고구려연구재단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내 건축터를 발굴하였다. 당시 발굴에서는 3개의 건물지가 성터에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처음으로 2개의 주거지가 발굴 확인되었다. 이들은 이 지역 최고 상층 건축지 문화층에 속하며 발해시대 문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전히 발굴된 거주지1은 그동안 발굴된 발해시기 주거지와 비교할 때 규모가 대단히 크다. 이 외에 온돌 구조 역시 연해주 다른 발해 유적지의 유사 발굴결과를 부연해 주고 있다.⁵⁹⁾고 하였다.

2006년에도 크라스키노 성터에 대한 발굴은 계속되었다. 2005년에 파악된 발해 사원 부속건물터의 실체가 좀더 명확해졌다. 즉 남북 5칸(6.69m)에 동서 방향 3칸(4.64m)의 규모로 초석 간 거리는 100~110cm, 40cm, 60~70cm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년에 이어 살림집 유적에서 'ㄷ' 자형의 고래도 노출되었다.⁶⁰⁾

(4) 高句麗研究會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보리소프카 사찰터에 관해 고구려연구회에서 발해

53) 문명대, 2004, 위의 논문, 101~103쪽.

54) 문명대, 2004, 앞의 논문, 103~106쪽.

55) 문명대·이남석·V.I.Boldin 외, 2004, 앞의 책.

56) 문명대·이남석·V.I.Boldin 외, 2004, 앞의 책, 25~26쪽.

57) 문명대·이남석·V.I.Boldin 외, 2004, 앞의 책.

58) V.I.볼딘, 2005, 앞의 책, 46~47쪽.

59) 고구려연구재단·러시아 극동 역사 고고 민속학 연구소, 2006, 앞의 책, 37쪽.

60) 동북아역사재단, 2007,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39~41쪽.



(사진) 크라스키노성 발해 온돌유적 전경(고구려연구재단,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 보고서』, 사진 자료)

건국 1300주년 기념으로 출판한 『러시아 연해주 발해 절터』가 있다.⁶¹⁾ 이 책은 한국 학자가 발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1972년 10~11월에 러시아 데레비안코가 발굴한 것을 고구려연구회에서 번역 출판한 것이다. 직접 한국이 발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발해의 건축유적을 세상에 밝혔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유적은 지금까지 발해 사원터로 알려진 코프이토, 아브리코스, 코르사코프, 크라스키노 발해 사찰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찰터 중 보리소프카 사찰터는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발해 사찰터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가 기단부가 0.6m 높이에 180㎡(대략 14×13m), 건축면적이 60㎡이고 주춧돌에 기둥을 세운 가구식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을 뿐 건물터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는 기와류, 장식류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또한 벽체는 심벽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입구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이 사찰터는 중층의 우진각지붕의 건물로 추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위에 든 기존의 4개 연해주 지역 사찰터를 비교해 가며 ‘연해주 지역의 발해 사찰터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61) 고구려연구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 1998, 『러시아 연해주 발해 절터』, 학연문화사.

있다’라고 밝힌 데 의의가 있다.⁶²⁾

(5) 圖錄輯

2003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에 있는 발해유물을 들여와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최초의 한·일 대학교류전으로서 도쿄대학과 서울대학교에 각기 분산되어 있는 발해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에 전시된 유물들은 1930년대 일본인 학자들이 조사하고 수집하여 일본의 도쿄대학과 한국의 서울대학교(당시 京城帝國大學)에 분산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서, 발해 수도 상경성 및 다른 성터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건축과 관련된 기둥밑치레, 와당, 귀면장식기와, 바닥전돌 등 많은 건축유물이 전시되어 발해건축의 특징을 실제 연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발해 상경성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당나라의 長安城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해설한 부분이다.⁶³⁾ 발해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기보다는 당시 한국·중국·일본 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성제도의 보편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좀 더 명확한 연구가 있는 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62) 고구려연구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 1998, 위의 책, 189~191쪽.

63)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책, 55쪽.

IV. 主題別 問題提起와 批判

본 글에서는 남한에서 발표된 발해 건축유적에 관한 연구 성과를 관련學位論文, 學術論文, 單行本 및 發掘調查報告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①건축유적과 관련된 국가별 연구사, ②건축유적 분포 현황, ③건축유적 전반, ④도성 및 궁전 건축유적, ⑤사찰 건축유적, ⑥살림집유적, ⑦24개돌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주제별로 이룩된 연구성과와 더불어 미비점이나 오류를 비판해 보기로 한다.

1_ 건축유적과 관련된 국가별 연구사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발해 건축유적 관련 연구성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국가별 연구사이다. 한국 측 연구로는 송기호, 한규철, 윤재운, 이병건의 연구사 정리가 있다.⁶⁴⁾ 대부분의 한국학자가 다룬 것은 중국과 북한의 연구 동향 파악이다. 일본에 이어 중국과 북한이 대부분의 발해유적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발해유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측 선행연구가 파악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東北工程’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 측의 연구성과 파악이 우선시되었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와 달리 중국과 북한지역에 있는 발해유적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 파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결과는 중국의 경우 중국 중원지역 건축과의 비교에 집중되어 당의 예속문화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경우 고구려와의 비교로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설정에 몰입해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어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64) 송기호, 2003b, 앞의 논문; 윤재운, 2004, 앞의 논문; 韓圭哲, 2006, 앞의 논문; 이병건, 2006b, 앞의 논문; 이병건, 2007, 앞의 논문.

2_ 건축유적 분포 현황

발해의 건축유적 파악은 중국 黑龍江省과 吉林省에 밀집되어 있는 분포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측 연구자로는 韓圭哲을 들 수 있다.⁶⁵⁾ 건축유적을 포함해 600여 곳의 발해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에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분포 현황 조사는 중국 각 市와 縣에서 출판한 文物志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며, 우리 측에서 실질적인 필드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해유적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더 많은 훼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손과 발로 파악된 실질적인 유적 분포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우는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⁶⁶⁾이 당시까지의 연해주 발해유적에 대한 유적 분포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지속적인 유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더 자세한 유적 분포현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_ 건축유적 전반

이 분야는 건축 유형별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고학 자료를 기초로 발해문화에서 건축 분야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는 김정표, 송기호, 서정호, 윤재운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⁶⁷⁾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발해건축에 관한 연구는 발해문화 일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발해의 각 건축유형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존 유적의 부재도 문제지만 연구 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유형별 연구성과가 도출된 후에는 좀더 자세한 건축유적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기초로 발해문화에 대한

65) 韓圭哲, 1997, 앞의 논문; 韓圭哲, 1998, 앞의 논문.

66) 沿海州文化遺蹟調查團, 1999, 앞의 책.

67)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徐廷昊, 1999, 앞의 논문; 송기호, 2003a, 앞의 논문; 윤재운, 2005, 앞의 논문.

특징 파악에도 건축 분야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4_ 도성 및 궁전 건축유적

앞에서 다른 국가별 연구사 다음으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연구주제가 바로 도성유적이다. 이는 발해 유적 가운데 형태와 구조적 파악이 다른 건축유형에 비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로는 송기호, 임상선, 김종복을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굴단을 들 수 있다.⁶⁸⁾ 그중 임상선의 연구성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는 중국 및 러시아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했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그의 경우는 한국 측이 직접 발굴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성곽건축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도성유적의 경우는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궁전 건축유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발해의 궁전건축유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고, 발해의 궁전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궁전건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중국 중원지역의 궁전건축을 모델로 한 張鐵寧의 復原案을 반박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하루속히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5_ 사찰유적

사찰유적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중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중국지역에서만 발해시기의 사찰유적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러시아 연해주

68) 宋基豪, 1989, 앞의 논문; 김종복, 2003, 앞의 논문; 임상선, 2005, 앞의 논문; 임상선, 2006, 「제3장 I. 발해 크라스키노성에 나타난 고구려 문화 요소」,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41~53쪽.

지역에도 사찰유적이 확인되었지만⁶⁹⁾ 사찰의 건축형식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연구된 것들은⁷⁰⁾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의 사찰유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들어 북한지역에서도 사찰유적이 발굴된 바 있으므로⁷¹⁾ 중국·러시아·북한지역의 사찰유적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에서 계속적으로 사찰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므로 연구에 더욱더 활기를 띠 전망이다.

6_ 살림집유적

발해 살림집유적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온전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 없으며, 발굴된 숫자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히 적다. 중국과 북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⁷²⁾ 극소수의 유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발해 살림집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송기호는 온돌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⁷³⁾ 발해는 물론 그 이전 시기의 살림집, 즉 북옥저와 고구려의 살림집 유적까지도 망라했기 때문에 시기별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 또한 해당 유적이 과연 발해 살림집 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이 될지는 좀더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문화 제1순위로 꼽는 것이 살림집이니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9) 연해주지역의 사찰유적은 코프이토 사찰터, 아브리코스 사찰터, 크라스키노 사찰터, 보리소프카 사찰터 등 5개가 알려져 있다. 이병건, 2006a, 앞의 논문, 32쪽.

70) 文明大, 1993, 앞의 논문; 金昶均, 1993, 앞의 논문; 文明大, 1997, 앞의 논문; 李康根, 1999, 앞의 논문; 이병건, 2006a, 앞의 논문.

71) 김종현,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 중심(서울), 66~120쪽.

72) 장상렬, 1971, 앞의 논문; 방학봉, 1995, 「난방설비가 발견된 발해집터」, 『발해건축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尹鉉哲, 2000, 「渤海國의 火炕 遺址考」, 『渤海文化研究』, 吉林人民出版社; 金太順, 2004, 「初探渤海時期的平民住居址」, 『高句麗渤海歷史問題研究論文集』, 延邊大出版社.

73) 송기호, 2006, 앞의 책.

7. 24개돌유적

24개돌유적은 발해의 前後시기에는 없었던 매우 독특한 건축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까지 이 유적은 驛站으로 추정하는 것이 중국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였다.⁷⁴⁾ 당시까지 유일하게 그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⁷⁵⁾ 유적으로 건축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 유적에 대한 연구는 李秉建에 의해 이루어졌다.⁷⁶⁾ 그는 24개돌유적을 창고터로 추정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은 물론이고 북한지역에 있는 24개돌유적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금도 高床式 건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방지역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성과 주제는 국가별 연구사와 도성을 포함한 건축 전반에 관한 것들이다. 이 연구사 또한 기준에 연구된 결과에다가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완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연구 성향은 발해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발굴이 불가능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해주지역이나 러시아와 공동으로 발굴하고 있는 성터를 중심으로 한 성과가 축적된다면 좀더 명확한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건축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잡는다면 상경성 제2사찰터(현 興隆寺)의 石燈과 長白縣 靈光塔과 같은 실존하고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4) 李殿福, 1992-2, 「渤海考古學的主要收穫」, 『博物館研究』; 李殿福, 1994, 「渤海的考古學」, 『東北考古研究』(二), 中州古籍出版社; 張泰湘, 1994, 「渤海考古學綜述」, 『東北考古研究』(一), 中州古籍出版社; 金太順, 1997, 「黑龍江省渤海考古的主要收穫」, 『高句麗渤海研究集成』, 哈爾濱出版社; 李建才, 1992-2, 「二十四塊石考」, 『北方文物』.

75) 金慶彪, 1996, 앞의 논문, 323~324쪽.

76) 이병진, 2001, 앞의 논문.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발해 건축유적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學位論文, 學術論文, 單行本 및 發掘調査報告書의 연구성과를 통해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얻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한의 韓國建築史에서는 1996년 이전에는 발해건축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南北國論'이 대두되고 초·중등학교에서도 '남북국시대'로 발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1997년 이후에 이르러서 발해건축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는 서술된 내용이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도 적으며, 연구업적 또한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지금까지 남한에서 진행된 연구업적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①건축유적과 관련된 국가별 연구사, ②건축유적 분포 현황, ③건축유적 전반, ④도성 및 궁전 건축유적, ⑤사찰 건축유적, ⑥살림집 유적, ⑦24개돌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유적과 관련된 국가별 연구사였다. 중국 측 연구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북한 측 연구사였다. 중국과 북한이 대부분의 발해유적을 점유하고 있고, 유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해 유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선행연구 결과 파악이 중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사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가 도성유적이다. 다른 유적에 비해 형태와 구조적 특징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궁전유적에 대해서는 유적 현황만 약간 소개하고 있을 뿐 전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발해의 궁전건축유적이 남아 있지 않고, 발해의 궁전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중국 측에서는 궁전건축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나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발해 사찰유적과 24개돌유적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 그러나 살림집유적에 관해서는 주변국 그 어느 나라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기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적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고구려와의 계승관계 설정에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니만큼 북한보다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6.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은 대부분 발굴결과를 기초로 한 연구였다. 발굴에 의존하는 연구 이외에 다른 하나의 연구방향은 발해건축의 특징을 건축물이 아닌 현존하는 상경성 제2사찰터(현 興隆寺)의 石燈과 長白縣 靈光塔처럼 실존하고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역으로 건축적 특징을 유추해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research fruits in relation to Balhae architectural relics

Lee, Byeong-G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South Korean research fruits in relation to Balhae Architectural relics. This study treats Balhae period and corresponds to the northeast area in China, the north area in Korea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in Russia. The main subjects are the architecture of capital city, palace, temple, dwelling, 24 Stone's relics and etc. The method of this study proceeds on the study of the dissertation, treatise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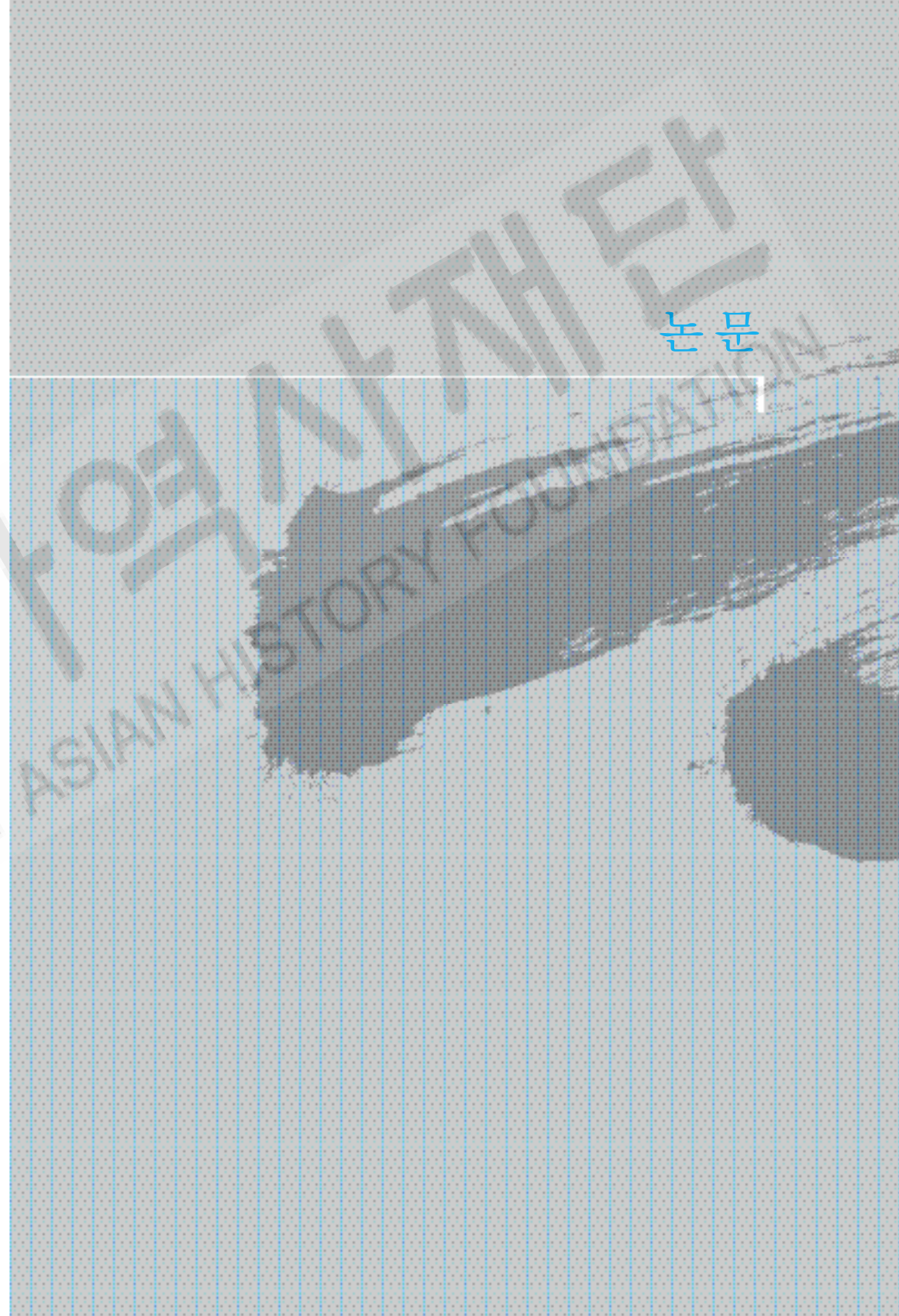
Followings ar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The South Korean research fruits about Balhae architectural relics has focused on the research history each country specially China and North Korea. After proceeding study, Balhae has gener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 northeast area as well as special cultural ones as seen in many it's cultural relics. The right way of studying Balhae architecture is understanding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relics objectively from Balhae point of view. The East Asian states each interpret history from a self-centered perspective. In the final analysis, we have to consider history as shared heritage rather than a property of individual states.

keywords

South Korea, Research fruits, Balhae architectural relics,
Succession, Originality

논문



明 前期 奴兒干都司의 設置와 衰退

남 의 현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본 논문은 明初 黑龍江 下流에 설치되었던 奴兒干都司의 性格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368년 朱元璋은 明朝를 건립한 후 北元 세력을 北邊으로 축출하고 遼東에는 遼東都指揮使司(‘遼東都司’로 약칭함)와 25衛 체제를 형성하고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明은 北元과의 전쟁을 통해 納哈出의 20여 만 군사를 遼東都司로 흡수하고 난 후 영향력을 遼西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기반으로 여진지역으로도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洪武年間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 계획은 그러한 대외진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洪武年間 鴨綠江 유역에 鐵嶺衛를, 豆滿江 유역에 三萬衛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결국 모두 遼東都司로 흡수하여 遼東都司의 북변으로 옮겨 올 수밖에 없었다. 곧 洪武年間은 遼東都司 방어체제를 정비·강화한 시기에 불과하며, 그 영향력을 몽골과 女眞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간 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明은 永樂年間에 이르러서야 洪武年間 만들어진 遼東都司 체제를 기초로

吉林 및 黑龍江 지역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奴兒干都司와 女眞衛所를 설치할 수 있었다. 永樂帝는 帝位에 오르기 전 北京의 邊境을 지키던 燕王이었으며, 靖難의 變을 통해 황제가 되었으므로 몽골과 女眞地域의 정세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재위기간 중 5차례 몽골 親征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吉林과 黑龍江 등의 女眞을 배후의 지원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永樂帝의 전략은 당시 女眞地域의 상황과 조응하여 수많은 衛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女眞地域은 수렵·어로·목축 등이 주업이었으며, 농업 지역 역시 생산력이 떨어져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상태였다. 초기 明과 北元의 전쟁으로 여진은 큰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女眞을 통제하려는 明의 정치적 입장과 明과의 교역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확보하려는 女眞의 경제적 욕구 등은 明으로 하여금 女眞 衛所의 설치를 매우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永樂年間 女眞地域에 설치된 奴兒干都司와 184개의 衛所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奴兒干都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간칭함)은 이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연구 성과가 많지는 않다. 그 이유는 우선 奴兒干都司는 그 설치에서 쇠퇴까지 그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奴兒干都司의 구조가 遼東都司처럼 행정권과 사법권 그리고 위소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임시 초무기구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遼東都司와 비교하면 奴兒干都司는 女眞地域에 대해 영향력이 약하였으며, 따라서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이 기록될 수 없었다. 셋째는 奴兒干都司의 경우 黑龍江 하류에 설치되었으나 遼東都司와 같이 당지에 상설된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內官 亦失哈 등을 선두로 한 몇 차례의 군대가 동원되어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기록될 것이 없었다.

이처럼 奴兒干都司는 遼東都司에 비하면 明代史에서 비중을 둘 만한 군정합일기관이 아님에도 중국은 최근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東北工程(프로젝트) 등 변방정책을 추진하면서 明代의 민족과 강역, 만주를 둘러싸고 발생한 몽골·女眞·朝鮮 등과의 변경 문제를 정리하는 역사이론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奴兒干都司는 吉林, 黑龍江, 鴨綠

江, 豆滿江 지역을 明代의 강역으로 해석해 내고 한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明의 주변국, 곧 朝鮮 등과 발생하였던 國境紛爭이나 민족 갈등과 강역·여진관할권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奴兒干都司와 그 성격을 확대해석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奴兒干都司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奴兒干都司에 관련한 연구성과¹⁾ 중 단행본으로는 1982년에 출판된 楊揚 등의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가 유일하다. 이 성과물은 奴兒干都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초기에 나온 저작이며, 多民族統一國家論의 논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多民族統一國家論에 기초하여 ‘征服王朝論’을 부정하고 遼·金·元史를 모두 중국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明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왕조라는 시각에서 奴兒干都司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奴兒干都司와 吉林 黑龍江 지역의 女眞衛所는 크게 보면 明의 영토이며, 작게는 奴兒干都司의 관할이었다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²⁾ 蔣秀松, 「關於奴兒干都司的問題」(『民族研究』第6期, 1990)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奴兒干都司의 변화과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설치된 시기만 강조할 뿐 기능이 상실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간혹 明 後期까지 ‘奴兒干’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확대해석하여 奴兒干都司가 존속된 것으로 설명하고

1) 楊揚 外,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中州書畫社; 楊揚, 1988, 『明代遼東都司』, 中州古籍出版社; 楊揚, 1991, 『中國的東北社會 十四~一七世紀』, 遼寧人民出版社; 楊揚, 1993, 『明代東北史綱』, 學生書局;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第3卷, 吉林文史出版社;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 東朋舍; 江嶋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眞史研究』, 中國書店 등을 들 수 있다.

2) 王綿厚 外, 1978, 「明代管理奴兒干的歷史新證」, 『文物』; 王鍾翰, 1997, 「明代女眞人的分布」, 『清史新考』, 遼寧大學出版社; 蔣秀松·王兆蘭, 1982, 「從永寧寺碑看明代東北各族的關係」, 『歷史教學』; 蔣秀松, 1990, 「關於奴兒干都司的問題」, 『民族研究』; 烏居龍藏, 「奴兒干都司考」, 『燕京學報』第33期; 內藤虎次郎, 1970, 「奴兒干永寧寺記補考」, 『內藤湖南全集』; 楊揚, 2005, 「明代奴兒干永寧寺碑研究的諸問題論辨」, 『東北史地』; 楊揚, 2006, 「永寧寺碑文銘刻的奴兒干都司與黑龍江下流, 庫頁島的先居民族關係」, 『東北史地』 등이 있다.

있다.

둘째는 奴兒干都司를 内地의 都司 내지 遼東都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상설화된 군정합일기관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遼陽에 治所를 두고 있는 遼東都司는 분명히 25衛를 지휘하고 있으며 明 後期까지 지속된 것으로 사료에 나타나지만, 이와 달리 奴兒干都司는 奴兒干 지역에 설치된 상설 기구도 아니며, 遼東都司와 같이 직속된 衛所도 없었다. 단지 필요에 따라 遼東都司로부터 군사를 지원받아 여러 차례 奴兒干 지역에 도착하여 초무와 사신의 보호 등 기본적인 임무를 몇 차례 수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奴兒干都司가 몽골의 兀良哈 3衛나 女眞地域에 설치된 많은 女眞衛所를 직접 관할하고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셋째, 奴兒干都司는 그 존속기간 중 여러 차례의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적 초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제 중요한 증거가 되는 永寧寺 碑文이나 기록이 풍부한 『明實錄』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군사적 초무 기능의 실상도 잘 나타나지 않으며 사신을 보호하거나 교역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서술 역시 풍부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해 奴兒干都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들은 奴兒干都司나 遼東都司와의 관련성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88년에 출판된 楊暘 등의 『明代遼東都司』는 遼東都司를 연구한 유일한 저술로 알려져 있고 奴兒干都司를 언급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 상관관계를 소략하게 함으로써 마치 동일한 등급의 두 都司가 滿洲 지역을 장기간 지배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³⁾

본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明 후기까지 존속된 遼東都司도 奴兒干都司를 흡수·통합하였지만 내부적인 모순의 발생과 몽골 女眞의 성장으로 중·후기로 갈수록 여진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奴兒干都司가 통폐합된 이후 遼東都司의 변화과정과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奴兒干都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연구

3) 楊暘, 1988, 앞의 책, 39쪽.

성과들은 遼東都司의 형성과 정비에 중점을 두기는 하였으나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반적인 遼東都司 體制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지 못함으로써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나아가 明代 遼東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⁴⁾

연구 성과들의 한계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우선 奴兒干都司의 설치목적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奴兒干都司의 성격은 『明實錄』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奴兒干 지역에 세워진 2개의 碑記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이며 다른 하나는 「重建永寧寺碑記」이다. 이 2개의 碑文 속에는 당시 奴兒干都司의 기능과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반부에서는 奴兒干都司의 기능과 성격, 그리고 쇠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奴兒干都司는 明代 前期 그 기능을 상실하고 遼東都司에 흡수되었다. 奴兒干都司가 遼東都司에 편입된 후 奴兒干 지역에 대해 진행한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은 주로 遼東都司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이미 遼東都司 역시 永樂年間 이후 점진적으로 遼東邊牆을 통한 방어체계로 전환할 정도로 몽골과 女眞地域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奴兒干都司의 쇠퇴 이후, 遼東都司의 변화과정을 통해서도 奴兒干 및 女眞地域에

4) 明代 遼東을 연구한 중국의 연구 성과들은 明代 遼東地域이 중·후기로 갈수록 많은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遼東都司의 지배력의 약화라는 과정과 시각으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遼東都司에 대한 연구는 遼東都司의 형성과정과 내부적인 구조에 연구가 치중되고 있으며, 明代史 속에서 遼東都司가 시기별로 변화하는 모습과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의 국제적 역할 또는 朝鮮·女眞·몽골 등과의 관계나 성격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明代 遼東 관련 저서로 楊暘, 1991, 앞의 책; 楊暘, 1993, 앞의 책; 李澍田, 1993,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刁書仁 主編, 1995,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1~6卷, 吉林文史; 顧頡剛·史念海, 1999, 『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寧夢辰, 1999, 『東北地方史』, 遼寧大學出版社;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저서 중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1~6卷은 지금까지 출판된 遼東관련 성과물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해 明의 영향력 및 그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奴兒干都司의 遼東都司로의 흡수 및 朝鮮과의 관련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奴兒干都司는 존속했던 기간이 짧고 또한 여진위소들에 대한 관할권과 영향력이 없었으며, 여진위소들은 직접 京師에 도착하여 조공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奴兒干都司와 朝鮮 사이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奴兒干都司의 설치와 쇠퇴, 明이 初期에 女眞 지역을 상대로 시도했던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 시도, 11處 女眞人 요구 등 여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료들을 분석해 보면 朝鮮에 대한 明의 영향력 및 奴兒干都司의 朝鮮에 대한 限界 등 朝鮮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奴兒干都司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明代 遼東史에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女眞地域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 중국은 明代 吉林과 黑龍江을 포함하는 광활한 遼東지역을 明이 경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왜곡된 입장을 옹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奴兒干都司이다. 이에 奴兒干都司의 연구를 통해 그 지배력의 한계를 밝히는 것은 女眞地域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영토의 문제와 관련하여 奴兒干都司 분석을 통해 여진지역이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힘든 판도 바깥 지역임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遼東邊牆의 바깥 지역이자 여진지역과 접하고 있는 조선의 豆滿江과 鴨綠江 역시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힘든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明과 경계가 될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遼東邊牆의 國境線으로서의 성격과 鴨綠江과 豆滿江을 朝鮮과의 경계로 설정하고 있는 明代에 대한 잘못된 領土認識도 再考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明初 遼東과 奴兒干都司의 設置背景

14세기 중엽 동아시아는 변동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紅巾軍의 등장으로 高麗와 元의 관계는 불안정하게 변화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왕조 明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었다.⁵⁾ 明 건국 후에도 山西와 陝西 등 여러 지역에서 北元은 明軍과 치열한 전투 중에 있었으며, 遼東 역시 상당부분 北元이 점령하고 있었다.⁶⁾ 그러나 洪武 4년(1371) 2월 元의 遼陽行省 平章이던 劉益이 右丞 董遵을 파견해 遼東州郡의 地圖와 관련 書籍을 가지고 투항을 표시함으로써 明軍은 遼南 지역에 遼東衛를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⁷⁾

明은 遼南 지역을 점령한 후 遼東都司로 전환하고 山東을 통해 군량과 군사를 지원받아 마침내 洪武 20년 遼東의 최대 적수인 北元의 納哈出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遼東의 北元軍을 약화시켰다. 이로써 나하추 휘하의 20여만 군대를 흡수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하여 遼西 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山海關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 수 있었다. 동시에 遼東으로 진출하려던 高麗와 北元의 연합을 차단하면서 遼東都司와 25衛를 중심으로 遼東防禦體系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⁸⁾ 이에 明은 遼東과 遼西를 연결하는 衛所와 驛站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遼東都司의 防禦體系는 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遼東의 遼陽과 遼西의 廣寧을 그 중심에 두고 동으로 高麗를 견제하며 북으로 黑龍江 지역을, 서쪽으로 大寧 북쪽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몽골 지역까지 진출하여 長城을 遼東과 연결하여 遼東을 9邊의 극동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5) 張士尊, 1996, 「元末紅巾軍遼東活動考」, 『松遼學刊』, 44쪽.

6) 『明實錄』 洪武 3年 9月 乙卯; 洪武 4年 6月 壬寅. 遼東 復州의 得利巖城에는 劉益이, 遼陽의 老鴉山에는 高家奴가, 瀋陽의 古城에는 哈刺張이, 開原에는 也先不花(也速)가, 그리고 金山에는 納哈出(나하추) 등 北元의 장수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7) 張士尊, 1997,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 『綏化師專學報』, 49쪽.

8) 張士尊, 1997, 위의 논문, 50쪽.

松花江과 黑龍江 지역은 元 시기 開元路·合蘭府·水達達路와 5개의 萬戶府가 설치되었는데, 洪武 20年(1387) 明은 元朝와 같이 黑龍江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黑龍江 중하류 유역에 兀者·乞列迷·野人 등의 三萬衛를 설치하고, 千戶 侯史家奴를 指揮僉事로 임명하여 관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松花江 유역은 遼東都司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고 식량 보급이 어려워 洪武 21年(1388) 이 지역을 포기하고 遼東都司 지역(현재의 遼寧省 지역)으로 방어선을 축소하였다. 결국 三萬衛는 遼東都司 북부의 군사 重鎮에 해당하는 開原(현재 遼寧省 開原市)으로 이전되었다. 三萬衛가 설치된 開原에는 각각 南關(廣順關)·北關(鎮北關)·西關(清河關) 등의 三關三市를 설치하여 海西·建州·毛憐 등의 女眞部와 몽골을 대상으로 互市를 열었다.⁹⁾ 그리고 洪武 23年(1390) 遼南의 海州 서쪽 牛庄에 설치되었던 遼海衛 역시 開原 북쪽으로 이전함으로써 遼東北部의 방어선을 강화하였다.¹⁰⁾ 東寧衛¹¹⁾도 여진지역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접고 북변의 몽골 방어를 위하여 遼東都司 지역으로 옮겨왔다. 즉 洪武 13年(1380) 東寧·南京·海洋·草河·女眞 등 5개의 千戶所로서 설립되었으나¹²⁾ 洪武 19年(1386)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5천호소 중

9) 永樂 7年(1409)에는 衛所政策에 따라 開原 성내에 安樂州·自在州(自在州는 正統 8년에 遼陽으로 옮김)를 설치하여 몽골과 女眞 등의 귀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치하였다.

10) 『明實錄』 洪武 21年 3月 辛丑. 開原은 지금의 開原 老城鎮으로, 遼代의 咸州, 金·元代의 咸平府에 해당한다. 洪武 21年(1388) 開元을 開原으로 고치고, 동쪽으로는 女眞 각부를, 서북쪽으로는 몽골 兀良哈를 통제하는 遼東都司의 重鎮이 되었다. 그리고 洪武 25年(1392) 5월 朱元璋은 朱松을 韓王으로 삼아 開元城을 지키도록 하고 三萬衛와 遼海衛, 自在州와 安樂州 등의 治所를 開元城에 둠으로써 女眞과 몽골인을 끌어들이 衛所體制에 편입시키고 효율적으로 북변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永樂 3年(1405) 明의 정책에 따라 開原에 馬市가 개설된 이후 교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11) 기존의 연구로는 河內良弘, 1986, 「明代遼陽의東寧衛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4-4를 들 수 있는데, 그는 東寧衛의 문제가 明代 遼東都司를 둘러싼 朝鮮과 女眞 문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徐仁範, 2005, 「明代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明清史研究』 第23輯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논문에서 東寧衛가 遼東都司와 朝鮮 사이에서 외교사절과 통사의 배출, 사신의 수행, 조선사행의 연회 등을 주관했음을 밝힘으로써 明과 朝鮮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東寧을 衛로 승격시키고 그 주위에 左·右·中·前·後의 5개 所를 설치하였다.¹³⁾ 東寧衛는 遼陽城 북쪽으로 이전된 후 遼陽城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朝鮮人들로 구성되었다. 東寧은 元 시기 여러 차례의 이전을 거쳐 豆滿江 상류에 설치된 東寧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역시 豆滿江 유역에 살던 高麗人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⁴⁾

衛所의 설치과정과 특징으로 볼 때 洪武年間の 遼東政策은 納哈出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遼東都司와 25衛 중심의 衛所體制를 1단계 마무리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곧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동으로 遼東八站 지역에 해당하는 連山關, 북으로 開元과 昌圖, 요서지방 廣寧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洪武 28年(1395)에 遼東都司는 소속 25衛 체제와 방어선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후 군사·행정·감찰·경제·법률·징세 등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면서 軍政合一의 성격을 갖는 요동의 중심기구로 변모하였다.¹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洪武年間 明은 女眞地域으로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遼東都司 동부의 女眞에 비해 宣府, 大同, 遼東 등 북부는 몽골세력들이 변경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 女眞地域으로 진출할 여력이 없었다. 女眞 역시 明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몽골의 공격과 약탈을 두려워하였다. 이 때문에 明은 遼東都司로 방어선을 축소·강화하고 군사력과 노동력 등 필요한 인구를 흡수하면서 여진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洪武年間은 遼東都司를 통해 북변의 방어체계를 강화한 시기로 평가할 수

12) 『遼東志』 卷1 地理.

13) 『遼東志』 卷2 建置.

14) 『明實錄』 洪武 19年 7月 戊午. 東寧衛는 많은 朝鮮人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遼東都司는 東寧衛의 朝鮮人들을 이용해 對朝鮮 外交政策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즉 東寧衛의 朝鮮人을 百戶·千戶 등으로 임명하여 明의 사절단을 수행하면서 통사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양국간의 외교적 현안을 푸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곧 明의 입장에서 보면 東寧衛는 明과 朝鮮, 明과 女眞의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遼東都司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15) 張士尊, 2002, 「明代遼東都司軍政管理體制及其變遷」, 『東北師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70쪽.

있다.

이에 비해 永樂年間(1403~1424)은 奴兒干都司와 다수의 衛所를 吉林·黑龍江 등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면서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기였다. 특히 永樂年間 진행된 奴兒干都司 설치의 여진지역으로의 진출과 초무 이외에 몽골 친정과도 관련이 있다. 즉 永樂시기 5차례의 몽골친정과 5차례의 奴兒干 招撫는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永樂帝의 몽골 정벌은 永樂 8년 2월, 永樂 12년 3월, 永樂 20년 3월, 永樂 21년 7월, 永樂 22년 4월에 시도되었으며, 亦失哈 등의 奴兒干 진출은 永樂 9년, 永樂 10년, 永樂 13~18년 사이, 永樂 18년 전후, 永樂 21년 봄~永樂 22년 가을로 계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永樂시기 몽골친정은 봄이나 여름 등 기후가 좋은 때에 출발하였으며 돌아오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상 親征과 奴兒干으로의 군사 파견이 비슷한 시기임을 고려해 보면 奴兒干都司와 여진위소의 설치목적이 배후의 女眞을 明의 지원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몽골지역과 여진 지역을 전략적 차원에서 같이 이용하려한 永樂帝의 전략이었으며, 奴兒干都司의 1차적 기능이 여진세력의 확보책이었다. 즉 5차례의 奴兒干 지역에 대한 초무는 永樂帝의 몽골친정을 염두에 둔, 의도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된 군사적 활동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奴兒干都司가 都司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초무 이외에 공물 등의 물자수송을 담당할 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면 永樂帝의 몽골정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배후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奴兒干은 都司로 개설되기 이전 1404년에 忽刺溫 등 여진야인의 추장 把刺答哈이 내조하여 奴兒干衛를 설치한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당시 把刺答哈, 阿刺孫 등 4명을 指揮同知로 삼고 衛印과 冠帶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永樂 7년(1409)에 奴兒干都司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며,¹⁶⁾ 永樂 9년(1411)에 奴兒干都司로 변화시켰던 것이다.¹⁷⁾ 奴兒干都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明은 이전에 遼

東都司로 귀부한 이민족을 이용하였는데, 永寧寺碑에 나타나는 亦失哈, 王肇舟, 修答刺哈, 金聲, 白倫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모두 永樂·宣德年間 奴兒干都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중심이 된 인물들이다. 이와 동시에 明朝는 女眞 諸部落의 역량을 동원하여 그들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建州(현재의 吉林地域)에서 선박을 제조할 때 兀者衛의 都指揮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였으며,¹⁸⁾ 두 비문의 기록으로부터 弗提衛, 玄城衛의 두목 朶稱哈, 納蘭, 木塔兀哈, 弗家奴, 李希塔, 木刀兀 등이 선후 亦失哈를 따라가 奴兒干都司를 개설하는 데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女眞 諸部の 참여는 奴兒干都司가 설치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明의 女眞地域으로의 進出과 招撫, 奴兒干都司의 설치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北元과 여진 세력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洪武 21년(1388) 明朝는 斡朶里城으로부터 三萬衛를 철회하고 兀者野人 乞列迷女眞 軍民府를 철폐하였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바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 이외에도 女眞과의 갈등이 숨어 있었다. 永樂年間에는 楊木答兀 등 內遷한 女眞人이 반란을 일으키고 建州女眞이 遼東의 邊民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宣德 8년(1433) 古州(牡丹江 중류) 野人 이 裴俊이 거느린 명군을 공격하는 등¹⁹⁾ 明이 奴兒干 지역에 진출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17)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藝文印書館, 1976, “是以皇帝勅使三至其國……永樂九年春, 特遣內官亦失哈, 率官軍一千餘人, 巨船二十五艘, 復至其國, 開設奴兒干都司”.

18) 『遼東志』卷9 外志.

19) 『朝鮮王朝實錄』世宗 15年 11月 乙巳.

16) 『明實錄』永樂 7年 6月 己未, “置奴兒干都指揮使司, 經歷司經歷一員”.

Ⅲ. 奴兒干都司의 機能과 性格

奴兒干都司의 기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자료 두 가지는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와 「重建永寧寺碑記」이다.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에는 永樂 9년(1411) 봄 內官 亦失哈 등이 관군 1,000여 명을 인솔하고 巨船 25척과 함께 奴兒干에 이르러 奴兒干都司를 개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을 통해서 보면 奴兒干都司 개설 이전에 이미 3차례의 초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奴兒干都司를 개설하면서 대규모의 초무활동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곧 奴兒干都司 설치 이전부터 奴兒干 지역에 진출한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가 군사활동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초무활동을 끝내고 1412년 돌아왔는데, 당시 초무를 지휘했던 王謹 등은 鈔幣 등을 하사받았으며 같이 온 女真人들도 千戶와 百戶 등의 관직을 받았다.²¹⁾ 즉 王謹은 亦失哈를 따라 동행한 1,000여 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永樂 9년(1411) 내관 亦失哈는 奴兒干都司를 현지에 설치하면서 1차 군사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²²⁾ 그의 2차 진출은 永樂 10년(1412)인데, 이해 봄 亦失哈는 다시 황제의 명을 받고 海西女真 지역까지 이르러 그 지역의 苦夷 諸民들에게 의복·옷·음식 등을 지급하였다.²³⁾ 그리고 永樂 11년(1413) 가을에는 奴兒干에 永寧寺를 세웠다.²⁴⁾ 앞서 언급한바 1차와 2차는 각각 1409년과 1412년이며, 3차와 4차는 永樂 13년(1415)~永樂 18년(1420) 사이, 그리고 마지막 5차는 永樂 말년으로 추측된다.²⁵⁾ 5차에 대한 추측은 永樂 19년(1421) 10월 奴兒干都司의 都指揮 王肇舟 등이 돌아왔다는 기록,²⁶⁾ 永樂 20년(1422) 王肇舟

등의 ‘辭還’ 기록,²⁷⁾ 永樂 22년 王肇舟의 북경방문 기록²⁸⁾ 등이 보이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永樂 22년 가을 이전에 그 먼 거리를 갔다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에는 강이 얼어 松花江과 黑龍江에 배를 띄울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1423년 해빙된 후에 출발하였다가 1424년에 돌아왔다고 유추할 수 있다. 亦失哈이 永樂年間 5차례 奴兒干에 간 기록을 보면 주요한 목적은 奴兒干都司의 설치, 女眞의 초무와 회유, 女眞人의 歸化, 해동청 등 공물의 확보 등으로 모두 임시 군사기구로서의 활동을 보인다.²⁹⁾

奴兒干都司의 활동은 永樂~宣德年間に 걸쳐서 진행된 것을 모두 합치면 9~10차례에 이르는데, 미리 송화강 유역에서 건조된 거선을 타고 강을 이용해 奴兒干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 머물면서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亦失哈 등이 인솔하고 간 군대는 임무를 마치면 황제의 명에 의해 모두 출발지인 遼東都司로 귀환하였으며, 최소한의 병력만이 奴兒干에 상주하였다. 亦失哈이 인솔한 군대 외에 奴兒干都司의 衛印 보호를 위해서 兵士를 일정기간 주둔시키기도 하였는데, 300명 정도 파견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³⁰⁾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重建永寧寺碑記」, 『明實錄』 등의 사료를 기초로 奴兒干에 파견된 亦失哈, 康旺 등의 임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러 부락을 초무하고 회유하였으며, 그 지역에 衛所를 많이 세워서 여진을 예속시키고자 하였다.³¹⁾ ② 采捕와 納貢으로, 매년 해동청 등을 바치도록 하였다.³²⁾ 『朝鮮王朝實錄』에도 亦失哈 등이 奴兒干에 간 것은 ‘奴兒干捕鷹’,³³⁾ 곧 해동청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③ 이민족이 조공 때에 오가는 것을 호송하였다. ④ 무역을 진행하였는데, 이점에 관해서 『朝鮮王朝實

20)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藝文印書館, 1976.

21) 『明實錄』 永樂 10年 10月 庚申.

22) 江嶋壽雄, 1999, 앞의 책, 61쪽;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藝文印書館, 1976.

23)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藝文印書館, 1976.

24) 위의 책.

25) 楊暘, 1991, 앞의 책, 132쪽.

26) 『明實錄』 永樂 19年 10月 癸巳.

27) 『明實錄』 永樂 20年 10月 戊子.

28) 『明實錄』 永樂 22年 10月 丁卯.

29) 「重建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1976.

30) 『明實錄』 永樂 12年 閏 9月 壬子.

31)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1976.

32) 「重建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1976.

33) 『朝鮮王朝實錄』 文宗 즉위년 12月 甲戌.

錄』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宣德 2년(1427) 7월 朝鮮 관리가 夏店에 도착하여 곧 指揮 金聲을 만났는데, 金聲은 자신과 內官 2명이 狗兒國에 들어가 海靑 57마리를 잡았으며, 魚膠, 豹皮, 白黑狐皮, 白鼠皮 등을 가지고 와서 明과 교역하였다고 하였다.³⁴⁾ 金聲 등이 狗兒國으로 들어간 것은 宣德 元年(1426)인데, 그때 亦失哈 등은 奴兒干에서 초유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교역활동 역시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⑤그 지역의 여진족 등 이민족을 회유하고자 하였는데, 宣德 5년(1430)에는 宣宗이 康旺, 王肇舟, 佟答刺哈 등에게 칙령을 내려 奴兒干都司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초무하고 회유할 것을 명하는 동시에 奴兒干 동쪽의 襄阿里, 吉列迷, 恨古河, 黑龍江, 松花江, 阿速江 등의 야인두목 哥奉阿와 襄阿奴 등에게도 칙서를 보내 모두 통제를 받도록 명하였다.³⁵⁾ 襄阿里, 吉列迷, 恨古河, 黑龍江, 松花江, 阿速江에는 烏蘇里江, 恒滾江 유역, 黑龍江 중·하류 및 庫頁島 등지를 포괄하고 있다.

奴兒干都司의 임시 군사기구로서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 위해 遼東都司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규모를 갖춘 遼東都司는 그 아래에 經歷司, 斷事司, 司獄司 등과 각각 掌印, 僉書, 經歷, 都事 등의 관리를 두고 입법·사법·행정 등을 시행함으로써 권력기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遼東都司는 여전히 司法, 錢糧, 監察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按察分司를 설치하고 山東按察使司를 통해 중요 안전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山東按察使司로부터 僉事 또는 副使 1명을 임명하여 遼東都司의 사법사무를 관리하기도 하였고, 正統年間에는 遼東에 布政分司를 설치하여 山東布政使司에 의존하며 山東布政使司로부터 參議와 參政 1명을 충임하고 錢糧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리하는 등³⁶⁾ 사법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永樂年間 遼東에 察院을 설치하고 매년 監察御史 1명에게 특명을 내려 그 지역을 감찰하도록 하는 등 農桑, 學校, 邊方의 機構, 訴訟 등 일체의 사무를 모두 처리·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³⁷⁾

34) 『朝鮮王朝實錄』世宗 9年 9月 癸巳.

35) 『明實錄』宣德 5年 8月 庚午.

36) 『遼東志』卷2 建置, 張鼎, 「遼海東寧道題名記」.

奴兒干都司는 그렇지 않았다. 奴兒干都司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두 碑記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나타나고 있는 관직이 ①欽差 ②奴兒干指揮同知 ③都指揮僉事 ④指揮 ⑤千戶 ⑥百戶 ⑦經歷 ⑧吏 등으로 매우 소략함을 알 수 있다.³⁸⁾ 이중에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관직을 빼면 經歷과 吏만 남게 된다. 곧 經歷과 吏와 같은 하급관료는 간단한 문서의 작성이나 이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성격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즉 奴兒干都司는 遼東都司와 같이 斷事司나 司獄司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구조상 행정과 사법권한을 행사할 만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무관직이 보여주듯이 군사적인 초무와 사신의 보호, 토물 및 공물의 운송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무기능 이외에 遼東都司의 指揮 康旺을 都指揮同知로, 千戶 王肇舟 등을 都指揮僉事로 삼아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매년 海(東)靑 등을 바치며 狗站을³⁹⁾ 설치하여 각종 물자를 수송하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⁴⁰⁾ 奴兒干都司의 주요한 관리들, 즉 都指揮同知 康旺, 都指揮僉事 王肇舟, 佟答刺哈 등은 모두 遼東都司에서 선발하여 파견하였고, 護印을 위한 兵士 역시 遼東都司에서 파견하였다.⁴¹⁾ 奴兒干都司의 관리와 사병의 봉급, 군량 등도 모두 遼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奴兒干都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永樂~宣德年間 奴兒干都司에 파견된 官吏가 중앙에 상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奴兒干都司는 일종의 군사기구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들이 奴兒干都司에 상주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奴兒干都司는 실제 黑龍江 하류에

37) 『遼東志』卷2 建置, 「遼陽察院題名記」.

38)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 「重建永寧寺碑記」, 앞의 책, 1976.

39) 叢佩遠, 1998, 앞의 책, 155쪽. 狗站은 元代 黑龍江 지역 狗兒國 및 그 부근에 설치했던 驛站을 의미한다. 이들 驛站에는 일반적으로 각각 站民 20戶, 개(狗) 200여 마리, 개가 끄는 수레 등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여러 마리의 개를 이용하여 짐 등이 실린 수레를 수송하였다. 즉 이 지역에서는 개가 4계절 모두 교통 및 운송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40) 『明實錄』永樂 7年 閏 4月 己酉.

41) 『明史』卷76 職官5.

설치되었지만 그곳에 군사가 파견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黑龍江 지역은 넓고 상주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활동하던 奴兒干都司가 女眞 지역의 모든 衛所를 관할할 수는 없었으며 女眞衛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와 「重建永寧寺碑記」 두 비기를 통해 보면 奴兒干은 黑龍江 하류 恒滾河 彙合口 東岸의 特林 분지로 변방에 치우쳐 있고 내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며 해당지역의 부족들도 분열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복잡하였다.⁴²⁾ 더구나 그 지역에는 野人女眞, 吉列迷, 苦夷 등이 있는데, 말을 重譯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며 초무하지 않으면 복종시킬 수 없고, 배를 타지 않으면 그들 지역에 이를 수도 없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 따라서 자연적으로 약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고 그 지역을 지배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은 奴兒干都司가 그 지역의 많은 女眞衛所를 관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奴兒干都司와 女眞衛所의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女眞衛所와 明 사이에 행해졌던 朝貢과 交易 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明代 각 羈縻衛所와 明朝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주로 朝貢과 馬市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女眞 각부의 貢道는 주로 遼東都司 북부에 해당하는 開原을 통해 들어와 山海關을 지나 入京하였으며 兀良哈 3衛 등은 喜峰口를 통해 京師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京師의 반대방향에 위치한 黑龍江 下流의 奴兒干都司를 경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奴兒干都司와 女眞衛所가 접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明朝는 遼東의 開原, 廣寧, 無順 등에 馬市를 개설하여 黑龍江, 松花江 등 女眞 諸部나 兀良哈 3衛 등과 빈번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馬市는 기본적으로 교환무역이자 明朝가 기미정책을 유지하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朝貢互市에서 상당부분 撫賞을 실시하였다.⁴⁴⁾ 결국 奴兒干都司와 각 女眞衛所는

서로 예측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요동 북부의 兀良哈 3衛는 奴兒干都司보다도 22년이나 빠르게 설치되었던 것이다. 兀良哈 3衛를 奴兒干都司 屬下의 衛로 설명하는 주장은 많은 고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⁴⁵⁾

IV. 遼東都司의 奴兒干都司 吸收와 朝鮮

1. 奴兒干都司의 衰退와 遼東都司로의 吸收

奴兒干都司가 여진위소들에 대해 관할권과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앞서 밝혔지만 奴兒干都司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독립적인 권력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遼東都司에 종속된 임시 기구였다면 朝鮮과 女眞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朝鮮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시에 여진을 둘러싼 朝鮮과 明의 각축에서 奴兒干都司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奴兒干都司가 물력과 인력 등 奴兒干都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체 수급하거나

44) 『明實錄』 永樂 元年 11月 辛丑.

45) 奴兒干都司와 兀良哈 3衛 建州 3衛와 같은 羈縻衛所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략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奴兒干都司와 羈縻衛所를 종속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楊道賓은 「海建二酋逾期違貢疏」에서 奴兒干都司를 설치하여 衛所 204개를 통할하였는데, 地面 城站이 58곳이었다고 하였다. 또 姚希孟은 「建夷授官始末」에서 건주 등 184衛를 세우고 奴兒干都司가 이를 통할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奴兒干都司와 羈縻衛所를 비종속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姚巖叢의 『殊域周咨錄』은 “衛 184곳, 所 20, 站과 地面 각각 7곳이며 그 추장을 뽑아 族目으로 삼고 指揮, 千百戶, 鎮撫 등의 관직을 내렸다. 다시 흑룡강 지역에 奴兒干都司를 세워 都督, 都指揮 등의 관직을 두었는데, 각 衛所와는 서로 통할하거나 예속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 奴兒干都司와 羈縻衛所를 병렬관계로 보는 견해로, 종속관계를 불명확하게 말하는 경우이다.

42) 「重建永寧寺碑記」, 『滿洲金石志』, 1976.

43) 위의 책.

중앙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았다면, 奴兒干都司의 女眞 내지 朝鮮에 대한 영향력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遼東都司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奴兒干都司의 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奴兒干都司의 주요 관리들은 遼東都司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奴兒干都司의 핵심인물인 康旺과 王肇舟는 원래 遼東都司 東寧衛의 관리이며, 佟答刺哈 역시 三萬衛의 관리이다. 그들은 누차 奴兒干都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초무를 진행할 때 奴兒干都司를 구성하고 지휘하는 최고의 관리들이었으며 돌아온 후에는 다시 遼東都司 소속 각 衛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宣德 2년(1427) 9월 康旺 등은 奴兒干都司에 여러 차례 파견된 것을 인정받아 승직되고 상도 받았는데, 『明實錄』에는 “遼東都指揮同知 康旺을 都指揮使로, 都指揮僉事 王肇舟와 佟答刺哈를 都指揮同知로 승직시킨다”라고 기록돼 있다.⁴⁶⁾ 이때 康旺과 王肇舟, 佟答刺哈 등은 이미 遼東으로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遼東都司의 관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宣德 5년(1430) 12월에는 몽골 기병이 遼東都司 북부인 開原을 약탈하자 당시 備御都指揮 鄒溶이 指揮 吳禎과 都指揮 佟答刺哈를 파견해 몽골인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았다. 이 당시 佟答刺哈는 이미 遼東의 三萬衛로 돌아와 그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備御都指揮 鄒溶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奴兒干都司의 중요한 관리들이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 두 곳에서 모두 관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奴兒干都司에 파견된 軍士 역시 遼東都司로부터 파견되었다. 두 비문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永樂 9년(1411)에 奴兒干에 도착한 관군이 1,000여 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護印兵 200여 명이 있었다. 즉 800여 명은 초무 등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護印兵 200여 명은 한동안 남아서 호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遼東都司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는 遼東都司로부터 징발된 군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여 명이 부족하다는 보

고를 받고 다시 遼東都司는 병사 300여 명을 증원하여 奴兒干都司에 가서 印을 보호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시 康旺에게 칙서를 내려 2년 후에 돌아오라고 하였다.⁴⁸⁾ 奴兒干都司의 護印을 위한 士兵은 遼東都司로부터 輪番에 따라 파견되었으며, 그 시기는 대략 2년 주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遼東志』의 ‘間歲相沿領軍’의 기록과도 서로 부합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실제로 2년의 윤번식 주둔기간은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었던 듯하다. 대개 奴兒干都司 건립 초기인 永樂年間에는 이러한 기록이 보이지만 奴兒干都司의 기능이 약화되는 宣德時期에는 護印을 위한 군사 파견이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護印兵 역시 실제 康旺 등 遼東都司에 소속된 군사로부터 충당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康旺 등이 遼東으로 돌아온 후 이들 護印兵들 역시 遼東의 衛所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이다.

奴兒干都司가 필요로 하던 군량과 기타 생활필수품 역시 대부분 遼東都司의 계획하에 지원되었다. 亦失哈, 康旺 등은 매년 奴兒干都司로 갈 때마다 대규모의 遼東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宣德 6년(1431) 北京으로 가던 조선 관리에 의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遼東에서 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⁵⁰⁾ 군량을 수송할 선단을 구성하기 위해 遼東都指揮 劉淸은 일찍이 永樂 18년, 洪熙 원년, 宣德 7년 3차례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건조하였는데, 亦失哈와 康旺 등이 奴兒干都司에 가기 전에 철저한 수송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奴兒干都司를 구성하는 관리들의 봉급도 遼東都司에서 지급되었다. 奴兒干都司의 중요 관리였던 佟答刺哈는 승직하여 都指揮同知에, 王肇舟 역시 都指揮同知로 승직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都指揮同知 벼슬을 가지고 있었지만, 奴兒干都司가 遼東都司에 종속된 임시 기구였기 때문에 내지의 都指揮同知와 동일한 녹봉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녹봉

46) 『明實錄』 宣德 2年 9月 丁亥.

47) 『明實錄』 宣德 5年 12月 壬午.

48) 『明實錄』 永樂 12年 閏 9月 壬子.

49) 『遼東志』 卷9 外志.

50) 『朝鮮王朝實錄』 文宗 卽位年 12月 甲戌.

규정에 都指揮同知는 종2품으로 576석의 녹봉이 책정되어 있었으나⁵¹⁾ 실제 이들이 받은 녹봉은 副千戶나 百戶에 해당하는 192석이나 120석 정도만을 받을 수 있었다.⁵²⁾ 奴兒干都司의 軍士들에게 보내는 運糧 역시 遼東都司에서 지출되었으며,⁵³⁾ 奴兒干으로부터 돌아온 관군에 대해서는 賞賜가 행해졌는데, 역시 遼東都司로부터 지급되었다.

宣德 4년(1429) 12월에는 선박 건조의 어려움, 소비의 과다, 실익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亦失哈 등 奴兒干都司에 파견 나가 있던 군사들 다시 遼東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였다.⁵⁴⁾ 다음 해에는 松花江 유역의 선박제조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거선을 이용해 黑龍江으로 진출하던 明의 奴兒干 지역 초무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곧 宣宗은 遼東總兵官 都督僉事 巫凱, 遼東都司 都督僉事 王眞, 鎮守太監 王彥과 院堯民 등에게 칙서를 보내 말하길,

采捕, 造船, 運糧 등의 일은 모두 정지시키고, 가지고 갔던 것들은 모두 遼東의 창고로 옮기며, 파견되었던 내외관원들은 모두 回京시켜라. 그리고 관군 등은 각각 衛所로 보내 역에 종사하게 하라.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군사들을 격려하고 훈련을 엄히 하여 변강을 잘 방어 하라.⁵⁵⁾

라고 하였다. 奴兒干都司 활동을 정지시키라는 칙서는 遼東總兵官, 鎮守太監, 遼東都司 관원에게 내려진 것이다. 奴兒干都司의 관원, 예를 들어 康福, 佟勝, 王貴 등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이것 역시 바로 遼東都司의 奴兒干都司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 奴兒干都司의 중요한 관리이던 康福, 佟勝, 王貴 3명은 遼東都司에서 그 선대의 관직

을 계승하고 있었다.⁵⁶⁾ 실제 그들은 土官이 아니라 流官이었지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습직이 허용되었으며, 奴兒干都司의 관직과 이름을 습용하였지만 오히려 遼東都司에 소속된 관직에 임용되었다.⁵⁷⁾ 이를 통해 宣德年間은 松花江 유역에서 초무를 위해 진행되던 巨船 제작 작업 및 黑龍江 유역으로의 초무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그 관리들도 모두 遼東都司의 구성원으로 전환하여 奴兒干都司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킨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宣德年間 이후에 등장하는 ‘奴兒干’이라는 명칭은 정치적인 실체가 아니라 지리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그 지역에 설치되는 衛所들도 奴兒干都司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奴兒干都司가 유지된 기간 중 ‘都司’의 이름은 유지하였지만 遼東都司에 종속되어 있었고, 遼東都司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에 맞는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서술을 종합해 보면 奴兒干都司는 遼東都司의 관리와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奴兒干都司는 일종의 遼東都司의 임시 파견기구에 불과하였다는 결론이 가능하게 된다.

2_ 奴兒干都司와 朝鮮

奴兒干都司가 쇠퇴하여 遼東都司로 흡수된 상황은 朝鮮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奴兒干都司는 임시 초무기관으로 있다가 쇠퇴하였기 때문에 豆滿江 유역의 女眞衛所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었고 朝鮮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단지 奴兒干都司가 黑龍江 하류 지역에 설치된 15개의 驛站을 관리한 흔적은 보이는데, 주요한 임무 역시 그 지역의 토

51) 李東陽等 敕撰, 『大明會典』 卷118 兵部 1.

52) 『明實錄』 宣德 8年 閏8月 己卯.

53) 『明實錄』 宣德 2年 9월 乙巳.

54) 『明實錄』 宣德 4年 12월 壬辰.

55) 『明實錄』 宣德 10年 正月 甲戌.

56) 『明實錄』 宣德 6年 6月 癸丑; 同年 10月 乙未; 宣德 8年 閏8月 己卯.

57) 『明實錄』 宣德 10年 10月 乙卯. 예를 들어 康福은 ‘守備鐵嶺衛奴兒干都司都指揮同知’로 ‘鐵嶺衛都指揮’라고도 하였으나 守備鐵嶺衛가 실제 관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奴兒干都司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內官 亦失哈는 宣德年間 遼東都司의 鎮守太監이 되었다.

산물을 확보하는 등 임시 군사기구로서의 활동이 전부였다.⁵⁸⁾ 이것은 곧 豆滿江과 鴨綠江 유역의 女眞衛所와 奴兒干都司는 종속성과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鮮과 奴兒干都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찰하기 보다는 奴兒干都司의 문제가 여진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였던 明의 다른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 종합적인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여진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明과 朝鮮의 갈등의 본질, 奴兒干都司 한계, 明 요동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奴兒干都司의 성격을 이해하고 朝鮮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永樂年間 朝鮮과 明 사이에 전개되었던 여진관할권의 문제이며 그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11處 女眞의 문제이다. 永樂帝는 松花江과 奴兒干 지역으로 진출하며 여진위소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豆滿江 유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던 11處 女眞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⁵⁹⁾ 明의 칙서가 도착한 朝鮮 太宗 4年은 永樂 2年(1404)으로 奴兒干都司 설립 결정을 내리기 전이지만 奴兒干衛가 설치되는 시기로 이미 奴兒干 지역에 대해 明의 진출 계획이 진행되었고 또한 여진 지역에 많은 女眞衛所가 설치되어 가던 시기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지역의 여진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황제의 勅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明이 女眞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매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여진인의 반발과 함께 더욱 중요한 사실은 10처 女眞을 衛所로 귀속시키겠다는 明의 입장에 대해 朝鮮 역시 10처 여진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는 점이다. 朝鮮은 啓稟使 藝文館提學 金瞻을 경사에 보내어⁶⁰⁾ 朝鮮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조사해 보건대, 東北地方은 公嶮鎮으로부터 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 등 고을이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遼나라 乾統 7년에 東女眞이 亂을 일으켜서 咸州 이북의 땅을 빼앗아 웅거

하고 있었는데, 高麗의 睿宗이 遼에 告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군사를 보내어 회복하였고, …… 女眞의 人民이 그 사이에 섞여 살아서, 각각 方言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지어 吉州를 ‘海陽’이라 칭하고, 端州를 ‘禿魯兀’이라 칭하고, 英州를 ‘參散’이라 칭하고, 雄州를 ‘洪肯’이라 칭하고, 咸州를 ‘哈蘭’이라 칭하였습니다. 至正 16년에 이르러 恭愍王이 元나라 조정에 申達하여 모두 革罷하고, 公嶮鎮 이남을 本國에 還屬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관할하여 다스렸습니다.

洪武 21년 2월에 戶部の 咨文을 받았는데, 戶部侍郎 楊靖 등 관원이 太祖高皇帝의 聖旨를 欽奉하기를, “鐵嶺 以北·以東·以西는 원래 開原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軍民을 그대로 遼東 관할에 소속시키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즉시 上項의 사건으로 인하여 陪臣 密直提學 朴宜中을 보내어 表文을 받들고 朝廷에 가서 호소하여 公嶮鎮 이북은 遼東에 환속하고, 公嶮鎮 이남에서 鐵嶺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當年 6월 12일에 朴宜中이 京師에서 돌아와서 禮部의 咨文을 받아 보니, 本部尙書 李原明 등 관원이 當年 4월 18일에 聖旨를 欽奉하기를, “鐵嶺의 일로 인하여 王國에서 말이 있다” 하시고, 전과 같이 관리를 정하여 관할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欽差하신 東寧衛千戶 王脩가 가지고 온 勅諭를 받들어 보니, “參散·禿魯兀 등처의 女眞 지역 官民人 등을 招諭한다” 하셨습니다. 상고하건대, 參散千戶 李亦里不花 등 10처 人員이 비록 女眞人民에 속해 있기는 하나, 本國地面에 와서 생활한 것이 오래되었고, 胡人 納哈出 등의 군사와 倭寇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凋殘하여 거의 다 없어지고, 그 遺種의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없으며, 또 본국의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賦役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臣의 祖上이 일찍이 東北地面에 살았으므로, 玄祖 李安社의 분묘가 현재 孔州에 있고, 高祖 李行里와 祖 李子春의 墳墓가 모두 咸州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小邦이 聖朝를 만난 이래로 여러 번 高皇帝의 詔旨를 받았사온데, 化外를 구분하지 않고 一視同仁하였으며, 또 聖朝의 戶律 內의 한 조목에 준하면, “홍무(洪武)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流移하여 일찍이 그곳의 戶籍에 登載되어 賦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小邦은 이미 同仁의 가운데에 있사옵고, 公嶮鎮 이남이 또 高皇帝의 ‘王國有辭’라는 명령을 입었사오니, 그곳에 살고 있는 女眞遺種의 人民들을 本國(朝鮮:역자 주)에서 전과 같이 관할하게 하시면 한 나라가 다행하

58) 『明實錄』 宣德 5年 8月 庚午.

59)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4月 甲戌.

60) 『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5月 己未.

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陪臣 藝文館提學 金瞻을 보내어 奏本과 地形圖本을 받들고 京師에 가게 하여 奏達합니다.⁶¹⁾

위와 같은 조선의 주장이 명에 전달된 이후 명은 결국 10처 여진 지역을 朝鮮의 관할로 인정하였다.⁶²⁾ 明代에 대외정벌과 원정을 가장 활발히 하고 女眞衛所 건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永樂帝가 대외진출의 대상지역인 10처 여진 지역의 관할권을 왜 朝鮮에 쉽게 넘겨준 것일까. 명이 10처 여진을 넘겨 준 이유를 알기 위해 朝鮮이 명에 올린 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鐵嶺의 위치이다. 鐵嶺의 위치에 대해 중국의 연구 성과들은 모두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료 곧 『全遼志』, 『遼東志』 등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옛날에 鐵嶺城이 있었는데, 이 鐵嶺城은 지금의 鐵嶺衛(遼東都司 소속 鐵嶺衛로 현 遼寧省 鐵嶺市)에서 동남 500리 지점이며, 이곳은 高麗와 接境 지역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⁶³⁾ 이 鐵嶺城 지역이 洪武 21년(1388) 鐵嶺衛를 처음 설치하려던 지역이었으나,⁶⁴⁾ 결국 설치되지 못하고 洪무 26년(1393) 현 위치(鐵嶺市)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로써 추론해 보면 ①洪武年間 高麗와 명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鐵嶺衛의 위치가 지금의 遼寧省 鐵嶺市에서 대략 동남쪽 500리 정도의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00리의 거리가 제시되었으므로 鴨綠江을 넘어 朝鮮지역에 위치할 수 없으며, 더구나 1,000리가 넘을 수도 있는 江原道 북부는 鐵嶺衛의 초설지가 될

61)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5月 己未.

62)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10月 己巳.

63) 『遼東志』卷1 地理; 『全遼志』 권1 沿革, “鐵嶺衛在遼陽城北二百四十里, 古有鐵嶺城, 在今衛治東南五百里, 接高麗界, 洪武二十一年, 置衛于彼, 二十六年徙今治”.

64) 鐵嶺衛의 위치에 대해서는 輯安(黃城), 江界, 함경도 鐵嶺, 奉集 등 논쟁이 많았으나, 박원호는 그의 논문 「鐵嶺衛의 位置에 대한 再考」(2006.11, 『東北亞歷史論叢』 13호)에서 衛所制의 특징과 군사 숫자, 둔전 경영의 특징상 강원도 북부에 해당하는 鐵嶺은 초기 계획된 鐵嶺衛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明史』·『明實錄』·『遼東志』·『全遼志』 등의 사료를 분석하여 명군이 처음 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은 黃城이며, 江界에까지 가서 초무활동을 벌이다가 奉集으로 철회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鐵嶺衛의 문제는 三萬衛와 더불어 14세기 遼東과 동아시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수 없다는 것을 明代 史料인 『全遼志』와 『遼東志』가 증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公嶮鎮 이남에서 鐵嶺까지'라고 하였으므로 公嶮鎮은 위치상 鐵嶺 이북이 되며 지금의 吉林省 어디쯤이 될 것이다. ②洪武 21년 2월에 戶部侍郎 楊靖 등이 받아들인 戶部의 咨文 속에, '鐵嶺 이북·이동·이서는 원래 開原(元代 開元路)의 관할에 속하였으며 ③또한 洪武年間 明이 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할 때 朝鮮에서 公嶮鎮 이남에서 鐵嶺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明 太祖가 朝鮮의 요청대로 公嶮鎮 이남에서 鐵嶺지역을 전과 같이 朝鮮에서 관할하여 다스리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公嶮鎮으로부터 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 등 고을이 모두 朝鮮의 땅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 지역이 明 初期 나하추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지역의 위치 역시 松花江 이남, 豆滿江, 그리고 咸境道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奴兒干都司와 관련하여 설명하면, 洪武年間은 鴨綠江과 豆滿江을 明의 遼東都司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를 시도 하였지만 결국 의도대로 시행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요동 북부의 정세가 위급하여 鐵嶺衛와 三萬衛를 遼東都司 북부 변방에 해당하는 鐵嶺과 開原으로 흡수하여 遼東都司 25衛 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女眞地域을 자국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체제가 갖추어진 永樂年間에 와서야 松花江, 黑龍江 지역으로 그 관할범위를 확대하여 다시 진출하고자 奴兒干衛를 설치하고 豆滿江 유역의 10처 女眞을 조선과 분리해 명에 편입시키는 등의 적극적 계획이 추진되다가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奴兒干衛를 奴兒干都司로 승격시켜 黑龍江 하류까지 진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永樂年間 明은 5차례의 몽골침정을 추진하는 중이었고, 성공적인 몽골정벌을 위해 여진지역에 위소를 설치하고 奴兒干都司를 통해 흑룡강 지역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女眞 지역보다 장성 지대 및 요동 북부의 방어와 정비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을 여진지역에 집중할 수 없었다. 따라서 奴兒干都司를 설치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都司에 해당하는 체제를 갖

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진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明의 위소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여진세력을 제압할 만한 대규모의 군사력을 증파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奴兒干都司 역시 필요에 따라 군사를 파견하여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등 임시적인 임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明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북진정책을 추진 중이던 朝鮮이 明과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의 女眞을 놓고 무력으로 충돌을 벌일 경우 여진초무에 朝鮮이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高麗末의 요동공벌과 같은 새로운 위기감을 가져오는 등 明에 유리할 것이 없었다. 따라서 明은 公嶮鎭 서쪽 중에서 遼東都司 가까운 지역의 建州女眞 등과 자주 접촉을 하며 회유가 가능하였지만, 公嶮鎭을 기점으로 그 남쪽지역과 동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10처 여진지역은 그 영향력의 부족으로 朝鮮에 관할권을 넘겨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明은 永樂年間 奴兒干都司를 설치하는 등 여진지역으로 대대적인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역시 公嶮鎭 서쪽과 豆滿江 지역, 그리고 黑龍江 지역을 明의 판도 안으로 만들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奴兒干都司는 遼東都司와 같이 상설기구로 확대될 수 없었으며 필요에 따라 永樂~宣德年間 10여 차례 군사적 초무를 하거나 사신의 보호, 해동청, 모피 등의 공물을 운반하는 등 내지와는 전혀 다른 임시 기능만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明初의 상황은 明代 '遼東'의 지리적 개념을 遼東都司와 25衛 방어선 내부지역에 한정되어 많이 지칭하는 것으로 고정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女眞의 성장에 따른 奴兒干都司의 衰退와 遼東都司로의 編入 그리고 朝鮮과 女眞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奴兒干都司의 쇠퇴 이후에 女眞地域에 설치된 建州衛를 포함한 모든 衛所 역시 '外夷衛所'로 기록함으로써 女眞을 明에 종속되지 않은 '外夷'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洪武年間 논쟁이 된 鐵嶺衛, 三萬衛 지역과 公嶮鎭 이남 11處 女眞地域을 明이 쉽게 포기한 이유, 奴兒干都司의 都司로서의 구조적 결함과 遼東都司로의 흡수, 女眞地域에 있던 東寧衛·遼海衛·自

在州·安樂州 등의 遼東都司로의 縮小統合 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女眞地域을 판도 밖의 '外夷' 지역으로 기록한 것은 어찌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⁶⁵⁾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奴兒干都司는 永樂年間 奴兒干衛로 설치될 때부터 黑龍江 하류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奴兒干都司가 된 이후에도 奴兒干衛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明이 여진 지역으로 진출한 배경에는 명 초기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우선 明初 해결해야 할 최대의 문제인 몽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였다. 奴兒干都司는 黑龍江 유역의 女眞招撫 등 이외에도 몽골 親征에 따른 배후의 안정적 세력의 확보라는 명의 전략적 의도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 확보를 통한 朝鮮의 견제와 여진세력의 회유 등도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명 초기의 상황은 明이 洪武年間부터 遼東都司를 발판으로 여진지역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洪武年間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 시도는 朝鮮을 견제하고 여진을 회유하려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洪武年間の 시도는 모두 좌절되어 결국 鐵嶺衛와 三萬衛 등은 여진지역에서 철퇴되어 遼東都司 북부에 해당하는 鐵嶺과 開原으로 이전되는 대외 확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곧 洪武年間は 遼東都司와 25衛 체제를 강화하고 遼東 북부의 방어력을 강화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진출의 노력은 建文帝를 폐위하고 즉위한 永樂年間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다수의 여진위소 건립, 10處 여진인 요구, 奴兒干都司의 설치 등은 그

65) 『遼東志』 外志.

러한 대외 진출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도한 10處 女真人 귀속문제는 朝鮮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북방정책의 결과 朝鮮의 관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진지역에 다수의 衛所를 설치하였지만 여진사회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은 거시적으로 보면 여진세력의 성장과정이었다. 明이 세운 女眞衛所들은 기본적으로 여진 부락을 기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지의 衛所와 같이 군사적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었으며 明에 일방적으로 종속될 수도 없었다. 여진에 대한 명대의 기록 역시 모두 그들을 관할 밖의 '外夷'로 기록하고 있으며, 明이 여진지역에 설치한 衛所 역시 內地의 衛所와 분리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明의 관할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奴兒干都司 역시 黑龍江 하류에 설치되었으나 遼東都司와 같이 都司體制를 갖추거나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필요에 따라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 군사기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결국 明 前期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遼東都司에 흡수되었다.

奴兒干都司가 임시 군사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우선 지리적인 여건을 들 수 있는데, 奴兒干都司는 黑龍江 하류, 즉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며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滿洲의 極邊에 위치함으로써 松花江, 豆滿江 등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된 女眞衛所를 관할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奴兒干都司는 내지의 都司와 달리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奴兒干都司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두 자료인 「敕修奴兒干永寧寺碑記」와 「重建永寧寺碑記」를 분석해 본 결과 奴兒干都司는 內地의 都司와 같이 많은 관리들이 상주하거나 파견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奴兒干都司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무관직과 다수의 군사를 제외하면 1官 1吏가 파견되었고 招撫 이외에 納貢, 문서의 전달과 관리, 사신의 호송 등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곧 내지처럼 斷事司나 司獄司 같은 행정과 사법기관을 두지 않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간단한 임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奴兒干都司는 기본적으로 내지의 都司와 같은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遼東都司로부터 관리와 士兵의 파견, 군량과 기타 생활필수품의 지원, 관리와 군사들의 녹봉의 지급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들은 奴兒干都司의 위치가 遼東都司의 임시 파견기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明 前期 이러한 상황들은 奴兒干都司의 采捕, 造船, 運糧, 招撫, 歸化 등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奴兒干都司의 군사적 활동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奴兒干都司는 遼東都司에 흡수되었고, 豆滿江·鴨綠江·黑龍江·松花江 등 여진지역을 판도로 귀속시키려던 明의 계획을 힘들게 만들었다. 明은 여진지역을 그들의 판도로 만들 수는 없었으며 '版圖外'의 지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奴兒干都司의 衰退는 여진지역 관할의 실패이자 遼東都司의 대외적 팽창의 한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遼東都司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邊牆 중심의 방어체제로 전환해 방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명 중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다. 正統年間 明은 이미 적극적인 초무정책을 포기하고 소극적인 城堡와 邊牆 중심의 방어정책으로 전환하였고, 奴兒干都司 설치 시기와 같이 몽골이나 여진지역에 진출하여 대대적인 군사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奴兒干 지역을 비롯한 女眞地域이 이미 明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遼東都司 역시 奴兒干都司를 흡수하였지만 遼東에 대한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 衛所兵의 도망, 둔전 생산량의 점진적인 감소, 관리들의 토지침탈 등 遼東都司 모순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遼東都司의 약화와 대외적인 몽골과 女眞의 성장은 朝鮮과 明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明은 이러한 변방의 위기에 직면하여 明 初期에 형성된 遼東都司 방어선을 邊牆體制로 전환하여 遼東邊牆을 수축하였다.

수축된 遼東邊牆은 遼東都司의 방어선인 동시에 국경선이 되었다. 곧 奴兒干을 포함한 女眞地域은 邊牆 밖에 위치하므로 明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판도 밖의 지역이 되었다. 奴兒干都司의 衰退 등 몽골과 여진 지역으로의 진출이 좌절된 결과 수축된 明의 遼東邊牆은 遼東都司의 시각에서 보자면 遼東都司의 방어울타리이지만, 몽골·女眞·朝鮮에서 보자면 바로 국경선이었다. 遼東邊牆이 國境線이라는 것은 영토사적 관점에서 朝鮮과 관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곧 鴨綠江~連山關, 鴨綠江~鳳凰城 사이의 遼東八站 使行路 지역과 遼東邊牆 東4門 지역(鳳凰城堡, 靉陽堡, 新安堡, 麟場堡) 등은 朝鮮과 明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였으며, 遼東邊牆의 중요 關門이자 국경 邊門이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바, 明과 朝鮮 사이에 鴨綠江과 豆滿江이 국경선이라는 것과 明代 여진지역이 明의 版圖였다는 주장이 재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明代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明·清代의 사료들은 朝鮮과의 경계를 표시할 때 靉陽堡, 鳳凰城堡, 遼東邊牆 등 遼東邊牆의 柵門을 女眞 또는 朝鮮과의 邊界, 즉 국경으로 기록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사료들은 변장 밖의 女眞衛所들을 '外夷'로 기록하고 遼東邊牆을 '臨境', '通賊道路', '邊界', '邊門', 곧 國境과 접한 것으로 기록하여 女眞과 몽골을 賊으로, 邊門을 국경출입문으로 서술함으로써 女眞을 明에 종속되지 않은 세력으로, 여진 지역을 판도 외의 지역으로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明初에 일어났던 奴兒干都司의 衰退는 여진 지역으로의 진출 좌절,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의 포기 등 明 여진정책의 문제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明의 여진지역에 대한 지배력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明初에 형성된 滿洲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清代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明初 遼東과 여진 지역의 상황은 明·清代 滿洲를 연결하여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의 형성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cline of Nuergandusi(奴兒干都司) in the early Ming Dynasty

Nam, Eui-Hyeon

Nuergandusi(奴兒干都司)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dusi(都司, Regional Military Command) but it could not maintain its form during Ming dynasty. It was set up by Yong-le emperor(永樂帝) in order to stabilize the Hei-long river(黑龍江) region through subjugation and appeasement over Meng-gu(蒙古) and Jurchen that settled around Song-hua and Hei-long river. But Nuergandusi failed to enlarge the function and control over Jurchens(女眞) after Yong-le.

The records about Nuergandusi had decreas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regime of Yong-le emperor, and many Jurchen wei-suo, under the control of Nuergandusi, remarkably reduced the number of bring a tribute to Joseon(朝鮮). It was impossible for Nuergandusi to govern all the regions except the jurisdiction of Liaodongdusi(遼東都司, Regional Military Command), because it was set up on the a remote region in Liadong. Rather it is reasonable that Nuergandusi managed the officials of Jurchens Wei-suo(衛所) around Song-hua(松花) and Hei-long river(黑龍江). The important duty of Nuergandusi is to guide and protect a envoy who was sent to Jianzhou Jurchens(建州女眞) or deliver a document.

There are no traces that many troops stably stationed in Nuergandusi, rather about two hundreds of soldiers who were

dispatched from Liaodongdusi. In other words, there are no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Nuergandusi, and it's function had the power of influence in the regime of Yong-le emperor.

In the regime of Xuan-de(宣德) emperor, the control power over Jurchens became weak and also there was no more having influence and control power over Meng-gu. Yong-le emperor tried to subjugate Meng-gu and gave them a blow. But he could not extinguish them. Both the growth of Jurchens and Meng-gu in Nuergandusi region made Nuergandusi difficult to perform the function.

Ming's frontier policy was changed from positive subjugation to passive defence. As a result, Ming dynasty could not restore Nuergandusi any more.

keywords

Nuergandusi(奴兒干都司), Liaodongdusi(遼東都司), Hei-long river (黑龍江), Jianzhou Jurchens(建州女真), Joseon(朝鮮), Wei-suo(衛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華音啓蒙』을 통해 본 개항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

이 재 정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조교수

I. 머리말

본 연구는 1883년(고종 20) 간행된 中國語 會話教材 『華音啓蒙』을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어학교재 속에는 그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제상황이나 시대상에 대한 정보가 녹아 있으며, 나아가 저자나 독자의 가치관과 시대인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華音啓蒙』에 대한 연구는 중국어와 국어사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을 뿐 이 텍스트를 역사적 시각으로 조명한 예는 없었다.

『華音啓蒙』은 어학교재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교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기존의 중국어 교재가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만큼, 교재 내용 자체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華音啓蒙』은 조선시대에 줄곧 사용되었던 『老乞大』나 『朴通事』와 달리 저자와 간행 연대가 분명한 자료이다.

이에 본 연구는 『華音啓蒙』의 저자와 간행 배경, 수록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華音啓蒙』의 간행 의미를 파악하고, 개항기를 전후하여 변화된 시대상이

『華音啓蒙』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 텍스트가 갖는 역사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II. 『華音啓蒙』의 사료적 가치

『華音啓蒙』은 고종시대의 역관 李應憲이 1883년(고종 20) 편찬한 중국어 회화교재이다.²⁾ 상·하 2권 1책으로 이루어졌으며 1816년(순조 16) 朴宗慶이 만든 금속활자인 畵字로 인쇄하였다. 奎章閣檢校直閣知製 尹泰駿이 쓴 서문이 실려 있으며, 부록으로 「千字文」과 「百家姓」, 「華音正俗變異」가 있다.

현재 '光緒 9년 癸未印出'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는 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華音啓蒙諺解』라는 책도 전하는데, 본문과 부록의 한자 아래 중국 白話文의 발음을 한글로 달아 놓았다. 내용은 『華音啓蒙』과 같으며 부록을 제외하고 본문만 언해하였다. 언해는 원문 뒤에 한자와 한글을 혼용

1)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때는 『華音啓蒙』 간행을 전후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항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고종이 親政을 시작한 1873년부터 1880년대 전반기까지를 그 범위에 넣었다.

2) 『華音啓蒙』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로는 최은희, 2002, 「〈華音啓蒙〉과 〈華音啓蒙諺解〉의 중국어 어문체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이성란, 2002, 「〈華音啓蒙諺解〉에 나타난 19세기 중국어음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栗田諭, 2005, 「〈老乞大〉와 〈華音啓蒙諺解〉에 나타난 언해양상 연구」, 서울대학교석사논문; 정향숙, 1998, 「『華音啓蒙』의 虛詞와 句法結構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박신영, 1999, 「『華音啓蒙諺解』의 韓語 語音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김영심, 2004, 「『華音啓蒙諺解』의 어법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논문; 汪維輝, 2002, 「朝鮮時代漢語教科書與近代漢語研究」, 『인문과학』 84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王清棟, 2001, 「〈華音啓蒙諺解〉에 보이는 近代漢語의 특징」, 『중국학논총』 제14집, 고려대중국학연구소; 姜信沆, 1980, 「『華音啓蒙諺解』 내 자음의 음계」, 『동방학지』 23·2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등이 있다.

하였으며 언해문의 한자에는 한자음을 달지 않았다. 이 책 역시 같은 해 이용헌이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와 간행 연대 미상인 목판본 『華語類抄』에도 『華音啓蒙』의 일부가 합철되어 있다. 『華語類抄』는 『華音啓蒙』과 비슷한 시기에 만든 일종의 어휘사전 같은 것으로, 수록된 단어들 중 『華音啓蒙』과 일치하는 것이 많으며, 관직명·지명 등을 볼 때 청대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華音啓蒙』에 대한 주해서로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서 출간한 『華音啓蒙諺解』가 있다.

『華音啓蒙』은 대화체로 이루어진 중국어 회화교재로서 상·하권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老乞大』와 달리 상권과 하권의 등장인물이나 전개되는 내용에서 연관성은 없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상권은 조선인 李老翁과 그 일행이 조선의 王京에서 출발하여 輪船을 타고 天津를 통해 청나라 수도인 北京으로 여행하는 노정을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北京으로 가는 도중 浙江省 출신의 張氏姓을 가진 候補道台와 만나 서로의 인적 사항을 묻고 대화를 나눈다. 張道台와 헤어진 李老翁 일행은 천진에서 北京으로 가는 도중 楊村이라는 마을에 있는 王家店에서 숙박을 한다. 王家店에서 李老翁은 이전 중국에 왔을 때 면식을 쌓았던 중국인 胡氏를 만난다. 李老翁 일행은 胡氏, 胡氏와 함께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胡氏의 친구와 일행이 되어 北京까지 동행한다. 北京에 도착하자 徐通官이라는 중국인 통역이 李老翁 일행을 맞이하여 北京에 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묻고 이에 李老翁은 上海에서 견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朝貢을 위해 北京에 간 사신 金老翁 일행이다. 이들은 상권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달리 北京까지 육로를 이용하고 있다. 鳳凰城에서 수레를 타고 遼東을 지나 1개월 만에 北京에 도착한 사신 金老翁은 北京에서 禮部郎中 王氏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나누며 담소를 한다. 숙소로 돌아온 후 禮部에서 공물을 바치라는 전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부로 가서 공

3) 본고는 『華音啓蒙諺解』(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40-8)를 텍스트로 이용하였으며, 이하 인용한 쪽수는 이 텍스트의 쪽수임을 밝혀 둔다.

물을 바치고, 王大人府를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 한 골동상인이 王大人의 집으로 와 해외에서 가져온 구슬을 감정한다. 이후 왕대인부의 알선으로 골동상은 이 구슬을 매도하기로 한다.

『華音啓蒙』은 지금까지 어학사의 측면에서 근대 중국어 표기법과 근대 한국어 표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華音啓蒙』은 어학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역사 자료로서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華音啓蒙』이 어학교재인 만큼 중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따라서 등장인물이나 상황 등이 가상의 것들이겠지만, 이응헌 자신의 경력이나 집안 배경, 수록 내용을 살필 때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華音啓蒙』의 저자 李應憲은 金山李氏로 1838년(헌종 4)에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16세기 초부터 기술직 중인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16~19세기 동안 많은 기술직을 배출하였다. 특히 김산이씨 집안은 조선 후기에 많은 譯官을 배출하였으며, 잡과 합격자 중 절대다수가 역과에 합격한 전형적인 역관가문이었다.⁴⁾ 이응헌은 1855년(철종 6) 역과에 漢學으로 합격하였다.⁵⁾ 1864년(고종 1) 이응헌은 의주에서 堂下譯官으로 청나라의 弔慰使를 접대하는 일을 맡았다.⁶⁾ 1880년(고종 17) 司譯院 한학의 堂下로 司果⁷⁾였던 이응헌은 通政을 加資받았으며,⁸⁾ 1881년 1월 18일 統理機務衙門의 한학역관에 參使로 임명되었다.⁹⁾ 같은 해 윤 7월 23일에는 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고, 8월 9일에는 신병으로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9월 別看役¹⁰⁾으로 다시 차출되었다.¹¹⁾ 이어 領

選使行을 이끈 金允植이 쓴 『陰晴史』에는 이응헌이 義州 監稅官이라는 직함으로 등장하고 있다.¹²⁾

1883년 10월 24일 이응헌은 감세관으로 재임할 당시 各項의 公貨를 멋대로 축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中和府에 유배당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5일에 방면되었고 12월 28일에는 임명 사령장을 돌려받았다.¹³⁾

1886년 10월 16일에는 進饌所의 別看役に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永平郡守, 1888년 6월 27일에는 新昌縣監, 같은 해 8월 4일에는 殷栗縣監, 1889년 1월 30일에는 免山縣監, 1891년 11월 16일에는 通津府使, 1894년(고종 31) 4월 15일에는 陽智縣監에 임명되었다.¹⁴⁾

이상의 이응헌에 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華音啓蒙』은 이응헌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응헌의 집안인 김산이씨는 조선 후기에 많은 역관을 배출하였으며, 이응헌이 사역원에 재직할 당시에 사역원에는 이미 김산이씨들이 포진해 있었다.

1880년 이응헌이 通政을 加資받을 당시 그와 함께 加資를 받은 사역원 한역 堂上 李應寅과 李應三도 김산이씨로 이응헌과 같은 집안이다. 특히 李應寅은 1857년(철종 8) 書狀官으로 연행사절에 참여하여 직접 중국을 방문하였다.¹⁵⁾ 李應三 역시 1865년(고종 2) 齋咨官으로 北京을 다녀왔으며, 1872년과 1879년에도 首譯으로 北京을 다녀왔다.¹⁶⁾ 역시 김산이씨인 李應昌도 같은 시기 한학역관으로 활동하였다. 1881년 李應浚은 통리기무아문의 역관으로서 齋咨官으로 천진에 파견되었으며 영선사의 통역으로도 활동하였다.¹⁷⁾

4) 김현목, 1999, 「한말 역학생도의 신분과 기술직 중인의 동향」, 『한국 근대이행기 중 인연구』, 신서원, 382쪽; 김양수, 1987, 「조선후기 역관신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71~75쪽. 김양수, 1987, 같은 논문, 5쪽에서는 지방역관에 파견된 자들 중에 주요 역관집안 인물들이 많은데 김산이씨는 두 번째라고 하였다.

5) 『雜科榜目』, 철종 6년 乙卯式(1885).

6) 『承政院日記』, 고종 1년 3월 30일 조.

7) 司果는 조선시대 五衛에 딸린 정 6품의 군직으로 현직에 있지 않은 문무관 및 음관 중에서 뽑았다(법제처 편, 1979, 『고법전용어집』, 법제처 참조).

8) 『日省錄』, 고종 17년 6월 26일 조 및 『承政院朝報』, 고종 17년 7월 6일 조.

9) 『日省錄』, 고종 18년 1월 18일 조.

10)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이를 감독하는 임시 벼슬로 주로 잡직을 지낸 사람에게 맡겼다(법제처 편, 1979, 앞의 책 참조).

11)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윤 7월 23일 조, 8월 9일 조, 9월 11일 조.

12) 『陰晴史』, 하권, 임오 4월 27일.

13) 『日省錄』, 고종 20년 10월 24일 조, 10월 26일 조, 11월 15일 조, 12월 28일 조.

14) 『日省錄』, 고종 23년 10월 16일 조, 23년 11월 9일 조, 25년 6월 27일 조, 25년 8월 4일 조, 26년 1월 30일 조, 28년 11월 16일 조, 31년 4월 15일 조.

15) 『日省錄』, 철종 8년 8월 5일 조, 고종 12년 11월 20일 조.

16) 『日省錄』, 고종 2년 12월 5일 조, 9년 4월 30일 조, 16년 3월 25일 조.

17) 『日省錄』, 고종 18년 7월 22일 조; 『陰晴史』, 상권 신사 10월 11일.

조선시대 연행사절이 파견될 때 정식으로 파견된 관원들 외에 자제군관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¹⁸⁾ 이용헌 역시 이들을 따라 北京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종 원년 고종의 등극을 청하고 청나라에서 돌아온 奏請使가 철종의 승하를 위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방문하는 弔慰使보다 먼저 의주에 도착하므로 주청사들로 하여금 조위사를 접대하도록 한 예가 있는데, 그 속에 이용헌이 포함되어 있다.¹⁹⁾ 따라서 이용헌은 이때 주청사의 일행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華音啓蒙』의 내용이 이용헌의 직접적인 경험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집안 배경이나 경력 등을 통해 볼 때 이용헌은 중국에 대한 풍부한 간접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간접경험들이 『華音啓蒙』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이용헌은 理財에 능하여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교역 등에도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 후기 역관들은 연행사절로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²⁰⁾ 역관들은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관계에 진출하고 신분상승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개항기와 구한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대표적 역관 가문 중 하나인 천녕현씨 가문의 역관 玄采 등은 商標를 발급받아서 上海·蘇州·杭州 등지로 가서 무역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과 부를 바탕으로 구한말 근대화운동에 참여하였다.²¹⁾ 이용헌과 비슷한 시기에 역관이 된 卞元圭 역시 밀양변씨 역관 집안으로, 1880년 7월 9일 무비강구를 위해 別賚咨官의 임무를 띠고 北京에 가 朝鮮國員辯來學製造操練章程의 成案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인 1881년에는 영선사 김윤식의 別遣堂上으로 청나라로 가 김윤식과 이홍장의 회담 시 통역을 맡아보고, 한미

수호통상조약의 필요성을 조선에 알렸다. 조선 조정에서는 여기에 대처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²²⁾

이용헌 역시 역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헌은 義州 監稅官이라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감세관은 1814년(순조 14) 의주에 설치한 관세청²³⁾에 1854년(철종 5)부터 사역원에서 파견한 관리로, 漏稅와 탈법을 막고 세금을 철저히 걷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감세관은 사역원이 차출해 보냈지만 반드시 비변사에서 관문을 발급함으로써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²⁴⁾ 이를 고려할 때 의주 감세관은 연행사절의 경비 등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며, 재부를 축적하거나 경제적 수원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윤식의 『陰晴史』에는

정월 이후 영선사 일행의 飯銀은 北京 玉河館 옆 和豐局에서 빌려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의주 감세관 이용헌과 卞吉雲에게 편지를 쓰게 하여 화풍국에 요청하였으나 柔姓을 가진 화풍국의 주인이 아직 保定 본가에 있어 때가 아니므로 빌려줄 수 없다 하였다. 이 때문에 영선사 일행은 날마다 곤궁하여 사방에서 빛을 얻고 零瑣한 것으로 목전의 급한 것을 구하였다. 또 지난 겨울 이래로 돌아가는 학도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의 왕래하는 경비 역시 임시로 빛을 얻어 구차하게 미봉하였다. 이전에 魚一齋와 상의하여 招商局에서 일만兩을 빌리기로 하였다.²⁵⁾

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이용헌은 의주의 감세관으로서 영선사 일행의 경비에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華音啓蒙』에 등장하는 義豐銀號라든지 上海의 洋行에 대한

18) 조선시대 使行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일환, 2005, 「조선 후기 중국 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참조.

19) 『承政院日記』 고종 1년 3월 30일 조.

20) 유승주·이철승, 2002, 『조선 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참조.

21) 김영경, 1999, 「한말 서울지역 중인층의 근대화운동과 현실인식-역관 천녕현씨가를 중심으로」, 『학림』 20집, 22쪽.

22) 김양수, 1987, 앞의 논문, 108쪽.

23) 의주부 관세청은 순조 14년 의주부윤 吳翰源이 모자 1,000 척의 세전이 감축되자 柵門을 나오는 물화에 대한 과세를 요청하면서 창설되었다(유승주·이철승, 앞의 책, 190쪽).

24) 유승주·이철승, 2002, 앞의 책, 233~234쪽.

25) 『陰晴史』 하권, 임오 4월 27일.

언급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응헌은 의주 감세관 재임 당시 各項의 公貨를 제멋대로 축냈다는 혐의를 받아 中和府에 유배당하였다. 당시 司譯院에서 여러 조칙을 조사해 보니 변명할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유배하였으며 마땅히 징수할 물건은 사역원에서 도로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였다.²⁶⁾ 이응헌의 죄가 순전히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아니면 관례를 따른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이응헌이 이재에 밝아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응헌은 곧 방면되고 이후 지방관으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응헌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곧 방면되고 관직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중인 출신 가운데 재력을 바탕으로 지방관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²⁷⁾

이상 이응헌의 집안과 그 자신의 경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응헌은 중국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華音啓蒙』의 본문 내용 중 곳곳에서 이 책이 간행된 1883년 전후의 상황을 반영한 구절들을 볼 수 있다.

『華音啓蒙』 상권에서 李老爺와 중국인 張道台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는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는 예에 속한다.

請問當今皇太后萬歲爺 聖明德政 布滿四海 問노니 황태후와 황제께 하의 맑고 덕스러운 정치가 사해에 두루 퍼져/ 所以連海外的小邦 都來賓服 해외의 작은 나라도 모두 賓服하니/ 這不是大清家洪福齊天 이것이 대국 청나라의 흥복이 하늘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你們貴國王爺多大寶齡麼 귀국 국왕은 보령이 얼마이시오./ 纔過三十

26) 『日省錄』 고종 20년 10월 24일 조.

27) 김양수, 1994, 「조선 후기 醫官의 現官實職進出 -경기도 수령 등 지방관을 중심으로-」, 『淸大史林』 6호, 청주대학교 사학회; 김양수, 1997, 「조선 후기 중인의 지방관진출 -경기도·충청도 수령안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6쪽 등 참조.

春秋咧 갓 서른을 넘겼습니다.²⁸⁾

『華音啓蒙』이 출간된 1883년 당시 조선 국왕 고종의 나이는 31세였다. 李老爺가 황태후와 황제를 언급하였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황제(만세야)만을 언급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황태후와 황제를 거론하였으며, 그것도 황제에 앞서 황태후가 등장한다. 당시 청조정은 光緒帝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실제로 西太后, 즉 慈禧太后가 섭정을 맡고 있었다. 이 대화는 바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 대화는 『華音啓蒙』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대화이다.

從那裏來呢 어디서 왔소? / 打朝鮮國來咧 조선에서 왔소 / 走咧多少日子麼 얼마나 걸렸소? / 走有十來天的工夫咧 10여 일 걸렸소 / 你們離這裏有二千多里地否咧 그대들은 여기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소 / 幾天的工夫何能到得麼 며칠 만에 어떻게 올 수 있었소? / 如今我們是坐輪船來往的 지금 우리는 운선으로 왕래하므로 / 所以不像從前起早來的時候兒 이전 육지를 통해 오던 때와 같지 않소 / 這就是咧 그렇군요 / 湏不得你們來的快 어찌지 빨리 왔다 했소.²⁹⁾

조선시대 중국을 오가던 사신은 대부분 육로를 통해 왕래하였다.³⁰⁾ 그런데 『華音啓蒙』의 주인공은 운선, 즉 근대식 기선을 타고 중국으로 왔다. 이 역시 당시의 실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에 운선이 도입된 것이 이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1882년 10월 체결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제7조에 양국이 해로를 통해 왕래하기로 하고 조선에는 현재 운선이 없으니 北洋大臣이 잠정적으로 商

28) 『華音啓蒙諺解』 상권 2우-2좌.

29) 『華音啓蒙諺解』 상권 1우-1좌.

30) 연행사의 노정에 대해서는 김태준, 2004, 「연행노정, 그 세계로 향한 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출판사, 47~76쪽; 김효민, 2004, 「연행길 길잡이」,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출판사, 부록 187~227쪽 참조.

局的 운선을 매월 정기로 1차례 왕래하도록 규정하였다.³¹⁾ 이어 1883년에는 ‘輪船來往中國與朝鮮國合約章程’을 체결하여 중국 최대의 기선회사 招商局 소속 기선이 매월 1회 상해와 조선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었다.³²⁾

또한 이 무렵에 이미 운선으로 중국과 내왕한 기록이 등장한다. 1881년 齎咨官으로 중국에 갔던 李應浚이 운선을 탄 경험이 있었으며,³³⁾ 중국에서 신무기를 비롯한 신식문물을 배워 오기 위해 파견된 領選使를 인솔하여 중국에 갔던 金壽錫의 기록에도 운선을 타고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있다.³⁴⁾ 영선사로 파견되었던 李祖淵은 1882년 4월 26일 고종에게 “전달 4일 柵門에 도착하였다가 營口에 이르러 화륜선을 타고 山東의 烟臺를 거쳐 28일 天津에 도착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³⁵⁾ 고종이 청나라 사신 馬建忠 일행을 맞이하여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황제와 황태후의 안부를 물으며 먼 길을 온 노고를 치하하자 馬建忠 일행은 화륜선을 타고 와서 몸에 탈이 없다고 응답하였다.³⁶⁾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華音啓蒙』이 편찬된 1882~1883년 시점에 중국과 조선 사이에 운선이 왕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응헌은 이 점을 중시하여 이러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華音啓蒙』 상권의 주인공 李老爺 일행은 天津에서 北京으로 가는 도중 楊村이라는 곳에 머물고 張家灣을 거쳤으며, 北京에 도착해서는 崇文門으로 들어가 숙소에 들어가는데,³⁷⁾ 이 역시 魚允中의 『從政年表』에 기록된 北京을 오갈 때의 노정과 동일하다.³⁸⁾ 이 외에도 중국에 등장한 洋行과 銀號 역

31) 『中朝約章合編』 중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제7조.

32) 김종원, 1983, 「조, 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그 영향」,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33) 『日省錄』 고종 18년 7월 22일 조.

34) 『陰晴史』 하권, 임오 4월 4일 조.

35)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4월 26일 조.

36)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4월 10일 조.

37) 楊村에서 숙박하는 것은 『華音啓蒙諺解』 5좌, 張家灣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25우, 崇文門으로 들어가서 숙소에 머무는 것은 25우-좌(咱們到京裏住那塊兒, 進崇文門到我們館裏御車罷)에 나와 있다.

38) 魚允中, 『從政年表』 3, 고종 19년 임오 3월 조, “二十一日發向北京, 至楊村六十里宿, 二十二日武清縣河西務七十里中火, 通州張家灣五十里宿, 二十三日北京到着,

시 중국의 실상, 또는 저자가 직접 견문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華音啓蒙』의 저자 이응헌과 그의 집안 배경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중국어 회화교재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단순한 허구에 그치지 않고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실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華音啓蒙』의 간행 배경과 특성

1. 간행 배경 - 새로운 중국어 회화교재의 필요성 대두-

조선시대에는 사대교린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주변국들과의 교류를 위해 역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건국 초기부터 역관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영어교재도 편찬하였다.³⁹⁾

조선시대의 대표적 외국어 교육기관인 司譯院은 1393년(태조 2)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인 偈長壽의 주장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때는 漢學教育, 즉 중국어 교육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종 연간에 이르러 四學이 갖추어져 중국어, 여진어, 몽고어,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다.⁴⁰⁾ 이후 사역원은 외국어 교육

抵北京由崇文門至御河館”.

39) 조선시대 譯學과 譯語教材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강신항, 1966, 「이조시대의 역학정책에 관한 고찰 - 사역원, 승문원 설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 강신항, 1978, 『이조시대의 역학정책과 역학서』, 탑출판사; 강신항, 2000, 『한국의 역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광, 1988, 『사역원 왜학연구』, 태학사; 정광·윤세영, 1988, 『司譯院 譯學書 冊版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정재영, 2002, 「역학서 자료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17호; 안미경, 1990, 「조선조 역학서의 판중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6합집; 박용운, 2005, 「고려시기의 通文館(司譯院)에 대한 검토」, 『한국학보』 31-3은 고려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교육과 그 기구의 변천에 대해 서술하였다.

과 역관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1894년 甲午改革으로 폐지되기까지 지속되었다.⁴¹⁾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은 임진왜란 이후 倭語가 강조되고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淸語, 즉 만주어가 강조되기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학생수도 가장 많았던 것은 한학이었다.

다음으로 중국어 학습 교재에 대해 살펴보자.⁴²⁾ 태조 연간 사역원에 입학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史書, 小學, 吏文, 漢語 시험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史書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을 말하며, 小學은 僕長壽가 당시 중국어로 번역한 『直解小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吏文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사용문체인 漢吏文 지식을 시험 보는 것이고, 漢語는 중국어 회화 능력을 시험보는 것이다.⁴³⁾ 세종 연간에는 한학의 역학서로서 經書에는 『詩經』, 『四書』, 『直解大學』, 『孝經』, 史書로는 『少微通鑑』, 『前後漢書』, 『古今通略』, 初學書로는 『直解小學』, 『童子習』, 『忠義直言』, 會話書로는 『老乞大』와 『朴通事』가 거론되어 있다.⁴⁴⁾

갑오개혁 이전까지 시행된 조선의 제도를 기록한 『經國大典』의 譯學 初試와 覆試의 漢學 시험과목을 보면 초시는 『史書』, 『老乞大』, 『朴通事』, 『直解小學』을 시험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시의 경우 講書는 초시와 같고, 덧붙여 『五經』, 『少微通鑑』, 『宋元節要』를 臨文하도록 되어 있다. 영조 때 편찬된 『續大典』에 기록된 역학서는 『史書』, 『老乞大』, 『朴通事』, 『伍倫全備』⁴⁵⁾이며, 『直

解小學』은 폐지되었다.⁴⁶⁾

이처럼 조선시대 중국어 교재는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조선이 유교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사신들이 중국의 관리들을 만났을 때 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老乞大』와 『朴通事』가 세종 때 이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역관양성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줄곧 중국어 회화교재로 채택되고 있다.⁴⁷⁾

조정에서 이처럼 외국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외국어 교재를 편찬하여 외국어 교육에 힘을 기울였음에도 역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외국어 습득을 사대부들이 할 일이 아닌 단순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외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성종 연간 承文院의 젊은 문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려 해도 이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기록이 있으며,⁴⁸⁾ 사대부들은 역관 양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기까지 하였다.⁴⁹⁾ 따라서 연행사절들은 역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⁵⁰⁾ 역관조차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그러한 예이다.

돌아온 謝恩正使 洪樂性 등을 소견하고 燕京의 사정을 묻자 흥낙성이 아뢰기를 “彼國이나 我國에서 실정을 아는 것은 오로지 언어 수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들은 한어에 미숙하였고 이른바 역관들의 언어는 장사치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때에 주고받는 이야기 수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朝官과 士人이 서로 접촉할 경우에는 피차간에 대화를 통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신이 이미 저 같고 역관이 또한 이 같으니 참으로 잘못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문관에게 한어를 익히도록 한 것이 거듭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자못 폐기되거나 해이해졌습니다.”……⁵¹⁾

40) 강신항, 1978, 위의 논문, 15~19쪽.

41) 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9쪽.

42) 汪維輝, 2002, 「朝鮮時代漢語教科書與近代漢語研究」, 『人文科學』 제84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조선시대 중국어 교재 전반에 대해 서술하였다.

43) 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31~41쪽.

44) 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43쪽.

45) 『伍倫全備』는 明代 丘濬이 지은 『新編勸化風俗南北雅曲伍倫全備記』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춘추시대 오나라의 충신 伍子胥의 손자인 伍倫全과 伍倫備의 충의와 효친에 관한 이야기를 희곡으로 엮은 것이다. 사역원에서는 『老乞大』와 『朴通事』보다 격이 높은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이 희곡을 역학서로 택하였다(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80쪽 참조).

46) 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61~71쪽.

47) 정광·윤세영, 1988, 앞의 책, 33쪽에서는 태조 때 『老乞大』와 『朴通事』가 이미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48) 『成宗實錄』 성종 20년 12월 3일 병술 조.

49) 김양호, 1987, 앞의 논문, 9~12쪽.

50) 朴思浩, 1829, 『心田稿』 2(『국역연행록선집』 9), 「留館雜錄」, 〈留冊錄〉 참조.

사대부들은 北京에서 필담을 통해 중국 문인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지식인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⁵²⁾ 홍대용은 연행사절을 따라 가기 위해 역관을 만나 중국어를 익히고 준비하기도 하였다.⁵³⁾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1876년 개항을 맞은 조선은 변화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중국과 일본, 나아가 서양 각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고종 시대에 역관의 수가 전시대에 비해 많은 것은⁵⁴⁾ 과거제도의 혼란상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외국 문물을 배우기 위해 언어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前主事 柳完秀가 1882년 9월 6일 상소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 어학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예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⁵⁵⁾

당시 조선에서는 『老乞大』와 『朴通事』를 역관양성용 중국어 회화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정확히 언제 편찬되었는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高麗’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老乞大』의 초간본이 발견됨으로써 이런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⁵⁶⁾ 『老乞大』와 『朴通事』는 세종 때 회화교재로 사용된 후 시대의 추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교정이 이루어졌다.⁵⁷⁾

51) 『正祖實錄』 정조 8년 3월 4일 기축 조; 번역문은 석주연, 2000, 『『重刊老乞大諺解』,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 해석사, 286쪽에서 인용.

52) 김양수, 1987, 앞의 논문, 10~11쪽에 1782년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洪良浩가 중국어를 배울 것을 강조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53) 최소자, 2005, 『조선 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 방문과 교류』, 『명청사연구』 23집, 9쪽.

54) 김양수, 1987, 앞의 논문, 65~66쪽.

55) 『日省錄』 고종 19년 9월 6일 조.

56) 원본 『老乞大』에 대해서는 정광·남권희·양오진, 1999, 「元代漢語 ‘老乞大’-新發掘 譯學書 資料 舊本老乞大의 漢語를 중심으로-」, 『국어학』 33집 참조.

57) 『老乞大』의 판본에 대해서는 양오진, 1998, 『老乞大, 朴通事研究』, 태학사 참조. 중요한 간본으로는 『老乞大』(시대미상), 『老乞大新釋』(1761), 『重刊老乞大』(1795), 『翻譯老乞大』(상·하 1507~1517), 『老乞大諺解』(상·하, 1670년 전후), 『老乞大新

『老乞大』와 『朴通事』가 조선시대에 줄곧 회화교재로 사용된 것은 『經國大典』에 한번 규정되면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두 책이 회화공부에 유용한 교재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⁵⁸⁾

하지만 『老乞大』와 『朴通事』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중국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老乞大』는 조선시대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개편 내용은 중국어와 이를 번역한 조선어의 어법이나 표현법·발음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본 줄거리는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초간본에 등장하는 ‘高麗王京’이라는 표현은 1761년 『老乞大新釋』에 와서야 ‘朝鮮王京’으로 수정되었다.⁵⁹⁾ 이는 『朴通事』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老乞大』는 처음 간행된 고려 말에서 고종 시대 사이의 엄청나게 변화된 중국과 조선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老乞大』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는 그 내용 자체에 있었다. 『老乞大』는 주인공들이 상인이며 조선 왕경에서 北京까지 말과 인삼·모시 등을 팔러 가는 노정을 따라 설정되어 있다. 이런 설정은 사대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1473년(성종 4) 李邊(1391~1473)이 『訓世評話』라는 회화교재를 편찬하면서 올린 上表에서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익히는 것은 『直解小學』 『老乞大』 『朴通事』 『前後漢書』 뿐입니다……. 하지만 『老乞大』, 『朴通事』는 몽고말을 많이 포함하여 순수한 중국어가 아니며, 상인들이 쓰는 비루한 말로서 배우는 자들이 이를 병으로 여깁니다.⁶⁰⁾

釋諺解』(1763), 『重刊老乞大諺解』(1795년 추정), 『朴通事新釋』(1765년 추정), 『翻譯朴通事』(상 1517), 『朴通事諺解』(상·중·하 1677), 『朴通事新釋諺解』(1765) 등이 있다.

58) 이순미, 2002, 「무역중국어 교재로서의 『老乞大』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에서는 『老乞大』가 무역중국어 회화교재로서 뛰어난 실용성을 가졌기 때문에 500여 년 동안 회화교재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59) 정승혜, 2004, 「외국어 교재로서의 『老乞大』」, 『이중언어학』 26집, 309쪽에 중국어의 변화에 따라 『老乞大』의 수정이 이루어진 예를 들고 있다.

60) 汪維輝, 2002, 앞의 논문 85쪽. 李邊이 『訓世評話』라는 새로운 중국어 교재를 펴

사대부, 지식인들이 외국어를 한낱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배우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老乞大』와 『朴通事』는 교재의 내용이 시대와 동떨어지고 비루한 것이었으므로 사대부, 지식인들의 학습 동기를 전혀 유발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華音啓蒙』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간행된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당연히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대부와 지식인들의 학습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2. 『華音啓蒙』의 특성 I - 著者 李應憲과 序文을 쓴 尹泰駿의 성향 분석 -

II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응헌은 고종 시대의 역관이며, 그의 집안인 김산이씨는 조선시대에 많은 역관을 배출한 가문이다. 앞서 이응헌의 대체적인 경력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그가 『華音啓蒙』을 저술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나 여러 정황을 통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책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응헌이 속했던 역관이라는 신분은 조선 후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재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使臣을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하면서 외래의 근대 문물에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외래문화 수용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개화파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등 정치적 지배세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⁶¹⁾ 언어 능력을 갖춘 역관은 외국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이를 통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침에 대비하여 군비

내면서 올린 上表에는 “但所習者 不過直解小學·老乞大·朴通事·前後漢書, 然直解小學逐節解說, 非常用漢語也. 老乞大·朴通事, 多帶蒙古之言, 非純漢語, 又有商賈庸談, 學者病之”라는 구절이 있다.

61) 역관에 대해서는 한영우, 1988, 「조선시대 중인의 신분, 계급적 성격」, 『한국문화』 9;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신서원;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한영우, 1986, 「조선후기 중인에 대하여-철종조 중인항청운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45; 김양수, 1987, 앞의 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마련을 위해 활약하기도 하였으며,⁶²⁾ 개화기에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근대화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⁶³⁾

이응헌 역시 조선 후기 대표적 역관집안인 김산이씨의 후손으로 일찍이 외래 문물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집안 출신 가운데 중국연행사절을 수행한 역관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華音啓蒙』이 간행된 시기는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신식 기술 및 문물을 배우기 위해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파견하는 등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졌던 때였다. 이응헌은 1881년 統理機務衙門의 한학역관에 參使로 임명되었으며, 그와 같은 김산이씨인 李應浚은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역관으로서 재자관으로 천진에 파견되어 영선사의 통역으로 활약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統理機務衙門은 1880년 말 開化自強과 근대적인 외교통상을 위하여 외교와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⁶⁴⁾ 領選使는 중국의 洋務運動을 모델로 근대적 문물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이었다.⁶⁵⁾

이상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華音啓蒙』은 통리기무아문이나 영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호를 개방하고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배우고자 했던 지식인들은 언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한 역관들이 외국어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문인들도 외국어를 배워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중국어 교재인 『老乞大』나 『朴通事』는 내용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당시 지식인

62) 김양수, 2001, 「조선 후기 역관들의 군비강구」, 『실학사상연구』 19·20집 참조.

63) 김영경, 1999, 앞의 논문 참조. 이동기, 1998, 「조선 후기 중인교육연구 -역, 의, 료, 산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54쪽에 의하면 1880년대 統理機務衙門의 관료 중 13.4%가 잡직 출신이었고, 갑오개혁 직후 신내각의 21.6%가 잡직 출신이었다.

64) 통리기무아문은 1882년 임오군란 후 폐지되었으며,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편되었다. 통리기무아문에 대해서는 전미란, 200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관한 연구」, 『이대사원』, 제24·25합집호; 전해중, 1962,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경위」, 『역사학보』 제17·18집 참조.

65) 領選使에 대해서는 권석봉, 1962, 「영선사행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제17·18집 참조.

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에 이응헌은 새로운 중국어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내용 자체도 단순히 유교윤리에 입각한 기존의 교재나 상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재와 다른 새로운 교재를 편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응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그의 경력, 집안 배경 등을 통해 볼 때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서양의 신식 문물을 배워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개화운동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개화사상가의 대표격인 吳慶錫의 장인 李埏이 김산이씨 집안의 사람인 점을 고려한다면⁶⁶⁾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장에서 간행된 『華音啓蒙』의 내용 속에는 이응헌 자신 또는 그가 속한 그룹의 중국에 대한 인식, 시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華音啓蒙』에는 尹泰駿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華音啓蒙』의 저자 이응헌과 윤태준이 친분이 있었으며, 『華音啓蒙』의 저술 의도에 윤태준이 동의하거나 공감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태준의 이력과 성향에 대한 분석은 『華音啓蒙』의 저술 의도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尹泰駿[1839년(헌종 5)~1884년(고종 21)]은 본관이 坡平이며 자는 稚命, 호는 石淳으로 1873년(고종 10) 進士試에 합격하고 蔭補로 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1881년 金允植이 이끄는 領選使에 從事官으로 파견되었으며, 1882년 임오군란 후 조직된 新建親軍의 右營을 감독하였다. 1884년 영선사 파견 결과 근대 병기공장인 機器局이 설치되자 機器局總辦에 임명되었고 통리내무아문이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편될 때 農商司協辦을 지내기도 하였다. 1884년 개화당 행동대에 의해 피살되었다.⁶⁷⁾

66) 李埏은 이응헌의 조부 李時健과 4촌 관계인 李時亨의 養子이다. 따라서 이응헌의 집안과 이연의 집안이 매우 가까운 인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연의 아들 李應善과 이응헌은 8촌 간이며, 오경석과 이응선은 같은 해 역과에 합격하였고, 오경석은 이응헌의 누이와 혼인하였다(『雜科榜目』에 의거함).

67) 윤태준의 이력에 대해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이상 윤태준의 이력을 통해 그가 1880년대 초반기 중국으로부터 근대적 문물을 도입하고 조선의 武備自強을 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⁶⁸⁾ 그는 실제 중국을 다녀온 경험을 통해 중국의 변모된 모습을 확인하고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윤태준은 『華音啓蒙』의 서문에서 종전의 중국어 교재인 『老乞大』와 『朴通事』가 시대에 뒤떨어진 점, 중국어를 교육할 필요성, 중국에 직접 가서 견문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다. 즉 역관에게만 중국어를 맡기지 말고 사대부들이 직접 나서서 중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인물이 『華音啓蒙』에 서문을 썼다는 사실을 통해 『華音啓蒙』이 개화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에게 중국어 학습 의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속에 변모된 중국의 모습과 변화된 시대상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윤태준이 이러한 의도로 이응헌에게 『華音啓蒙』을 간행하도록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華音啓蒙』의 특성 II - 예상독자층 분석 -

여기서는 『華音啓蒙』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 책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중국어 회화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華音啓蒙』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에 줄곧 중국어 회화교재로 사용되었던 『老乞大』와 『華音啓蒙』을 비교하여 보자.⁶⁹⁾ 『老乞大』는 역관을 위한 중국어 회화교재였던 만큼 중국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8) 윤태준이 개화당 인사에 의해 암살된 것은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척사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역시 개화론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9) 『華音啓蒙』은 형식상 『老乞大』와 더 가깝다. 또한 『老乞大』가 초급 회화교재인 데 비하여 『朴通事』는 이보다 단계가 높은 교재이며, 『華音啓蒙』 역시 초급회화교재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였다.

『老乞大』는 고려의 상인(1761년 『老乞大新釋』 이후에는 조선의 상인) 일행이 王京을 출발하여 遼東을 거쳐 중국의 수도 北京에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말과 모시, 인삼 등을 판 후 山東에 들어가 그곳에서 비단 등을 사서 고려로 돌아가는 일정을 즐거리로 하여, 그 속에 숙박과 교역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인 일행은 4명으로 주요 대화자인 金氏, 그의 姑舅(고종사촌형) 金氏, 姨表兄弟(이중 동생) 李氏와 그 이웃인 趙氏 등이다. 이들은 중국 국경에 들어간 후 遼陽 출신 상인 王氏를 만나 北京까지 동행한다.⁷⁰⁾

『華音啓蒙』의 내용 가운데는 『老乞大』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곳곳에 등장한다. 『老乞大』와 『華音啓蒙』의 첫 구절부터 비교해 보자.

『老乞大』에서 주요 화자 김씨가 이후 北京까지 동행하게 되는 중국 상인 왕씨와 처음 만나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된다.

大哥你從那裏來 형님 어디에서 오셨소? / 我從高麗王京來 고려 왕경에서 왔소 / 如今那裏去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 我往北京去 北京으로 가오 / 你幾時離了王京 왕경에서 언제 출발했소? / 我這月初一日離了王京 이달 초하루에 출발했소 / 既是這月初一日離了王京 이달 초 왕경에서 출발했다면 / 到今半箇月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 怎麼纔到的這裏 어찌하여 이제야 이곳에 도착했소?⁷¹⁾

『華音啓蒙』의 첫머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從那裏來呢 어디서 왔소? / 打朝鮮國來咧 조선에서 왔소 / 走咧多少日子麼 얼마나 걸렸소? / 走有十來天的工夫咧 10여 일 걸렸소 / 你們離這裏有二千多里地否咧 그대들은 여기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소 / 幾天的工夫何能到得麼 며칠 만에 어떻게 올 수 있었

70) 본고에서는 규장각소장(규 3917-4A) 활자본 2권 2책 『老乞大諺解』의 영인본(경성 제국대학법문학부, 소화 19년, 규장각총서 제9, 조선인쇄주식회사)을 텍스트로 이용하였다. 이 판본은 1670년 전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용된 쪽수는 영인본의 쪽수이다.

71) 『老乞大諺解』, 1~2쪽.

소? / 如今我們是坐輪船來往的 지금 우리는 운선으로 왕래하므로 / 所以不像從前起早來的時候兒 이전 육지를 통해 오던 때와 같지 않소 / 這就是咧 그렇군요 / 理不得你們來的快 어쩐지 빨리 왔다 했소.⁷²⁾

이 장면 역시 『華音啓蒙』 상권의 話者 李老爺가 중국인 관료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주고받는 대화이다.

이후 두 사람은 동행하여 같은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老乞大』의 이씨 일행과 왕씨 일행 역시 北京까지 가면서 숙식을 함께 한다.

이 외에도 『華音啓蒙』에는 『老乞大』의 구성 형식에서 차용해온 듯 보이는 내용을 다수 볼 수 있는데, 다음 구절도 그러한 예이다.

頭裏住店的那客人們 原不是好人 처음에 여관에 묵었던 그 손님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 都是斷道的馬賊咧 모두 무도한 마적들로 / 手拿洋鎗火礮 손에는 洋鎗과 火礮를 들고 있었소.⁷³⁾

李老爺가 여관에서 만난 중국인 胡氏와의 대화 속에 胡氏가 科擧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한 여관에서 馬賊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 『老乞大』에도 보인다.

年時又有一箇客人 당시 또 한 손님이 / 趕着一頭驢 나귀를 타고 왔소. / …… / 後頭有一箇騎馬的賊 뒤에 말을 탄 도적들이 / 帶着弓箭跟着行 활을 지니고 쫓아왔소.⁷⁴⁾

여관에 머무는 동안 팔려고 가지고 온 말을 지키기 위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면서 도적떼를 만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행로에서 만난 화자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묻고 北京까지 동행하며 함께

72) 『華音啓蒙諺解』 상권, 1우-1좌.

73) 『華音啓蒙諺解』 상권 13좌.

74) 『老乞大諺解』, 51쪽.

여관에 투숙하는 설정, 목을 방이 없어 주인에게 잠자리를 청하는 설정, 행로에 다리가 무너져 건널 수 없게 된 설정⁷⁵⁾ 등도 『華音啓蒙』이 『老乞大』의 구성 방식을 차용한 부분이다.

하지만 『老乞大』와 『華音啓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老乞大』가 중국에 장사를 하러 가는 상인들의 노정을 따라 서술된 반면 『華音啓蒙』은 공적인 임무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신 일행의 노정을 따라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華音啓蒙』의 등장인물은 『老乞大』의 등장인물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華音啓蒙』 상권의 주인공인 李老爺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李老爺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나 관직을 가진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老爺’라는 호칭 자체가 상당한 관직을 가진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므로 李老爺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華音啓蒙』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먼저 北京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張道台와의 대화 가운데 서로의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李老爺의 큰동생은 지난해 진사에 합격하였고 막내동생은 독서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장도대는 ‘宦門子弟’임을 몰라보았노라고 응답한다.⁷⁶⁾

李老爺가 어떤 목적으로 北京으로 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華音啓蒙』 곳곳에 그가 公事로 北京으로 가는 중임을 밝히고 있다.⁷⁷⁾ 또한 李老爺는 이번이 北京 초행길이 아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⁷⁸⁾ 北京으로 가는 중 여관에서 만난 중국인 胡氏와의 대화 중에 왜 이번에는 일행이 많지 않으냐고 묻자 이번에는 큰 일이 없어 인원이 적다고 대답하며,⁷⁹⁾ 다리를 건너면서 만난 사람이 다리를 건널 수 없다고 말하자 속이지 말라면서 자신은 공무로 여러 차례 왕래하였다고

말한다. 또 뱃사람들이 중국어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⁸⁰⁾ 중국어에도 능통한 사람이다. 北京에 도착한 李老爺 일행은 崇文門 내에 있는 숙소에 머문다.⁸¹⁾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李老爺는 公務로 자주 北京을 왕래하는 사람이다. 당시 北京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연행사절로 중국을 오가는 관리일 가능성이 높다.⁸²⁾ 그가 어떤 신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어에 능통한 점 등 문맥상으로 볼 때 역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리이면서도 상인의 성격을 띠었거나 중국과 조선 사이의 무역 등에 관여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⁸³⁾ 北京에 도착한 李老爺가 중국어 통역 徐通官에게 은을 바꾸기 위해 義豐銀號를 찾는 장면,⁸⁴⁾ 上海 洋行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⁸⁵⁾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호는 청대에 등장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이며 영선사 일행은 중국의 和豐局이라는 은호에서 비용을 지급받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陰晴史』에 이응헌이 의주 감세관으로 영선사의 경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기록하였으므로, 『華音啓蒙』에 등장하는 의풍은호 역시 和豐局이라는 錢莊을 모델로 하고 李老爺가 이응헌 자신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응헌과 같은 김산이씨인 이응준을 모델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응준은 통리기무아문의 역관으로서 재자관⁸⁶⁾으로 천진에 파견되었으며 조선과 천진·북경 사이를 오가며 활동하고, 영선사의 자금조달에도 관여

75) 『老乞大諺解』 69쪽; 『華音啓蒙諺解』 상권 19쪽.

76) 『華音啓蒙諺解』 상권 1쪽-3쪽.

77) 『華音啓蒙諺解』 상권 5우, “我咳沒有到京辦過公事呢”.

78) 『華音啓蒙諺解』 상권 7우, “你們老爺們怎麼會說官話麼, 我是長來長往的”.

79) 『華音啓蒙諺解』 상권 16쪽, “大哥從本國往這裏來, 怎麼不比那年人多麼, 我這塘是沒有甚麼大事, 所以少帶幾箇人來咧”.

80) 『華音啓蒙諺解』 상권 24쪽, “咱不是頭一沒來的, 長來中國地方, 出過多少遠門, 辦過許多公事, …… 這位老爺滿口京話, 就像咱們一般樣咧”.

81) 『華音啓蒙諺解』 상권 25우-25쪽, “咱們到京裏住那塊兒, 進崇文門到我們館裏御車罷”.

82) 조선 사신들이 머물던 곳은 崇文門 내 玉河館이었다. 조선 사신들의 숙소에 대해서는 소재영 등, 2005,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경기문화재단의 부록 「연행길 길잡이」, 223~227쪽 北京 조선관의 위치 비정 참조.

83) 『從政年表』 2 고종 18년 신사 12월 14일자에 의하면 당시 중국은 조선에 이미 여러 항구를 개항하여 상호무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84) 『華音啓蒙諺解』 상권 32쪽-33쪽.

85) 『華音啓蒙諺解』 상권 31우-31쪽.

86) 齋沓官은 三使臣의 격식을 갖추지 않고 역관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 보내는 약식 사행을 말한다(朴思浩, 『心田稿』 1, 『국역연행록선집』 9, 45쪽의 주42에 의거함).

하였다.⁸⁷⁾

金老爺와 대화를 나누는 중국인 張氏는 元籍이 浙江省으로 三品頂戴 候補道사이다.⁸⁸⁾ 여관에서 만난 胡氏는 상해에서 北京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와서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며 그의 고종사촌은 北京 남쪽에서 縣官을 지내고 있다. 胡氏와 함께 여관에 든 그의 친구 역시 상해 사람으로 지난해 舉人에 합격하고, 올해 北京에 會試를 보러 가는 중이다.⁸⁹⁾

金老爺가 北京에서 만난 徐通官은 중국인 통역관으로 대대로 差使를 담당하는 집안의 자제이다.⁹⁰⁾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老乞大』는 등장인물이 상인이며 내용도 상행 위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반면 『華音啓蒙』 상권의 등장인물은 관리·독서인·사대부 등이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중국의 과거제도나 중국의 현실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다.⁹¹⁾

다음 하권의 등장인물과 내용을 살펴보자. 하권에 등장하는 조선의 사신 金老爺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청나라 禮部에 朝貢을 바치는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행사절의 핵심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상당히 고관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⁹²⁾ 『華音啓蒙』에

서 그와 교유한 중국인 王氏는 江南 蘇州府 사람이며, 현임 北京 禮部郎中으로 順治門 밖 大街路에 거주하고 있다.⁹³⁾ 金老爺가 공무를 마친 후 방문한 前門 밖에 사는 王大人府家 역시 정부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의 집으로 老大人은 지난해 兩江總督으로 승진하였고 三大人은 외관직에 있어 김노야와 교유하는 二大人만이 北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⁹⁴⁾ 김노야가 왕대인부에서 만난 골동상 張老四는 진주 등의 진귀한 물건을 거래하며 배를 타고 越南, 交趾, 大小琉球, 外洋 지방까지 항해하며 西洋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거래하기도 한다.⁹⁵⁾

하권의 내용 가운데 인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⁹⁶⁾ 등은 『老乞大』에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자체가 『老乞大』와는 완전히 달라, 연행사절이 청 조정에 공물을 바치는 내용과 중국 관리들과 교유하는 내용이며, 사교에 필요한 의례적인 인사말 등이 많이 담겨 있다.⁹⁷⁾

사대교린을 외교정책으로 삼았던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대한제국을 수립하여 조공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줄곧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⁹⁸⁾ 北京으로 가는 사행은 크게 정기 사행과 임시 사행으로 구분되어 매년 한 차례 이상 파견되었다.⁹⁹⁾ 중국 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사행 보고와 함께 자신들의 중국 여행 기록인 ‘燕行錄’을 남겼다.¹⁰⁰⁾

87) 『陰晴史』 하권, 고종 19년 임오 정월 8일의 “首堂李應俊以別差官入來, 伏承去年十一月二十五日下封書一度”, 정월 12일의 “首堂李應俊 因事往北京”, 2월 11일 “李君應俊過期不來, 年貢使得回程計不遠, 故專人付送書緘于北京玉河館, 未刻李君來到, 先發專人亦同還, 李君在北京待 先貸銀子幾許 不得如意, 竟空手來”, 『從政年表』 3, 고종 19년 임오 3월 20일 “往東局. 李譯應俊. 乘輪船至自我邦, 聞家國太平, 英人又至議約” 등을 통해 이응준이 조선과 北京 天津을 왕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88) 『華音啓蒙諺解』 상권 2우.

89) 『華音啓蒙諺解』 상권 10좌-17우.

90) 『華音啓蒙諺解』 상권 26좌-27좌. 정혜중, 2005, 「19세기 초 조선 사행 김경선의 北京 체험과 외국정노 이해」, 『중국사연구』 37, 62쪽에 의하면 조선어통역관은 거의 세습으로 직을 계속 잇게 하는 구조였다.

91) 『華音啓蒙諺解』 하권 1우-2좌에서 왕씨가 자신의 경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거시험에 언제 합격하였고, 언제 어떤 관직에 나갔는지를 말하고 있다. 또 7우-7좌 金老爺는 왕씨에게 중국의 과거제도에 대해 묻는다. 이는 사대부들 사이의 대화에 필요한 내용이다.

92) 『華音啓蒙諺解』 하권 13우-15우.

93) 『華音啓蒙諺解』 하권 1좌-2좌, 하권 12좌.

94) 『華音啓蒙諺解』 하권 17우-18우.

95) 『華音啓蒙諺解』 하권 30좌-34우.

96) 『華音啓蒙諺解』 하권 10좌-11좌.

97) 金老爺가 방문한 禮部郎中은 자신의 관직 경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華音啓蒙諺解』 하권 15좌-16좌에서는 당시 禮部正堂 徐大人의 관직 경력과 발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98) 『日省錄』에 보이는 마지막 연행사절 관련 기록은 『日省錄』 고종 31년 6월 10일 조의 기록이다.

99) 김일환, 2005, 앞의 논문, 292~294쪽 참조.

100) ‘연행록’은 조선시대 때 중국, 특히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문을 저술한 여행기록으로 현재 400여 종이 남아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1976, 『국역연행록선집』의 1권 황원구의 해제와 임기중, 2006, 『연행록연구(증보판)』, 일지사에서는 연행록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다. 연행록과 연행록의 저자에 대한 연구는 문학사, 사상사, 대외교류사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문학 쪽에서

『華音啓蒙』 하권의 전개 방식에서는 '연행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공통되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하권은 北京에 도착한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 관리와 주고받는 대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압록강을 건너 鳳凰城에서부터 수레를 갈아타고 1개월이 걸려 北京까지 육로로 오는 여정은 조선 사신들의 가장 일반적인 연행길로, 많은 '연행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예를 들어 1765년(영조 41) 자제군관으로 北京을 여행한 홍대용은 11월 2일 경성을 출발하여 11월 30일 봉황성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태평차를 빌려 北京으로 출발, 12월 27일 北京에 도착하였다.¹⁰²⁾ 1832~33년 冬至兼謝恩使의 書狀官으로 北京을 방문했던 金景善이 쓴 『燕轅直指』에는 1832년 10월 20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11월 22일 柵門에 도착하고, 이어 24일에 가마를 버리고 수레를 타고 北京으로 출발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⁰³⁾ 1828년(순조 28) 進賀兼謝恩使의 醫官 및 裨將으로 수행한 사람이 쓴 연행록인 『赴燕日記』의 연행노정도 이와 유사하다.¹⁰⁴⁾

는 연행 체험을 기록한 연행록을 '연행문학'이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대표적인 연행록에 담겨 있는 저자들의 경험, 견문, 의식 등을 연구하였다(김명호, 1990,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박지선, 1995, 『노가재연행일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김현미, 2003,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참조). 역사학 쪽에서 연행록을 통해 한·중관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對중국 인식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민두기, 1963, 『열하일기』 일연구, 『역사학보』 20을 비롯하여 최소자, 1997, 『18세기 후반 연행록을 통해 본 조선 지식인들의 對중국 인식』, 『국사관논총』 76; 이원순, 1983, 『부연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사학연구』 36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연행록과 연행사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18세기 후반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혜중, 2005, 앞의 논문에서 19세기 전반 연행록을 분석하였다. 하정식, 1995, 『연행정보와 조선왕조의 태평천국 인식의 정치적 배경』, 『역사학보』 145에서는 연행사절이 가지고 온 중국에 대한 정보가 조선 정부 당국자들의 중국 정세 인식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다루었다. 김태준 외, 2005,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은 연행록, 또는 연행사절과 관련된 각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연행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1) 연행노정에 대해서는 김태준, 2004, 『중국 내 연행노정고』, 『동양학』 35 참조.

102)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2002,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다』, 19~81쪽 참조.

103) 『燕轅直指』 1, 『出疆錄』(『국역연행록선집』 10, 65~76쪽)

『華音啓蒙』 하권에는 간략하지만 예부에서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제법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¹⁰⁵⁾ 이런 설정 역시 '연행록'이나 연행사절의 보고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 사절들은 보통 중국에 40여 일을 머물면서¹⁰⁶⁾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北京의 이곳저곳을 관람하기도 하고, 중국의 관리들과 친분을 쌓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이 많이 관람한 것 중 하나가 演戲여서 대부분의 연행록에는 演戲記가 포함되어 있다.¹⁰⁷⁾ 홍대용의 『乙丙燕行錄』에는 환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¹⁰⁸⁾ 1828년(순조 28) 사은 겸 동지사 洪起燮의 幕裨로 北京을 다녀온 朴思浩의 연행록인 『心田稿』에도 「幻術雜戲」 「演戲記」가 수록되어 있다.¹⁰⁹⁾ 金景善의 『燕轅直指』에도 北京을 관광한 기록 가운데 「瀛臺水戲宴記」와 「幻術記」가 있으며,¹¹⁰⁾ 『赴燕日記』에도 광대놀이를 구경한 일을 기록하였다.¹¹¹⁾ 『華音啓蒙』 상권에서 李老翁와 徐通官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李老翁가 上海에서 요술을 관람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¹¹²⁾ 이 역시 연행록의 형식을 차용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華音啓蒙』 하권의 상당부분이 주인공 金老翁가 중국 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연행록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실제 많은 연행사절들이 중국인들과 깊은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詩畫를 주고받기도 하였기 때문이다.¹¹³⁾

104) 『赴燕日記』, 『路程記』.

105) 공물을 바치는 과정은 『華音啓蒙諺解』 하권 13우-15우에 상세히 나와 있다.

106) 정혜중, 2005, 앞의 논문, 35~36쪽.

107) 임기중, 2006, 앞의 책, 제3~5장 참조.

108)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2002, 앞의 책, 104~170쪽의 「정양문 밖에서 희자 노름을 보다」와 「관에서 환술을 보며 즐기다」 참조.

109) 『心田稿』 2, 『留館雜錄』.

110) 『燕轅直指』 3, 『留館錄』 上.

111) 『赴燕日記』(『국역연행록선집』 9), 『往還日記』의 6월 13일자.

112) 『華音啓蒙諺解』 상권 28좌-31우.

113) 최소자, 2005, 앞의 논문; 진재교, 2003, 『18세기 조선조와 청조 학인의 학술교류-洪良浩와 紀昀을 중심으로-』에서는 18~19세기 홍양호와 기운 집안의 학술과 문예 교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것처럼 『華音啓蒙』은 중국어 회화교재로 『老乞大』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하권에서는 연행록의 내용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다. 또한 『華音啓蒙』의 등장인물들은 『老乞大』와 달리 관료와 사대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회화책의 등장인물이 반드시 독자층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독자층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華音啓蒙』의 등장인물을 볼 때 이 책은 관료 내지는 지식인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담고 있는 내용도 과거제도, 중국의 정치상황, 중국과 조선의 경치에 대한 소개, 관리들이 교체할 때 필요한 상투적인 말들, 연행사절이 조공을 바치는 상황 등 실제 관료들이 중국에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華音啓蒙』이 지식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중국어 학습 의욕을 유발하기 위해 편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華音啓蒙』에는 이용현 자신이 소개하고자 했던 중국의 모습과 함께 예상 독자층인 당시의 지식인들이 필요로 했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華音啓蒙』을 통해 당시 중국에 대한 지식인의 인식과 그들이 중국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華音啓蒙』을 통해 본 개항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

1_ 개항기 朝淸關係와 조선 지식인의 對중국 인식

여기에서는 개항기에 개화를 지향한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과 중국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보가 『華音啓蒙』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華音啓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華音啓蒙』이 간행될 무렵 조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비롯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당시 중국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정리해 보자.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청나라를 건국한 후 조선 조정에서는 尊周論과 北伐論이 팽배하였으나, 18세기에 들어 北伐論이 비판을 받고 北學論이 제기되었다.¹¹⁴⁾ 북학론자들은 전통적인 華夷觀과 名分論에서 벗어나 청나라의 선진문명과 우수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조선 후기 사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북학파가 주장하는 '學中國'은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중국에 전래된 서구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대청관계가 안정되면서 매년 청나라에 간 사절들은 北京에 들어온 서양의 천문·역법·수리·의학 등의 서적이거나 기물을 구입하는데 열성을 보이고, 때로는 서양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天主堂과 欽天監을 방문하여 서양의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다.¹¹⁵⁾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康雍乾 盛世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840년 제1차 중영전쟁이 발발하였고, 1842년 영국과 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침탈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 국내적으로는 1851년 太平天國運動이 발생하였다. 태평천국 군대는 1853년 南京에 도읍을 정하여 청 조정을 크게 위협하였다. 1856년 제2차 중영전쟁을 계기

114) 정옥자, 1998, 『조선 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02, 152쪽.

115) 원재연, 2000, 「조선 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93쪽.

로 중국에 주둔한 영국·프랑스 군대는 1860년 태평천국군의 진압을 명목으로 北京을 함락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청 조정에서는 태평천국의 진압과정에서 공을 세운 洋務派들이 중심이 되어 서양의 과학 기술과 무기를 도입하여 중국의 부국강병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¹¹⁶⁾

조선 조야는 19세기 중엽까지도 이처럼 몰락하는 중국의 현실을 단편적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양을 퇴각시킬 수 있다고 믿고, 대국 중국과의 확실한 외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양 세력의 침투를 막으려는 데 머물러 있었다.¹¹⁷⁾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영불연합군이 北京을 점령한 사실을 전해들은 후였다.¹¹⁸⁾ 권위를 자랑하던 대국이 洋夷에게 수도를 점령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咸豐帝가 熱河로 피란을 간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 관리들과 일반 국민은 크게 경악하고 서양 세력이 곧 침략해 들어오리라는 소문이 떠돌아 지방으로 낙향하는 자도 많았다.¹¹⁹⁾ 또 1866년 丙寅洋擾, 1871년 辛未洋擾를 겪으면서 洋夷의 침범이 현실화되는 한편 개항을 강요하는 일본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화사상이 대두되었다.

개화사상의 선두주자는 朴珪壽·吳慶錫·劉大致 등이다. 특히 오경석은 1853년에서 1875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역관으로 北京을 방문하여 서구세력에 무너진 청나라를 보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의 문물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¹²⁰⁾

116) 양무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박혁순, 1989, 「양무운동의 성격」, 『講座中國史』 VII, 지식산업사 참조.

117) 노대환, 1999, 「19세기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24~126쪽; 김유경, 2005, 「19세기 연행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1 참조.

118) 하지만 하정식, 1985, 「태평천국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인식」, 『역사학보』 107에서는 위기의 절박성과는 달리 조선왕조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불철저하였다고 보았다.

119) 『日省錄』, 철종 12년 1월 29일 조.

120) 김하원, 1993, 「초기 개화파의 대외 인식 -오경석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제17집, 469쪽.

당시 개화론자들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온 『海國圖志』, 『瀛環志略』 같은 중국인들의 저술이었다.¹²¹⁾ 특히 『海國圖志』는 조선 지식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외국의 침략을 막는 방법을 논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丙寅洋擾 이후 富國強兵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청말의 학자 魏源이 쓴 『海國圖志』의 「籌海編」에는 해상으로 쳐들어오는 양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서양의 장기를 채용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양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는데, 대원군 정권은 「籌海編」을 바탕으로 군함과 수뢰포 등을 제작하고 중국으로부터 직접 무기 구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¹²²⁾ 또한 1873년 親政을 시작한 고종은 조선의 문호개방에 적극성을 보이고 1880년 말에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개화와 부국강병을 모색하였다.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선행하고 있는 청나라와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1880년과 1881년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을 각각 파견하고, 1881년 중국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선진기술과 문물 등을 배우고자 하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開化,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自強이란 개념을 선진 외국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케 하고 문명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¹²³⁾ 일본과 중국 가운데 아무래도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倭洋一體論'을 주장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반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屬邦關係를 이용하여 武備自強策 실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¹²⁴⁾ 壬午軍亂 이후 副司果 金圭漢이 개화를 주장하며 올린 상소 가운데에서도 講軍制의 방법으로 器械는 청과 서양의 것을 모범으로 삼고, 訓練은 청병의 것을 채용하자는 주장을 볼 수 있다.¹²⁵⁾

121) 이광린, 1999, 『(全訂版)한국개회사 연구』, 일조각, 2~33쪽.

122) 노대환, 1999, 앞의 논문, 191쪽.

123) 이광린, 1999, 앞의 책, 39쪽.

124) 구선희, 1999,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 혜안, 38~40쪽.

125)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12일 조.

이러한 상소 등에 힘입어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개화파를 대거 기용하여 서양의 무기와 기계제조에 힘쓰고, 각국과 대외 통상 등을 추진하였다.¹²⁶⁾

한편 청나라는 17세기 조선과 국교를 맺은 이래 전통적인 조공관계의 틀 속에 조선을 묶어 두었지만 사실상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불간섭주의는 1870년대에 들어서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청나라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선 문제에 대한 관장권을 종래의 禮部에서 直隸總督兼北洋大臣 李鴻章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李鴻章으로 하여금 조선 정부를 회유하여 구미제국과 조약을 맺도록 권고하였다.¹²⁷⁾ 조선 정부가 天津 등에서 군기와 무비에 대해 학습하고 싶다는 의견을 청나라에 자문하기 전, 청나라 측에서는 李鴻章이 李裕元에게 보내는 密函을 통해 무비자강책을 중용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청나라의 對조선 정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⁸⁾

조선의 내정 간섭 기회를 엿보고 있던 청나라에 임오군란은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청나라는 조선이 중국의 오랜 藩屬이기 때문에 중주국으로서 책임을 느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¹²⁹⁾

이에 임오군란을 전후한 시점에서 조선 조정에서는 개혁과 자강을 추진하던 개화파 사이에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또한 청나라의 힘을 빌려 부국강병을 꾀하는 이러한 부국자강 방식을 놓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다.¹³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급진 개화파¹³¹⁾는 청나라의 대조선 적극간섭정

책을 조선 독립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이를 격렬히 규탄한 반면 김윤식·어윤중 등 이른바 온건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간섭 의사에 적극 찬동하였을 뿐 아니라 대원군의 납치에 대해서도 방조적이었다.¹³²⁾

온건개화파의 대표주자인 김윤식의 개화론은 '開化=時務'로 요약되고, 그의 시무에 대한 인식은 東道西器論의 正統 儒學者의 것이다.¹³³⁾ 김윤식·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조선은 중국이 없으면 자존할 수 없다고 여겨 중국의 보호·지도력을 신뢰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1880년대 구미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도 김윤식은 중국에 의지하여 시무를 해결하려 하였다.¹³⁴⁾ 이에 반해 김옥균은 새로운 세계적 질서 속에서 조선에 대한 중국의 보호능력과 지도력 일체를 의문시하였다.¹³⁵⁾ 급진개화파는 개화의 방식에 있어서도 온건파와 차이를 보여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 제도까지도 수용하여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자주독립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⁶⁾ 이러한 개화파 내부의 분화는 결국 甲申政變을 초래하였다.

2. 『華音啓蒙』을 통해 본 개항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

조선은 중국과 조공관계를 통해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중국에 보낸 사신들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변모된 모습을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세계를 인식하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왔다. 개항을 전후하여 조선의 개화를 주장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중국 내 서양세력의 동향과 서양세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은 조선이 대외관계와 대응태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126) 구선희, 1999, 앞의 책, 71쪽.

127) 이완재, 1989, 『초기 개화사상 연구』, 민족문화사, 147~157쪽.

128) 구선희, 1999, 앞의 책, 41쪽.

129) 이완재, 1989, 앞의 책, 158~159쪽; 김달중, 1981, 「중국의 대한 간섭 및 통제정책; 18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12집,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39~48쪽.

130) 구선희, 1999, 앞의 책, 87쪽에 의하면 김윤식은 개화파 내부의 분화시기를 1882~1884년 사이로 보고 있다.

131) 개화파 내부의 구분에 대한 여러 의견은 하원호, 2001,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역사적 변화」, 『한국 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9~17쪽 참조.

132) 이완재, 1989, 앞의 책, 158~162쪽.

133) 김경태, 1978, 「개항 초기 정치사상 상황」, 『梨大史苑』 15집, 이화여대 사학과, 129쪽. 동도서기론에서 대해서는 노대환, 1999, 앞의 논문 1~5쪽; 김문용, 1998, 「동도서기론의 논리와 전개」, 『한국 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참조.

134) 이완재, 1989, 앞의 책, 167~168쪽.

135) 이완재, 1989, 앞의 책, 163쪽.

136) 급진개화파의 사상에 대해서는 신용하, 1985, 「김옥균의 개화사상」, 『동방학지』 46·47·48합집호,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참조.

참고자료가 되었다.¹³⁷⁾

『華音啓蒙』은 개화를 지향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통해 근대적 문물을 배우기 위해 직접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행된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의 독자들은 중국 내 서양세력의 동향 또는 중국에 소개된 서양의 근대적 문물에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華音啓蒙』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자.

『華音啓蒙』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상권 첫머리가 李老爺가 윤선을 타고 중국에 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李老爺의 대화 상대인 張道台는 윤선을 타고 10여 일 만에 중국에 도달한 점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육로를 통해 여러 달 걸려 오던 여정을 10여 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칭송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윤선은 중국이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서양식 기기를 도입하면서 설립한 輪船招商局¹³⁸⁾에서 운영한 것으로 중국의 근대적 문물을 대변한다. 고종은 즉위 초년 중국사행으로부터 화륜선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¹³⁹⁾ 재위 시절 윤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소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윤선은 서양의 신식 기술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⁴⁰⁾ 또한 영선사를 이끈 김윤식·어윤중 등은 天津에서 天津機器局과 함께 輪船招商局을 자주 방문하며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초상국의 윤선을 타고 왕래하기도 하였다.¹⁴¹⁾ 따라서 윤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대적인 기기에 대한 관

137) 노대환, 1999, 앞의 논문, 194쪽.

138) 초상국에 대해서는 박노준, 1982, 「청말 관독상판기업에 대한 일연구 -윤선초상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박혁순, 1986, 「1880~1년의 초상국 운영방침 논쟁」, 『동양사학연구』 23집; 고대곤, 1991, 「초상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招商局史研究會編, 2005, 『招商局與近代中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참조.

139) 『日省錄』 고종 9년 12월 26일 조에 박규수가 중국이 양무운동의 성과로 서양의 화포와 화륜선을 모방하여 제조함으로써 서양에 이익을 잃지 않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140) 『日省錄』 고종 19년 9월 5일 조 柳完秀의 상소 및 고종 21년 7월 6일 조 卞應洙의 상소 참조.

141) 魚允中, 『從征年表』 2 고종 18년 신사 10월 10일의 기사에 의하면 어윤중은 초상

심을 유발하는 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華音啓蒙』에는 이 외에도 중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서양 문물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상권에서 李老爺는 上海를 방문하여 서양의 시계를 사고, 하권에서 金老爺는 예부낭중 王氏의 집에서 서양 포도주 대접을 받는다.¹⁴²⁾ 또한 王大人家를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영국산 차명종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⁴³⁾ 하권에 등장하는 골동상은 서양에서 가지고 온 진귀한 구슬을 보여준다.¹⁴⁴⁾

연행사절로부터 소개된 서양의 역법이나 차명종·천주교 등에 대한 관심은 17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18세기 ‘연행록’ 등을 통해 볼 때 당시 연행사절은 서양인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경계의 눈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¹⁴⁵⁾ 이와 대조적으로 『華音啓蒙』에는 서양의 문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권의 마지막에 李老爺가 자신이 경험한 上海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洋行이 등장하는데, 영국 洋行에 대한 李老爺의 평가는 ‘洋行이 친절하고 洋行에서 매매하는 상품은 가격도 싸고 공평하다’는 것이다.¹⁴⁶⁾ 이는 동시대인 1880년(고종 16) 冬至使 副使로 갔던 趙兵世가 서양의 상품은 매우 淫巧하여 값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쓸모가 없다고 보고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¹⁴⁷⁾

또한 李老爺가 上海를 방문하고 上海에서의 견문을 이야기하며 上海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설정도 흥미롭다.¹⁴⁸⁾ 上海는 北

국의 윤선을 타고 天津에서 上海로 돌아갔다. 김윤식, 『陰晴史』 上 壬午 3월 14일, 『陰晴史』 下 壬午 4월 26일, 『陰晴史』 下 壬午 6월 28일 기사 등 참조.

142) 『華音啓蒙諺解』 상권 32우, 『華音啓蒙諺解』 하권 10우.

143) 『華音啓蒙諺解』 상권 23우, “那上頭掛的自鳴鐘是那國的東西, 這是英國來的, 好奇怪的狠”.

144) 『華音啓蒙諺解』 하권 34우-34좌.

145) 원재연, 2000, 앞의 논문, 94쪽.

146) 『華音啓蒙諺解』 상권 31우-32좌, “…… 所以在那裏買些東西, 公平交易 言無二價 咧……”.

147) 『日省錄』 고종 16년 3월 25일 조의 冬至使 副使로 갔던 趙兵世의 보고 중에 “洋之貨物 極爲淫巧, 其價甚高而實無可用, 若一切不用即洋之巧藝必無所售” 라고 하였다.

京이나 南京과 같은 전통적인 도시들과 달리 서양세력에 의해 개발된 도시이며 서양문물이 성행하던 곳이다.¹⁴⁸⁾ 그러므로 여기서 上海는 서양의 문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설정은 청나라에서 선진적인 문물을 배울 뿐 아니라 上海를 통해 근대식 기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당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¹⁵⁰⁾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서양적 요소에 대해 우호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華音啓蒙』에는 당시 청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황제의 은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청나라의 정치적 부패상과 모순을 드러내는 대화를 설정함으로써 청나라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권 마지막에 李老爺가 北京에 도착하여 徐通官에게 義豐銀號에서 銀을 바꾸려 한다고 말하자, 徐通官은 한 고관이 義豐銀號에 많은 돈을 맡겼는데 그가 부정축재한 사실이 드러나 벌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재산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 은호에 맡긴 돈을 찾아가는 바람에 의풍은호의 잔고가 거의 바닥나서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¹⁵¹⁾ 이런 설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청나라의 정치적 부패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권에서 金老爺가 王大府人家를 방문하여 나누는 대화 가운데 왕대부인이 사람이 지난번에 선물받은 對聯을 太監이 가져갔으며, 더 요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那天把這箇對聯掛起來着 그날 이 대련을 걸었더니 / 太監擡頭一看 /
그 태감이 머리를 들어 한번 보고는 / 勿我拿銀子要賣呢 나에게 은을

148) 『華音啓蒙諺解』 28우, “我在本國時候兒 長聽着他們講究 這上海是好大去處 我有心看一看”.

149) 근대 上海에 대해서는 蘇智良 주편, 2004, 『上海：近代新文明的形態』, 上海：上海辭書出版社 참조.

150) 실제 고종 20년에는 上海에서 기기를 구입한 기록이 보인다(『日省錄』 고종 20년 5월 11일 조).

151) 『華音啓蒙諺解』 상권 32좌-35우.

건네면서 팔라 하였소 / 何敢要他的銀子 어찌 감히 그에게 은을 달라하겠소? / 若不送給他罷 만일 그에게 주지 않으면 / 恐怕他怪惱我們 아마도 우리를 나쁘게 볼 것이라 / 所以級他送去喇 그래서 그에게 보냈소.¹⁵²⁾

이 대화에서 태감에 대한 왕대인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태감들이 전횡을 일삼아 정치적 기강이 무너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정치적 부패와 기강해이 속에서 몰락해 가는 中華帝國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하권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8세기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이른바 小中華主義의 思考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권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這位打扮好看 이 분은 입성이 좋으시구려 / 頭戴烏紗帽 身穿圓領大袖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옷은 원령대수를 입으시고 / 好像漢時的人 敎人可敬可羨 한나라 시대 사람 같아 부러운 생각이 드는구려 / 好說我們敵國人是這樣粧扮呢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 好啊 看你來必有品職的官員呢 좋군요. 보아하니 틀림없이 직책이 있는 관리인 것 같소 / 豈敢沒有那麼大的前程啊 어찌 그리 전도가 있겠습니까?¹⁵³⁾

이 첫 문장은 중국의 관리가 조선 사신이 오사모를 쓰고 원령대수의 의복을 입은 것을 부러워하는 설정이다.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운 후 한족의 복식은 만주족의 복식으로 바뀌었으므로, 한족의 복식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 사신에 대해 한족인 청나라 관리가 부러워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는 바로 조선이 한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다음 대화에서 조선의 사신 金老爺는 이렇게 말한다.

152) 『華音啓蒙諺解』 하권 21우-22좌.

153) 『華音啓蒙諺解』 하권 1우-1좌.

我們國是讀孔孟之書 우리나라는 공자와 맹자의 서적을 읽으며 / 行周公之禮 주공의 예를 행합니다 / 所以四書五經也沒有不講過的 / 그 리하여 사서오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諸子百家也曉得的多咧 제자백가 역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¹⁵⁴⁾ …… 我們東國是都叫小中華 우리 동국을 모두 소중화라고 합니다.¹⁵⁵⁾

18세기 재자군관으로 北京을 방문한 홍대용의 여행록인 『乙丙燕行錄』에서도 조선 사신들의 의복과 관련한 언급을 볼 수 있다. 北京에 도착한 조선 사신 일행의 관복을 보고 길 가던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의복과 다른 점을 의아하게 여기자 견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옛날 의관이다’라고 하였다는 대목이다.¹⁵⁶⁾ 조선 관리들의 의복을 보고 아이들과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복과 다른 점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견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의복이 원래 전통 한족의 복식임을 알았던 것이다. 홍대용은 예부에 자문을 바치러 간 사신을 따라 간 자리에서 청나라 관리들의 복식을 보고 이를 평하면서 “오랑캐의 제도는 모두 간편함을 취한다”라고 표현하였다.¹⁵⁷⁾ 또 ‘그대 사신의 의관이 짐짓 옛 제도이니 그대의 나라는 예의 지방입니다’라는 표현도 보인다.¹⁵⁸⁾ 의복과 관련된 이러한 태도는 다른 ‘여행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엽 중국을 방문한 洪淳學은 자신의 여행기록인 『燕行歌』에서 중국인들의 차림이 괴이함을 경멸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¹⁵⁹⁾

한편 여행 문학 가운데는 중국인을 漢人과 滿人으로 구분하여 한인들과는 중화 문화를 공유한 동질성을 확인하되 만인은 오랑캐로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朴思浩는 『心田稿』에서 조선의 下隸들이

漢人과 滿人을 구분하지 못하고 통칭하여 오랑캐라 하여 개와 양을 대하듯 하는데 이는 매우 가소로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⁶⁰⁾ 『華音啓蒙』 상권에서도 이처럼 한인과 만인을 구분하는 태도를 나타내듯 李老爺가 張道台에게 民人(漢人)인지 旗人(滿洲人)인지를 묻는 설정이 있으며, 張道台는 民人이라고 대답한다.¹⁶¹⁾

이처럼 중국 안에서 華와 夷를 구분하여 華는 존송하되 夷는 멸시하는 태도는 조선 선비들이 중화문화의 보존자로서의 자부심과 청의 번속이라는 지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심리기제라고 볼 수 있다.¹⁶²⁾

조선이 중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華音啓蒙』의 이러한 서술 태도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익숙해 있던 ‘여행록’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서술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위정척사론자들의 尊明排淸 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양의 신식문물과 제도인 洋行이나 輪船을 소개하는 등 당시 중국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행록’을 답습했다거나 위정척사론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華音啓蒙』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정치를 담당할 ‘蠻夷’, 즉 만주 오랑캐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洋夷’, 즉 서양 오랑캐들의 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저변에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결국 중화의 전통을 잊지 못한 채 서양의 무력 앞에 무너졌으나 조선은 중화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위에 서구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洋夷’를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華音啓蒙』의 서술 태도는 동양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태도를 지칭하는 東道西器論의 입장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¹⁶³⁾

154) 『華音啓蒙諺解』 하권 3우.

155) 『華音啓蒙諺解』 하권 8우.

156)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2002, 앞의 책, 80쪽.

157)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2002, 앞의 책, 86쪽.

158) 홍대용 지음, 김태준·박성순 옮김, 2002, 앞의 책, 92쪽.

159) 김유경, 2005, 앞의 논문, 46~49쪽 참조.

160) 朴思浩, 『心田稿』 2, 「留館雜錄」.

161) 『華音啓蒙諺解』 상권 1좌.

162) 김유경, 2005, 앞의 논문, 47쪽.

동도서기론자의 대표인 김윤식이 중국을 신뢰하고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현실과 중국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華音啓蒙』의 서술 태도는 일견 모순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중국에 의지했던 것은 현실 정치가로서의 선택이지 결코 부패하고 몰락해 가는 중국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華音啓蒙』에서 보이는 소중화주의적 서술 태도는 오히려 동양의 전통인 道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몰락해 가는 중화제국에 대한 냉정한 인식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과 서양에 대한 『華音啓蒙』의 이러한 인식 태도는 저자 이응헌의 인식 태도,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국과 서양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예상 독자들이 중국과 서양에 대해 얻고자 했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도서기론과 일맥상통하는 『華音啓蒙』의 중국과 서양에 대한 인식 태도는 김윤식으로 대표되는 이 그룹의 중국과 서양에 대한 인식을 회화교재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V. 맺음말

조선은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을 통해 신식 기술과 문물을 배우기 위해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파견하는 등 외국문물에 관심을 가졌다. 외국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시대 문인·관료 등 지식인들은 통역은 中人인 역관들이 행하는 한낱 기술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들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개항을 전후하여 중국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지식인들은 중국어를 익힐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조선시대에 줄곧 사용되었던 중국어 회화교재이지만 개항기의 시대적 수요와 일치하지 않았다. 우선 교재의 내용이 당시 중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으며, 상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상행위와 관련된 회화로 구성된 『老乞大』의 경우 지식인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비루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적 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국어 교재가 필요하였으며, 『華音啓蒙』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간행된 교재이다. 『華音啓蒙』은 『老乞大』와는 달리 주요 등장인물이 사대부·관료 등이며, 내용도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는 이 책이 지식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중국어 학습 의욕을 유발하기 위해 편찬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華音啓蒙』에는 저자 자신이 소개하고자 했던 중국의 모습과 함께 예상 독자층인 당시의 지식인이 필요로 했던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華音啓蒙』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華音啓蒙』에서는 중국에 도입된 서양의 문물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묘사하여 몰락해 가는 중화제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이 오히려 유교도덕을 고수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소중화주의적 사고를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화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163) 노대환, 1999, 앞의 논문, 서론 참조.

며, 사상적으로 이 시기 東道西器論과 상통한다. 따라서 『華音啓蒙』 간행의 중심에는 중국을 통해 서양의 근대식 문물을 흡수하고자 했던 이른바 온건개화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華音啓蒙』이 어느 정도 통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 내용 자체가 획기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학교재는 개인적인 기록에 비해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華音啓蒙』의 간행 자체가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중국을 통해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익히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익혀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변화된 사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China in the Open-Door Period, viewed through a study of *Hwaeumgyemong*

Lee, Jae-Jeong

This study takes a historical approach to *Hwaeumgyemong* 華音啓蒙, a textbook for Chinese dialogue, compiled in 1883 (year 20 of Gojong reign) by Yi Eung-heon(李應憲), an interpreter official. It aim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book's publication.

A textbook for language can contain information not only on the language concerned but also on the cultural and periodical context, and may include world view or perspective of the writer or the intended readers. *Hwaeumgyemong*, a textbook of Chinese, is also a valuable historical source material and a reflection of its time. This is more so since the reason for its publication was the realization that the pre-existing texts have become obsolete, which indicates that the book would reflect a new situation.

Moreover, unlike *Nogeoldae*(老乞大) and *Baktongsa*(朴通事), its predecessors throughout the Joseon period, *Hwaeumgyemong* distinctively bears the name of its author and date of publication. The author Yi Eung-heon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interpreting officer during the Open-Door Period, when Korean ports were opening their doors to Western powers.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book is expected to shed some light on how government officials and intellectuals in that turbulent period understood and altered their views on China.

Under such theoretical assumption, chapter 1 evaluates *Hwaeumgyemong* as a historical source. Since it is a language textbook and contains materials for didactical purposes, it is difficult to expect its total agreement with contemporary social reality. However, the book is also presumed to have been based on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Yi Eung-heon himself, and can therefore offer some reflection on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Thus it is safe to conclude that *Hwaeumgyemong* is both a language text and a valid historical source.

Chapter 2 looks at the background for *Hwaeumgyemong*'s publi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as a textbook. Section 1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Those Korean intellectuals who had been visiting China to appreciate the Western products and culture imported there, had felt the necessity of learning the Chinese language. However *Nogeoldae* and *Baktongsa*, which had served as major Chinese textbooks up to that point, were deemed insufficient to inspire any motivation for the intellectuals, since the contents of both books were unrelated to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in which merchants were the protagonists in dialogues, and since their discourse was considered too vulgar to be of any interest for the scholars. Such realization had at last led them to the publication of *Hwaeumgyemong*. Sections 2 and 3 look at the main features of *Hwaeumgyemong* as a language textbook. Section 2 especially offers an analysis of the author Yi Eung-heon and Yun Tae-jun, who had written the introduction. Yi Eung-heon had worked as an

interpreting official at Tongrigimuamun(統理機務衙門), was very knowledgeable in Chinese affairs, and was therefore considered as an enlightened scholar, actively involved in importing Western thoughts and culture. Yun Tae-jun(尹泰駿), who wrote the introduction, was also one of the reformist scholars who were eager to learn and adopt Western ways. Therefore one can safely conclude that this book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drawing the attention of such intellectuals to learning Chinese. Section 3 speaks to a more specific type of readers. Although resembling *Nogeoldae* in its writing style, the main protagonists in *Hwaeumgyemong* are noble men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thus its contents are dealing with a higher part of the Korean society. The second part of the text especially is similar to *Yeonhaengsajoel*(燕行錄), which the envoys to China recorded. This indicates that this book was written for intellectuals, with the intention of inspiring them to study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Hwaeumgyemong* illustrates a picture of the Chinese society that Yi wished to present, as well as the information the readers expected, reflecting how intellectuals in those days thought about China and what type of information they sought from Chinese culture.

Chapter 3 is an analysis of how the western-influenced Korean intellectuals during the Open-Door Period viewed China, and offers a focus on the historical meaning of *Hwaeumgyemong*. Section 1 discusses the issues such as: the politics of foreign powers surrounding Joseon when its ports were being open to the W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oseon; and the attitude of Joseon intellectuals towards China. The Reformist Group who supported an open policy towards the West intended to follow the path of the

Chinese Yangmu(洋務) sect, who had adopted modern weapons and techniques from the West to increase the military power of China. However, after the Imo revolt(壬午軍亂), there was a divided view within the Reformist Group. Section 2 discusses the perception of China as appears in *Hwaeumgyemong* and analyzes the attitude of intellectuals towards the Western culture imported into China. The reason for their interest was because China was considered as the very route of importation of Western culture. This explains the favorable depiction of the western culture in *Hwaeumgyemong*. However the political reality of China is much criticized, reflecting a small scaled Sino-centrism. Such perception also reflects the view of the moderates within the Reformist group, represented by scholars such as Gim Yun-sik 金允植, and coincides with the philosophy called “Dong-do-seo-ki-ron(東道西器論, East-philosophy, West-technology).”

keywords

Hwaeumgyemong, a textbook for Chinese dialogue, Yi Eung-heon, Open-Door Period,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China



설림

발해의 建國年代와 建國地, 建國集團과 國號에 대하여

정 영 진 | 중국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

I. 머리말

발해의 건국연대와 건국지, 건국집단과 국호에 대한 연구는 발해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서 발해사의 역사귀속과도 연관이 있어 여러 국가 사이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 논고에서 그 사이 연구되어 온 상황을 기초로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을 밝히려고 한다.

II. 건국연대와 건국지

현존하는 역사문헌은 발해국의 건국시간과 건국지에 대한 기재가 상세하지 않거나 혹은 서로 다르기에 후세의 연구에 많은 혼란을 주었으며 서로 다른 견해들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를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설들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聖歷年間설이다.

『舊唐書』渤海靺鞨傳에는 “…… 聖歷中 自立爲振國王”이라고 하였다. ‘성력’ 연호는 당나라 則天武后가 사용하였던 연호 중의 하나로서 ‘성력’ 전에는 ‘萬歲通天’이고 이후에는 ‘久視’이다. ‘성력’ 연호의 사용 시기는 698년 1월부터 700년 6월까지로, 모두 2년 6개월 사용하였다. 『新唐書』渤海傳에는 구체적인 건국연대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이라 하였다. 『五代會要』의 기록은 『舊唐書』와 비슷하여 “…… 至聖歷中 稱臣朝貢”이라 하였다.

둘째는 698년설이다.

일본사서 『類聚國史』에는 “天之眞宗豐祖文武天皇二年 大祚榮始建渤海國 和銅六年受唐册立”이라 하였다. 金毓黻은 이 기록을 근거로 “성력원년(698, 일본 문무천황 2년)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으며 일본의 이 기록은 일본에서 발해사신으로부터 얻은 자료이기에 아주 진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발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건국연대를 따르고 있다.

셋째는 696년설이다.

조선의 『陝溪太氏族譜』의 편찬자와 『渤海國記』의 저자 黃維翰 등이 이 건국연대를 제출하였다. 『陝溪太氏族譜』에는 “唐中宗嗣聖十三年(696)丙申始建國 曰震國 自號曰震國公 在位三年 …… 唐中宗嗣聖十六年(699) 以祚榮拜爲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 遂卽王位”라고 하였다. 족보의 편찬자는 진국과 발해국을 2개의 실체로 보고 대증상이 696년에 진국을 건립하고 3년 후인 699년에 대조영이 발해국을 건립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黃維翰이 쓴 『渤海國記(下)』年表上에는 “丙申(696) 唐封震國公 …… 庚子(700) 振國王渤海太祖大祚榮天統元年”이라고 하여 진국과 발해국을 구별하여 보고 진국은 696년에 건국되고 발해국은 700년에 건립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인식의 근거는 『新唐書』渤海傳의 “萬歲通天中 …… 武后封乞四比羽爲許國公 乞乞仲象爲震國公”이라는 기록과 『舊唐書』渤海靺鞨傳의

“聖歷中自立爲振國”이라는 기록을 서로 보완하여 얻은 결론이다.

넷째는 703년설이다.

이 건국연대는 趙評春이 『震國立號年代考』에서 제출한 건국연대이다.¹⁾ 그는 이해고가 당나라에 투항한 시기를 神功元年(697) 六月 이후로 보고 神功元年 十月에 狄仁桀이 幽州都督에서 入京하여 鸞臺侍郎직을 맡고 聖歷元年(698) 8월에 “出仁桀爲納言”한 후 9월에 出京하여 河北道行軍元帥직을 맡고 성력 3년(700) 12월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內史를 맡았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적인걸이 내사로서 “掌王之八柄 爵祿廢置 生殺與奪”을 할 수 있을 때라야 이해고가 처형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해 納言할 수 있으며, 또한 벼슬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해고가 天門嶺을 넘어 대조영을 추격한 시기는 長安元年(701)이고 대조영이 東走하여 淸州의 故地인 동모산에 성을 쌓은 때는 장안 2년(702)부터 장안 4년(704) 사이이고, 무척천의 통치가 계속되기 전에 다시 대조영을 토벌할 수 없어 진국이 건국된 것은 오직 이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神龍元年(705)에 中宗이 즉위하여 사신을 보내 招慰하고 대조영도 遣子入侍하였는데 이로부터 진국은 이때 이미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장안원년에서 장안 2년 사이에는 대조영이 진국을 건립할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하한은 神龍元년에 中宗이 즉위하기 전으로 보아야 하며, 사서에서 말하는 ‘聖歷中’에 건국하였다는 것은 ‘長安中’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건국 전후의 역사 사실을 볼 때 ‘長安中’은 장안 3년, 즉 703년이라고 하였다.

다섯째는 684년설이다.

조선의 『帝王韻紀』에는 “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 於周則天天元甲申 開國乃以渤海名”이라고 하였는데 측천무후 갑신년은 684년이다.

여섯째는 678년설이다.

조선의 『三國遺事』에는 “……三國史云 儀鳳三年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라고 기록하면서 발해의 건국연대를 의봉 3년

1) 趙評春, 1989, 「震國立號年代考」, 『北方文物』4기.

(678)으로 정하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조선의 張國鍾은 발해의 최초 이름은 진국으로서 건국자는 대증상이고 건국연대는 678년이며 698년에 대증상의 아들 대조영이 황제국인 발해국을 건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陝溪太氏族譜』의 “姓大諱仲象 粟末部人 其先以乞乞爲姓 居白山部(在白頭山)也”라는 기록을 근거로 대증상의 선조는 고구려 시기에 세세대대로 백두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가 후에 속말수 부근으로 이주하였는데 모친은 葛氏이고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혀 정치·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되었다고 하였다.²⁾

장국중은 또 『帝王韻紀』와 『陝溪太氏族譜』의 기록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후 한반도 북부와 요동반도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이 건립한 ‘고려국’이 존재하였고 동모산 일대에는 걸걸중상이 세운 ‘小國’이 존재하였는데 678년에 그는 소국의 정치세력을 확장하여 ‘진국’을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걸걸중상은 황제국을 건립하기 위하여 영주지역에 대조영을 장수로 하는 별동대와 같은 부대를 파견하여 696년에 영주지역에서 생활하던 거란·말갈인들과 함께 반당폭동을 일으켰다. 이때 국내(진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아들을 영주지역으로 파견하였던 걸걸중상은 부대를 거느리고 수도(동모산 일대)를 떠나 대조영 부대와 만난 후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고, 東走하던 중 걸걸중상은 병사하였다. 대조영은 계속 부대를 인솔하여 진국의 수도인 동모산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에서 40만 대군을 모집하여 698년에 황제국인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다. 발해국이 성립되자 평안남북도 서부와 요동 일대에 있던 ‘고려국’은 스스로 ‘侯國’으로 편입되어 발해국의 일부로 되었다고 하였다.³⁾ 장국중의 이런 논술에서 어떤 것은 『帝王韻紀』와 『陝溪太氏族譜』의 토막기록에 의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아무런 사료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서술이다.

장국중은 건국연대에 대한 이런 서술 외에도 발해의 종족 구성이나 강역, 말갈 7부에 대한 해석 등 많은 문제에서 자기의 관점과 어긋나면 모두 ‘발해의 고

구려 계승성을 부정하기 위해 날조된 기록’이라고 규정짓고, 자기의 관점에 도움이 되면 『帝王韻紀』, 『陝溪太氏族譜』 등 후세에 의해 만들어진 僞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徐炳國도 장국중의 이런 관점과 흡사하다.⁴⁾

그렇다면 『帝王韻紀』와 『陝溪太氏族譜』는 어떤 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帝王韻紀』는 고려 시기의 李承休가 1287년에 七言詩와 五言詩로 지은 長篇歷史詩로서 상·하 두 권으로 되었으며 상권은 중국역사, 하권은 조선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권에서 후백제 뒤에 발해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正文과 註釋을 합하여 모두 138자로서 아주 간단하다. 『帝王韻紀』의 초판은 이미 실전되었고 현존하는 판본은 1360년의 재판본과 1417년의 판본이다. 한국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현존의 판본은 후세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서 일연의 역사서 『三國遺事』와 비교하면 풍부한 역사사실의 기록은 별로 없어 사료가치에 대해 허다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학자들이 이 책을 引用할 때 아주 慎重하며 북한의 박시형도 『渤海史』를 쓸 때 이 책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陝溪太氏族譜』는 1646년에 처음으로 『北道舊譜』를 완성하고 1856년에 『南道舊譜』로 개편되어 1927년에 재차 발행하였다. 『陝溪太氏族譜』는 몇 세대의 增補를 거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대의 판본이다. 족보 중의 발해국 王世略史는 기본적으로 신구당서의 내용을 옮겨 쓴 것이지만, 아무런 사료근거도 없는 일부 단락도 등장하여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학계는 물론이고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도 기본상 족보를 사료로 취급하지 않기에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북한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족보를 근거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관점을 제기하고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파문을 주고 있다.

발해의 건국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천문령 전투 이전에 요하유역에서 진국을 건립한 후 다시 동주하여 동모산에 정착하였다는 것이고,⁵⁾ 다른 하나는 천문령 전투 이후 계속 동주하여 읍루

2) 張國鍾, 2001, 『渤海國과 靺鞨族』, 중심, 41쪽.

3) 張國鍾, 1997, 『渤海史研究』 1집, 조선사회과학출판사, 15~16쪽.

4) 徐炳國, 2005, 『渤海帝國史』, 西海文集, 43쪽.

의 고지인 동모산에 도착하여 진국을 건립하였고 713년에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 받으면서 발해로 개칭하였다는 것이다.⁵⁾

이상으로 여러 학자들의 발해 건국연대와 건국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관점에서 북한의 장국종과 남한의 서병국이 주장하는 678년설과 대증상이 진국을 건립하고 698년설, 그리고 대조영이 발해국을 건립하였다는 설은 『帝王韻紀』와 『陝溪太氏族譜』 등 사료가치가 별로 없는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제기한 관점이기에 토론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기타 여러 설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자의 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발해의 건국연대와 건국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료는 『舊唐書』, 『新唐書』, 『五代會要』이다.

『舊唐書』渤海靺鞨傳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 萬歲通天年 契丹李盡忠反叛 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 盡忠既死 則天命右玉鈴衛大將軍李楷固率兵討其餘黨 先破斬乞四比羽 又度天門嶺以迫祚榮 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 …… 則天不能討 祚榮遂率其衆東保桂婁之故地 据東牟山 築城以居之 祚榮驍勇善用兵 靺鞨之衆及高麗餘燼 稍稍歸之 聖歷中 自立爲振國王 遣使通于突厥

『新唐書』渤海傳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地直營州東二千里 南北新羅 以泥河爲境 東窮海 西契丹 築城郭以居 高麗遺殘稍歸之 萬歲通天中 契丹盡忠殺營州都督趙嗣反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 武后封乞四比羽爲許國公 乞乞仲象爲震國公 赦其罪 比羽不受命 後詔玉鈴衛大將軍李楷固 中郎將索仇擊斬

之 是時仲象已死 其子祚榮引殘夷遁去 楷固窮蹙 度天門嶺 祚榮因高麗靺鞨兵拒楷固 楷固敗還 于是契丹附突厥 王師道絕 不克討 祚榮即并比羽之衆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五代會要』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渤海靺鞨 本高麗種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散居中國 置州縣于遼外 就平壤置安東都護府以統之 至萬歲通天中 契丹李萬榮反攻陷營府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四比羽 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 則天封乞四比羽許國公 大舍利乞乞仲象震國公 乞四比羽不受命 則天命將軍李楷固臨陣 斬之 時乞乞仲象已死 其子大祚榮繼立 軻有比羽之衆 勝兵丁戶四十餘萬 保据挹婁故地 至聖歷中 稱臣朝貢

이상의 세 기록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영주를 떠나 동주할 때의 統帥를 『구당서』에서는 “祚榮與乞四比羽各領亡命”이라 하여 인솔자는 대조영과 걸사비우로 되어 있다. 『신당서』에서는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이라 하고, 『오대회요』에서는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四比羽”라고 하여 인솔자는 걸걸증상과 걸사비우로 되어 있다.

둘째, 영주를 떠난 후 잠시 머물던 곳과 요수를 지났는지에 대해 『구당서』는 “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라고 하여 잠시 머물던 곳과 요수를 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신당서』에서는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라 하여 요하를 건넌 것으로 되어 있고, 『오대회요』는 “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라 하여 요하를 건너 요동에 도착하였으며 고려고지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천문령을 지난 여부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 『구당서』는 “又度天門嶺 …… 東保桂婁之故地 据東牟山 築城以居之”라 하여 천문령을 넘은 것이 확실하며 종착지는 계루고지인 동모산이라고 하였다. 『신당서』는 “度天門嶺 恃荒遠 乃建國”이라고 하여 천문령을 지났으나 최종 목적지는 언급이 없다. 『오대

5) 吳煥一, 1999, 「발해의 건국연대 검토」, 『발해사연구』 8집, 연변대학출판사.

6) 이는 대다수 학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회요』는 “其子大祚榮繼立 …… 保据挹婁故地”라고 하여 천문령에 대한 언급은 없고 최종 목적지는 읍루고지라고 하였다.

넷째, 건국시의 국명과 건국연대에 대해 『구당서』는 “聖歷中 自立爲振國王”이라 하여 구체적인 건국연대는 없고 다만 성력중이라고 하였으며 국호는 振國이라고 하였다. 『신당서』에서는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이라 하여 건국연대는 언급이 없고 국호는 震國이라고 하였다. 『오대회요』는 “至聖歷中 稱臣朝貢”이라 하여 건국연대를 성력중이라 하고 구체적인 연도는 없으며 국호도 언급이 없다.

이상 3개 사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보완하여 건국경과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⁷⁾

1. 이진충의 “營州之亂”을 틈타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영주지방을 이탈한다.
2. 동쪽으로 이동하여 요수를 건너 요동에 도착한다.
3. 고려고지에서 왕이 된다.
4. 측천무후가 걸사비우를 허국공으로 봉하고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봉하여 죄를 사면하나 걸사비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측천무후가 이해고를 보내 걸사비우를 죽인다. 이때 걸걸중상이 죽고 아들인 대조영이 계승한다.
6. 대조영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의 무리를 통솔하여 천문령에 이른다.
7. 이해고가 천문령까지 추격하여 쌍방은 크게 싸우나 이해고가 패퇴한다.
8. 이때 거란이 돌궐에 붙어 당나라의 길이 끊어지고 다시 토벌하지 못한다.
9.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동주하여 읍루의 고지인 동모산에 이른다.

아쉬운 것은 중국의 문헌에는 구체적인 건국연대가 없이 『구당서』에서는 “聖歷中 自立爲振國王”이라 하고, 『오대회요』에서는 “至聖歷中 稱臣朝貢”

7)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61쪽.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성력연간은 698년 1월부터 700년 6월까지이다. 그러나 일본의 『類聚國史』에는 “天之眞宗豊祖父天皇(文武天皇)二年, 大祚榮始建渤海國”이라 하였는데, 문무천황 2년은 바로 698년으로서 『구당서』와 『오대회요』에서 말하는 성력중의 성력원년이다.

그런데 발해가 698년에 건국하였다면 사서의 기록과 모순되는 점이 많다. 이진충의 반란시기는 696년 5월이고, 697년 6월에 반란을 평정하고 거란명장 이해고와 낙무정이 당나라에 투항한다.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사서에는 이해고와 낙무정이 당에 투항한 후 목이 잘릴 뻔하였지만 적인걸이 그들을 위해 ‘納言’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고 벼슬까지 주어 그들로 하여금 거란 잔당들을 진압하게 하였으며, 이들은 거란 잔당을 평정하고 700년 6월에 개선하여 포로를 승樞殿에서 바쳤다고 하였다.⁸⁾

이해고가 측천무후의 명령에 따라 걸사비우를 토벌하고 죽인 사실과 천문령전투의 시간을 검토하면 698년에 진국을 세운 시간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趙評春은 진국이 건립되기 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면 이해고가 천문령을 넘어 대조영을 추격한 시기는 장안원년(701)이고 진국을 건립한 연대는 703년으로서 사료 중의 ‘성력’은 ‘장안’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⁹⁾ 한국의 송기호도 이전에는 이해고가 걸사비우를 토벌한 시기와 천문령전투 시기를 700년 6월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추정하였으나¹⁰⁾ 후에는 698년 이전으로 고쳤다.¹¹⁾ 노태돈도 천문령전투의 시기를 700년에서 멀지 않은 때로 보았고,¹²⁾ 오환일도 이해고가 출전하여 걸사비우를 토벌한 시기와 천문령전투의 시기를 700년으로 보았다.¹³⁾

8) 『舊唐書』 권89 적인결전; 『新唐書』 권115 적인결전, 권219 거란전; 『資治通鑑』 권206 則天后久視元年六月條.

9) 趙評春, 1989, 앞의 논문.

10) 송기호, 1991, 「대조영의 출자와 건국과정」, 『아세아문화』 7호, 한림대학교아세아문화연구소.

11) 송기호, 1995, 앞의 책, 61~62쪽.

12) 노태돈, 1996, 「발해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10집, 국사편찬위원회, 27~28쪽.

13) 오환일, 1999, 앞의 논문.

그렇다면 698년에 발해가 건국하였다는 일본의 기록과 이해고가 토벌에 나선 시기와 천문령전투의 시기가 서로 맞지 않은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앞에서 발해의 건국과정을 9단계로 나누었는데, 측천무후가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를 진국공과 허국공으로 봉하였으나 걸사비우가 이를 거절하여 측천무후가 이해고를 보내 걸사비우를 죽이니 이때 걸걸중상은 사망하고 대조영이 두 집단의 무리를 이끌고 천문령에서 이해고와 싸워 이해고가 크게 패하고 도망간 일련의 사건들은 4단계에서 7단계 사이에 벌어진 일로서 모두 698년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본사서에는 발해가 698년에 건국되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어 이와 모순된다. 일본사서에 발해가 698년에 건국하였다는 기록은 일본 사신들이 발해와 접촉하면서 얻은 믿을 만한 기록이기에 의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698년의 발해건국은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이다. 696년 이진충이 난을 일으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영주를 이탈하여 동쪽으로 요하를 건너 고려고지에서 왕으로 되었다는 이 고려고지는 분명히 요동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五代會要』와 『新五代史』의 “分王高麗故地” 기사와 『舊唐書』의 “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 …… 李楷固率兵討其餘黨”이라는 기사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고려고지에서 왕으로 되었다는 기록을 부정하고 있지만¹⁴⁾ 충분한 근거도 없이 추측과 가설로 사서의 기록을 경솔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新唐書』와 『五代會要』에는 모두 측천무후가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를 진국공과 허국공으로 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이 각자 지기의 무리를 이끌고 요하를 건너 요동에 도착한 후 진국과 허국을 세웠기에 측천무후가 진국공과 허국공의 봉작을 내렸을 것이다. 『五代會要』의 “…… 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 則天封乞四比羽許國公 大舍利乞乞仲象震國公”이라는 기록은 먼저 진국과 허국이 있었고 다음에 측천무후의 책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舊唐書』의 기록으로 보아도 동주한 후 먼저 “保阻以自固”하였고, 후에 이해고의 토벌과 천문령전투가 있

었다. 이 “保阻以自固” 한 지방이 바로 요동이고, 또한 요동은 오랫동안 고구려의 영토였기에 고려고지에서 왕으로 되었다는 기록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로 하여 후세의 중국 측 기록은 모두 대조영을 발해국의 건국자로 하였으나 발해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인 걸걸중상이 698년에 요동에서 세운 진국을 개국연대로 삼았고, 이런 정보를 일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일본의 사서에 698년이라는 발해의 건국연대를 똑똑하게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聖歷中’과도 기본적으로 어울린다.

결론적으로 발해는 698년에 건국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먼저 요동에서 걸걸중상이 진국의 건립을 선포하였으며, 그후 이해고가 측천무후의 명을 받고 토벌에 나서 걸사비우를 참살하고 이 무렵 걸걸중상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대조영이 두 무리를 거느리고 천문령에 도착한다. 이때 대조영을 추격하던 이해고는 천문령에서 대조영과 크게 싸웠으나 이해고가 대패하고 홀몸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즈음 契丹과奚가 모두 돌궐에 투항하여 길이 끊기니 측천무후는 다시 토벌할 수 없게 되고 대조영은 계속 무리를 이끌고 동주하여 700년 전후에 읍루의 고지인 동모산에 도착한 후 성을 쌓고 머물게 되었다. 713년에 당나라에서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한 후 이때부터 발해로 국호를 고쳤다. 처음으로 진국을 세운 건국자는 걸걸중상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당나라의 군사와 싸우고 동주하여 동모산에서 성을 쌓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까지 시종 대조영이 통솔하였기에 후세의 모든 사서에서 발해의 건국자를 대조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발해인 자신들은 건국연대를 698년으로 정하고 이 사실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14) 魏國忠 等, 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쪽.

Ⅲ. 건국집단

발해의 건국집단에 대한 토론은 발해사 연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한 쟁점도 많은 문제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 발해사 연구자들은 발해건국집단의 구성문제를 에워싸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기하였으며,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발해의 역사귀속과 연관이 있기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발해국을 건립한 주체민족은 말갈이고 『舊唐書』의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와 『新唐書』의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는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라 『신당서』에서 『구당서』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하였을 뿐이라고 하며 고려별종은 곧 고구려에 귀속되었던 말갈이라고 주장한다. 이 방면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은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과 한국의 학자 대부분은 고려별종은 곧 고구려 사람이고 발해 건국집단은 고구려의 유민으로서 대씨 가족은 고구려 귀족 출신이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장국중은 역대 사가들이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말갈 7부론을 조작하였고 속말갈설과 발해말갈설을 날조하였다고 주장한다.¹⁵⁾ 한국의 한규철도 말갈은 범칭으로서 특정민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갈 7부 중의 다수는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였다.¹⁶⁾

송기호는 중국·일본·북한의 사료 중 발해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대조영은 순수한 고구려인도 아니고 순수한 말갈인도 아니며 중간적인 존재라고 하였다. 대조영은 순수한 말갈족으로서 고구려에 온 후 고구려화의 과정을 거

쳤으며, 걸걸증상과 대조영 시기에는 이런 과정이 가속화되었다고 하며, 대조영을 말갈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고구려 귀속의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의식이 이후 발해를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역사성격은 왕실의 출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해 국가를 통치하는 귀족집단의 구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발해는 말갈계 고구려인 대조영과 그를 보좌하는 고구려계 인물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였고, 특히 고구려계가 명확한 고씨가 유력한 귀족집단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였다.¹⁷⁾ 송기호는 비록 대씨 집단은 말갈혈통임을 승인하지만 대조영 시기에는 이미 고구려화가 되었고 발해통치집단 중 고구려계 귀족이 절대다수를 점하였기에 발해는 의연히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중국·북한·한국 학자들의 관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는 발해의 건국집단이 말갈이나, 아니면 고구려 유민이나 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발해사는 중국사인가, 아니면 한국사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전개된다.

필자는 우선 발해사가 중국사인가 아니면 한국사인가를 떠나서 발해사 자체를 독립적인 개체로 설정하고,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문헌을 검토하고 발해의 건국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해의 건국집단을 검토하려면 우선 ‘營州之亂’과 ‘東走’시에 참여한 집단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기본 사료는 다음과 같다.

『舊唐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 萬歲通天年 契丹李盡忠反叛 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 …… 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

『新唐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5) 장국중, 2001, 앞의 책, 119~204쪽.

16)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 관계사연구』, 신서원.

17) 송기호, 1995, 앞의 책, 23~76쪽.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
高麗遺殘稍歸之 ……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
種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 …… 其子祚榮引殘
遁去 楷固窮蹙 度天門嶺 祚榮因高麗靺鞨兵拒楷固

『五代會要』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渤海靺鞨 本高麗種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散居中國 置州縣于
遼外 就平壤置安東都護府以統之 ……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四比羽 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 則天封乞四比羽許國公
大舍利乞乞仲象震國公 乞四比羽不受命 則天命將軍李楷固臨陣 斬之
時乞乞仲象已死 其子大祚榮繼立 軻有比羽之衆

『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謹按渤海之源流也 句麗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 靺鞨之屬 實繁有徒
是名粟末小蕃 當逐句麗內徙 其首領乞四比羽及大祚榮等 至武后臨朝之
際 自營州作孽而逃 輒据荒丘 始稱振國 時有句麗遺燼 勿吉雜流
……

이 밖에도 발해건국집단과 관련된 기록이 있지만 대동소이하기에 생략한
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발해 건국에 참여한 주요 집단으로는 고려별종과
고려에 붙은 자로 표현되는 집단, 靺鞨酋 혹은 靺鞨反人으로서 표현되는 집단, 高
麗餘燼 혹은 高麗之衆으로 표현되는 3개의 집단이 있다. 고려별종 혹은 고려
에 붙은 자로 표현되는 집단과 高麗餘燼 혹은 高麗之衆으로 표현되는 집단의
통솔자는 최초에는 걸걸중상이고 후에는 그의 아들인 대조영이었으며 말갈추
혹은 말갈반인으로 표현되는 집단의 통솔자는 걸사비우였으나 후에 대조영의
대오에 통합되었다. 이 3개의 집단에서 高麗餘燼과 高麗之衆은 고구려가 멸망
한 후 영주지방으로 이주한 원 고구려 유민들로서 이점은 발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 나머
지 두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에 주요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대조영 집단과 걸사비우 집단은 사실상 하나라고
보고 모두 속말말갈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걸사비우가 인솔한 집단
은 북조 후반부터 당나라 초기에 육속 內附 혹은 內屬하여 영주 일대에서 생활
한 속말말갈과 기타 부락연맹이고, 대조영 일가 및 그가 인솔한 말갈은 고구려
가 멸망한 후 영주로 이주된 속말말갈이라고 하여 두 집단을 구별하고자 하였
으나 역시 이들을 속말말갈로 보고 있다.¹⁸⁾

문헌기록으로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2개의 집단이다. 『구당서』에
는 “祚榮與靺鞨酋乞四比羽各領亡命”이라 하고 『신당서』에는 “有舍利乞乞仲
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 度遼水”라고 하였으며, 『오대회요』는
“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四比羽走保遼東”이라 하여 아주 명
백하게 두 집단은 서로 다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한국의 대다수
학자들은 고려별종이 곧 고구려 유민 혹은 고구려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소수의 학자 외에는 고려별종 앞에 계속 붙어 다니는 “渤海靺鞨大祚榮
者” 혹은 “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고려별종이 고구려 사람이라고만 강조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고려별종’ 앞
의 ‘渤海靺鞨’ 혹은 ‘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는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날조한 기록이라고 한다.¹⁹⁾

사서의 기록으로 보면 걸사비우가 인솔한 집단이 말갈집단이라는 점은 분
명하고 걸걸중상과 대조영이 인솔한 집단도 말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역
시 말갈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조영을 기록하면서 지속적
으로 발해말갈이라고 하거나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라고 할 수 없다. 고
려별종을 고구려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그 앞에 있는 주어를 무시하거나 이런
기록을 모두 날조한 기록으로 취급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평성을 잃는 것이다.
사서에서 이들 두 집단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말갈 중의 부가 서로 다르거
나 그들의 경력이 서로 다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구당서』의 “高麗既滅 祚

18) 魏國忠 等, 2006, 앞의 책, 23~24쪽.

19) 장국중, 2001, 앞의 책, 173쪽.

榮率家屬徙居營州”라는 기록과 『오대회요』의 “高宗平高麗 徙其人散居中國”이라는 기록은 고려별종으로 부르는 걸걸중상과 대조영은 모두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로부터 영주지방으로 이주한 집단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걸사비우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없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두 집단 중 하나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장기간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고 고구려가 멸망된 후 영주지방으로 이주한 말갈부락으로서 문헌에서 말하는 ‘고려별종’ 혹은 ‘고려에 붙은 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멸망되기 전에 이미 영주지방에서 생활하였던 고구려와 관련이 없는 말갈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말갈은 7부로 나누는데 이 7부 중에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부는 백산말갈과 속말말갈 둘뿐이다. 백산말갈은 고구려 경내의 동북부에서 오랫동안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으며 백두산 부근, 즉 지금의 길림성 연변과 한반도 동북부에서 살았다. 이 지역은 본래 옥저인들이 살던 곳으로서 고구려 태조대왕 4년(56)에 옥저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수나라 시기에는 백산말갈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고구려 경내의 원주민이었던 옥저와 고구려인들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고구려 경내의 주요한 주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서에는 “其白山部素服于高麗”²⁰⁾ 혹은 “白山本臣高麗”²¹⁾라고 기록하였으며 고구려를 따라 신라·백제 혹은 수·당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여하였다. 隋文帝開皇 18년(598) 고구려 영양왕이 말갈의 무리 1만여 명을 이끌고 요서를 공격하니 영주총관 韋◀이 격파하여 달아났다(率靺鞨之衆萬餘騎寇遼西 營州總管韋◀擊走之).²²⁾ 정관 19년(645)에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 북부 옥살 高惠貞이 고구려 군대와 말갈무리 10만을 이끌고 지원하였으며(高麗北部褥薩高惠貞引兵及靺鞨衆十萬來援)²³⁾ 매번 전투에서 말갈이 선두에 나섰다(每戰 靺鞨常居前).²⁴⁾ 백산은 본래 고려의 신하였는데

20) 『舊唐書』靺鞨傳.
21) 『新唐書』黑水靺鞨傳.
22) 『隋書』高麗傳.
23) 『新唐書』高麗傳.
24) 『新唐書』黑水靺鞨傳.

당나라군이 평양을 함락하니 그 무리의 다수가 당나라에 들어갔고(白山本臣高麗 王師取平壤 其衆多入唐)²⁵⁾ 고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족을 이끌고 영주로 이주하였다(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²⁶⁾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백산말갈은 오래전부터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고구려를 따라 출전하고 선봉으로 나섰으며 고구려가 멸망하자 백산말갈과 대조영은 함께 영주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속말말갈은 속말수 부근에서 생활하고 고구려와 접하였으며 자주 고구려를 침범하였고 수·당 시기에는 고구려의 경계가 이미 속말수(복송화강) 일대까지 미치지 않았다. 漢魏시기 속말수 일대는 부여인들의 거주지였고 西晉부터 南北朝시기에는 부여 서쪽의 鮮卑·前燕, 남쪽의 高句麗, 북방의 勿吉 등 거듭되는 공세에 갈수록 쇠퇴해지고 고구려 호태왕 때에는 부여왕성을 점령하여 고구려가 북방의 물길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군사기지(吉林市 龍潭山山城)로 되었으며 부여는 서쪽으로 지금의 農安縣 일대로 옮기었다. 그 후 물길이 계속 남하하면서 속말수 이북의 부여고지로 들어와 속말수 유역의 주요 부족으로 되었으며 고구려와 접하였다.

남북조 시대의 물길이 수·당시기에는 말갈로 改稱하고 속말수 북쪽 일대에서 생활하였다. 속말부는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태백산 가까이에 있었는데 徒太山이라고도 하며 고려와 접하고 속말수에 의거해 거주하였다(粟末部 居最南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²⁷⁾ 속말말갈은 군사가 수천에 달하고 용감하여 번번이 고구려를 침탈하였으며(粟末靺鞨勝兵數千 多驍勇 每寇高麗)²⁸⁾ 변경지대에서 수시로 고구려와 싸웠다. 『太平寰宇記』에는 “開皇中 粟末靺鞨與高麗戰 不勝 有厥稽部渠長突地稽者 率忽使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保括利部 凡八部 勝兵數千人 自夫餘城西北舉部落向關內附 處之柳城”이라고 기록하였는데²⁹⁾ 수나라 때의 유성이

25) 『新唐書』黑水靺鞨傳.
26) 『舊唐書』渤海靺鞨傳.
27) 『新唐書』黑水靺鞨傳.
28) 『隋書』靺鞨傳.

바로 당나라 시기의 영주로서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 일대이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토벌할 때 돌지계가 그 무리를 이끌고 함께 싸웠는데 번번이 공을 세워 후한 상을 받았다(突地稽率其徒以從 每戰戰功 賞賜甚厚).³⁰⁾ 唐高祖武德 2년(619) 10월 말갈추장 돌지계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돌지계는 말갈추장이다. 隋大業 연간에 형 瞞咄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영주로 내속하였다. 만돌이 죽으니 그 무리를 통솔하고 요서태수로 되고 부여후로 봉하였다(靺鞨酋帥突地稽遣使朝貢 突地稽者 靺鞨之渠長也 隋大業中 與兄瞞咄率其部內屬于營州 瞞咄死 代總其衆 拜遼西太守 封夫餘侯).³¹⁾

이로부터 속말말갈은 고구려와 접하였고 고구려와 수시로 마찰이 있었으며 또한 수·당을 도와 고구려를 토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수나라 때부터 영주 일대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속말말갈이 고구려에 복속되었는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당서의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는 기록에 의거해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당서의 이 기록 외에 속말말갈이 고구려에 ‘臣附’ 혹은 ‘內屬’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고구려를 도와 전투를 한 기록도 없다. 반대로 번번이 고구려를 침범하고 여러 차례 수·당이 고구려를 토벌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후한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백산말갈에 대한 기록과 현저히 대조된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속말말갈이 종래로 고구려에 예속되지 않았으며 대조영은 백산말갈 사람이라고 주장한다.³²⁾ 필자는 이 설이 문헌기록과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고려별종’, ‘고려에 붙은 자’인 걸걸중상과 대조영집단은 장기간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영주지역으

로 이주한 백산말갈집단이고 그가 인솔한 것은 백산말갈과 고구려 유민이다. ‘말갈추’, ‘말갈반인’으로 표현되는 걸사비우 집단은 수나라 때부터 속말수 유역에서 ‘내부’ 혹은 ‘내속’하여 영주 일대로 이주한 속말말갈집단이다. 대조영집단이 백산말갈이기에 천문령에서 이해고를 격파하고 속말말갈의 故地인 송화강 유역에 定都하지 않고 백산말갈의 故地인 지금의 연변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는 대조영집단이 백산말갈 집단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발해 건국 당시 참여한 주요 세력은 2개 집단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즉 걸걸중상과 대조영을 統帥로 하는 백산말갈, 고구려 유민과 걸사비우가 이끈 속말말갈인데, 걸사비우가 참살을 당한 뒤에 대조영이 이들 세 부류를 통솔하면서 발해국의 사실상의 개국자가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東奔’ 대오에 이상의 세 부류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반란에 참여하였던 많은 漢人과 거란인 등이 참여하였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추측도 하였는데³³⁾ 이런 추측은 어디까지 추측에 불과하고 문헌의 기록이 없기에 고증하기 어렵다. 다만 발해국이 건립된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기타 민족이 발해에 들어와 이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은 다른 문제이다.

IV. 국호

발해 건국 초기의 국호에 대하여 이전에는 모두 양당서의 ‘自立爲振國王’, ‘自號震國王’ 기록에 의해 보편적으로 발해 건국 시의 국호는 ‘振國’ 혹은 ‘震國’이고 후에 발해로 개칭하였다고 보고 있다. 1900년대에 일부 학자들이 발해 건국 초의 국호는 진국이 아니라 말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일부 논거를 제시하였으나³⁴⁾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근년에 일부 학자들이 다시

29) 『太平實事記』 권71 河北道·燕州條(引隋『北蕃風俗記』).

30) 『北史』 勿吉傳; 『隋書』 靺鞨傳.

31) 『册府元龜』 外臣部.

32) 李健才, 2002, 「唐代渤海王國的創建者大祚榮是白山靺鞨人」, 『渤海史研究』 9집, 연변대학출판사, 4~10쪽. 대조영이 백산말갈사람이라는 설은 일찍 일본 학자들이 이미 제기하였다. 津田左右吉, 1915, 「渤海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東京帝國大學, 118~122쪽;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的諸問題』, 風間書房, 28~31쪽.

33) 魏國忠 等, 2006, 앞의 책, 29쪽.

이 문제를 제기하고 발해국 최초의 국호는 진국이 아니라 말갈이라고 하면서 여러 갈래로 이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³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필자의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

최초로 발해 건국 시의 국호가 진국이 아니고 말갈이라고 제기한 근거로는 『新唐書』 渤海傳의 “始去靺鞨之號 專稱渤海”라는 기록을 들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갈’과 ‘발해’는 모두 국호를 의미하고 “自立爲振國王”과 “自號震國王”은 왕에 대한 칭호이지 나라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는 것이며 “敕持節宣勞靺鞨使鴻蘆卿崔忻井兩口 永爲記驗” 중의 말갈은 모두 대조영이 건립한 정권의 국호라는 것이다.

魏國忠 등이 2006년에 쓴 『渤海國史』는 1984년에 출판한 『渤海史稿』의 관점을 전면 수정하여 ‘진국’의 건립을 전부 ‘말갈국’의 건립으로 고치고 발해의 초기 국호에 대하여 고증하였다. 그들은 『新唐書』 渤海傳의 “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라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 외에 또 일부 사실을 들어 발해의 초기 국호가 진국이 아니라 말갈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의 논증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신·구당서』 중의 “自立爲振國王”과 “自號震國王”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편파적으로 “渤海靺鞨” “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를 강조하고 있다.金香은 ‘自號震國王’의 ‘진’을 국호로 잘못 이해한 최초의 기록은 『冊府元龜』의 ‘振國本高麗’인데, 이 기록은 비록 시대가 이르지만 『신·구당서』의 기록을 잘못 이해하여 나타난 착오로서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2차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1차적인 사료를 주요 근거로 하는 원칙에 따라 『冊府元龜』의 기록에 의해 발해국이 振國 혹은 震國으로 국호를 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冊府元龜』

의 기록만 보고 신구당서보다 더 이른 발해와 동시기의 신라인 최치원이 쓴 「謝不許北國居上表」를 보지 못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면 『신·구당서』도 모두 2차적인 자료로서 발해가 스스로 남긴 기록만이 제일 믿음성이 있는 원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해 사람들이 자체로 남긴 기록이 전무하기에 우리는 발해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謝不許北國居上表」는 최치원이 897년에 신라왕을 대신하여 당나라에 보낸 표문이다. 이 사료에서 이미 ‘振國’이란 단어가 등장하며 아주 명백하게 “始稱振國(自營州作孽而逃 輒據荒丘 始稱振國)”이라 하였다. 「謝不許北國居上表」는 지금까지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발해와 동시대의 사료로서 그 가치는 가장 권위성이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발해 건국 초에는 확실히 국호를 스스로 진국이라 하였고 최치원의 글에도 “始稱振國”이라 하였으며 『신·구당서』는 이러한 정보에 따라 “自立爲振國王” 혹은 “自號震國王”이라 하였다.金香은 ‘振國王’ 혹은 ‘震國王’은 왕에 대한 칭호이지 국호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振國 또는 震國이라는 국호가 없다면 振國王 혹은 震國王이란 왕호도 없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발해의 국호가 말갈이고 진국왕은 왕호라고 한다면 진왕이라 하여야지 진국왕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추론은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魏國忠 등이 발해국의 최초 국호는 말갈이라고 제시한 논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발해에 대한 제3자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기초는 당나라가 발해의 건국자를 말갈로 보고 이에 의거하여 발해국을 서술할 때 시종 ‘발해말갈’ 혹은 ‘말갈’로 표현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발해가 나라를 세웠을 때 스스로 정한 국호는 ‘振國’으로서 발해와 동시대에 있던 신라의 최치원은 명확하게 “始稱振國”이라 하였으며 그후의 『구당서』도 “自立爲振國王”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더 늦은 『신당서』는 “自號震國王”으로 기록하면서 振을 震으로 고쳤는데 최치원의 기록으로 ‘振國’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최치원의 ‘始稱’, 양당서의 ‘自立’, ‘自號’로 보아 발해 건국 초기의 국호는 진국이지 말갈이 아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발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발해가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개칭(713)한 이후에도 계속 발해를 말갈로 기록한 것이

34)金香, 1990, 「渤海國曾經稱過“震國”嗎?」, 黑龍江省上京遺址博物館編, 『渤海史學術討論會論文集』, 9~12쪽.

35)魏國忠等, 2006, 앞의 책, 50~58쪽.

보이는데(733, 734) 이는 주변국에서 발해를 말갈로 부른 他稱이라는 유력한 증거이다. 당나라에 비해 신라인이나 일본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신라의 최치원은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 보기도 하고 고구려 유민들의 나라로 보기도 하는 엇갈린 인식을 펴고 있고³⁶⁾ 일본의 사서에는 발해를 ‘발해말갈’, ‘말갈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려국’, ‘고려국왕’이라고도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발해 사람들은 건국 초에 스스로 국호를 ‘진국’이라 하였고 “始稱振國”, “自立爲振國王”, “自號震國王”은 이런 역사 사실의 진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渤海靺鞨’, ‘靺鞨國’, ‘高麗國’, ‘高麗國王’은 주변국들이 발해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말갈은 말갈인 각부의 자칭이 아니라 주변국의 사가들이 ‘北狄’을 멸칭한 것으로,³⁷⁾ 발해 자신이 이런 모욕적인 명칭으로 자신의 국호를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발해의 건국연대와 건국지, 건국집단과 국호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본문을 마치겠다.

1. 발해는 698년에 건국된 것은 의심할 바가 없고 먼저 요동에서 걸걸중상이 진국의 건립을 선포하였으며, 그후 이해고가 측천무후의 명을 받아 토벌에 나섰다. 결사비우를 참살하고, 이 무렵 걸걸중상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대조영이 두 무리를 거느리고 천문령에 도착한다. 이때 대조영을 추격하던 이해

고는 천문령에서 대조영과 크게 싸웠으나 이해고가 대패하고 홀몸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즈음 契丹과 奚가 모두 돌궐에 투항하여 길이 끊기니 측천무후는 다시 토벌할 수 없게 되고, 대조영은 계속 무리를 이끌고 동주하여 기원 700년 전후에 읍루의 고지인 동모산에 도착한 후 성을 쌓고 머물게 되었다. 713년에 당나라에서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한 후 이때부터 발해로 국호를 고쳤다. 처음으로 진국을 세운 건국자는 걸걸중상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당나라의 군사와 싸우고 동주하여 동모산에서 성을 쌓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까지 시종 대조영이 통솔하였기에 후세의 모든 사서에서 발해의 건국자를 대조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발해인 자신들은 건국연대를 698년으로 정하였고 이 사실을 일본에 전하여 확실하게 기록하였다.

2. ‘고려별종’ 혹은 ‘고려에 붙은 자’인 걸걸중상과 대조영집단은 장기간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영주지역으로 이주한 백산말갈집단이고 그가 인솔한 것은 백산말갈과 고구려 유민이다. ‘말갈추’, ‘말갈반인’으로 표현되는 결사비우집단은 수나라 때부터 속말수 유역에서 ‘내부’ 혹은 ‘내속’하여 영주 일대로 이주한 속말말갈집단이다. 대조영집단이 백산말갈이기에 천문령에서 이해고를 격파하고 속말말갈의 故地인 송화강 유역에 定都하지 않고 백산말갈의 故地인 지금의 연변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는 대조영 집단이 백산말갈집단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이렇듯 발해 건국 당시 참여한 주요 세력은 2개 집단 세 부류 사람들이다. 즉 걸걸중상과 대조영을 統帥로 하는 백산말갈, 고구려 유민, 결사비우가 이끈 속말말갈이 그들이다. 결사비우가 참살을 당한 후 대조영이 이 세 부류를 통솔하면서 발해국의 사실상의 개국자가 되었다.

3. 발해 사람들은 건국 초에 스스로 국호를 ‘진국’이라 하였고 ‘始稱振國’, ‘自立爲振國王’, ‘自號震國王’은 이런 역사 사실의 진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渤海靺鞨’, ‘靺鞨國’, ‘高麗國’, ‘高麗國王’은 주변국들이 발해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말갈은 말갈인 각부의 자칭이 아니라 주변국의 사가들이 ‘北狄’을 멸칭한 것으로, 발해 자신이 이런 모욕적인 명칭으로 자신의 국호를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36) 송기호, 1988, 「신라의 발해에 대한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한국사론』 19, 서울대학교 사학과.

37) 馬一虹, 2002, 「從唐, 日本及新羅典籍中有關的稱謂看三國對渤海的認識」, 『歐亞學刊』 第3輯.

[ABSTRACT]

Founding Time, place, Group and National name of Balhae

Zheng, Yingzin

The study of the year of founding Balhae state, the location of founding the state, groups of founding the state and the title of the state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 study of Balhae history. There are many differences and debates among the scholars and countries on this study and it also related to the historical ownership of Balhae history.

It is no doubt that Balhae was founded in 698 when Qiqizhongxiang(乞乞仲象) in Liaodong(遼東) declared to establish the state of Chin(振國). Li kaigu(李楷固) received Queen Wuzetian's instruction to suppress the Chin state. When Qisibiyu(乞四比羽) was murdered, Qiqizhongxiang had been died and his son, Tae cho-yong(大祚榮) led two groups to Tianmen Mountains(天門嶺) where Tae cho-yong and Li kaigu fought fiercely and Li kaigu was defeated utterly and ran away alone. At that time, the Khitan and Xi(奚) had fell to the Turks, the road to send armed forces to suppress the Chin state had been broken off, therefore Queen Wuzetian had no way to continue to suppress Tae cho-yong. Around 700, they arrived in Dongmou-shan(東牟山), yilou(挹婁)'s onetime area, where they began to build city and settle down. In 713, T'ang China conferred Tae cho-yong the title of the "Balhae King". From then on, the title of the state changed from Chin

to Balhae. Therefore, Qiqizhongxiang founded the state of Chin, but after he died, it was Tae choyong that fought with T'ang forces, built city in Dongmou-shan and set up the basic frame of the country. Although Tae choyong was recorded as the founder of Balhae in the later historical materials, the people of Balhae themselves held that the year of founding Balhae was 698, which passed to Japan and was recorded definitely.

The group of Qiqizhongxiang and Tae cho-yong as Gaoli-biezhong(高麗別種) and Gaoli-yifuzhe(高麗的依附者) had been subordinated to Koguryo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en Koguryo fell, they migrated to Yingzhou(營州) area and settled there. This group was Baishan-mohe(白山靺鞨) including Baishan-mohe and the remnants of Koguryo. The group of Qisibiyu as Mohe-qiu(靺鞨酋) and mohe-fanren(靺鞨反人) had been settled in the valley of Shumo-shui(粟末水). The group of Tae cho-yong didn't settled and established capital in the Songhuajiang(松花江) valley of the onetime area of shumo-mohe(粟末靺鞨), but settled in Yanbian(延邊) area, the onetime area of Baishan-mohe after they defeated Li kaigu in Tianmen Mountains. When the state of Balhae was founded, the main forces of taking part in founding the state included two groups and three parts: Baishan-mohe group led by Qiqizhongxiang and Tae cho-yong, shumo-mohe group led by Qisibiyu, and the Koguryo remnants. After Qisibiyu was murdered, Tae cho-yong united these three parts and became the factual founder of the state of Balhae.

In the early period of founding state, the people of Balhae naturally named their country as the state of Chin(振國), "Balhae mohe(渤海靺鞨)", "Mohe state(靺鞨國)", "Koryo state" and "the Koryo king" were all the records of the periphery countries at that time,

showing their learning of Balhae. As some researchers pointed out, Mohe was not the appellation of the Mohe(靺鞨) tribes, but the slander appellation that the historia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named “Beidi(北狄)”. Parhae itself might not use such insult names as their own title of the state.

keywords

Balhae, Year of founding state, Location of founding state, Groups of founding state, Title of the State

서평



『渤海國交通運輸史研究』

(尹鉉哲 著, 2006, 北京: 華齡出版社)

김 은 국 |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I. 머리말

발해는 동아시아 역사상 7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주변국가와의 다양한 교류와 교통을 연결하여 준 개방된 국가이다. 발해는 고왕 대조영이 698년 동모산에 건국의 기치를 내건 후 220여 년간 해동성국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 기간 중 발해는 그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 국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다. 중원의 당나라와 돌궐·거란 등의 북방민족, 남쪽의 신라, 동쪽으로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다양한 교류를 전개하였던 역동적인 국가였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외교통로의 설치이다. ‘압록-압록도(조공도)’, ‘남해-신라도’, ‘장령-영주도’, ‘부여-거란도’, ‘용원-일본도’의 5개 교통로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 발해는 주변국과 활발한 대외교류를 추진하여 갔다. 발해국의 성격은 당시 아시아 대륙의 역동적인 국가교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 다만 발해사의 경우는 10

1) 5개의 교통로 외에도 발해는 실크로드의 연장선과 같은 ‘담비의 길’ 등 교역루트가

세기 중반 턱에 거란의 대규모 침공으로 말미암아 왕계가 단절된 후부터는 당시 주변국의 기록 속에서도나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록의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금은 발해유적과 관련 기록 두 가지 모두에 객관적이고 공통된 인식을 전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당시 발해사의 역사영역이 현재는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녘에 걸쳐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인 자국 중심적 역사인식의 강조로 발해사의 경우 남북녘의 발해사를 보는 인식이 중국·러시아·일본 등지에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²⁾ 그러한 의미에서 발해 교통로의 연구는 발해를 통한 동아시아 인식 공유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현철 교수의 저서 간행은 발해사 연구자에게 또 하나의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발해사 연구의 책임감에 하중을 더해 주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번 윤 교수 저서에 대한 서평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저자尹鉉哲 교수는 현재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원 역사계 소속으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³⁾ 연변대학 부교수로 부임하면서 후학 양성을 물론 연변학계뿐 아니라 발해사 관련 대표적 학술지인 『발해사연구』(연변대학출판사) 간행과 편집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연변학계 내 소장 발해사 연구자 가운데 한 분이다.

윤 교수는 익히 앞서 소개한 『발해사연구』를 통해 중국의 여러 논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해사 연구를 중국학계에 소개해 주어 한국과 중국의 발해사 연구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이다. 또 일찍이 북녘 발해사학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인해 북녘의 연구성과 역시 소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북한 금성 화대리 발해벽화고분

발굴 소식 전달이 그것이다.⁴⁾

현재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한 발해사연구는 비록 1940년대 貞惠公主墓 발굴 때와는 변화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중국 내에서 중국의 ‘多民族統一國家理論’에 입각한 발해사 연구에 대해 현지 유적을 같이 대하며 적극 반박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많은 동포 사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해 중국 내 발해유적과 발해사의 정체성 확보 노력에 힘쓰고 있다. 역시 저자는 다양한 논고를 통해 한국학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그 연구성과가 알려졌을 정도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자의 논저를 보면 중국의 논저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단계에서 이름을 친숙하게 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성과도 소개하고 있다.⁵⁾ 이후 윤 교수는 『발해사연구』 제9집(2002)에서 정영진의 주편 아래 副主編을 맡았으며, 제10집(2005)에서는 정영진과 공동 主編이 되었다. 연변의 발해사학계를 일별하면 방학봉 교수의 제1세대와 정영진 교수 등을 축으로 하는 제2세대, 그리고 저자 등이 중심이 되는 제3세대로 발해사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윤 교수의 연구는 바로 연변 역사학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심

4) 尹鉉哲·李碩, 2005, 「朝鮮境內首次發掘渤海壁畫墓」, 『渤海史研究』10, 延邊大學出版社.

5) 『발해사연구』에 실린 그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왕림안 저, 윤현철 역, 1996, 「발해국 화폐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발해사연구』7, 연변대학 출판사; 종장해 등 저, 윤현철 역, 1996, 「“련꽃 석등탑”이라고 함이 비교적 정확하다」, 『발해사연구』7, 연변대학 출판사; 손수인 저, 윤현철 역, 1999, 「발해국의 24개돌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정영진 저, 윤현철 역, 1999a, 「정효공주 무덤의 건축연대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정영진 저, 윤현철 역, 1999b, 「발해정효공주무덤에서 출토된 한 장의 문자벽돌에 대한 수정」,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관금천 등 저, 윤현철 역, 1999, 「련꽃 석등탑은 발해국 상경의 유물이 아니라 룡금 시기에 지은 것이다」,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왕림안 등 저, 윤현철 역, 1999, 「발해의 상경유지에서 두 번째 사리함이 출토」,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또 김민지·이순원 저 윤현철 역, 2002, 「石國墓 出土 渤海 三彩 女俑의 복식 연구」, 『渤海史研究』9, 延邊大學出版社.

다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은국, 2006a, 「8~10세기 동아시아 속의 발해 교통로」, 『韓國史學報』제24호, 高麗史學會, 371~404쪽 참조.

2) 발해사 인식의 종합적 접근에 대해서는 김진광 등, 2007, 「Ⅶ. 발해사 관련 자료와 인식」,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74~460쪽 참조.

3) 윤현철, 2003, 『발해유해운사연구』, 평양: 조선사회과학출판사.

축이다. 아울러 저자의 최근 대표 논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윤현철, 1999, 「발해국의 “국인”의 성질에 대하여」,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 윤현철, 1999, 「연변지구의 발해시기 산성유적에 대한 조사」, 『발해사연구』8, 연변대학 출판사.
- 윤현철, 2000, 「渤海國의 火炕遺址考」, 『渤海文化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윤현철, 2003, 『발해육해운사연구』, 평양: 조선사회과학출판사.
- 윤현철, 2003, 「발해의 간선도로 역참포치를 본받은 후기 신라의 간선도로 역참포치」, 『역사과학』4호, 39~41쪽.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저서는 필자의 그간 연구 성과의 집대성인 셈이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서 연변학계를 통한 발해사의 국제적 연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서평이 부디 저자의 노력과 수고에 걸맞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

먼저 목차를 통해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緒論
- 第1章 渤海國建立之前的交通運輸
- 第1節 古朝鮮的交通運輸
- 第2節 高句麗時期的交通運輸
- 第2章 渤海國의 疆域
- 第1節 大祚榮時期的疆域
- 第2節 大武藝, 大欽茂時期的疆域
- 第3節 大仁秀以後의 疆域
- 第4節 渤海國의 五京地理
- 第3章 渤海國初期(舊國時期)의 交通運輸
- 第1節 舊國時期的國內交通道
- 第2節 舊國時期的對外交通道
- 第4章 8世紀後半期~10世紀初의 陸運
- 第1節 渤海國의 主要干線道路

- 第2節 驛路
- 第3節 上京龍泉府의 道路
- 第4節 運輸手段
- 第5章 水站運輸與海上運輸
- 第1節 水站運輸
- 第2節 海運
- 第3節 運輸手段
- 第6章 渤海國의 “絲綢之路”
- 第1節 渤海國在 “絲綢之路” 上的 中介作用
- 第2節 通過渤海國 “絲綢之路” 進行的貿易
- 第3節 渤海國與日本交往中的遺跡和遺物
- 結語
- 參考文獻

II. 책의 내용

1. 내용 소개

앞 장에서 이 저서의 출간을 즈음하여 현단계 연변사학계의 발해사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각 장과 절의 개략적인 요지를 필자의 소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緒論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서평의 첫머리와 같이 발해국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발해 존속 기간, 그 강역은 현재 중국 동북지구와 한반도 북부 및 러시아 연해주의 광대지구를 포괄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주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발해국은 건국 초기에 ‘振國’ 혹은 ‘震國’으로 칭하였고, 713년에 이르러 당나라에 의해 ‘渤海郡王’으로 책봉되어, 드디어 ‘渤海’로 개칭했다. 제3대왕 대흠무 시기에 이르러 ‘渤海國王’으로

책봉되었으며, 발해국은 건국자 대조영으로 시작하여 모두 15대왕을 거쳤고, 전국 안에 5경·15부·62주를 설치하였고, 전성기에는 ‘해동성국’으로 각국 내외에 이름을 떨치며, 중세 역사상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번영발전 시기를 개창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결과물 속에 나타난 발해를 靺鞨國의 역사로 보는 시각과는⁶⁾ 차별되는 것으로, 연변학계의 발해사 인식은 남북녘의 그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궤 속에 다룰 수 있다.⁷⁾ 저자는 중국 내의 발해사에 대한 연구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차 고조기는 1920~1930년대에 출현하였고, 제2차는 1940년대 貞惠公主墓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敦化 六頂山墓群과 上京龍泉府遺址의 발굴에서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를 제3차 고조기로 보았다. 그중에서도 1980년대 정효공주묘의 발굴은 이 시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다. 현재 발해사 연구는 중국, 남북녘, 일본, 러시아 등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그 중심 주제로 발해사의 귀속, 지리고증, 대외관계, 고고 조사 및 연구, 사회내부의 각종 상태, 유민의 활동 등을 들고 이들 다양한 주제 가운데 고고학 영역이 상당량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중 저자가 전공으로 삼은 교통운수 방면의 연구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연구가 심도있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저자는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던 것은, 국력의 강성과 경제문화의 발달에 기인할 뿐 아니라, 육해운 교통이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6) 동북공정 결과물로 출간된 魏國忠·朱國忱·郝慶云, 2006, 『渤海國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의 경우 제1장 말갈국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학계의 발해사 서술에서 공통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震(振)’이라는 건국 당시 국호가 중국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靺鞨’을 처음부터 발해의 국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김은국, 2006b, 「중국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65~233쪽 및 유용태, 2007, 5,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논리와 그 연원 : 소통을 위한 성찰」, 『동북아를 보는 눈 :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전문가 심포지엄 논문집, 70~78쪽 참조.

7) 최근 중국 동북공정상에 나타난 발해사 인식에 대해서는 김은국, 2007, 5, 「중국의 동북공정상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아시아문화연구』 제12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발해국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해국의 교통운수 방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해인은 초기부터 인접하는 주변국가를 연결하는 5개의 간선도로와 지방 행정통치 단위를 연결하는 도로간선을 건설하여 역참 망에서의 확대를 통해 교통운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발해는 이처럼 발달한 교통운수를 대외정치와 무역활동에 전개하여 발해가 동아시아 교류상에서 주도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에서는 발해의 육운(陸運)과 해운(海運)에서의 고도 발전은 통일된 운수 선(線)을 편성하고, 국가의 교통운수 발전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개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이처럼 발해사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교통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진솔하게 밝히고 있어, 내용 이해에 유용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주제

다음으로는 저자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정리이다. 앞서 들었듯이 발해사 연구가 매우 풍부하여 이미 다방면에서 그 성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도 있다. 저자는 그 역사적 원인을 발해국의 강역이 현재 중국·북녘·러시아의 3개 국가로 나누어 있는 데서 찾는다. 이것은 물론 발해사가 국제성을 띤 연구 과제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본문 중에서 당시 발해국 주변국가의 유관기사와 후세 기록을 기초로 하여, 선행이 취득한 연구성과와 고고발굴 자료에 의거해 교통도로의 역사 유적과 관련 사실 및 부근 지리조건을 대응시켜 발해국의 육해운사(陸海運史) 서술을 시도하고, 특히 발해국 ‘실크로드’의 관점을 제출하였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발해국 건국 전의 교통운수」, 제2장은 「발해국의 강역」, 제3장은 「발해 건국 초기(구국 시기)의 교통운수」, 제4장 「8세기 후반기~10세기 초의 육운」, 제5장 「발해국의 수참운수와

해상운수, 제6장 「발해국의 '실크로드」 등이다.

그리고 각 장·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중에서 발해국의 교통운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편의를 위하여 발해국 창건 전의 그 강역 내의 선행국가인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교통운수 논술을 진행하였다.

제2장 중에서는 발해국의 교통운수 상황의 이해 편의를 위해 국내의 학계의 발해국 강역 및 5경·15부·62주에 대한 몇몇 관점을 종합 고찰하였다.

제3장은 발해 건국 초(구국 시기)의 교통운수 상황이다. 발해국의 육해 운수사는 두 시기로 나누어 제1절은 구국 시기에 대한 국내교통운수 고찰을 진행하였다. 『신당서』 발해전 중에 보이는 상관 강역의 기재를 통해서 도로망 편성을 다룬 것이다. 발해국의 강역이 고구려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발해국은 고구려의 대부분 영토를 계승함으로써 말미암아, 관할 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과 도로망이 서로 중첩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구국 시기에는 특히 인접 60여 주의 행정·군사도로망과 역참을 완성하여 본토의 교통운수를 고도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동북부 영토 및 주변의 육운을 고도로 발전시켜 발해국이 상경용천부로 천도한 이후, 곧 이에 대해 진일보한 확대와 발전을 진행시켰다고 하였다. 제2절에서는 唐과 日本을 왕래한 대외교통로를 고찰하였다. 먼저 구국 수도에 대한 위치를 고찰하여 현재의 敦化市 永勝 遺址와 城山子山城, 敖東城 일대를 포괄하지만, 수도의 중심은 '영승'에 있다고 보았다.

저자는 위의 분석을 통해 발해국이 건국 이전부터 내려온 고조선과 고구려의 교통운수의 전통과 성과를 계승하여 흑룡강 유역의 교통운수를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唐, 日本 등과도 이어지는 국내 간선도로망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음을 밝혔다.

제4장은 8세기 후반기~10세기 초 발해국의 육운에 대한 것이다. 제1절에

서는 발해국 5조의 기본간선도로를 고찰하였다. 발해국의 간선도로는 발해국의 '실크로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에 연유하여, 그 노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8세기 중엽 이후로 접어들어 발해국은 점차 5개의 국내 간선도로망 및 주변 각국과 이어주는 대외교통도로를 발전시켰다. 이 5개의 교통도, 즉 日本道·新羅道·鴨綠道·營州道·契丹道는 발해국의 대내외교통도로 중에 빈번히 사용한 도로이며, 주변국을 연결시켜주어 정치·경제·문화 등의 교류와 발전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후 각 교통로의 구간을 설명하여 주고 각각의 의미를 재음미하여 주었다. 발해의 5개 기본 간선도로는 국내 도로망의 중심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사통팔달의 대외무역로와 교통로로 더욱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에서는 24塊石遺址에서 발견되는 驛站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역참 관련 운수도로를 발전시켜 국가 교통운수를 더욱 진일보 확대시켰으니 '해동성국'의 이름을 구가하며 북방 '실크로드' 중에서 주도 작용을 하는 데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제3절은 발해 上京龍泉府의 도로에 대한 고찰인데, 도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로 5개의 기본 간선도로를 설치한 것 외에도 지방의 큰 城市 중에도 도로를 설치하였음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발해국의 육상운수 공구에 대해 고찰했다. 발해국 시기 육로 운수 중에는 畜力車를 많이 사용하여 역참 중에 牛車는 운수를 보강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제5장은 발해국의 水站運輸와 海運에 대한 고찰이다. 발해국의 교통운수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水站운수와 海運로, 이 역시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발해국의 수참운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은 江河(黑龍江) 및 그 지류상의 水站운수, 해운에서의 활약인즉, 南海(북녘의 동해)에서의 航行이라 했다.

먼저 제1절은 발해국의 水站運輸에 대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水站運輸網은 흑룡강 주류 및 지류 水站驛에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제2절은 발해국 海運에 관한 것이다. 東海는 발해국 시기에 南海인데, 그

곳과 西海(渤海를 포함)상에서 진행한 것이다. 발해국의 海運은 이들 간에서 출발과 도착 港 및 인접하는 주변 항로, 그리고 발해 사절단에 대한 선박의 大小, 航海季節, 航海技術 등을 고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발해국의 항해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고, 남해의 항해 중 계절풍의 이용에 능하였음도 부각시켰다.

제3절은 발해국의 水上運輸工具이다. 운수를 진행하는 중심이 각종 선박이다. 발해의 항해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박의 제조이다. 발해를 이를 통해 바다를 건너 대규모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6장은 발해국 '실크로드'(러시아는 '貂皮路'라 부른다)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해국의 주도하에 발해국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진행하는 運輸, 通訊과 발해 '실크로드'상의 무역 등의 중요작용을 논하였다. 당시 발해국은 고도로 발전된 항해기술을 토대로 하여 해상활동을 안정성 있게 전개하여 당조와 일본 등 동북아 지구의 많은 국가와 민족이 발해국의 교통공구를 이용하여 상호 간의 경제문화교류를 전개토록 하였다.

이처럼 발해국의 '실크로드'상에서 주도 작용을 한 것은 바로 渤海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중 鴨綠朝貢道, 長嶺營州道, 扶余契丹道는 동북아지구에서 서남향으로부터 동북으로 연장하는 3개의 간선도로로, 발해국 '실크로드'의 기본도이며, 鴨綠朝貢道가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간선도로인 것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발해국의 교통운수가 고도로 발전한 원인을 4가지로 들었는데, ① 발해국은 그 선행국가인 고구려가 陸海運 중에서 취득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沿用한 점, ② 발해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한 점, ③ 발해국의 사회생산력이 제고되어 상품유통이 신속하게 확대된 점, ④ 발해에 畜力車, 船 등의 탁월한 운수 수단이 보급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발해국은 고도로 발전한 교통운수의 여러 요소를 구비하였고, 고도로 발전한 발해국의 陸海運은 國內交通運輸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북아 교통운수 발전에서도 커다란 공헌을 해주었

다고 밝혔다.

나아가 8~9세기에 형성된 발해국의 '실크로드'는 동서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무역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해주었음도 강조하였다.

III. 책의 한계와 문제제기

이상으로 장·절별로 논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는 이 책에 대한 한계를 옥에 티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저자는 제1장 「발해국 건립 전의 교통운수」 중에서 발해국의 교통운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편의를 위하여 渤海國 創建 전의 그 강역 내의 先行國家인 古朝鮮과 高句麗에 대한 交通運輸 논술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제1장의 첫머리에 보면 현재 중국의 발해사 인식 틀이 보이고 있다. “我國(中國)은 歷史上 統一의 多民族 國家이다. 각 형제 민족이 비록 문화발전의 정도가 다르지만 모두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어,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라는 점이다.⁸⁾ 이러한 시각은 중국이 최근 ‘동북공정’이라

8)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중국 수립 이후 5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현상을 긍정하고, 그들을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창안되었다. 중화민족이나 강역 개념을 역사에 결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제기한 것은 1980년대였다. 1981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민족관계사연구 학술좌담회에서 翁獨健과 白壽彝가 “역사상의 중국은 소수민족이 건립한 국가와 정권도 포함”하며 “중국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민족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1988년 費孝通이 중화민족의 多元一體格局論으로 발전시켰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자리잡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진이 처음으로 형성하였고, 위진남북조까지의 초급단계, 수·당과 송·요·금의 발전단계, 원·명·청의 확립단계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평등하고 우애가 넘치는 大家庭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민족은 역사발전에 위대하게 공헌했다고 한다. 안병우, 2007, 「총론 - 중국의 변강 인식과 민족갈등」,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한신대학교 출판부, 43~44쪽.

는 정치학술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논리로서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논리를 통해 통시대적인 중국사 편입작업과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 확보라는 양면적인 접근과 일맥이 통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규정인 것이다.⁹⁾

아울러 이 책의 큰 약점은 제2장 「발해국의 강역」에 있다고 본다. 이 글은 발해 교통운수사의 전개에서 서론 격에 해당하는 글로서, 그중 大祚榮 시기, 大武藝·大欽茂 시기, 그리고 大仁秀 이후의 시기의 발해 강역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미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지 연유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글이 이미 나와 있어,¹⁰⁾ 서평에 임하면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향후 이 글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 부분의 글에 대한 좀더 분명한 평은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발해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분이다. 가령 제4장 「8세기 후반기~10세기 초의 육로」에서 저자는 발해국 정권 수립 과정을 통해 발해 정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즉 “발해국의 건립은 天時, 地利와 人和를 얻어 가능하였던 것이 그 특징”이라 했다. 곧 天時は “동북아의 사회모순과 투쟁 과정 중에서 출현한 거란족 중심의 反唐起義, 突厥의 東北交通에 대한 遮斷 등이 渤海國政權의 건립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地利란 “대조영이 처음 정권을 세운 敦化地區가 中原과 高句麗 거리가 가까워 사회경제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점을 들어, 정권을 건립하는 경제기초를 구비”하였다는 것이다. 또 人和란 “발해 발전은 말갈인과 고구려 유민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발달한 지구의 생산방식과 문화를 아울러 구비하고 고구려와 당의 매우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계승하여 이 정권의 출발이 비교적 높은 기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¹¹⁾

9) 김은국, 2006c, 「발해의 왕위계승과 簡王」, 『中央史論』 제23집, 한국중앙사학회, 67쪽 참조.

10) 尹鉉哲, 2006, 「제2장 발해국의 강역」, 『渤海國交通運輸史研究』, 華齡出版社, 33~68쪽의 내용은 정영진, 2002, 「渤海의 강역과 五京의 위치」, 『한국사론』 34: 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국사편찬위원회, 69~122쪽의 내용과 동일한 글이다.

11) 尹鉉哲, 2006, 위의 논문, 106쪽.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역시 중국 중심적 시각의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天時의 경우 反唐起義에서는 거란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 역시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구려 멸망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며, 발해 건국은 그러한 움직임의 결과인 것이다. 지리와 인화의 경우에도 고구려보다는 당의 문화 요소가 강조됨으로써 발해의 정권 자체가 당의 예속 정권처럼 보일 수 있는 점이다.¹²⁾

그리고 발해국 교통운수사를 실크로드 관점에서 서술하는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해국이 ‘실크로드’상에서 주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5개의 교통로 중에서도 鴨綠朝貢道, 長嶺營州道, 扶余契丹道를 渤海國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보면서 鴨綠朝貢道를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조공도’는 발해가 당의 조공국이었다고 보는 중국의 동북공정류 역사인식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오히려 5개 교통로 전체를 저자가 파악하는 발해 실크로드의 支線으로 봄이 어떨까 한다.¹³⁾ 그런 의미에서 발해는 다양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주변국과 당당한 외교를 전개하며 그 위상을 높였고, 발해의 교통로는 ‘실크로드의 동단(東端)’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저자의 서술에서 ‘南北國時代論’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문 속에서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北國’ 관련 내용은 소개하였지만, 정작 新羅道와 함께 발해와 신라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국시대론’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 기대되는 것이다.

12) 이러한 중국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구려 계승성에 대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목되는데, 여기에는 강역, 주민구성, 유적과 유물, 문화 제분야에서의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성 연구가 참조된다. 정진현 외, 2005,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고구려연구재단 등의 논저 참조.

13) 이와 관련하여, ‘조공도’를 발해 입장에서 ‘압록도’ 등의 이름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제안은 참조가 된다. 한규철, 2004, 「韓國古代學會 2004년 추계학술회의 토론회 요지」, 『先史와 古代』 21, 한국고대학회, 94쪽.

14) 김은국, 2007, 「발해와 그 밖의 민족과의 관계」,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73쪽.

IV. 맺음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발해국이 적극적으로 주변나라의 문화를 흡수하여 상경용천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 및 러시아 남 연해지구와 한반도 북부의 영역에서 '해동성국'의 위용을 구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하게 발달된 교통운수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발해국이 고도로 발전한 교통운수의 여러 요소를 구비하였고, 고도로 발전한 발해국의 陸海運은 국내 운수교통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북아 교통운수발전에서도 커다란 공헌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8~9세기에 형성된 발해국의 '실크로드'는 동서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무역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해 주었음도 강조하였다.

여기서 평자는 저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해의 교통로가 실크로드의 '동단(東端)'임을 밝혔다.

비록 앞서 들었듯이 옥에 티가 되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서 출간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본서는 향후 발해사 연구에서 한국을 비롯한 발해사 연구동향을 파악할 때 중국과 일본, 또는 연변과 북한 등의 발해사 연구 성과를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특히 북녘에서의 수학을 통해 북녘 내 발해사의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발해사 연구서를 대하는 것이다. 남녘과 영역을 맞대고 있는 북녘에서의 발해 연구는 어쩌면 해당 유적지에서 역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저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책은 현재까지 연변학계의 발해연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안내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의 글은 발해를 동아시아 속에 뚜렷이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실크로드 관점에 서서 다룸으로써 그간의 발해 교통운수 연구와 차별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역시 연변 학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재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의 시각과 주변의 그것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앞으로 남측의 발해사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족을 달면, 향후 중국에 소재한 발해유적의 다양한 발굴 성과와 해석이 한국을 포함한 발해사 연구자에게도 좀더 신속히 파악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문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의 해석은 동아시아에서의 발해사 위상 정립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외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 내규)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C)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1)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증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증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집필자 (집필순)

정병준(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윤현철(중국 옌벤대학 발해사연구소 부교수)

김윤배(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권용인(발해1300호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이소희(발해1300호 지원팀장)

박홍갑(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김동우(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병진(동원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남의현(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이재정(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조교수)

정영진(중국 옌벤대학 발해사연구소 소장)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 편집위원

위원장 :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실장)

위 원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현혜(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시아사논총 16호(2007. 6)

초판 1쇄 인쇄 2007년 6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6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시아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시아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